

고성박물관

우리 동네

우리



관



이선국 편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문화원 부설 고성학연구소



저자 **이선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태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성군청 지방공무원으로 40년 봉직 후
지방부이사관으로 퇴임

2012년 제3회 계간<문학청춘>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강원문인협회 회원, 문학
청춘작가회 회원, 강원도공무원문학회 회원
고성문화회 초대 회장, 물소리時낭송회 대표를
역임

저서로는 <길에서 금강산을 만나다>, <구술로
보는 지방행정공무원 40년사>, <고성지방의
옛날이야기>, <송지호와 왕곡마을, 선유담>,
수필집<짬바리를 아시나요> 등 다수가 있으며
공저로는 <금석문조사보고서>, <지명유래지>,
<수성문화제 40년사>, <고성과 나> 등 다수

고성방언연구

우리 동네

우리 방 언



故愚民有
 伸其情者多矣予
 新制二十八字欲為
 習便於日用矣
 君字初發聲
 為龜鼃다야為區자레為汲
 可如음의為意의출為稷기
 為雨繼즈런為悅이鉅호미
 為佛寺出為種이飯난為饑
 如닥為猪도為甕如ㅅ為
 蟬螳을창為蜉蜉ㄷ為銅이如





故愚民有所欲言刊為赤
 仲其情者多矣予為牆上
 新制二十八字欲為獼猴
 習便於日用矣

如左

譬如

君字初發聲

三不為養水菜下如如呂為

口味為區才利為汲

為看家益為撥引

為

為

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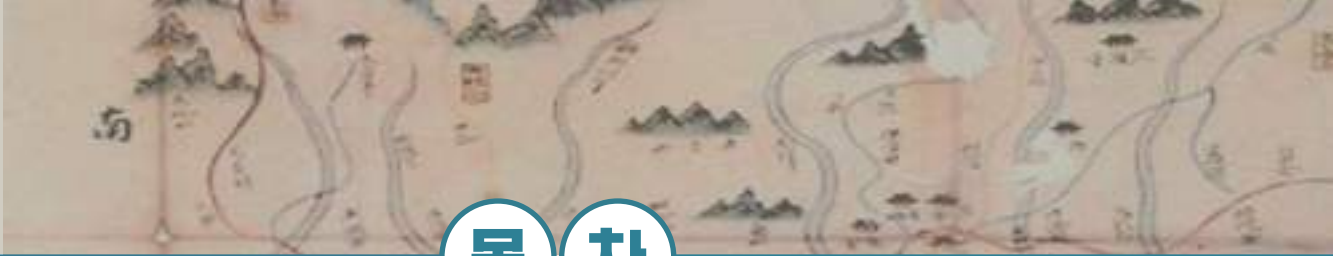
為

為

為

為

為



목 차

서문	8
----------	---

제1절 개관	11
--------------	----

1. 개념	13
-------------	----

2. 방언의 연원 및 구획	16
----------------------	----

가. 지리적 연혁	16
-----------------	----

나. 방언의 연원	19
-----------------	----

다. 방언의 구획	21
-----------------	----

(1) 한국어 방언권	22
-------------------	----

(2) 김형규의 방언 구획	22
----------------------	----

(3) 김영환의 방언 구획	22
----------------------	----

(4) 김병제의 방언 구획	23
----------------------	----

(5) 강원도의 방언권	23
--------------------	----

제2절 음운 체계 및 현상	25
----------------------	----

1. 음운 체계	2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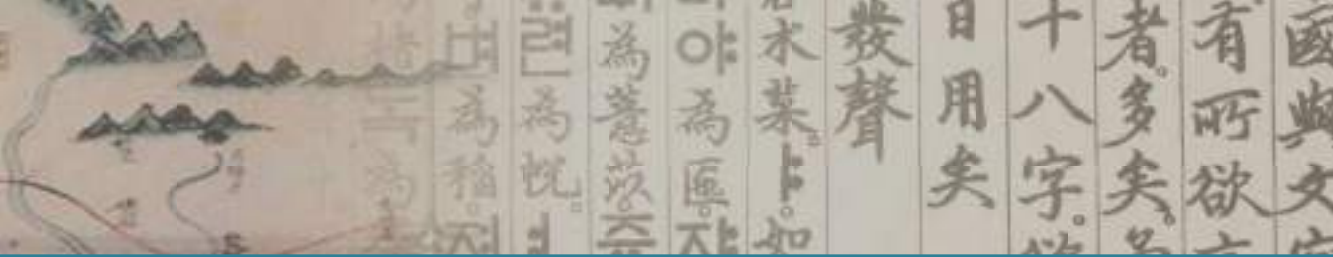
가. 자음	27
-------------	----

나. 모음	29
-------------	----

(1) 단모음	30
---------------	----

(2) 이중모음	31
----------------	----

(3) 비모음	32
---------------	----



2. 음운 현상과 규칙	33
가. 자음의 보존	33
(1) ‘ㄱ’의 보존	33
(2) ‘ㄴ’의 보존	34
(3) ‘ㄷ’의 보존	34
나. 구개음화 현상	35
(1) ‘ㄱ/ㄴ/ㄷ’ 구개음화	35
(2) ‘ㄷ/ㅌ’ 구개음화	35
(3) ‘ㅎ’ 구개음화	36
다. 모음의 변이	36
(1) 자음에 의한 변이	36
(2) 모음에 의한 변이	37
(3) 무조건적인 변이	37

제3절 조사 및 어미의 방언

41

1. 조사의 방언 형태	43
가. 격조사	43
나. 보조사	43
2. 연결어미 및 종결 어미의 실현 양상	44
가. 방언의 연결어미	44
나. 방언의 종결어미	44
(1) 평서형	44

(2) 의문형.....	45
(3) 명령형.....	45
(4) 청유형.....	45
다. 방언의 용언 활용.....	46
(1) 표준어의 ‘ㄷ’ 불규칙.....	46
(2) 기타의 활용 양상.....	46

제4절 방언 설문조사 집계 및 분석..... 49

1. 개황..... 51

2. 읍·면별 분석..... 54

가. 가족관계 호칭.....	54
나. 일상생활 용어.....	55
다. 생활용품의 명칭.....	57
라. 주거 관련 명칭.....	59
마. 음식 등의 명칭.....	61
바. 의복(옷)의 명칭.....	62
사. 가구 등의 명칭.....	63
아. 농기구 등의 명칭.....	64
자. 곡식 등의 명칭.....	66
차. 소채류, 과일과 식물 등의 명칭.....	67
카. 곤충 등의 명칭.....	68
타. 파충류 등의 명칭.....	70



파. 물고기 등의 명칭	71
하. 어구 등의 명칭	73
거. 길짐승 등의 명칭	74
너. 날짐승 등의 명칭	75
더. 시후(날씨와 계절) 등의 명칭	76
러. 지리(地理) 등의 명칭	77
머. 방위(方位) 등의 명칭	78
버. 수치 관련 명칭	79
서. 용언과 관용어 등	80

3. 농·어촌 지역별 분석	84
가. 농촌지역	84
나. 어촌지역	88
다. 기타 지역	93

4. 설문 응답자 기본문항 분석	97
가. 거주 지역	97
나. 산업별 분포	97
다. 출신 지역	98
라. 거주 기간별 분포	98
마. 응답자 연령	98

부 록 방언찾기(사전)	217
---------------------------	-----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했다. 여기까지 오는 데 무려 15년이 걸렸다. 부족하고 미진하지만 혼신을 다해 파랗게 불태웠다. 조금은 후련하다. 나의 지역사 회 공헌 활동은 여기까지일 것이다.

언어는 공동체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다. 그 언어를 통해 지금까지 지역공동체의 맥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그 언어는 시간이 다하면 사람처럼 땅에 묻히고 하늘로, 바다로, 우주로 날아간다. 존재하는 동안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방언에 대한 기록은 분명 필요하고 그 연구 역시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언어의 사회적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고, 그 지역 역사의 뿌리와 문화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 언어, 지역공동체의 언어는 사람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죽은 것처럼 말도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성되고 생활환경의 변화와 영향에 따라 진화와 변화, 소멸, 그러한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주변에는 지금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생성·진화하거나 사라지는 경우를 늘 경험하고 있다. 그의 변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끔 오가는 사람들이 필자에게 “여기 사람 맞냐”고 묻는다. 이 동네 사투리를 잘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사투리 사용이 적은 편이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태어났고 군(軍) 복무 삼년 시간 외에는 결코 이곳을 떠난 적이 없는 토박이 중 토박이다. 어렴풋이 그건 부모님과 학교 교육, 40년 공직 생활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다.

이번 작업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국어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전문지식도 없이 이 작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로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는 작은 사명감과 열정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간 선행 작업을 해 오신 분들께 깊이 감사한다. 솔직히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도 턱없이 부족하고 연구 경험도 전혀 없는 무모한 선택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말에 대한 공부 역시 내가 얻은 적지 않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 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온전한 뿌리와 정신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있다면, 반쪽 고성의 언어는 6.25 한국전쟁 이후 단절되었고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동질감보다 이질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유감스럽고 답답하다. 그건 이제 숙제로 남겨두어야 할 일이다.

이번 작업을 함께 시작했던 고성문화포럼 동지 김형익, 김은영, 안수남, 홍의현, 옛 직장 동료였던 고성군청 문화공보계 황광율, 최영봉, 남동환, 박상율, 故 김한,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전임 주기창 고성문화원장님 이하 임직원, 김미선 팀장, 그리고 고성학연구소와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5월 일

이 선 국 씀

제1절 개 관



1. 개념

언어는 인간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문자·몸짓 등의 수단 또는 그 사회 관습적 체계를 말한다. 한 언어 안에서 발음·어법·의미 등이 서로 다르며 그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진 말을 방언이라고 말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서울말’이 표준어의 원칙이라는 표현은 결국 표준어도 어느 한 지역의 방언이라는 점이다.

이 방언을 사투리라고도 하며 흔히 표준어와 대립하여 사용한다. 공식적인 자리나 방송 같은 곳에서는 표준어를 쓴다. 때론 표준어를 쓰지 않고 왜 사투리를 쓰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어가 방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거나 세련되거나 절대적인 말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때와 장소에 맞춰 적절히 사용되어 온 것이다.

결국 방언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연고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역공동체의 의사소통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에 녹아 있는 문화의 속살과 같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언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구분하지만 우선 일정 지역을 배경으로 분화·변천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문화 영역의 지역 구획을 기준으로 연구·관찰되어 왔다.

박성종 교수의 저서『강원도 영동지역의 방언』(2008년, 제이앤씨)에 따르면 북부영동방언권은 고성지역을 포함하여 속초와 양양군현남면 기사문 이북 지역을 의미하고, 강릉방언권은 양양군 현남면 기사문이남 지역을 포함하여

강릉과 동해시 묵호동 지역까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부영동방언권에 속하는 고성 방언은 양양 방언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지리적으로 고봉준령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해안에 연접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와 교통의 제한으로 온전한 지역 방언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교통 불편이 점차 해소되고 교류도 활발해져 다른 지역 방언의 간섭과 분화를 거듭하면서 독특한 지역방언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지형적으로 비슷한 여건이지만 농어촌 중심의 고성지역과 농촌중심의 양양방언은 생활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요인 등으로 유사하지만 방언의 미세한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지역은 1945년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 편입되었지만 고성지역의 경우는 6.25 한국전쟁 직후 접경지역에 위치하게 되었고, 강원도 동해안 북부지역과 함경도 지역 실향민, 전재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함경도와 같은 북방지역 방언이 토착 방언과 병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방언의 위치를 갖게 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 방언권역으로 볼 때, 고성방언은 중부권에 해당함으로 표준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인식하기 쉽지 않다. 즉 위도 상으로 서울이 속한 중부지방에 속해 표준어에 가깝고 학습과 소통 매체의 발달로 표준어 사용에 익숙하면서 토속적인 우리 방언의 설자리가 좁아졌다. 뿐만 아니다. 문명의 발달로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문화가 사라지면서 동시 말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사용하던 원주민들이 고령으로 세상을떠나면서 방언이 소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새로운 언어들도 끊임없이 생성·진화·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성방언은 독특한 억양과 어투, 어감 등으로 인해 1970년대 이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북한 말씨로 오해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2. 방언의 연원과 구획

가. 지리적 연혁

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예부터 고성군의 해안과 낮은 구릉지를 중심으로 선사인(先史人)들이 살았었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에 따르면 상고시대에는 동예(東濊)에 속한 땅이었다.

삼국시대에는「고성」은 본래 고구려의 달홀군(達忽郡) 지역으로 ‘달홀(達忽)’이라고 하고,「간성」은 수성군(遼城郡) 지역으로 ‘가라홀(加羅忽)’ 혹은 ‘가아홀(加阿忽)’이라고 하였다.

757년(신라 경덕왕 16) 12월 지명을 한식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때 수성군(遼城郡)을 수성군(守城郡)으로, 이것의 영현(領縣)인 승산현(僧山縣)을 동산현(童山縣)으로, 익현현(翼峴縣)을 익령현(翼嶺縣)으로 고쳤다. 또한 달홀군(達忽郡)을 고성군(高城郡)으로 고치고, 그 영현인 저수혈현(猪遼穴縣)을 환가현(獐狎縣)으로, 평진현현(平珍峴縣)을 편험현(偏嶮縣)으로 개명하였다.

고려시대 초기 고성군(高城郡)과 수성군(守城郡), 그 예하의 영현(領縣)들은 모두 삭방도(朔方道)에 속하였다가 현종 때 5도 양계가 정비되면서 동계(東界)에 편입되었다.

당초 고성지역은 고성현이었으며, 별호는 풍암(豐岩)이었으며, 환가현(獐狎縣)과 안창현(安昌縣)을 속현으로 두고 있었다.

신라 때 수성군(守城郡)으로 불린 간성현은 고려 때부터 지금의 이름으로개칭되었다. 현령을 두었다가 뒤에 군(郡)으로 승격되면서 고성현의 통치를 겸하였으나 1389년(공양왕 1) 다시 간성과 고성으로나누어졌다. 간성현의 별호는 수성(水城)이었으며, 열산현(烈山縣)을 속현으로 두었다. 고구려 때 승산현이었던 열산현은 신라에서 동산(童山)으로 고쳐 부



대동여지도(간성군)

르고, 고려 때 지금의 열산현 이름으로 바뀌었고, 봉산(鳳山)으로도 불렸다. 1629년 고을에서 역노(逆奴)가 주인을 살해하는 변고가 일어나 간성군(杆城郡)의 이름을 현(縣)으로 강등하였다가 10년 뒤인 1638년 다시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1895년 23부제를 실시하면서 강릉부 고성군(高城郡)은 동면(東面), 일북면(一北面), 이북면(二北面), 서면(西面), 남면(南面), 수동면(水洞面), 안창면(安昌面) 등 7개 면을 관할하였고, 강릉부 간성군(杆城郡)은 군내면(郡內面), 왕곡면(旺谷面), 죽도면(竹島面), 해상면(海上面), 대대면(大垈面), 오현면(梧峴面), 토성면(土城面), 현내면(縣內面) 등 7개 면을 관할하였다. 1896년 13도제를 실시하면서 강원도 고성군(高城郡)과 간성군(杆城郡)으로 각각 출발하였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고성군 전체가 간성군(杆城郡)에 편입되면서 같은 해 4월 1일 고성군에 소속된 동면과 안창면을 병합하여

고성면(高城面)으로, 일북면과 이북면을 병합하여 신북면(新北面)으로 각각 개편하고, 남면이 서면과 수동면에 각각 분리 편입되었다. 간성군에 소속된 해상면은 군내면에 편입되었고, 왕곡면과 죽도면은 죽왕면(竹旺面)으로, 대대면과 오현면은 오대면(梧垈面)으로, 토성면과 현내면을 그대로 두어 9개 면, 124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7년 10월 1일 군내면이 간성면(杆城面)으로 개칭되었다.

1919년 5월 15일「간성군」이「고성군(高城郡)」으로 개칭되면서, 죽왕면과 토성면이 양양군(襄陽郡)으로 편입됐다.

1937년 4월 1일 장전읍의 대부분 지역이 외금강면(外金剛面)으로, 같은 해 7월 1일 신북면이 장전읍(長箭邑)으로 승격되었고, 1940년 12월 1일 오대면(梧垈面)이 거진면(巨津面)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북한 치하에 예속되었다가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시행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권에 들어온 후 1963년 1월 1일 양양군 죽왕면과 토성면이 고성군으로 환원되었다.

2024년 현재 남쪽 고성군의 행정구역은 간성읍, 거진읍, 죽왕면, 토성면, 현내면, 수동면 등 2읍 4면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수동면은 군사분계선에 걸쳐 있는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이번 방언조사연구 구역은 휴전선 이북지역을 제외하고 행정권이 미치는 남쪽, 즉 합병 이전인 옛 간성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나. 방언의 연원

『고성군지(高城郡誌)¹⁾, 2020, 고성군』의 「고성 방언」 수록 내용에 따르면, 고성지역은 옛 고구려 영토였으므로 언어도 고구려어가 기층 언어였을 것이다. 다시 6세기 이후에는 신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므로 한계어(韓系語)인 남쪽 신라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사서(史書)인 『삼국지(三國志)』의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에 의하면, 고구려 언어는 부여(夫餘)의 언어와 비슷하였으며, 옥저(沃沮) 및 예(濊)의 그것과도 비슷하였다고 한다. 고구려어의 자료는 내외사적(內外史籍)에 나오는 고유명사들인데, 그중에서도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가 주된 자료이다. 그곳에는 같은 지명에 대하여 한자의 음(音)을 빌려 표기한 것과 훈(訓)을 빌려 표기한 것이 있어, 이들의 대응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재구(再構)할 수가 있다. 대부분이 한식 명칭(漢式名稱)을 본고구려명(本高句麗名)으로 번역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본고구려명의 일부분과 한식명(漢式名)의 일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일정한 대응 관계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지명에서 확인될 때 그것은 의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대응 관계에서 재구할 수 있는 것은 고구려어의 어휘 요소에 국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어휘와 음운(音韻)에 관한 단편적 지식일 뿐, 문법에 관한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현재까지 얻어진 어휘의 수효는 약 100개 정도로 알려진다.

1) 고성군 마을 지명유래지(고성문화원, 2022년) 23~24쪽 인용

재구한 어휘를 기초로 하여 신라어 및 중세국어·일본어, 만주 및 통구스제어(諸語)와 비교하면, 고구려어의 계통적 위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 고구려어는 신라어, 곧 오늘날의 국어와 일본어, 국어와 알타이제어와의 관계를 이어 주는 교량적 구실을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일신라에 이어 고려에 이르면서 한반도는 정치적 통일체를 이루게 되고, 언어 역시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어에 의한 구심력을 확보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언어지리학(言語地理學)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지역 방언에 대한 관심은 가깝게는 18세기 실학자들의 저술에 나타난다. 『인어대방(隣語大方)』(崔麟齡, 1790)에 “그런 말은 慶尙道 사림의 鄉音이지 서울 사림 訶는 말은 아니오니 말을 비홀지라도 서울 사림의게 비게 訶읍소”(6:20a)라고 하여 서울말과 경상도말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동환록(東寰錄)』(尹廷琦, 1859)의 방언조(方言條)에는 “今嶺湖南人 謂稻曰羅錄”이라고 하여 영호남의 언어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언어학적 의미를 갖는 최초의 방언 구획은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조선어 방언의 연구」(1942)에 의해 현지 조사를 통해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 방언의 구획

(1) 한국어 방언권²⁾

- ① 경상방언 : 경상남북도, 강원일부(울진, 평해)
- ② 전라방언 : 전라남북도(무주, 금산 제외)
- ③ 함경방언 : 함경남북도(영흥 이남 제외) ※ 현 금야군, 요덕군
- ④ 평안방언 : 평안남북도
- ⑤ 경기방언 :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울진, 평해 제외), 함남 일부(영흥 이남), 전북일부(무주, 금산)
- ⑥ 제주방언: 제주도

해방 이후 국어학계에서는 이승녕(李崇寧, 1967) 이후에 꾸준히 방언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역 구획은 우리나라를 동부와 서부로 나눈 가운데, 함경도와 평안도를 북부, 경기도와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를 중부, 호남과 영남을 남부로 나누는 큰 흐름은 같지만 김형규(金亨奎, 1980)와 김영항(1982), 김병제(1988)의 방언 구획은 연구자의 연구 환경과 입장에서 각각 달리 주장하고 있다.



2) 고성군지(高城郡誌) 하권 (2020, 고성군) 335쪽 인용

(2) 김형규(金亨奎, 1980)의 방언 구획³⁾

- ① 경상도 방언 : 경상남북도
- ② 전라도 방언 : 전라남북도
- ③ 함경도 방언 : 정평 이북의 함경남북도, 평안북도 일부(후창군)
- ④ 평안도 방언 : 평안남도, 평안북도(후창군 제외)
- ⑤ 경기도 방언 :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남도 일부
(영흥 이남)
- ⑥ 제주도 방언: 제주도

(3) 김영황(1982)의 방언 구획⁴⁾

- ① 서북방언 :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일부
- ② 동북방언 : 함경남북도, 양강도
- ③ 룡진방언 : 함경북도 룡진지방(경흥, 경원, 온성, 종성, 회령, 부령)
- ④ 중부방언 :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황해남북도 일부
- ⑤ 서남방언 : 전라남북도
- ⑥ 동남방언 : 경상남북도
- ⑦ 제주방언 : 제주도

이러한 방언권 대구획에서 측면에서 볼 때, 「고성」은 강원도에 포함되어 경기방언이나 중부방언으로 분류되고 있고, 강원도 동해안 영동 지역만의 독자적인 방언권 구분에 대한 인식을 찾아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동해안 영동 지역의 언어가 서울말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 나아가 원주나 춘천의 말과도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영동 지역의 화자는 모두 느끼고 있었다.

3) 고성군지(高城郡誌) 하권 (2020, 고성군) 336쪽 인용

4) 고성군지(高城郡誌) 하권 (고성군, 2020) 336쪽 인용

강원도 영동 지역의 토박이 화자인 이익섭(1981)의 저술은 이러한 언어 감각을 바탕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영동방언(嶺東方言)’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표면화하였고, 강원도의 방언권에 대한 구분도 세분화하였다.

(4) 김병제(1988)의 방언 구획⁵⁾

- ① 서북방언 : 평안도, 황해도
- ② 동북방언 : 함경도, 육진
- ③ 중부방언 :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 ④ 서남방언 : 전라도
- ⑤ 동남방언 : 경상도
- ⑥ 제주방언 : 제주도

(5) 강원도의 방언권⁶⁾

강원도의 방언권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영서방언권과 영동방언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영동방언권 중 속초·고성·현남면을 제외한 양양을 북부 영동방언권으로, 강릉·양양·현남면·목호를 강릉방언권으로, 삼척·북평·태백을 삼척방언권으로, 평창·정선·영월을 서남영동방언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강원도 기타지역을 영서방언권으로 구획하고 있다.

(가) 영동방언권(嶺東方言圈)

- ① 북부영동방언권(北部嶺東方言圈): 고성, 속초, 양양(현남면 제외)

5) 『조선언어지리학시고』, 198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6) 고성군지(高城郡誌) 하권 (고성군, 2020) 336~337쪽 인용

- ② 강릉방언권(江陵方言圈) : 강릉, 양양군 현남면, 묵호
- ③ 삼척방언권(三陟方言圈) : 삼척, 북평, 태백
- ④ 서남영동방언권(西南嶺東方言圈) : 평창, 정선, 영월



(나) 영서방언권(嶺西方言圈)

영동방언권을 제외한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강원도 기타 지역을 영서방언권이라고 한다.

학술논문『남북강원지역의 방언구획』(김옥영, 2019)에서는 남북강원도의 방언 구획을 원산방언권, 이천방언권, 통천방언권, 춘천방언권, 고성방언권, 강릉방언권, 정선방언권, 삼척방언권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제2절 음운 체계 및 현상



1. 음운 체계

방언을 이해하려면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을 알아야 한다. 우선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써 분절 음운과 비분절(초분절) 음운으로 나뉜다. 분절 음운은 말소리의 최소 단위로 음소(音素)로써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되고, 초분절 음운은 운소로써 언어에 따라 강약, 고저, 장단 등 변별적 기능을 말한다.

가. 자음체계

자음(子音)은 허파로부터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성대를 지나 구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일종의 장애를 받아 나오는 소리를 가리키는 데 자음의 구별 기준은

첫째, 유성음이나 무성음이나를 나누고,

둘째, 조음위치(調音位置), 즉 기류가 구강 안에서 어떤 부위와 주로 관계하느냐에 따라 구분한다. 양순음(입술소리), 치음(齒音), 치조음(齒槽音)/치경음(齒莖音 혀끝소리 또는 잇몸소리)등으로 불린다.

셋째, 조음방식(調音方式), 즉 소리 내는 방식에 따라 자음을 구분하는 것이다.

자음체계는 반모음 ‘w, j, ɰ’을 제외하면 ‘ㄱ[ʔ]’을 포함하여 20 자음이다. 표준어와 비교하면 성문 파열음인 ‘ㄱ[ʔ]’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반모음 ‘w(ㅍ/ㅑ)’는 조음위치가 양순과 연구개에서 동시에 조음되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한 것이며, ‘j’는 ‘ㅈ, ㅊ, ㅊ, ㅊ, ㅊ’ 등에 나타나는 반모음 ‘ㅣ’이다.

반모음 ‘ㄹ’은 ‘ㄹ’을 상향 이중모음으로 처리하여 반모음 ‘ㅡ’를 설정한 까닭이다.

방법	위치	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파열음	평음	ㅍ[p]	ㄷ[t]		ㄱ[k]	(ㅎ[h])
	격음	ㅍ[pʰ]	ㄷ[tʰ]		ㄱ[kʰ]	
	경음	ㅍ[pʰ]	ㄷ[tʰ]		ㄱ[kʰ]	
	비음	ㅁ[m]	ㄴ[n]		ㅇ[ŋ]	
파찰음	평음			ㅈ[ʧ]		
	격음			ㅈ[ʧʰ]		
	경음			ㅈ[ʧʰ]		
마찰음	평음		ㅅ[s]			ㅎ[h]
	경음		ㅅ[sʰ]			
유음			ㄹ[l]			
반모음		(w)		j	(w), ㄹ	

고성의 자음체계는 표준어와 큰 차이가 없지만, 표준어 자음체계에 들어 있지 않은 성문 파열음 ‘ㅎ[h]’을 설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활용 양상에서 영동 방언에 공통되는 ‘ㅎ[h]’을 설정할 수 있겠지만, 형태론적 현상으로 처리하여 형태음소(形態音素)로 처리하게 되면 음소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⁷⁾

7) 고성군지(高城郡誌) 하권 (고성군, 2020) 336~337쪽 인용

□ 음소 ‘ㅛ[ʔ]’의 실현 양상(이익섭 1981: 90)

- ① (옷을 못에) 걸어라 / 건:다 / 걸:재 / 걸:드라 / 거:니 / 거:우
 ② (걸음을 빨리) 걸어라 / 걸:는다 / 걸:째 / 걸:뜨라 / 걸으니 / 걸우

이와 같은 활용 양상에서 최소대립쌍이 되는 [걸:재]와 [걸:째], 그리고 [걸:드라]와 [걸:뜨라]의 경우는 음소 ‘ㅛ[ʔ]’의 가능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형태소 내부에 한정되는 일반 어휘에서 음소 ‘ㅛ[ʔ]’의 능동적인 기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음체계에서 성문 파열음 ‘ㅛ[ʔ]’에 괄호를 한 것이다.⁸⁾

나. 모음체계

구분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i]	ㅍ [y]	ㅡ [ɪ]	ㅓ [u]
중모음	ㅔ [e]	ㅚ [ø]	ㅓ [ə]	ㅜ [o]
저모음	ㅐ [ɛ]		ㅑ [a]	

모음(母音)은 혀파로부터 나오는 공기가 후두를 통과하여 구강을 빠져나오는 동안 아무런 마찰을 받지 않는 소리를 가리킨다. 모음은 공기가 후두를 통과하는 관정에서 성문(聲門)이 좁아져 공기의 흐름이 성대(聲帶)를 진동시키게 된다. 따라서 모음은 모두 유성음이 된다. 이러한 모음은 단모음과 복모음, 비모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8) 고성군지(高城郡誌) 하권 (고성군, 2020) 338쪽 인용

(1) 단모음

‘ㅣ, ㅏ, ㅑ’와 같은 소리들을 발음할 때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ㅓ, ㅕ’와 같이 같은 발음해 보면 입술이 약간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한 번에 내는 소리들이다. 그러나 후자는 한 번에 내는 소리들이 아니라, 두 가지 소리들이 복합된 것이다. 전자를 가리켜 단모음(單母音)에 해당된다면 후자는 복모음(複母音)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모음이라 할 때는 단모음만을 가리키며, 복모음을 지칭할 때는 이중모음 또는 삼중모음 중의 어느 하나를 가리킨다.

현재 표준의 단모음은 모두 10개로 ‘ㅣ, ㅏ, ㅑ, ㅓ, ㅕ, ㅗ’ 외에도 ‘꺄, ㅛ, ㅜ, ㅠ’ 등이다. 15세 중엽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만들 때에는 후자 4개 모음들이 글자 모습 그대로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었지만 후에 이 4개 이중모음들이 단모음으로 그 음가가 바뀌어서, 현재는 입술의 움직임 없이 단번에 소리 내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화자들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꺄[e], ㅛ[ɛ], ㅜ[ø], ㅠ[y]’를 모두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영동방언의 단모음은 4계열 3단계의 모음체계를 지닌다.

영동방언에서 볼 수 있듯이 고성방언에서도 ‘꺄[e]’와 ‘ㅛ[ɛ]’ 모음의 대립은 마찬가지다. ‘베(벼, 麻布)’와 ‘배(船, 腹)’, ‘떼’와 ‘때’, ‘세다(물건의 개수를)’와 ‘새다(물이)’, ‘베다(칼로)’와 ‘배다(아이를)’의 예처럼 어느 한 음의 차이만으로 의미가 식별되는 최소대립어(最小對立語)들이 존재한다. ‘꺄[e]’와 ‘ㅛ[ɛ]’ 모음의 대립은 대체로 첫음절에서 유지되고, 2음절 이하에선 중화되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보인다. 다만, 청소년층에서 이 둘의 변별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표준어권과 마찬가지로 ‘내 것’과 ‘네 것’, ‘제적생(除籍生)’과 ‘재적성(在籍生)’은 문자로만 구별이 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⁹⁾

단모음 체계에서 젊은 층으로 내려올 경우 ‘ㅔ[e]’와 ‘ㅖ[ɛ]’의 변별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며, 단모음인 ‘ㅟ[y]’와 ‘ㅢ[ø]’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젊은 층으로 내려올수록 ‘ㅟ’는 이중모음 [wi]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ㅢ’도 이중모음 [we]로 발음하여 ‘웨’나 ‘왜’와 혼동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이다.

(2)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단모음처럼 한 번에 소리 내지 못하고, 두 가지 소리가 합쳐진 모음이다. 국어의 이중모음은 반모음(반모음)이 다른 단모음과 결합하여 발생한다. 이중모음 목록을 반모음에 따라 j-계, w-계, ɰ-계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반모음이 모두 단모음의 앞에 오는 상향 이중모음이다.

① j-계: ㅟ [ja], ㅢ [jə], ㅟ [jo], ㅢ [ju], ㅖ [je], ㅞ [jɛ], ㅟ [ji]

② w-계: ㅜ [wa], ㅢ [wə], ㅞ [wɛ], ㅟ [we], (ㅟ [wi])

③ ɰ-계: ㅡ [ɰi]

국어의 이중모음은 표준적 상황에서는 ‘위’를 제외한 11개다. 그러나 단모음 ‘외[ø]’는 흔히 이중 모음 ‘ㅞ[we]’로 발음되고, 단모음 ‘ㅟ[y]’는 ‘ㅟ[wi]’

9) 『강원도 영동지역의 방언』(박성종 저, 2008년, 제이앤씨) 참조

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단모음 ‘ɿ[y]’가 이중모음 ‘ɿ[wi]’로 발음 되는 것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중모음 목록에 ‘[ji]’가 있는 것은 영동방언의 특징이다. 이중모음 ‘[ji]’는 고성 방언의 노년층 언어에서 물고기 ‘볼락(또는 열기)’을 뜻하는 [:개~이]나 ‘쓸개’를 뜻하는 [을:]과 같은 말에 나타난다.

영동방언에서 초분절 음운으로는 표준적인 장단(長短) 외에도 고저(高低)가 설정되지만, 고성 방언에서 고저는 음운적 기능이 없다. 따라서 고성 방언에서는 표준어와 같은 장단의 대립만이 초분절 음운으로 설정된다.

(3) 비모음(鼻母音)

모음을 발음할 때는 목젓이 인두벽에 붙음으로써 허파로부터 나오는 공기가 전부 구강으로만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모음 중에는 이따금 목젓이 인두벽과 떨어져 공기 중의 일부가 코로도 나온다. 이와 같이 구강과 동시에 비강을 통해 나오는 모음을 가리켜 비모음(鼻母音)이라고 한다. 고성방언에도 강릉이남 지방에서 나타나는 비모음 방언들이 일부 나타난다.

고냉이(←고양이), 영우(←여우), 어머니(←어머니)



2. 음운 현상과 규칙

음운 현상에는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방언의 음운현상에 있어서는 이 둘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여기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자음보존과 구개음화 현상, 모음의 변이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가. 자음의 보존

표준어 형태와 비교하여 고성의 방언에 나타나는 자음의 보존이라면 ‘ㄱ, ㄴ, ㅅ’에 관련된다. 이들 자음의 보존은 고어(古語)의 잔존이거나 또는 역사적 근거 없이 자음이 나타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ㄱ’의 보존 (←표준어, <고형)

- ① 궁기(←구멍, <굵), 낭구(←나무, <냇), 벌기/벌거지(←벌레, <벌게, 벌에), 싱구다(←심다, <쉽다), 맹글다(←만들다, <밍 굴다)
- ② 몰개(←모래, <몰애), 실경(←시령, <실에), 열게빋(←얼레빋, <얼에빋)
- ③ 갈강비(←가랑비, <갸 ㄹ빋), 개금(←개암, <기암), 내구레기/냉굴(←내, <니), 놀기(←노루, <노 ㄹ), 멀구(←머루, <멀위), 영쟁이(←여우, <여쓰, 여으), 걸금(←거름, <?), 실기(←시루, <실/시르), 웅굴(←우물, <우물), 잘기/자루기(←자루, <즈로/즈 ㄹ/줄)

(2) ‘ㅂ’ 보존 (←표준어, <고형)

① 불버(←부러워, <불벼), 버버리(←병어리, <버워리), 베(←벼),
베씨(←볍씨)

② 달비(←다리, <돌외), 대리미(←다리미, <다리우리), 또바리(←
파리, <또아리)

③ 자부럽다(←졸리다/졸다, <즈올다)

(3) ‘ㅅ’ 보존 (←표준어, <고형)

① 가생이(←가, <갸), 가새(←가워, <갸쉬), 거시(←거쉬/것위), 구송
(←구유, <구슈), 마슬/마실(←마을, <먄솔), 나생이(←냉이, <나시),
끄시렘(←그을음, <그쓰름), 무/무수(←무, <무수), 쇠시랑(←쇠스랑)

중세국어에 있던 음운이 방언 형태에 남아 있는 경우는 표준어를 제외한 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①)의 경우는 중세국어 형태에서 ‘ㄱ’을 찾을 수 있으며, ((1)-②)는 중세국어 이전의 형태에서 ‘ㄱ’을 재구(再構)할 수 있다. 다만 ((1)-③)은 중세국어 형태나 그 이전의 재구형에서 ‘ㄱ’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음운사적 논의에서는 ((1)-③)의 경우에 대해 음운의 강화에 의한 ‘ㄱ’의 첨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ㅂ’의 보존에 대해서도 ‘ㄱ’의 보존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부럽다’의 경우에는 중세국어 형태인 ‘즈올다’의 재구형에 ‘ㅂ’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ㅅ’이 보존된 고성방언 형태는 중세국어 형태에서 모두 ‘ㅅ’이나 ‘ㅆ’을 찾을 수 있어서 논의가 간명하다.¹⁰⁾

10) 고성군지((高城郡誌) 하권 (고성군, 2020) 339~340쪽 인용

다만, 소리 나는 대로 표기가 어려운 단어가 일부 있다. 고어 표기로 가 능하다는 일설이 있지만 고어의 발음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연 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나. 구개음화 현상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ㄷ/ㅌ, ㄱ/ㅋ/ㆁ, ㅎ’ 등이 [i]나 [j] 앞에서 ‘ㅈ/ㅊ, ㅊ, ㅅ’ 등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는 서북방언 지역인 평안도를 제외한 방언에서 관찰되는 광범위한 현상이다. 고성 의 방언도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구개음화 형태가 실현 되고 있다. ‘ㄷ/ㅌ’의 구개음화는 표준어 형태와 차이가 없고, ‘ㄱ/ㅋ/ㆁ, ㅎ’의 구개음화 형태를 살펴 볼 수 있다.

(1) ‘ㄱ/ㅋ/ㆁ’ 구개음화 (k-구개음화)

저(←겨), 지:지개(←기:지개), 저드랑이(←겨드랑이), 지침(←기침), 저름 대(←겨름대), 질(←길), 저를(←겨를), 질쌘(←길쌘), 집다(←깎다), 저울 (←겨울), 지리(←길이), 접(←곁), 짐:(←김:), 절(←곁), 짐치(←김치), 지 둥(←기둥), 짐장(←김장), 지러기(←기러기), 지름(←기름), 저누대(←겨누 다), 전디다(←견디다), 지슌(←기슌), 접치다(←곁치다), 지울(←기울), 지 다리다(←기다리다), 지와(←기와), 제우(←겨우), 지저구(←기저귀), 찌 다(←끼다), 치(←키)

(2) ‘ㄷ/ㅌ’ 구개음화 (t-구개음화)

미다지(←미달이), 던기(←전기), 가치(←같이)

(3) ‘ㅎ’ 구개음화 (h-구개음화)

세/헤(←혀), 숭(←흥), 숭내(←흥내), 시엄(←헤엄), 숭터(←흥터), 성(←형), 심(←힘), 쉬파람(←휘파람), 심줄(←힘줄), 수지(←휴지), 세아리다(←헤아리다), 소:자/효:자(←효:자)

‘ㄱ/ㄲ/ㅋ, ㅎ’의 구개음화는 어두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구개음화의 일반적 특징이다. 국어 음운사에서 ‘ㄷ/ㅌ’의 구개음화가 중앙어까지 확산된 반면에 ‘ㄱ/ㄲ/ㅋ, ㅎ’의 구개음화는 중앙어에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ㄱ/ㄲ/ㅋ, ㅎ’의 구개음화는 중앙 및 서북방언을 제외한 모든 방언의 주요 특징이 되었으며, 고성의 방언도 예외가 아니다.

다. 모음의 변이

모음 ‘ㅏ[a], ㅑ[ɔ], ㅓ[u], ㅗ[i], ㅜ[ə], ㅝ[e], ㅞ[ɛ], ㅠ[y]’ 등이 주위의 음운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조건 없이 변이하는 다양한 현상이 고성의 방언에도 나타난다. 변이의 동인(動因)을 자음에 의한 것, 모음에 의한 것, 그리고 조건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자음에 의한 변이

① 치경음에 의한 전설모음화 및 고모음화

소 → 쇠, 솔뚜껑 → 쉼뚜껑, 가슴 → 가심, 사슴 → 사심, 설 → 슬, 전나무 → 즌나무, 씨레 → 쓰레, 점심 → 즘심, 버선 → 보선, 국수 → 국시, 염소 → 염쇠, 과줄 → 과질

② 양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

거미 → 거무, 나비 → 나부, 담비 → 담부, 호미 → 호무, 메밀 → 메물,
거위 → 거우, 모기 → 모구, 살모사 → 살무사, 시금치 → 시금추, 누나
→ 누우

(2) 모음에 의한 변이

후행하는 [i/j]에 의한 움라우트 -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고기 → 괴기, 고비 → 괴비, 고빼 → 괴뻤, 조끼 → 죄끼, 종일 → 쥘일,
도배 → 뉘배, 조금 → 쥘끔, 토끼 → 퇴끼, 도끼 → 도귀

(3) 무조건적인 변이

① ㅏ [ɑ] → ㅓ [ɛ]

가마 → 가매, 모자 → 모재, 감자 → 감재, 과자 → 과재, 자라 → 자
래, 조카 → 조개, 농사 → 농새, 치마 → 치매, 다리미 → 대리미, 상
추 → 생추, 도마 → 도매, 독사 → 독새, 장가 → 장개, 살모사 → 살무
새, 자갈 → 재갈, 샷갓 → 섯갓, 잠방이 → 잠뱅이, 잔돈 → 켜돈, 참
빋 → 챔빋, 학교 → 핵교, 정강이 → 쥘강이, 마당질 → 마댕이, 땅
벌 → 땡뻤

② ㅓ [u] → ㅣ [i]/ㅡ [ɨ]

골무 → 골미, 가루 → 갈기, 시루 → 시리/시르, 자루 → 자리/자르,
하루 → 하리/하르, 오줌 → 오짐, 국수 → 국시, 풀무 → 풀미, 상추
→ 상치

③ ㅓ [jə]/ㅓ [ə] → ㅓ [e]

남편 → 남펜/넙펜, 벼슬 → 베슬, 별 → 벨, 면장 → 멘장, 벼 → 베,
 병아리 → 벵아리, 편지 → 펜지, 병 → 벵, 동서(同壻) → 동세, 명태 →
 멩태, 술병 → 술벵, 병풍 → 벵풍, 두령이 → 두렁이, 며느리 → 메느
 리, 문어 → 문에, 명산 → 멩산, 벼락 → 베락, 겨우 → 제와, 경(쫄)
 → 께, 별안간 → 베란간, 벼리다 → 베리다, 명주 → 멩지, 자셔 → 자
 세, 드셔 → 드세, 마셔 → 마세

④ ㅼ [ɛ] → ㅓ [α]

동생 → 동상, 천생 → 천상, 새댁 → 새닥, 선생 → 선상, 고생 → 고
 상, 재봉틀 → 자방침, 잭기장 → 작기장

⑤ ㅓ [y] → ㅗ [u]

가위 → 가우, 방귀 → 방구, 사마귀 → 사마구, 당나귀 → 당나구, 손아
 귀 → 손아구, 푸성귀 → 푸성구, 한가위 → 한가우, 바퀴 → 바쿠, 돌
 찌귀 → 돌찌구, 틈바귀 → 틈바구, 기저귀 → 기저구, 사위 → 싸우,
 각다귀 → 깔따구, 까마귀 → 까마구, 앞사귀 → 앞사구

⑥ ㅗ [o] → ㅓ [u]

사촌 → 사춘, 삼촌 → 삼춘, 사돈 → 사둔, 팔촌 → 팔춘, 하고 → 하
 구, 하도록 → 하두룩, 으로 → 으루, 수록 → 수룩, 가지고 → 가주구,
 놈 → 늬

자음에 의한 모음의 변이는 치경음(주로 ㅅ/ㅆ/ㅈ/ㅊ/ㅌ)에 의해 일어나
 는 전설모음화 및 고모음화, 그리고 양순음(ㅍ/ㅂ/ㅃ/ㅍ)에 의한 원순모음
 화를 들 수 있다. 이들 자음은 변이하는 모음에 선행하므로 순행동화(順行
 同化)에 속한다.

모음에 의한 모음의 변이는 후행하는 [i/j]에 의한 전설모음화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후행하는 [i/j]가 전설고모음이므로 이에 이끌려 전설모음화가야기 되는 역행동화(逆行同化)이다.

모음의 무조건적인 변이는 정밀하게 관찰하면 해당 변이의 조건을 찾아기 술할 수도 있겠으나, 일관성 있는 논의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적 인 변이로 판단한 것이다.¹¹⁾



11) 고성군지(高城郡誌) 하권 (고성군, 2020) 340~342쪽 인용

제3절

조사 및 어미의 방언 형태



1. 조사의 방언 형태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성외 방언에서도 조사의 특수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표준어와 형태가 다른 몇몇 용례 외에도 더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가. 격조사

- ① 비거 온다(비가 온다/주격)
- ② 가가 개인테 물렸다(그 아이가 개한테 물렸다/여격)
- ③ 남으 땅(남의 땅/관형격)
- ④ 할머니(할머니!/호격)
- ⑤ 돈으루 인심을 산다(돈으로 인심을 산다/도구격)
- ⑥ 고욤이 감보덤 달다(고욤이 감보다 달다/비교격)
- ⑦ 빠르기가 제비처럼 빠르다(빠르기가 제비처럼 빠르다/비교격)
- ⑧ 옷에다 구두에다(옷에다가 구두에다가/열거격)

나. 보조사

- ① 철수두 착한 아다(철수도 착한 아이다)
- ② 사람마둥 마음은 달라(사람마다 마음은 다르다)
- ③ 니꺼정 떠나니(너까지 떠나가느냐)
- ④ 너마주 가나(너마저 가느냐)
- ⑤ 오늘 바쁘른 내일이래두 좋아(오늘 바쁘면 내일이라도 좋아)¹²⁾

12) 고성군지((高城郡誌) 하권 (고성군, 2020) 343쪽 인용

2. 연결어미 및 종결어미의 실현 양상

어미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전성어미 등으로 나뉜다. 고성 방언에서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에서 표준어와 다른 형태가 나타나므로 용례를 들어 먼저 연결어미를 소개한다.

가. 방언의 연결어미

- ① -문(문): 비거 오문 안 좋아(비가 오면 안 좋아)
- ② -구: 보구 싶다(보고 싶다)
- ③ -더래두: 죽더래두 좋아(죽더라도 좋아)
- ④ -민/-민서: 놀민/놀민서 간다(놀며/놀면서 간다)
- ⑤ -ㄹ라구: 니두 갈라구 하니(너도 가려고 하나)
- ⑥ -두룩: 세가 딸투룩(딸+두룩) 타일렀지(허가 닳도록 타일렀지)

나. 방언의 종결어미

문장의 종결은 어미의 실현에 따라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감탄형을 제외한 나머지 종결형 어미에 대한 방언 형태를 살펴본다. 종결어미는 표준어와 같은 경우에는 형태만 보이고, 차이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용례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종결어미에 ‘-다, -요, -까’ 등이 생략되거나 변형되어 상대방 입장에서 반말처럼 인지함으로써 다소 불손하다거나 버릇없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1) 평서형: -다/-ㄴ다/-는다, -어, -야, -유, -지, -네, -ㄹ세,

-어요/-아요, -습니다

- ① -했대: 찢어질 뻔 했대(찢어질 뻔 했다)
- ② -거든: 슷딸은 춤거든(선달은 춤단 말이야)
- ③ -래유: 가꺼래유(그의 것입니다)
- ④ -어: 걸리믄 맞아 죽어(걸리면 맞아 죽는다)
- ⑤ -야: 고루메가 최고야(고리매가 최고다)

(2) 의문형: -게, -나, -어, -지, -르까, -르래, -ㄴ가, -어요/-아요, -습니까

- ① -어?: 어디 간지 모르겠어?(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습니까?)
- ② -르란?: 지금 갈란?(지금 가려느냐?)
- ③ -게?: 내일 가게?(내일 가겠습니까?)
- ④ -우?: 머 보시우?(뭘 보시오?)
- ⑤ -나?: 밥 먹었나?(밥 먹었습니까?)

(3) 명령형: -어라, -어, -게, -어요, -십시오

- ① -우: 지금 가우(지금 가시오)
- ② -해: 보구 따라 해(보고 따라 해라)
- ③ -게: 시키는 대로 하게(시키는 대로 하시오)

(4) 청유형: -자, -세, -어요/-아요

- ① -어: 어서 밥 먹어(밥을 먹자)
- ② -세: 얼렁 자세(얼른 자세요/얼른 잡수세요)

다. 방언의 용언 활용

어미와 관련하여 용언의 활용에 있어서도 고성 방언의 특징이 나타난다.
표준어 활용과 구별되는 몇몇 용례에서도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1) 표준어의 ‘ㄷ’ 불규칙

- ① 걷다(步): 걸따, 걸꾸, 걸찌
- ② 신다(載): 실따, 실꾸, 실찌
- ③ 묻다(問): 물따, 물꾸, 물찌

(2) 기타의 활용 양상

- ① 살피다: 살페
- ② 감기다: 감궂따
- ③ 돌리다: 돌궂따
- ④ 주다: 조, 조라
- ⑤ 부수다: 뿌시다, 뿌수다
- ⑥ 생기다: 생궂따
- ⑦ 옮기다: 옹궂따

위 용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성 방언에는 ‘ㄷ’ 불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어 활용이라면 ‘걷고, 걷지, 걸어’와 같이 활용하지만, 고성 방언에서는 ‘걸꼬, 걸찌, 걸어’와 같이 활용하기 때문이다.

용언의 어간 발음이 ‘ㅣ’나 ‘ㅏ’로 끝나는 경우 후행하는 어미가 ‘ㅣ’로 시작될 경우에는 (2)에 보인 바와 같이 ‘ㄱ’나 ‘ㅇ’로 축약된다.¹³⁾

13) 고성군지(高城郡誌) 하권 (고성군, 2020) 343~344쪽 인용

제4절

방언 설문조사 집계 및 분석



1. 개 황

설문조사는 원하는 현상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방식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의 추이와 비교 분석·정리함으로써 방언의 통용 빈도와 진화·소멸 등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

설문조사의 일반적인 방식은 대면조사, 전화면접, 우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대면조사와 질문지에 의한 자기 기입방식을 병행하였다.

조사는 읍·면 지역별 방언의 분포, 그 통용 빈도, 방언의 진화와 소멸 등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조사 방법은 크게 질문 항목과 응답란으로 조사표에 의한 설문조사 질문에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은 가급적 객관적이며 조사 목적에 합당하고 공정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항목 작성은 고성문화포럼 주관으로 고성군지(高城郡誌)¹⁴⁾ 등 기존 조사된 방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호칭, 일상생활 용어, 생활용품의 명칭, 주거 관련 명칭, 음식 등의 명칭, 의복(옷)의 명칭, 가구 등의 명칭, 농기구 등의 명칭, 곡식 등의 명칭, 소재류, 과일과 식물 등의 명칭, 곤충 등의 명칭, 파충류 등의 명칭, 물고기 등의 명칭, 어구 등의 명칭, 길짐승 등의 명칭, 날짐승 등의 명칭, 시후(날씨와 계절) 등의 명칭, 지리(地理) 등의 명칭, 방위(方位) 등의 명칭, 수치 관련 명칭, 용언과 관용어 등 용도별로 분류하였고,

14) 고성군지(高城郡誌) (고성군, 1998년, 강원일보사)

제시된 방언에 대해 읍·면 지역별 통용 또는 인지의 빈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농촌과 어촌, 기타 지역 등 산업 현장에서 통용되거나 인용되는 방언의 빈도를 설문을 통해 언어와 사회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다만, 질문항목 배정과 연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산업, 출신 지역, 연령 등 기본문항에 포함했다.

설문조사 시기는 2009년 9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42일 간, 관내 초·중·고교생과 주민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방식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우선 강원도고성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관내 고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초등학교 14개교 등 22개교와 읍·면 일반 주민에게 설문 조사지를 사전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응답은 지필 설문 응답 방식으로, 질문 항목의 응답을 설문에 ○표하고 추가 응답은 단답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경우에는 방언의 존재와 통용에 대한 질문 항목에 대해 정확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 또는 지인의 공동 응답을 유도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는 학교에서 626명과 일반 주민 229명 등 모두 855명이었다. 다만, 설문조사 시행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읍·면별 인구 편차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배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조사 응답자 배정 비율이 고르지 않은 점, 학구 단위 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 공동으로 응답토록 유도했지만 실제 응답자의 연령층이 낮아 조사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 점 등은 아쉬운 점이다.

설문조사 응답 결과는 제출된 응답조사서를 지난 2009년 10월 30일 최종 수합되었지만 설문조사 집계 인력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분류를 마치고

집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기간 동안 일부 방언이표준어에 편입되거나 새로운 조어의 생성과 소멸 등 진화가 여전히 계속 진행되었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절대적 기준에 의한 통용빈도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아쉬운 점은 방언의 어원, 즉 방언의 탄생과 배경, 시기, 당시 시대적 상황과 생활환경변화를 함께 연계해서 살필 수 없었던 점도 이번 조사에서의 부족한 부분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읍·면별 편차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통용 빈도,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주로 통용되는 방언의 형태를 확인하고 방언의 일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방언 연구의 작은 성과라고 자평한다. 또한 농촌과 어촌에 주로 통용되는 방언의 형태와 음운체계 연구에 자료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역공동체 언어에 대한 이론적이며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우리 방언 연구의 토대가 되고 올바른 우리 문화 이해에 대한 중요한 핵심 요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2. 읍·면별 분석

가. 가족관계 호칭



할머니(할머니)

가족은 공동체의 최소 기본 단위다. 그 호칭은 지역공동체의 오랜 역사와 전통의 밑바탕이다. 그것은 가족공동체 생활 방식과 문화에서 비롯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가족관계 호칭에 많이 통용되는 방언은 <표1-1>과 같이 대표적으로 할머니(할머니), 큰아부지(큰아버지), 시어머니(시어머니), 동상(동생), 친정아부지(친정아버지), 하라버이(할아버지), 성(형), 애기씨(시누이) 등이며, 읍·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수(제수) 등 일부 방언의 통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핵가족화에 따른 대가족공동체가 점차 분화하고 있는 가족공동체의 사회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읍·면 전체적으로 할머니(할머니), 시어머니(시어머니), 큰아부지(큰아버지), 동상(동생) 등 가족관계 호칭이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계수(제수) 등 방언의 통용은 줄었다.

간성읍은 동상(동생), 시어머니(시어머니), 큰아부지(큰아버지) 등 순으로, 거진읍은 할머니(할머니), 큰아부지(큰아버지), 시어머니(시어머니), 하라버이(할아버지) 등 순으로, 현내면은 할머니(할머니), 동상(동생), 시어머니(시어머니), 큰아부지(큰아버지) 등 순으로, 죽왕면은 할머니(할머니), 큰아부지(큰아버지) 등 순으로, 토성면은 할머니(할머니), 동상(동생), 큰아부지(큰아버지), 시어머니(시어머니) 등 순으로 통용 빈도의 순위가 각각 나타났다.

나. 일상생활 용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통용되는 방언, 그 지역 방언을 대표하는 말들이다.

<표1-2>와 같이 대표적으로 껍떼기(껍데기), 뽕따구(뽕다귀), 핵교(학교), 간나(계집애), 기력지(길 이), 열라·언나(갓난아이), 공갈·거짓뿌렁·뽕(거짓 말), 구녕(구멍), 니(너), 가름마(가르마), 지지바(계 집애), 곱새(곱사), 노랭이(구두쇠), 컷불(컷불), 지 지개(기지개), 미시리(바보), 배떼기(배), 장깨이보 (가위바위보), 거름뱅이(거지), 대장간(대장간), 깡 가리(팽과리), 또깨비(도깨비), 거름(거름), 문지(먼지), 잘기(자루), 장작깨 비(장작개비) 등 일상생활의 방언들은 현재까지 편리하게 통용되고 있다. 특히 간성과 토성 지역은 거의 비슷한 통용 빈도를 보이고 있다.



핵교(학교)

한편, 가름뱅이(가르마), 돌방개(가부좌), 열금뱅이(곰보), 귀부랄(귀불), 신 다리(넓적다리), 뒤꾸배(발뒤축), 쇠꼴(쇠), 앵구리·내구리·내구레기(연기), 풍구(풀무), 장지뽕(가위바위보), 동고리(거지), 거두리(껍질), 곤두레미·고드 래미(고드름), 팽새(팽과리), 승냥간·베림질간(대장간), 두벌짐(두벌 김매기), 애기짐(애기 김매기), 주레·줄레(호드기), 움물고누(고누), 둥개(둥고리), 구엥 (구멍) 등의 방언은 점차 통용이 줄었거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몰시 기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화목에 의존하던 에너지가 전기 또는 대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아궁이의 연기가 사라졌다거나 각종 공구가 대량 생산

으로 인해 대장간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풍구의 이용이 줄어드는 등 생활 문화의 변화에 따라 그 쓰임이 줄었다.

또한, 저드랑이(겨드랑이), 언니미(계집애), 낱살(나이), 깔떼기(딸꾹질), 뽕미(수염), 쇠꼬·쇠꼬치(쇠), 허재비(허수아비), 거짓뿌리(거짓말), 질쌘(길쌘), 통쇠(통소), 농예(누예), 걸금(거름), 몬지(먼지), 마댕이(마당질), 뽕꾸댕이(뽕자리), 젼노리(새참), 서항당(서낭당), 옹노(올가미), 장재기(장작), 철엽(천렵), 목말(동고리), 구용(구멍) 등 용어도 생활 문화의 변화에 따라 그 통용 빈도가 줄었거나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간성읍은 껍떼기(껍데기), 뽕다구(뽕다귀), 기력지(길이), 핵교(학교) 등 순으로, 거진읍은 껍떼기(껍데기), 뽕따구(뽕다귀), 핵교(학교), 뽕(거짓말), 얼라(갓난아이) 등 순으로, 현내면은 껍떼기(껍데기), 뽕다구(뽕다귀), 기력지(길이), 얼라(갓난아이) 등 순으로, 죽왕면은 껍떼기(껍데기), 뽕다구(뽕다귀), 간나(계집아이) 등 순으로, 토성면은 껍떼기(껍데기), 뽕다구(뽕다귀), 핵교(학교), 간나(계집아이), 기력지(길이) 등 순으로 통용 빈도가 높고 읍·면 간 큰 격차 없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생활용품의 명칭

생활용품의 명칭에 통용되는 방언은 읍·면 유형이 비슷하다.

그 가운데 <표1-3>과 같이 장판지(장독), 밥주걱(주걱), 재떨이(재떨이), 숯갈·수까락(숯가락), 비개·벼개(베개), 빙구(얼음썰매), 대리미(다리미), 도짜리(돛자리), 또아리(파리), 물조리(물뿌리개), 바꾸·바쿠(바퀴), 빗짚기(빗자루), 사닥다리(사다리), 성냥곽(성냥갑), 솔단지(솔), 절·절까락·적갈·저까지(젓가락), 앵경(안경), 쇧때·자물통(자물쇠), 헌겁(형겁), 화루(화로), 흙칼(흙손), 웅기그룩(질그릇), 가마·가매솔(가마솔), 굴레바꾸(굴렁쇠), 빨랫돌·다드미돌(다듬잇돌), 따까리(뚜껑), 또아리(파리), 바늘(바늘), 바각지(바가지), 부지깥이(부지깥이), 성냥통(성냥갑), 풀종우(비닐), 시숫대야(세숫대야), 쌀잘기(쌀자루), 앵경(안경), 빙고(얼음썰매), 잔돈(잔돈), 종우(종이), 밥주발(주발), 참빔(참빗), 구르무(크림) 등 생활용품의 다양한 방언들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특히 간성읍 지역은 재떨이(재떨이), 장판지(장독), 대리미(다리미), 비개·벼개(베개), 숯갈·수까락(숯가락), 절까락(젓가락), 빙구(얼음썰매), 밥주걱(주걱) 등의 방언 통용 빈도가 더 높고, 토성면 지역 역시 재떨이(재떨이), 밥주걱(주걱), 쇧때·자물통(자물쇠), 빙구(얼음썰매), 숯갈·수까락(숯가락), 비개·벼개(베개), 대리미(다리미), 다드미돌(다듬잇돌), 솔단지(솔), 절까락(젓가락) 등의 방언 통용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깍대기(고무래), 곰배(고무래), 작기장(공책), 동태바꾸(굴렁쇠), 풀비·풀솔(귀얄), 녁동바리(넉동무니), 척세·갈보단지(다리쇠), 대터리(재떨이),



대리미(다리미)

장죽(곰방대), 통거리(뚝배기), 몽치매기(목침), 꼬바리·물쭈리(물뿌리개), 찌개·벌찌개(밑신개), 근네(그네), 팽풍(병풍), 불가래·부비당이(부삽), 부절까지(부절가락), 열개·어르개(열레빗), 다황(성냥), 소치·쇠꼬솔(솔), 연찹개·연짜개·연자새(열레), 장군·오줌장군(오줌항아리), 남박(이남박), 자방침(재봉틀), 날전(잔돈), 조루·죄리(조리), 쏘개울치(참빗), 채쭈(팽이채) 등은 생활 문화의 변천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말들이다. 이러한 말들은 점차 잊혀지고 언젠가는 기억하기 어려운 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깍대기(고무래), 곰배(고무래), 작기장(공책), 동태바꾸(굴렁쇠), 풀비·풀솔(귀얄), 녁동바리(녁동무니), 척세·갈보단지(다리쇠), 대터리(재떨이), 장죽(곰방대), 통거리(뚝배기), 몽치매기(목침), 꼬바리·물쭈리(물뿌리개), 찌개·벌찌개(밑신개), 근네(그네), 팽풍(병풍), 불가래·부비당이(부삽), 부절까지(부절가락), 열개·어르개(열레빗), 다황(성냥), 소치·쇠꼬솔(솔), 연찹개·연짜개·연자새(열레), 장군·오줌장군(오줌항아리), 남박(이남박), 자방침(재봉틀), 날전(잔돈), 조루·죄리(조리), 쏘개울치(참빗), 채쭈(팽이채) 등은 생활 문화의 변천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말들이다. 이러한 말들은 점차 잊혀지고 언젠가는 기억하기 어려운 말들이 될 것이다.

한편, 가마전(가마솔), 골미(골무), 잭기장(공책), 따깡(뚜껑), 삼바리(다리쇠), 오갈단지(단지), 담붓대(곰방대), 뒤지(뒤주), 빨래방치(빨랫방망이), 벵풍·평풍(병풍), 부지깨(부지깽이), 비네(비녀), 모태(석쇠), 소두뱅이(솔뚜껑), 술뱅(술병), 술종지(술잔), 찰남박(이남박), 쇠통(자물쇠), 자봉틀(재봉틀), 메띠기(자치기), 잔전(잔돈), 복짓깨(주발뚜껑) 등은 현재 통용되고 있지만 일상생활의 환경과 문화가 크게 바뀌면서 그 통용 빈도도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성읍은 밥주걱(주걱), 장판지(장독), 재떨이(재떨이), 숯갈·수까락(숟가락), 비개·베개(베개) 등 순으로, 거진읍은 장판지(장독), 재털이(재떨이),

밥주걱(주걱), 수까락(순가락), 비개(베개), 빙구(얼음썰매), 가매솔(가마솔) 등 순으로, 현내면은 밥주걱(주걱), 재털이(재털이), 숯갈·수까락(순가락), 빙구(얼음썰매) 등 순으로, 죽왕면은 비개(베개), 밥주걱(주걱), 숯갈(순가락) 등 순으로, 토성면은 비개(베개), 재털이(재털이), 밥주걱(주걱), 숯갈·수까락(순가락), 빙구(얼음썰매)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 방언 통용 빈도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라. 주거 관련 명칭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 요소가 주거 환경이다. 그와 관련 명칭의 방언은 주거 환경에 부속된 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표1-4>와 같이 대표적으로 뒤간·밴소·정낭(변소), 구돌·구돌짱(구들), 마굿간·마구간(외양간)을 비롯해 토랑(도랑), 지둥(기둥), 기아집(기와집), 보케·정지(부엌), 싸리문(사립문), 석까래(서까래), 보강지(아궁이), 지풀집(초가집), 구팡(토방), 움물·웅굴(우물), 배람박·벼람박(벽), 돌저구(돌쩌귀), 마룻(마루), 소깡이(관솔), 끄으름·끄스름(그을음) 등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지풀집(초가집)

그러나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을 늘어나고, 주택 구조와 건축자재, 생활풍습도 크게 바뀌면서 그 관련 용어의 방언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면, 웅그르버리개(도랑), 돌창문(들창), 놀마룻(마루), 구수·비구수·구송(구유), 끄시레미(그을음), 서포살이(셋방), 영마름(용마름), 움굴(우물), 울썩다리·우삭다리(울타리), 영(이영)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일몰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장판지 (장독)

한편, 한아기와집(기와집), 지시랑물(낙숫물) 달기
등지(닭장), 두란·울안(뒤란), 문꼴기(문고리), 벅(부
억), 광술(관술), 곱쌔(용마름), 마구(외양간), 이영
(이영) 등의 방언은 그 쓰임이 적으나 계속 통용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성읍은 마구간·마곳간(외양간), 구들짱(온돌·
구들), 또랑(도랑) 등 순으로, 거진읍은 구들짱(구
들·온돌), 뒤간·밴소(변소), 마곳간·마구간(외양간)

등 순으로, 현내면은 구들짱(온돌·구들), 뒤간(변소), 마구간(외양간) 등 순으
로, 죽왕면은 뒤간(변소), 마구간(외양간), 구들(온돌·구들), 기아집(기와집)
등 순으로, 토성면은 구들짱(온돌·구들), 뒤간·밴소(변소), 또랑(도랑), 마곳
간(외양간), 지둥(기둥), 여물통(구유)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
면 지역별 방언 통용 빈도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마. 음식 등의 명칭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방언 중 음식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다.

<표1-5>와 같이 대표적으로 감주(식혜), 국시(국수), 꼬추장·꼬치장(고추장), 짬지·짐치(김치), 계란·달걀(계란·달걀), 씨래기·견추(시래기), 고치가루·꼬치가루·꼬치갈기(고춧가루), 지름(기름), 짐장(김장), 부친개·부치마·부침기(부침개), 밀갈기(밀가루), 깜박(옥수수튀밥), 갈기(가루), 꼬두밥·꼬돌밥(고두밥), 꼬갱이(고갱이) 등의 방언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부친개(부침개)

그러나 지령(간장), 꼬루밥(고두밥), 소디끼(누룽지), 소적(묵), 광밥(옥수수튀밥)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적다.

한편, 소쟁이(누룽지), 달갱이(계란·달걀), 지지매(적·빈대떡), 쉬쉬떡(수수떡), 뚜더기국·뚜덕국(수제비국), 실기떡(시루떡), 강밥(옥수수튀밥)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성읍은 국시(국수), 감주(식혜), 짬지(김치), 꼬추장(고추장), 부친개·부치미(부침개) 등 순으로, 거진읍은 국시(국수), 꼬추장(고추장), 감주(식혜), 씨래기(시래기), 계란(계란), 짬지(김치) 등 순으로, 현내면은 감주(식혜), 짬지(김치), 씨래기(시래기), 국시(국수), 꼬추장(고추장) 등 순으로, 죽왕면은 꼬추장(고추장), 감주(식혜), 국시(국수), 짬지(김치), 계란(계란) 등 순으로, 토성면은 감주(식혜), 국시(국수), 씨래기(시래기), 짬지(김치), 부친개(부침개) 등으로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 방언 통용 빈도 역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의복(옷)의 명칭



우티(옷)

의복과 관련된 방언은 많지 않은 편이다.

<표1-6>과 같이 대표적으로 누데기(누더기), 치매(치마), 조고리(저고리), 두루막(두루마기), 고쟁이(속옷), 우티(옷), 보선(버선), 덧조고리(조끼), 대임(대님), 잠뱅이(잠방이) 등의 방언은 변함없이 통용되고 있다. 다만, 의류에 다양한 디자인이 도입되면서 호주머니의 용도가 줄어들어 엽차기(호주머니) 등과 같은 방언은 그 쓰임이 크게 줄었다.

간성읍은 누데기(누더기), 조고리(저고리), 치매(치마), 두루막(두루마기) 등 순으로, 거진읍은 누데기(누더기), 치매(치마), 조고리(저고리), 두루막(두루마기) 등 순으로, 현내면은 누데기(누더기), 치매(치마), 두루막(두루마기), 조고리(저고리) 등 순으로 죽왕면은 누데기(누더기), 치매(치마), 조고리(저고리) 등 순으로, 토성면은 누데기(누더기), 고쟁이(속옷), 치매(치마), 두루막(두루마기)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의복(옷)의 명칭 관련 방언 역시 읍·면 지역별 특이한 비교를 찾을 수 없고 비슷한 유형의 방언 통용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 가구 등의 명칭

가구 등의 명칭 관련 방언은 그리 많지 않다. 옷장 또는 옷방 등 생활문화가 크게 변화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가구의 쓰임도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표1-7>과 같이 대표적인 방언으로 농·차단쓰·단쓰(장롱), 빼다지·빼랍(서랍), 고리짝(궤), 실경(선반·시렁) 등 방언은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궤(궤), 옷시래(벽장)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줄고 있고, 으게(장롱) 방언은 일몰시기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간성읍은 농(장롱), 빼다지(서랍), 차단쓰(장롱) 등 순으로, 거진읍은 차단쓰·농(장롱), 빼다지(서랍), 고리짝(궤) 등 순으로, 현내면은 농(장롱), 빼다지(서랍) 등 순으로, 죽왕면은 농(장롱), 빼다지(서랍), 단쓰(장롱) 등 순으로, 토성면은 빼다지(서랍), 농(장롱), 차단쓰(장롱), 실경(선반·시렁)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빼다지(서랍)

아. 농기구 등의 명칭



호무(호미)

우리 사회가 예전 농업 중심 문화였던 만큼 농사와 관련된 농기구 등의 명칭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표1-8>과 같이 대표적인 방언은 곡괭이(곡괭이), 절구통(절구), 지푸락지(지푸라기), 물방아(물레방아), 새끼줄(새끼), 방간(방앗간), 도루깨(도리깨), 디딜방아칸(디딜방앗간), 광지리(광주리), 디딜방아(디딜방아), 짚가리(벧가리), 지게작대기(지게작대기), 집풀(짚), 호무(호미) 등은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는 말들이다.

그러나, 농작업과 영농이 기계화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농기구들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일몰에 접어든 방언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후지·가데기·가데이(극쟁이), 나루체(벧줄), 돌깨(도리깨), 발방애(디딜방아), 망(맷돌), 둥구미(먹둥구미), 살(몽두발), 발방터(디딜방앗간), 어덩이(발채), 쪼패(벼훅이), 집갈기(벧가리), 보째기·버습(쟁기), 멍지·멍거래기(소입막이), 쇠꼴방아·쇠꼴방애(쇠절구), 썰틀(씨아), 얼끼미(얼레미), 바때기(발채), 얼개(얼레빗), 여물까리(여물간·여물광), 연재방아(연자방아), 작숙이(작대기), 절구확(절구), 방애공이(절구공이), 덜쩍(키), 풀미·풀미독(풀무), 방아확(확) 등도 일몰시기에 접어든 방언들이다.

한편, 각지·각쟁이(갈퀴), 괴빼(고빼), 코뿔레(코뚜레), 광우리(광주리), 자구(자귀·까뀌), 도꾸·도뀌(도끼), 돌방애(돌방아), 발방아(디딜방아), 돌망(맷돌), 물방간(물레방아), 디딜방애간(디딜방앗간), 벧가리·짚가래(벧가리), 연장·엔장(쟁기), 삼탱이(삼태기), 삽가래·사까래·가래(삽), 새꾸락지·새꼬래기(새끼), 서스랑(쇠스랑), 고질(여물), 구박·여물구박(쇠죽바가지), 서래(씨래), 열개미(얼레미), 첻바쿠(첻바퀴), 연자방애(연자방아), 작쌔미·작새미(지게작대기), 채·치(키), 풍구(풀무), 호무짚구(호미자루) 등 방언은 쓰임을 줄었지만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말들이다.



채·치(키)

간성읍은 곡쟁이(곡괭이), 지푸락지(지푸라기), 절구통(절구), 물방아(물레방아) 등 순으로, 어촌지역 응답자가 많은 거진읍도 곡쟁이(곡괭이), 물방아(물레방아), 절구통(절구), 지푸락지(지푸라기) 등 순으로, 현내면은 곡쟁이(곡괭이), 물방아(물레방아), 새끼줄(새끼), 절구통(절구) 등 순으로, 죽왕면은 곡쟁이(곡괭이), 새끼줄(새끼), 지푸락지(지푸라기) 등 순으로, 토성면은 곡쟁이(곡괭이), 절구통(절구), 새끼줄(새끼), 지푸락지(지푸라기), 물방아(물레방아)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방언 통용빈도는 읍·면 지역별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곡식 등의 명칭



강냉이 · 옥시기(옥수수)

농촌 중심 문화의 일상생활에서 주식인 곡식과 관련된 명칭들이다.

<표1-9>와 같이 대표적으로 강냉이·옥시기·옥째기(옥수수), 쌀알·베알(쌀·낱알), 벼(벼), 곡석(곡식), 찰조(찰조), 바꼬지(박), 새째(왕겨) 등은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말들이다.

한편, 생활문화 변화에 따라 점점 잊혀져가는 말들이다. 예를 들면, 메조히(메조), 이스래기(이삭), 찰조히·차갈이(찰조), 왜귀리(호밀) 등의 말들이 있다.

그러나 꺼끄래기(까그라기), 논곡(논곡식), 박고지·바꼬지(박), 밭곡(밭곡식), 쉬시(수수), 이시락(이삭), 마댕이(타작), 새째(왕겨) 등은 그 쓰임이 비교적 줄었지만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방언들이다.

논농사가 많은 간성읍은 쌀알(쌀·낱알), 강냉이·옥시기(옥수수), 벼(벼) 등 순으로, 거진읍은 강냉이·옥시기(옥수수) 쌀알(쌀), 벼(벼) 등 순으로, 현내면은 강냉이·옥시기(옥수수), 쌀알(쌀·낱알) 등 순으로, 죽왕면은 강냉이·옥시기(옥수수), 쌀알(쌀·낱알) 등 순으로, 토성면은 옥시기·강냉이(옥수수), 쌀알(쌀·낱알), 벼(벼)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곡식 등의 명칭 방언에서도 읍·면 지역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소채류, 과일과 식물 등의 명칭

소채류, 과일과 식물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만큼 그 용어 역시 방언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

<표1-10>과 같이 대표적으로 봉숭아(봉선화), 꼬들빼기(고들빼기), 꼬감(꽃감), 무꾸·무우(무), 깨입싸구(깻잎), 꼬치·고치(고추), 깨보생이(깻가루), 마눌(마늘), 무입싸구·무순(무청), 배차(배추), 분추(부추), 상치·생추(상추), 물외(오이), 외호박(호박), 남구·남구떼기·남그(나무·나뭇등걸), 딸구(딸기), 멀구(머루), 버들가지(버드나무), 복상(복숭아), 씬바구(씬바귀), 함박꽃(철쭉꽃), 포두(포도), 호도(호두) 등 방언은 여전히 지역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들이다.



배차(배추)

한편, 간무(당근), 불기(상추), 호배기·안즌호박(호박), 등거지(그루터기), 아치(가지), 더대기·더더지(더덕), 개바늘(도깨비바늘), 논쟁이(명아주), 모케·메내(목화), 버드리(버드나무), 봉나무·불낭기(불나무), 뽕·뽕(뽕기·띠), 삽초썩·사초썩(삽주), 참굴밤(상수리), 솔까비(솔가지·솔가리), 께·꿔·괴타리·오얏(자두), 왕대까치·왕대까지(왕대), 빼짱구·떼짱구·빼짱우(질경이), 함바꽃(철쭉꽃), 통갈나무·통가리나무(청미래덩굴), 해꽃·해장우리·해자우리(해바라기), 열구꽃(해당화), 열구(해당화열매), 당추새·당투새(호두) 등 방언은 현재 지역 사회에서 통용되는 빈도가 떨어져 점차 잊혀져가는 말들이다.

그러나 외(오이), 깨금·개금(개암), 괴비(고비), 개암·괌(고염), 께리(파리), 방뎡이(그루터기), 남그떼기(나무·나뭇등걸), 대까지·대까치(대·대나무), 나생이(냉이), 달루(달래), 덩구리(덩굴), 개바늘·또깨비바늘(도깨비바늘), 꿀밤

·굴밤(도토리), 참낭구(참나무), 버드낭구(버드나무), 뿌레기·뿌랙찌(뿌리), 사괴(사과), 짹다리·삭다리(삭정어), 솔검불(솔가리), 솔깨비(솔가지·솔가리), 솔방구리(솔방울), 씹바구(씹바귀), 뽕오두·오두(오디), 울구꽃(해당화), 울구(해당화열매), 행나무(향나무)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줄었으나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들이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말에 대한 통용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간성읍은 봉숭아(봉선화), 꼬들빼기(고들빼기), 꼬깸(꽃감), 무우(무) 등 순으로, 거진읍은 봉숭아(봉선화), 꼬깸(꽃감), 꼬들빼기(고들빼기), 꼬치(고추), 무꾸(무) 등 순으로, 현내면은 봉숭아(봉선화), 꼬들빼기(고들빼기), 꼬깸(꽃감), 무꾸(무) 등 순으로, 죽왕면은 봉숭아(봉선화), 꼬깸(꽃감), 무(무), 꼬들빼기(고들빼기) 등 순으로, 토성면은 꼬들빼기(고들빼기), 봉숭아(봉선화), 꼬깸(꽃감)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 곤충 등의 명칭

곤충 등의 명칭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표1-11>과 같이 대표적으로 날파리(날벌레), 구데기·똥구데기(구더기), 찢드기(진드기), 깔따구(각다귀), 거마리(거머리), 거무(거미), 돈벌거지(그리마), 노내기(노래기), 땡뻘(땅벌), 메떼기(메뚜기), 모구(모기), 사마구(사마귀), 두두래기(두두러기), 벌거지(벌레), 옛장수(소금쟁이), 소금쟁이(잠자리), 지렁이(지렁이), 쉬파리(쇠파리), 거시(회충) 등 방언이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돌벌까치·어르맹이(그리마), 능어·능어꼬치(누에), 바기미·보구미(바구미), 깨똥벌격지(반딧불·개똥벌레), 버리(벌), 벌기(벌레), 찢데미·으냉이

(진딧물) 등은 점차 그 쓰임이 줄어들어 사라지는 말들이다.

한편, 그마리·끄마리(거머리), 나뽀(나비), 농에·농에꼬치(누에), 땡피(땅벌), 맴·매음(매미), 메띠기(메뚜기), 물강아지(방개), 방아다리·방애다리(방아깨비), 벌격지(벌레), 씨개(서캐), 엇장사(소금쟁이), 찌랭이(지렁이), 띠미(진딧물) 등 방언은 그 쓰임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마구(사마귀)

간성읍은 날파리(날벌레), 구데기(구더기), 찌드기(진드기) 등 순으로, 거진읍은 날파리(날벌레), 구데기(구더기), 찌드기(진드기), 베짚이(여치), 벌거지(벌레) 등 순으로, 현내면은 날파리(날벌레), 사마구(사마귀), 찌드기(진드기), 구데기(구더기) 등 순으로, 죽왕면은 날파리(날벌레), 구데기(구더기), 찌드기(진드기) 등 순으로, 토성면은 날파리(날벌레), 구데기(구더기), 사마구(사마귀), 찌드기(진드기), 벌거지(벌레)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베짚이와 여치는 같은 여치과의 곤충으로 혼용하고 있다.

타. 파충류 등의 명칭



개구리(개구리)

문명 발달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파충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이에 대한 명칭 통용도 더 줄고 있다.

파충류 등의 명칭은 <표1-12>와 같이 개구락지·개구리(개구리), 올챙이새끼(올챙이), 살무사(살모사), 구렁이(구렁이), 뚜꺼비(두꺼비)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으심이(이무기) 등에 대한 명칭 통용은 크게 줄었다.

간성읍은 개구락지(개구리), 살무사(살모사), 올챙이새끼(올챙이), 구렁이(구렁이) 등 순으로, 거진읍은 개구락지·개구리(개구리), 올챙이새끼(올챙이), 살무사(살모사) 등 순으로, 현내면은 개구락지(개구리), 살무사(살모사), 올챙이새끼(올챙이), 구렁이(구렁이) 등 순으로, 죽왕면은 개구락지(개구리), 살무사(살모사), 구렁이(구렁이), 두꺼비(두꺼비) 등 순으로, 토성면은 개구락지·개구리(개구리), 구렁이(구렁이), 올챙이새끼(올챙이)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 물고기 등의 명칭

지리적으로 긴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 명칭에 대한 방언도 적지 않다.

<표1-13>과 같이 대표적으로 미꾸라지·미꾸리(미꾸라지), 놀래미(놀래기), 맹태·생태(명태), 가재미·참가재미·물가재미·돌가재미(가자미), 기(게), 동태(냉동명태), 열갱이(볼락), 앵미리(양미리), 이까(오징어), 우레기(우럭), 논꼴뱅이(우렁이), 가시리(우뚝가시리), 새치·이면수(임연수어), 용고지(쌀미꾸리), 꾀기(고기), 갈치(갈치), 공치(꽁치), 뚝저구(뚝지), 썩·썩(홍합) 등 방언이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미리(양미리)

그러나 고망어(고등어), 뚜거리(뚝지), 부채기(꽃게), 썩치·썩튀(도치), 뚝패(망둥이), 해태(물개), 장굉이·장굉이(뱀장어), 뽕갱이·아까모찌(볼락), 살치·눈텅거리(송사리), 아까이(붉은성게), 구로(검은성게), 새비새끼(새우), 아굼치·아감지(아가미), 행우(멍게), 용고지·용곡지(쌀미꾸리), 등날개·지데미(지느러미), 칠썩이(칠성장어), 중사리·눈옹고찌(피라미)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줄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말들이다.

한편, 꾀기(고기), 가우리(가오리), 쪽저구·뚝저기(뚝지), 버들각지·버들기(버들치), 뱀(뱀·창자), 알땅구(붉은성게), 서거리(아가미), 아굼지(아가미), 앵미리(양미리), 우레기(우럭), 꼴뱅이·꼴배·꼴배이(꼴뱅이), 며치·매치·맬치(멸치), 가리쟁이(임연수어새끼), 조가지·조가비(조개), 날개미(지느러미)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성읍은 미꾸라지(미꾸라지), 가재미·까재미(가자미), 생태(명태), 동태(냉동명태), 놀래미(놀래기), 기(게) 등 순으로, 거진읍은 생태·동태(명태), 미



명태(명태)

꾸라지(미꾸라지), 기(게), 놀래미(놀래기), 가재미(가자미) 등 순으로, 현내면은 놀래미(놀래기), 미꾸라지(미꾸라지), 생태(명태), 동태(냉동명태), 기(게) 등 순으로, 죽왕면은 놀래미(놀래기), 동태(냉동명태), 생태(명태), 기(게) 등 순으로, 토성면은 미꾸라지(미꾸라지), 놀래미(놀래기), 가재미(가자미), 새치(임연수어), 앵미리(양미리), 열갱이(볼락)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어구 등의 명칭

지리적으로 동해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 종사인구가 비교적 많다. 그에 따라 어구 등의 명칭도 다양하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용어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표1-14>와 같이 대표적으로 낙씨·낙수(낙시), 미깻(미끼), 삼마이그물(삼중자망) 등은 어촌지역에서 통용되는 방언들이다.

그러나 둠박·뚬박(부표), 깍짓대(삿대), 따리(방향키), 놀(노櫓)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줄어 점차 그 소통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편, 경심(낙싯줄), 우끼·땡(찌), 삼마이그물(삼중자망), 풍(돛) 등의 방언은 비록 쓰임은 줄었지만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말들이다.

간성읍은 낙씨(낙시), 미깻(미끼) 등으로 순으로, 거진읍은 낙씨(낙시), 찌(낙시찌), 경심(낙싯줄) 등 순으로, 현내면은 낙씨(낙시), 경심(낙싯줄) 등 순으로, 죽왕면은 낙씨(낙시), 미깻(미끼) 등 순으로, 토성면은 낙씨(낙시), 미깻(미끼), 삼마이그물(삼중자망)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돛)

거. 길짐승 등의 명칭



고냉이(고양이)

길짐승은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짐승을 일컫는다. 편의상 길짐승으로 구분한 범위가 넓다.

<표1-15>와 같이 대표적으로 호랭이·호래이(호랑이), 도야지·꿀데지·데지(돼지), 두더쥐(두더지), 고냉이·고앵이(고양이), 당나구(당나귀), 골방쥐(생쥐), 불여우·백여우(여우), 퇴끼(토끼), 수소(황소·수소) 등 방언은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게 통용되는 말들이다.

그러나 머기(모이), 천생이·영우(여우) 등 방언은 그 쓰임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놀기·노름(노루), 산쥐·다람지(다람쥐), 뫼이(모이), 사심(사슴), 살기·살키(샬·살랭이), 용우(여우), 염쇠(염소), 화소(황소·수소) 등 방언은 그 쓰임을 줄였으나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들이다.

간성읍은 호랭이(호랑이), 불여우(여우), 도야지(돼지) 등 순으로, 거진읍은 호랭이(호랑이), 도야지(돼지), 두더쥐(두더지), 호래이(호랑이), 퇴끼(토끼), 쇠(소) 등 순으로, 현내면은 호랭이(호랑이), 도야지(돼지), 두더쥐(두더지) 등으로, 죽왕면은 호랭이(호랑이), 당나구(당나귀) 등 순으로, 토성면은 호랭이(호랑이), 두더쥐(두더지), 당나구(당나귀), 퇴끼(토끼)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 날짐승 등의 명칭

날짐승은 날아다니는 동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표1-16>과 같이 대표적으로 까마구(까마귀), 까투리(암꿩), 쟁끼(수꿩), 닥(닭), 깔매기(갈매기), 닭터래기(닭털), 뺑아리·뺑아리·닥새끼(병아리), 장탯(수탯·장닭) 등 방언이 통용되고 있다.

다만, 둥지리(닭어리) 등 방언은 점차 그 쓰임이 줄어들고 있고, 거시(거위), 기레기·지러기(기러기), 꿩(꿩), 닭집(닭어리), 뺑지(박쥐) 등 방언도 그 쓰임이 줄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성읍은 까마구(까마귀), 장탯(장닭), 닥새끼·뺑아리(병아리) 등 순으로, 거진읍은 까마구(까마귀), 뺑아리(병아리), 장탯(장닭), 깔매기(갈매기) 등 순으로, 현내면은 까마구(까마귀), 뺑아리(병아리), 닥(닭) 등 순으로, 죽왕면은 까마구(까마귀), 장탯(장닭), 뺑아리(병아리) 등 순으로, 토성면은 까마구(까마귀), 장탯(장닭), 뺑아리(병아리), 닥(닭), 닭터래기(닭털)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 유형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뺑아리(병아리)

더. 시후(날씨와 계절) 등의 명칭



별(별)

날씨와 계절, 시간 등 시후에 관한 명칭도 다양하다.

<표1-17>과 같이 대표적인 방언으로 요새·요즘(요즈음), 이따가·게따가(조금 지난 후에), 아지랑이(아지랑이), 동삼(겨울), 글패(글피), 그글패(그글피), 식전(이른아침), 지약(저녁), 올저녁·올지약(오늘저녁), 널저녁·널지약(내일저녁), 접때(그때), 베

락(벼락), 슷딸(섣달), 소낙비·소내기(소나기), 반공일(토요일), 시방·막(지금), 돌개바람(회오리바람) 등 방언은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게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리(놀霞彩), 능개·우내비(능개), 새박(새벽), 해저름(해거름), 느리(우박), 포락(홍수), 돌간바람(회오리바람)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줄어 점차 잊혀지는 말들이다.

한편, 갈강비(가랑비), 가을기·갈(가을), 겨울(겨울), 께(경·쫘), 아척(아침), 지약(저녁), 안개비(능개), 벨(별), 벨(별), 새벽·새복·새벽(새벽), 방공일(토요일), 온공일(일요일), 해질물(해거름), 우박비(우박), 부슬비(이슬비), 개락(홍수), 회리바람(회오리바람)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줄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들이다.

간성음은 아지랭이(아지랑이), 요새·요즘(요즈음), 이따가(조금 지난 후) 등 순으로, 거진음은 요즘·요새(요즈음), 이따가(조금 지난 후에), 아지랑이(아지랑이) 등 순으로, 현내면은 요즘·요새(요즈음), 이따가(조금 지난 후), 아지랭이(아지랑이), 내저녁(내일 저녁) 등 순으로, 죽왕면은 이따가(조금 지난 후), 요새·요즘(요즈음), 시방(지금), 아지랭이(아지랑이) 등 순으로, 토성면은

아지랭이(아지랑이), 요새·요즘(요즈음), 식전(이른 아침), 이따가(조금 지난 후), 시방(지금)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 유형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 지리(地理) 등의 명칭

지형과 지리 등에 관련 된 명칭은 일상생활에서 늘 통용되는 말이다.

<표1-18>과 같이 대표적인 방언은 짱돌·돌멩이·돌빼이(돌), 버덩·뜰(들), 말(마을), 바웃돌·바우·돌빠우(바위), 산봉오리(산봉우리), 갯가(개울), 신장노(신작로), 언덕빼기(언덕바지), 웃말(윗마을) 등이다.

그러나 지숙·지실(기슭), 질깁노·가리(갯길·길옆), 말기(마루), 드루(들), 멍산(명산), 물기(모래), 된바우(바위), 산태깨비(벼랑), 소룣길(소로小路), 언데기(언덕바지) 등 방언은 점차 그 쓰임이 줄어들고 있는 말들이다.

한편, 건느말·거른말(건너마을), 질·질깁·길깁(길道路), 길깁여카리(갯길·길옆), 말기뚝(논둑·높은 둑), 물개(모래), 벼랑(벼랑), 개(시내·개울), 언드박(언덕바지), 영말기(영마루), 둠병(웅덩이)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줄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들이다.

간성읍은 짱돌(돌), 산봉오리(산봉우리), 돌빠우(바위) 등 순으로, 거진읍은 짱돌·돌멩이(돌), 산뽕우리·산봉오리(산봉우리), 웃말(윗마을) 등 순으로, 현내면은 짱돌(돌), 산봉오리(산봉우리), 웃말(윗마을), 뜰(들) 등 순으로, 죽왕면은 짱돌(돌), 산봉오리(산봉우리), 웃말(윗말), 바웃돌(바위) 등 순으로, 토성면은 짱돌(돌), 산봉오리(산봉우리), 언덕빼기(언덕바지), 신장노(신작로)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 유형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 방위(方位) 등의 명칭

방향을 뜻하는 방언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표1-19>와 같이 대표적으로 꼭때기(꼭대기), 콩지머리(뒤), 미테(밑), 어디루(어디로), 어데(어디에), 가생이(가장자리), 귀테기·구석배기·모탱이(구석·모퉁이), 웃빵·위칸(윗방), 아래칸·아랫칸(아랫방), 우에(위에) 등 방언이 있다.

그러나 ㄴ으가리(가장자리), ㄴ으강사리(가장자리), 귀재비(구석·모퉁이)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줄어 점차 잊혀지는 말들이다.

한편, 알(아래), 우(위) 등의 방언은 그 쓰임을 줄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들이다.

간성읍은 어디루(어디로), 꼭때기(꼭대기), 콩지머리(뒤), 아래칸(아랫방), 어데(어디에) 등 순으로, 거진읍은 꼭때기(꼭대기), 어데(어디에), 어디루(어디로), 미테(밑), 아랫칸(아랫방) 등 순으로, 현내면은 꼭때기(꼭대기), 미테(밑), 어데(어디에), 아래칸(아랫방) 등 순으로, 죽왕면은 꼭때기(꼭대기), 미테(밑), 어디루(어디로), 아래칸(아랫방) 등 순으로, 토성면은 꼭때기(꼭대기), 콩지머리(뒤), 미테(밑), 웃빵(윗방)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 유형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수치 관련 명칭

일상생활 속에서 통용되는 수치 관련 방언들이다.

<표1-20>과 같이 대표적으로 하내(하나), 돌히(둘), 서이·서히(셋), 너이(넷), 다서·댓(다섯), 여서(여섯), 일곱(일곱), 여덜·여들비(여덟), 열일곱(열일곱), 열아홉(열아홉), 시술다섯·수물다섯(스물다섯), 설흔(서른), 설흔여들비(서른여덟), 이른여들비(일흔여덟), 사날(사나흘), 아레(아흐레), 마카(모두), 무데기(뭍음·단·뭇), 한바리(100두름), 메칠(며칠), 세다(헤아리다), 췌다(많다·흔하다) 등 방언들이다.

그러나 뽐(뽐) 등 방언은 그 쓰임이 크게 줄어든 말이다.

한편, 베미(마지기), 커리(컬레), 뽐(뽐), 마캉(모두), 무꾸미(뭍음·단·뭇), 시다(헤아리다) 등 방언은 그 쓰임이 줄었지만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말이다.

간성음은 너이(넷), 서이·서히(넷), 여덜(여덟), 다서(다섯), 여서(여섯) 등 순으로, 거진음은 너이(넷), 여덜(여덟), 서이·서히(셋), 여서(여섯) 등 순으로, 현내면은 너이(넷), 서이(셋), 여덜(여덟), 여서(여섯) 등 순으로, 죽왕면은 너이(넷), 서이(셋), 여덜(여덟), 다서(다섯) 등 순으로, 토성면은 너이(넷), 서이(셋), 여덜(여덟), 이른너이(일흔넷)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유형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용언과 관용어 등

용언과 관용어 등은 방언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표현과 통용 형식이 다양하다. 형용사, 부사, 동사, 조사, 접속사에 이르기까지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방언들을 모았다.

<표1-21>과 같이 대표적으로 자꾸·대구(계속), 가차이(가까이), 개롭다·가롭다(가렵다), 갈치다(가르치다), 갈체준다(가르쳐준다), 갈키다(가르키다), 갈케준다(가르켜준다), 개벼우니까(가벼우니까), 개뿐하다(가뿐하다), 벨안간·급짜기(갑자기·별안간), 거꿀루·까꾸루(거꾸로), 거시르다(거스르다), 거실러(거슬러), 거진(거의), 근들지마(건들지마), 꺾지다(건지다), 정황(경황), 막빠루·고빠루(곧장), 부러(팬시리), 게아나(괜찮아), 구먹다·꼬먹다(구워먹다), 기래서(그래서), 지울다(기울다), 기다라케·지다라케(기다랗게), 길쭉한 거·질쭉한 거(길쭉한 거), 깨까시(깨끗이), 끼안타(껴안다), 농가먹다(나눠먹다), 가치농구구(같이 나누고), 농구다(나누다), 내중에·냉중에(나중에), 헐었다(날랐다), 남새스럽다·냄새시럽다(남부끄럽다), 넓죽하구(넓적하고), 늘쌍(늘·항상), 틀리다·달라(다르다), 단도리하다(단속하다·채비하다), 데워야 겠다·뜨세야겠다(덥혀야겠다), 도맹쳐서왔다(도망쳐왔다), 동글라하게(동그랗게), 댕거렁(땡겨든), 우라지게·되지게·썰게(대단히·되게), 뚜꿍다(두껍다), 쫄다(두려워하다), 얼다(겁내다), 나-안자(떨어져 앉자), 디레다본다(들여다본다), 마실간다(마을간다), 맥근다·맥글다(만든다·만들다), 게걸이 들렸다(많이 먹는다), 미식거리다(메숙거리다), 메꾸다(메우다), 월할라구·메타라(무엇하려고), 내꼴지다(버리다), 부신다·뿌신다(부순다), 부지랭이(부지런히), 문디다(비비다), 곰치다·숨키다(숨기다), 시구럽다(시다), 씨언하다(시원하다), 헐하다(값이)싸다, 씨굽다·씨구와서(쓰다), 애끼다(아끼다), 안기래(안그래), 앵가이(어지간히), 오믄(오면), 오거덩(오거든), 되레(오히려),

올래다보다(올려다보다), 하마(이미), 하마터면·하마트문(하마터면), 부러(일부러), 일나·인나(일어나), 일켜세워(일으켜세워), 이짚니(있잖니), 잘게(작게), 정내미떨어졌다(정나미없다), 똑소리나다(정확하다), 질시러한데(제일 싫어), 짝끄만 것(조그맣다), 짝끔씩(조금씩), 아까·아께(조금 전에), 진떼이(진짜), 차구와(차가워), 빠지다·트러지다(토라지다), 편히(편히), 부애가 나서(화가 나서), 화딱지(화), 하믄(하면), 옥썴기 송겨농겨(옥수수 심어놓은 것), 보강지 앵구리(아궁이 연기), 질깁여카리 낭구(갯길 나무), 쿤내난다(냄새난다), 똥쿨래난다(똥냄새난다) 등 여러 가지 용언과 관용어 방언은 지역 사회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쓰임이 줄었거나 잊혀져 가는 방언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제우(겨우·가까스로), 객고(가지고), 고빨리(곧장), 개다(괴다), 강아지끈다(굴뚝 청소하다), 께지버서(꼬집어서), 찢다(꾸었다), 나물쿤다(꾸짚다), 잡도리하다(단속하다), 되잘라빠진거(되잖다), 메들게(모여들다), 비빠라구(베어버리다), 베림질하다(벼림질하다), 풀미풀미(부라부라), 불래(비켜), 말도 양이 해(말도 안 해), 양야(아니냐), 나젠 양해도(낮엔 안 해도), 양이 베키지(안 보이다), 알기지 안쿠(알리지 않고), 예뻐다(야위다), 열거서 잇는다(엮다), 오골차다(오지다), 윙기진 안터라구(웁기다), 원금으루·앵그므루(외워서), 생깁이 안나(생각이 앓나), 우명하게 해(정갈하다), 제꿈도 말에(지금도 마을에), 메두 지찌(…짓다), 쫓뽕해 노쿠(춥불 해 놓고), 치질하다(키질하다), 트러노래(틀어놓을까), 부애깁이 생겼어(화나다)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록 쓰임이 줄었지만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방언들도 있다. 예를 들면, 게우·제와(겨우·가까스로), 썩(가까이), 각고(가지고), 깡파르다(강파르다), 근내가다(건너가다), 열찢하믄(걸핏하면), 전디다·전디다(견디다), 개우다(괴다), 글거모다·그러모다(굽어모으다), 곧도(그만 뒤), 지르다(기르다), 짚다(짚다), 깨까타다(깨끗하다), 짚이다(끓이다), 얹추다(낮추다), 노푸다(높다),

늑시그레한(늑수그레한), 뜨세야겠다(덥혀야겠다), 되아지게(대단히·되
 게), 되잔나빠진거(되잖다), 돌른다·돌분다(똥는다), 매냥(마냥), 말도리간
 다(마을간다), 망글다·맹길다(만들다), 걸구들렸다(많이 먹는다), 마이메긴
 다(많이 먹인다), 몰르문(모르면), 메들다(모여들다), 바로 무꺼서(바로 묶
 어서), 발쿤다(바루다·퍼다), 펜다(편다), 뿐본다(본 받는다), 비젓할(비슷하
 다), 몰래(비켜), 난자(물러 앉아), 쌀마서(삶다), 숨다(심다), 숨그는(심는),
 쓰겁다(쓰다), 씨러진다(쓰러진다), 상가두(아직도), 알구다(알리다), 패랏다
 (야워다), 언가니(어지간히), 영글문(영글면), 치다봐(쳐다 보다), 우정·역부
 러(일부러), 일찌간치(일찌감치), 이러 머것다(잃어버렸다), 있짜나(있잖아),
 이러빠렸써요(잊어버렸다), 짜단하게(자잘하게), 재롬하다(작다), 어래이 아
 라서(어련히 알아서), 재와서(재우다), 재간치다(저지레하다), 사작사작(천
 천히), 히딱까무리치다(졸도하다), 종이짜비·종우짜기(종이조각), 짹쟁이(짹
 짹궁이), 차구어(차가워), 부애나게(화나게), 부애를 독아서·화를 도까서(화
 를 돋우다), 지시랑물(낙숫물), 쌀잘기 널커나(쌀자루 내려놔), 아치게 했다
 (아침에 했다), 냉가다 보며는(넘겨다 보면), 벳잘구 동가매(벳자루 묶어) 등
 방언으로 나타났다.



간성읍은 자꾸(계속), 빠지다(토라지다), 화딱지(화), 아까·아께(조금 전에), 부애가 나서(화가 나서), 미식거리다(메속거리다), 내꼴지다(버리다), 잘게(작게), 메꾸다(메우다) 등 순으로, 거진읍은 화딱지(화), 빠지다(토라지다), 아까(조금 전에), 잘게(작게), 인나(일어나), 찌끄만(조그만), 정내미(정나미), 애끼다(아끼다) 등 순으로, 현내면은 자꾸(계속), 화딱지(화), 기래서(그래서), 미식거리다(메속거리다), 찌끄망다(조그망다), 빠지다(토라지다), 안기래(안 그래), 꼬먹다(구워먹다), 애끼다(아끼다) 등 순으로, 죽왕면은 화딱지(화), 자꾸(계속), 빠지다(토라지다), 아까(조금 전에), 헐었다(날았다), 잘게(작게), 구먹다(구워먹다) 등 순으로, 토성면은 화딱지(화), 자꾸(계속), 인나(일어나), 정내미 떨어지다(정나미 없다), 찌끄망다(조그망다), 잘게(작게), 아까(조금 전에), 기래서(그래서), 헐었다(날았다), 메꾸다(메우다), 내꼴지다(버리다)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읍·면 지역별로 다소 유형의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어촌 지역별 분석

가. 농촌지역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언어의 발달은 농촌지역에서 더 활발했을 것이고, 생활양식과 문화, 환경의 차이로 인해 농촌과 어촌, 기타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의 빈도가 다소 다를 것이라는 전제로 출발했다. 하지만 정작 조사 결과에서는 읍·면지역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 대동소이하지만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사유를 명쾌하게 규명하거나 단정하기 쉽지 않다.

가족관계 호칭에는 <표2-1>과 같이 할머니(할머니), 큰아버지(큰아버지), 시어머니(시어머니), 동상(동생), 친정아버지(친정아버지)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용어에는 <표2-2>와 같이 껌떼기(껌떼기), 뽕따구(뽕따귀), 간나(계집애), 기력지(길이), 핵교(학교), 미시리(바보), 공갈·뽕(거짓말)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지만 생활문화의 변화로 인해 내구레기(연기), 주레(호드기), 움물고누(고누), 둥개(둥고리) 등은 점차 소멸하는 방언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젠노리(새참)’, ‘철엽(천렵)’ 등 일부 방언은 어촌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생활용품의 명칭에는 <표2-3>과 같이 밥주걱(주걱), 재털이(재떨이), 비개(베개), 빙구(얼음썰매), 숫깁·수까락(숫가락), 도짜리(돗자리), 대리미(다리미)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동태바꾸(굴렁쇠), 풀비(귀얄), 녁동바리(냇동무니), 벌썩개(밑싹개), 어르개(얼레빗), 연짜개(얼레), 불비당이

(부삽) 등 방언은 점차 일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관련 명칭에는 <표2-4>와 같이 뒤간(변소), 구들짱(구들), 장판지(장독), 마구간·마굿간(외양간), 장뚝(장독), 토랑(도랑), 뱅소(변소), 기아집(기와집)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서포살이(셋방살이) 등 방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음식 등의 명칭에는 <표2-5>와 같이 감주(식혜), 국시(국수), 찐지(김치), 씨래기(시래기), 꼬추장(고추장), 계란(계란), 부친개·부치미(부침개), 지름(기름)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옷)의 명칭에는 <표2-6>과 같이 누데기(누더기), 치매(치마), 조고리(저고리), 두루막(두루마기), 고쟁이(속옷)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가구 등의 명칭에는 <표2-7>과 같이 농(장롱), 빼다지(서랍), 차단쓰·단쓰(장롱), 고리짝(궤)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농기구 등의 명칭에는 <표2-8>과 같이 곡괭이(곡괭이), 지푸락지(지푸라기), 절구통(절구), 새끼줄(새끼), 물방아(물레방아), 디딤방아(디딜방아)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작업의 기계화로 인해 가데이(극쟁이), 나루채(벗줄), 둥구미(먹둥구미), 어덩이(발채), 얼끼미(어레미) 등은 점차 그 용어 자체가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곡식 등의 명칭에는 <표2-9>와 같이 강냉이·옥시기·옥새기(옥수수), 쌀알(쌀), 벼(벼), 벼알(낱알), 곡식(곡식)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소채류, 과일과 식물 등의 명칭에는 <표2-10>과 같이 봉숭아(봉선화), 꼬들빼기(고들빼기), 꼬감(곶감), 무우·무꾸(무), 깨입싸구(깻잎), 꼬치(고추), 배차(배추), 씬바구(쌈바귀), 호도(호두), 버들가지(버드나무), 딸구(딸기)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곤충 등의 명칭에는 <표2-11>과 같이 날파리(날벌레), 구데기(구더기), 찐드기(진드기), 사마구(사마귀), 베짖이(여치), 벌거지(벌레)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파충류 등의 명칭에는 <표2-12>와 같이 깨구락지(개구리), 올챙이새끼(올챙이), 살무사(살모사), 구렁이(구렁이), 깨구리(개구리), 뚜꺼비(두꺼비)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특히 ‘깨구락지(개구리)’ 등 일부 방언은 어촌지역보다 더 높고, ‘깨고락지(개구리)’ 등 방언은 어촌지역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물고기 등의 명칭에는 <표2-13>과 같이 미꾸락지(미꾸라지), 뱀(창자), 가재미(가자미), 놀래미(놀래기), 동태(냉동명태), 생태(명태), 기(게), 칼치(갈치), 새치(임연수어)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구 등의 명칭에는 <표2-14>와 같이 낙씨(낙시), 찌(낙시찌), 미깻(미끼), 낙수(낙시), 경심(낙싯줄)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길짐승 등의 명칭에는 <표2-15>와 같이 호랭이(호랑이), 도야지(돼지), 두더쥐(두더지), 당나귀(당나귀), 고냉이(고양이)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짐승 등의 명칭에는 <표2-16>과 같이 까마구(까마귀), 장닭(장닭), 뺨아리(병아리), 닭새끼(병아리), 닭(닭), 닭터래기(닭털)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시후(날씨와 계절) 등의 명칭에는 <표2-17>과 같이 아지랭이(아지랑이), 요새(요즈음), 이따가(조금 지난 후에), 시방(지금), 식전(이른 아침), 소낙비(소나기)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지리(地理) 등의 명칭에는 <표2-18>과 같이 돌맹이·짱돌(돌), 산봉오리·산뽕우리(산봉우리), 웃말(웃마을), 신장로(신작로), 언덕빼기(언덕바지), 돌뽕우리(바위)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방위(方位) 등의 명칭에는 <표2-19>와 같이 꼭때기(꼭대기), 콩지머리(뒤), 어디루(어디로), 미테(밑), 어디(어디에)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수치 관련 명칭에는 <표2-20>과 같이 너이(넷), 서이(셋), 여덜(여덟), 다서(다섯), 여서(여섯), 수물다섯(스물다섯) 설흔(서른)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용언과 관용어 등 명칭에는 <표2-21>과 같이 자꾸(계속), 화딱지(화), 빠지다(토라지다), 미식거리다(메스거리다), 잘게(작게), 메꾸다(메우다), 찢끄만(조그만), 부애나서(화나서), 내꼴지다(버리다), 구먹다(구워먹다), 기래서(그래서) 등 순으로 더 많은 방언들이 통용되고 있다.

나. 어촌지역

어촌지역은 백두대간 동쪽에 위치하면서 90km 이상 동해의 긴 해안선을 접하고 포구 중심으로 집단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고성지방은 농촌과 어촌의 생활방식과 문화에 큰 차이가 없다. 현실적으로 생활방식과 소통의 형식이 비슷하다. 따라서 통용 방언도 거의 유사하다.

이번 조사 결과, 농촌지역 응답자 보다 더 많은 응답과 적극적인 응답은 어촌지역의 방언이 더 활발하고 방언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호칭에는 <표2-1>과 같이 할머니(할머니), 큰아버지(큰아버지), 시어머니(시어머니), 동상(동생), 하라버이(할아버지)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머니(할머니)’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용어에는 <표2-2>와 같이 껌떼기(껌데기), 뺨따구(뺨다귀), 학교(학교), 얼라(갓난아이), 공갈·뽕(거짓말), 간나(계집애), 니(너), 미시리(바보)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지만 생활문화의 변화로 인해 내구리(연기), 주레·줄레(호드기), 베림질간(대장간) 등은 점차 소멸하는 방언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의 명칭에서는 <표2-3>과 같이 재털이(재떨이), 밥주걱(주걱), 숟갈·수까락(숟가락), 비개(베개), 대리미(다리미)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동태바꾸(굴렁쇠), 척세(다리쇠), 녁동바리(냅동무니), 벌찍개(밀싹개), 어르개(얼레빗), 연짜개(얼레), 불비당이(부삽) 등 방언은 점차 일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뺨따구’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냉구리(연기)’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이 더 높다. 특별히 ‘재털이(재떨이)’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거관련 명칭에는 <표2-4>와 같이 장판지(장독), 구들짱(구들), 뒤간(변소), 마구간·마굿간(외양간), 장뚝(장독), 또랑(도랑), 뺨소(변소), 지동(기둥)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서포살이(셋방살이) 등 방언은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음식 등의 명칭에는 <표2-5>와 같이 꼬추장(고추장), 국시(국수), 감주(식혜), 씨래기(시래기), 찐지(김치), 계란(계란), 부친개·부치미(부침개), 꼬들밥(고두밥·된밥), 지름(기름)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국시(국수)’, ‘꼬추장(고추장)’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의복(옷)의 명칭에는 <표2-6>과 같이 누데기(누더기), 치매(치마), 조고리(저고리), 두루막(두루마기), 고쟁이(속옷)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가구 등의 명칭에는 <표2-7>과 같이 농(장롱), 빼다지(서랍), 차단쓰(장롱), 빼랍(서랍), 고리 짝(궤)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으게(장롱) 등 방언은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농기구 등의 명칭에는 <표2-8>과 같이 곡괭이(곡괭이), 물방아(물레방아), 절구통(절구), 지푸락지(지푸라기), 새끼줄(새끼), 디딜방아(디딜방아)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작업의 기계화로 인해 후지·가데이(극쟁이), 살(몽두발), 벼습(쟁기), 얼끼미(어레미) 등은 점차 그 용어 자체가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곡식 등의 명칭에는 <표2-9>와 같이 강냉이·옥시기·옥새기(옥수수), 쌀알(쌀), 벼(벼), 벼알(날알), 곡식(곡식)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특별히 ‘강냉이(옥수수)’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소재류, 과일과 식물 등의 명칭에는 <표2-10>과 같이 봉숭아(봉선화), 꼬감(꽃감), 꼬들빼기(고들빼기), 꼬치(고추), 상치(상추), 호도(호두), 무우·무꾸(무), 깨입싸구(깨잎)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특히 ‘꼬감(꽃감)’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곤충 등의 명칭에는 <표2-11>과 같이 날파리(날벌레), 구데기(구더기), 찐드기(진드기), 사마구(사마귀), 벼짱이(여치), 두두래기(두드러기), 벌거지(벌레)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파충류 등의 명칭에는 <표2-12>와 같이 깨구락지(개구리), 올챙이새끼(올챙이), 살무사(살모사), 뚜꺼비(두꺼비), 깨구리(개구리)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물고기 등의 명칭에는 <표2-13>과 같이 놀래미(놀래기), 생태(명태), 미꾸락지(미꾸라지), 기(게), 동태(냉동명태), 가재미(가자미), 갈치(갈치), 앵미리(양미리), 섭(홍합)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게)’, ‘놀래미(놀래기)’, ‘생태(명태)’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어구 등의 명칭에는 <표2-14>와 같이 낙씨(낙시), 찌(낙시찌), 미깻(미끼), 경심(낙싯줄), 낙수(낙시)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특히 ‘낙씨(낙시)’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길짐승 등의 명칭에는 <표2-15>와 같이 호랭이(호랑이), 도야지(돼지), 두더쥐(두더지), 당나귀(당나귀), 호래이(호랑이), 퇴끼(토끼), 고냉이(고양이)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짐승 등의 명칭에는 <표2-16>과 같이 까마구(까마귀), 뺨아리(병아리), 장닭(장닭), 닭(닭), 깔매기(갈매기), 빠지(박쥐)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특히 ‘뺨아리(병아리)’ 등 일부 방언은 어촌지역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시후(날씨와 계절) 등의 명칭에는 <표2-17>과 같이 요즘(요즈음), 이따가(조금 지난 후에), 아지랭이(아지랑이), 요새(요즈음), 널저녁(내일저녁), 돌개바람(회오리바람), 소낙비(소나기)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특히 ‘요즘(요즈음)’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리(地理) 등의 명칭에는 <표2-18>과 같이 짱돌·돌멩이(돌), 산봉오리·산뽕우리(산봉우리), 웃말(웃마을), 뜰(들), 신장로(신작로), 돌빠우·바우(바위)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방위(方位) 등의 명칭에는 <표2-19>와 같이 꼭때기(꼭대기), 미테(밑), 어데(어디에), 어디루(어디로), 아랫간·아래칸(아랫방), 웃뺨(윗방)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특히 ‘꼭때기(꼭대기)’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수치 관련 명칭에는 <표2-20>과 같이 너이(넷), 여덜(여덟), 서이(셋), 여서(여섯), 서히(셋), 다서(다섯), 설흔(서른), 수물다섯(스물다섯)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특히 ‘서히(셋)’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용언과 관용어 등 명칭에는 <표2-21>과 같이 자꾸(계속), 화딱지(화), 인나(일어나), 숨키다(숨기다), 기래서(그래서), 메꾸다

(메우다), 빠지다(토라지다), 근들지마(건들지마), 구먹다(구워먹다), 헐었다(낱았다), 잘게(작게), 찢끄만(조그만), 꼬먹다(구워먹다), 꺾지다(건지다), 개쁜하다(가쁜하다) 등 순으로 더 많은 방언들이 통용되고 있다. 특히 ‘숨키다(숨기다)’ 등 일부 방언은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 기타 지역

기타 지역은 농촌과 어촌지역을 제외한 상가 등 지역을 특정한다. 큰 도시심이 없는 고성지방은 농촌과 어촌의 생활방식과 문화에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활방식과 소통 형식이 거의 같으므로 통용 방언도 거의 유사하다.

가족관계 호칭에는 <표2-1>과 같이 동상(동생), 시어머이(시어머니), 큰아부지(큰아버지), 할머니(할머니), 친정아부지(친정아버지), 하라버이(할아버지)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용어에는 <표2-2>와 같이 껌떼기(껌데기), 기력지(길이), 미시리(바보), 뽕따구(뽕다귀), 핵교(학교), 뽕(거짓말), 간나(계집애)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지만 생활문화의 변화로 인해 내구리·내구레기(연기), 주레·줄레(호드기), 승냥간·베림질간(대장간), 팽새(팽과리) 등은 점차 소멸하는 방언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의 명칭에서는 <표2-3>과 같이 재털이(재떨이), 밥주걱(주걱), 숯갈·수까락(순가락), 대리미(다리미), 빙구(얼음썰매)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동태바꾸(굴렁쇠), 몽치매기(목침), 연짹개(얼레), 쏘개울치(참빗), 척세(다리쇠), 녁동바리(낙동무니), 벌짹개(밑신개), 어르개(얼레빗), 불까리(부젓가락), 불비딩이(부삽), 팽풍(병풍) 등 방언은 점차 일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관련 명칭에는 <표2-4>와 같이 뒤간(변소), 구돌짱(구들), 마구간·마굿간(외양간), 장판지(장독), 뒤란(뒤뜰)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구수·비구수(구유), 놀마룻(마루), 울썩다리(울타리) 등 방언은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음식 등의 명칭에는 <표2-5>와 같이 감주(식혜), 국시(국수), 찐지(김치), 꼬추장(고추장), 지름(기름), 씨래기(시래기), 계란(계란), 부친개·부치미(부침개)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옷)의 명칭에는 <표2-6>와 같이 누데기(누더기), 조고리(저고리), 고쟁이(속옷), 두루막(두루마기), 치매(치마)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가구 등의 명칭에는 <표2-7>과 같이 농(장롱), 빼다지(서랍), 고리짝(궤), 차단쓰·단쓰(장롱)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으게(장롱) 등 방언은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농기구 등의 명칭에는 <표2-8>과 같이 새끼줄(새끼), 곡괭이(곡괱이), 방간(방앗간), 절구통(절구), 물방아(물레방아), 디딜방아간(디딜방앗간), 지푸락지(지푸라기)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작업의 기계화로 인해 후지·가데이(극쟁이), 살(몽두발), 찜비방아(물레방아), 쇠꼭방애(쇠절구), 열기미(어레미), 풀미(풀무) 등은 점차 그 용어 자체가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곡식 등의 명칭에는 <표2-9>와 같이 강냉이·옥시기·옥쌔기(옥수수), 쌀알(쌀), 벼(벼), 차조(찰조), 새째(왕겨)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소채류, 과일과 식물 등의 명칭에는 <표2-10>과 같이 꼬깸(꽃감), 봉숭아(봉선화), 꼬들빼기(고들빼기), 무우·무꾸(무), 깨보생이(깻가루), 호도(호두), 깨입싸구(깻잎), 나생이(냉이), 딸구(딸기)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곤충 등의 명칭에는 <표2-11>과 같이 날파리(날벌레), 구데기(구더기), 베짚이(여치), 사마구(사마귀), 벌거지(벌레), 땡땡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파충류 등의 명칭에는 <표2-12>와 같이 깨구락지(개구리), 구렁이(구렁이), 살무사(살모사), 두꺼비(두꺼비), 올챙이새끼(올챙이), 깨구리(개구리)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물고기 등의 명칭에는 <표2-13>과 같이 생태(명태), 가재미(가자미), 놀래미(놀래기), 이면수(임연수어), 기(게), 동태(냉동명태), 미꾸락지(미꾸라지), 앵미리(양미리), 칼치(갈치), 섭(홍합)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구 등의 명칭에는 <표2-14>과 같이 낙씨(낙시), 찌(낙시찌), 미깻(미끼)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길짐승 등의 명칭에는 <표2-15>와 같이 호랭이(호랑이), 불여우(여우), 도야지(돼지), 두더쥐(두더지), 고앵이(고양이), 골방쥐(생쥐), 꿀데지(돼지), 백여우(여우), 당나구(당나귀)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짐승 등의 명칭에는 <표2-16>과 같이 까마구(까마귀), 장닭(장닭), 닭(닭), 닭터래기(닭털), 갈매기(갈매기)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시후(날씨와 계절) 등의 명칭에는 <표2-17>과 같이 이따가(조금 지난 후에), 요즘(요즈음), 계따가(조금 지난 후에), 가을기(가을), 아지랭이(아지랑이), 요새(요즈음), 시방(지금), 돌개바람(회오리바람), 접때(그때)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지리(地理) 등의 명칭에는 <표2-18>과 같이 짱돌(돌), 언덕빠기(언덕바지), 신장노(신작로), 돌맹이(돌), 산봉오리·산뽕우리(산봉우리), 웃말(윗마을)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방위(方位) 등의 명칭에는 <표2-19>와 같이 꼭때기(꼭대기), 웃뺑(윗방), 어데(어디에), 귀테기(구석·모퉁이), 어디루(어디로), 미테(밑), 쫑지머리(뒤), 아랫간·아래칸(아랫방)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수치 관련 명칭에는 <표2-20>과 같이 너이(넷), 서이(셋), 설흔(서른), 여덜(여덟), 열일곱(열일곱), 사날(사나흘), 여서(여섯), 서히(셋), 열아홉(열아홉), 일곱(일곱), 무데기(묶음) 등 순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용언과 관용어 등 명칭에는 <표2-21>과 같이 자꾸(계속), 화딱지(화), 부애나서(화나서), 냉중에(나중에), 잘게(작게), 빠지다(토라지다), 숨겨놓거(심어놓은 것), 댕거렁(땀거든), 단도리하다(단속하다), 문디다(비비다) 등 순으로 더 많은 방언들이 통용되고 있다.



4. 기본문항 분석

가. 거주 지역

조사 범위를 고성군 관내로 한정했기 때문에 읍·면 지역별 구분이 요구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자 855명의 거주지역은 <표3-1>과 같이 간성읍 338명(45.4%), 거진읍 170명(19.9%), 현내면 87명(10.2%), 죽왕면 83명(9.7%), 토성면 127명(14.8%)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간성읍이 45.4%를 차지하고 있어 읍·면 지역간 안배가 다소 부족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기준을 상대적으로 적용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나. 산업별 분포

지역산업 분포는 농업 20%, 어업 10% 내외이므로 농촌과 어촌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경산업이 일찍 발달했고, 긴 해안선을 따라 어업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 문화와 소통의 형식을 살펴보는 것도 방언 이해에 중요하다.

응답자 산업별 분포는 <표3-2>와 같이 전체 855명 중 농촌지역 481명(56.3%), 어촌지역 298명(43.7%)이다. 농촌과 어촌은 생활문화의 차이로 어원의 생성과 활용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과 방언의 차이를 미세하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간성읍은 지리적으로 어촌지역이 없어 어촌지역 해당 응답자가 다소 적었고, 거진읍은 농촌지역의 응답자가 다소 적은 편이다. 다른

읍·면의 경우는 농·어촌지역 응답자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다. 출신 지역

응답의 객관성을 높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답자의 출신 지역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출신 지역은 <표3-3>과 같이 전체 855명 중 고성지역 출신은 455명(53.2%)으로 절반이 넘고, 그 외 영동지역 출신 67명, 영서지역 출신 24명, 서울·경기지역 출신 77명, 충청도 출신 5명, 경상도 출신 15명, 전라도 출신 6명, 제주도 출신 1명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토박이가 절반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라. 거주 기간별 분포

거주 기간별 분포는 <표3-4>와 같이 20년 이상 거주 215명, 10년~20년 미만 거주 379명, 5년~10년 미만 거주 154명, 5년 미만 거주 100명으로,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거주자가 69.5% 이상 참여했다.

거주기간 10년 이상 거주자의 응답 참여가 많은 것은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응답자의 정확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마. 응답자 연령

응답 참여자의 연령은 <표3-5>와 같이 60대 이상 50명, 50~60세 미만 62명, 40~50세 미만 130명, 30~40세 미만 106명, 20~30세 미만 29명, 10대 466명

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보다 10대 학생 참여자가 전체 응답자의 54.5%로써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긍·부정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번 조사 응답에 참여한 학교별 분포는 고성고교 52명을 비롯해 22개교 62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고성고	52	거진중	42	거진초	52	공현진초	12	도학초	8
거진고	42	대진중	32	거성초	32	오호초	12	인흥초	22
대진고	32	동광중	32	대진초	32	천진초	32		
동광산업 과학고	32	간성초	52	명파초	8	아야진초	22		
고성중	52	광산초	12	죽왕초	22	동광초	12		



가족관계 호칭 (읍·면별)

<표1-1>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하라버이	할아버지		354	89	117	46	34	60
할머이	할머니		430	108	114	57	42	79
시어머이	시어머니		394	109	123	50	38	74
친정아부지	친정아버지		358	101	115	42	35	65
아재	숙부 등		219	58	67	21	18	55
큰아부지	큰아버지		410	109	136	50	40	75
작은아번님	중부		232	74	59	25	23	51
시누	시누이		210	63	51	24	20	52
계수	제수		122	27	40	11	14	30
성	형		303	80	94	38	28	63
동상	동생		391	111	114	51	39	76
애기씨	시누이		276	68	86	32	30	60

일상생활 용어 (읍·면별)

<표1-2>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가름뱅이	가르마		46	19	7	5	5	10
가름마	가르마		249	67	53	32	31	66
돌방개	가부좌		48	13	16	3	3	13
저드랑이	겨드랑이		140	33	41	20	11	35
지지바	계집아이		257	74	68	30	34	51
간나	계집아이		341	94	91	42	44	70
언니미	계집아이		138	21	59	21	13	24
얼금뱅이	곰보		68	17	25	6	4	16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꼭새	꼭사		191	49	45	23	17	57
굽뱅이	구두쇠		93	26	23	8	11	25
노랭이	구두쇠		219	52	68	25	17	57
귀부랄	귓볼		72	24	15	3	7	23
귓볼	귓볼		271	78	73	42	25	53
지지개	기지개		194	51	59	22	17	45
날살	나이		166	38	51	21	14	42
니	너		285	75	91	38	31	50
신다리	넓적다리, 허벅지		79	17	22	13	5	22
깔떼기	딸꾹질		161	42	44	22	12	41
미시리	바보		319	94	89	43	31	62
배떼기	복부, 배		285	71	88	40	28	58
뒤꾸배	발뒤축		53	11	16	7	1	18
뺨따구	뺨다귀		401	100	126	57	44	74
썰미	수염		152	33	46	16	14	43
쇠꼽	쇠		155	41	34	16	17	47
쇠꼴	쇠		71	16	19	7	10	19
쇠꼬치	쇠		179	46	50	26	17	40
얼라	갓난아이		324	76	100	51	30	67
언나	갓난아이		6	2	-	-	-	4
냉구리	연기		84	25	15	10	10	24
앵구리	연기		39	14	9	3	4	9
내구리	연기		39	14	6	1	4	14
내구레기	연기		32	6	16	3	2	5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풍구	풀무		65	19	13	5	5	23
학교	학교		361	97	109	48	35	72
허재비	허수아비		162	43	57	17	14	31
장지뽕	가위바위보		40	9	11	5	6	9
장깨이보	가위바위보		220	51	60	33	26	50
거래이	거지		62	13	14	5	10	20
동고리	거지		34	7	9	6	3	9
거름뱅이	거지		209	53	66	27	14	49
거짓뿌리	거짓말		174	60	47	15	17	35
거짓뿌렁	거짓말		249	79	56	30	30	54
공갈	거짓말		299	90	78	39	31	61
뽕	거짓말		330	88	103	48	34	57
기력지	길이		340	98	87	52	35	68
거두리	깍질		41	8	15	5	6	7
깍떼기	깍떼기		420	107	129	62	44	78
곤두레미	고드름		39	10	8	1	1	19
고드래미	고드름		80	17	27	13	5	18
질쌈	길쌈		100	28	21	12	8	31
팽새	팽과리		34	8	10	4	7	5
팽가리	팽과리		214	58	55	28	24	49
팽쇠	팽과리		87	14	36	15	11	11
통쇠	통소		103	33	30	10	9	21
농작대	농악대		49	10	13	8	4	14
농에	누에		91	19	25	13	6	28
승냥간	대장간		30	8	9	-	3	10
베림질간	대장간		23	8	3	-	4	8
대장간	대장간		241	68	55	33	26	59
또깨비	도깨비		247	67	70	30	29	51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질	두레		58	12	18	9	2	17
두벌집	두벌 김매기		43	10	11	6	2	14
걸금	두엄, 거름		125	37	20	11	15	42
거름	두엄, 거름		171	45	41	18	19	48
문지	먼지		149	35	34	20	19	41
몬지	먼지		111	21	41	17	9	23
마당이	마당질		83	24	18	9	7	25
산자리	뫓자리		64	20	14	8	4	18
뫓꾸덩이	뫓자리		97	24	21	13	9	30
젠노리	새참		111	31	19	10	14	37
세맨	시멘트		66	18	17	3	7	21
장구	북		250	75	65	40	24	46
서황당	서낭당		129	33	30	9	11	46
애기집	애벌 김매기		36	6	10	1	2	17
옹노	올가미		80	17	22	11	8	22
잘기	자루		158	35	37	16	15	55
장작깨비	장작깨비		177	50	38	18	18	53
장재기	장작		77	25	17	12	6	17
장개	장구		71	17	28	5	6	15
주레	호드기		17	3	3	-	2	9
줄레	호드기		16	4	3	-	3	6
철엽	천렵		90	29	18	8	11	24
꼬니	고누		38	12	5	6	4	11
꼰지니	고누		27	7	6	2	4	8
움물고누	고누		24	6	7	3	4	4
둥개	동고리		26	7	3	3	5	8
목마	동고리		57	16	11	12	4	14
목말	동고리		61	16	12	11	4	18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구녕	구멍		286	81	77	38	29	61
구엥	구멍		62	15	20	9	8	10
구용	구멍		121	25	51	17	10	18

생활용품의 명칭 (읍·면별)

<표1-3>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가마	가마솔		213	70	53	25	27	38
가마전	가마솔		71	21	23	9	9	9
가매솔	가마솔		216	47	80	24	19	46
곰배	고무래		43	15	6	3	4	15
불깍대기	고무래		32	9	4	5	3	11
골미	골무		110	33	24	11	9	33
작기장	공책		59	18	12	5	6	18
책기장	공책		80	16	29	11	7	17
동태바꾸	굴렁쇠		7	-	-	-	1	6
굴레바꾸	굴렁쇠		139	37	39	18	9	36
풀비	귀얄		18	2	4	2	2	8
풀솔	귀얄		25	3	5	5	3	9
근네	그네		117	32	33	13	11	28
넉동바리	넉동무니		18	2	7	3	1	5
빨랫돌	다듬잇돌		177	53	54	25	21	24
다드미돌	다듬잇돌		253	61	71	35	30	56
따깡	뚜껑		123	36	34	17	17	19
따까리	뚜껑		203	52	60	31	20	40
뚜껑	뚜껑		227	54	70	34	22	47
대리미	다리미		265	71	70	35	33	56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척세	다리쇠		26	7	7	2	2	8
삼바리	다리쇠		85	25	17	13	8	22
갈보단지	단지		27	5	5	5	4	8
오갈단지	단지		83	23	25	10	6	19
대터리	재떨이		49	17	11	5	4	12
재떨이	재떨이		344	89	109	52	31	63
장죽	곰방대, 담뱃대		39	9	8	2	7	13
담뱃대	곰방대, 담뱃대		71	26	9	7	6	23
곰뱃대	곰방대, 담뱃대		70	22	12	9	8	19
사발	대접		416	108	123	63	43	79
장판지	장독		380	95	123	54	39	69
도짜리	돗자리		250	72	68	30	25	55
돗자리	돗자리		114	23	46	15	12	18
뒤지	뒤주		97	30	16	8	10	33
또아리	파리		190	58	36	22	30	44
따바리	파리		132	32	29	19	12	40
통거리	뚝배기		58	15	21	6	4	12
퇴침	목침		48	16	5	5	5	17
몽치매기	목침		16	6	1	-	1	8
몽치미	목침		55	12	11	9	3	20
꼬바리	물뿌리개		41	13	7	4	5	12
물뿌리	물뿌리개		30	13	5	4	2	6
물조리	물뿌리개		206	53	51	30	27	45
찍개	밀싹개		41	9	6	6	6	14
벌찍개	밀싹개		11	2	-	2	1	6
근네	그네		25	9	2	4	1	9
바각지	바가지		133	39	35	15	16	28
바늘	바늘		169	40	52	21	14	42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바쿠	바퀴		121	41	24	18	9	29
바꾸	바퀴		185	50	47	31	16	41
간끄룩	간그릇, 반찬그릇		66	21	16	9	3	17
웃판	말판		206	59	63	26	20	38
빨래방치	방망이, 빨랫방망이		94	30	19	12	9	24
다듬방치	방망이		68	22	21	6	7	12
방추	방망이		43	7	20	6	4	6
비개	베개		288	74	82	35	32	65
벼개	베개		250	74	74	33	20	49
뱅	병		95	25	24	12	5	29
벙풍	병풍		79	23	16	9	7	24
펑풍	병풍		31	6	9	3	4	9
평풍	병풍		96	29	26	13	9	19
불가래	부삽		40	7	8	4	5	16
불비당이	부삽		21	5	2	3	2	9
불까리	부젓가락		24	5	7	2	2	8
부절까지	부젓가락		49	17	10	4	5	13
부절갈	부젓가락		52	19	-	6	8	19
부지깅이	부지깽이		113	34	20	8	14	37
비지깽이	부지깽이		82	22	25	7	10	18
부지깨	부지깽이		98	29	19	16	8	26
비네	비녀		113	27	36	14	8	28
폴종우	비닐		142	37	36	20	13	36
얼개	얼레빗		53	15	10	5	5	18
어르개	얼레빗		23	6	9	1	1	6
빗짚기	빗자루		162	44	37	20	19	42
사닥다리	사다리		177	50	44	17	19	47
모태	석쇠		71	24	15	8	6	18

방언 \ 표준어		음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성냥곽	성냥갑		190	57	38	22	22	51
성냥통	성냥갑		155	51	37	22	13	32
다항	성냥		51	10	18	6	3	14
시숫대야	세숫대야		168	46	49	22	21	30
소치	술		29	9	7	2	7	4
쇠좁술	술		46	14	15	2	5	10
술단지	술		258	72	65	41	27	53
소두뱅이	술뚜껑		80	23	21	8	6	22
숫갈	술가락		269	79	71	30	32	57
수가락	술가락		290	75	86	45	27	57
절	젓가락		217	60	63	27	23	44
절가락	젓가락		236	73	53	29	28	53
적갈	젓가락		230	67	63	36	22	42
저까지	젓가락		153	39	46	22	15	31
술뱅	술병		132	37	34	16	14	31
술종지	술잔		95	28	17	9	8	33
종지	종지		146	44	38	13	18	33
종발	종발		119	31	31	14	15	28
실기	시루		102	28	25	10	9	30
쌀잘기	쌀자루		139	41	33	11	16	38
엔경	안경		142	43	33	13	17	36
앵경	안경		173	45	50	23	20	35
빙고	얼음썰매		142	48	34	12	22	26
빙구	얼음썰매		285	78	82	38	32	55
연짜새	얼레		45	9	5	2	3	26
연쩍개	얼레		19	5	4	1	1	8
연짜개	얼레		17	5	3	-	1	8
연자새	얼레		45	11	10	5	3	16

방언 \ 표준어		음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장군	오죽항아리		44	14	9	4	4	13
오죽장군	오죽항아리		68	15	21	11	4	17
옹구	옹기		97	29	23	7	6	32
질그릇	질그릇		159	44	47	19	14	35
윙	윙		33	5	17	2	1	8
남박	이남박		46	16	8	3	7	12
쌀남박	이남박		105	30	22	9	11	33
씻때	자물쇠		166	43	38	14	21	50
자물통	자물쇠		170	45	42	14	23	46
쇠통	자물쇠		115	31	36	8	13	27
자봉틀	재봉틀		94	30	20	7	7	30
자방침	재봉틀		35	11	6	6	4	8
메찌기	자치기		80	26	16	12	5	21
땅치기	자치기		55	21	8	10	3	13
짱치는거	자치기		37	6	15	3	4	9
잔전	잔돈		87	27	19	6	14	21
잔돈	잔돈		128	38	30	14	13	33
날전	잔돈		55	16	15	8	6	10
조루	조리		53	15	11	3	4	20
죄리	조리		60	22	15	7	5	11
종우	종이		144	36	36	18	14	40
밥주걱	주걱		361	105	105	49	35	67
밥주발	주발		119	35	26	10	10	38
복짓깨, 복지깨	주발뚜껑		100	27	17	12	12	32
참빫	참빫		109	32	22	7	9	39
쏘개울치	참빫		37	9	12	3	3	10
구르무	크림		134	37	26	14	16	41
뽕이	팽이		85	27	24	10	7	17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채쭈	팽이채		49	11	20	6	1	11
단지	항아리, 단지		281	83	73	34	29	62
독	항아리, 단지		286	82	93	38	24	49
흥곶	형곶		131	45	25	8	19	34
흔곶	형곶		83	23	17	6	13	24
헌곶	형곶		192	58	55	22	18	39
화루	화로		114	39	23	15	8	29
화리	화로		74	19	16	12	7	20
흙갈	흙손		113	31	32	12	8	30

주거 관련 명칭 (읍·면별)

<표1-4>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고방	곳간, 광		112	31	27	15	10	29
구수	구유		22	5	1	2	3	11
비구수	구유		17	5	1	2	4	5
구송	구유		66	17	13	9	7	20
여물통	구유		148	41	31	14	16	46
끄시레미	그을음		62	20	12	4	9	17
끄으름	그을음		106	36	23	10	13	24
끄스름	그을음		129	30	35	10	16	38
지둥	기둥		212	57	66	20	21	48
기아집	기와집		200	56	52	24	27	41
한아기와집	기와집		99	26	38	10	11	14
지시랑물	낙숫물		84	29	15	11	4	25
달기둥지	닭장		82	23	26	10	3	20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도랑	도랑		218	67	49	21	23	58
도랑창	도랑		139	49	29	13	11	37
웅그르버리개	도랑		46	10	16	7	7	6
대지울칸	돼지우리		167	52	42	18	14	41
뒤란	뒤곶, 뒤란		181	57	33	24	24	43
두란	뒤곶, 뒤란		68	24	7	11	9	17
울안	뒤곶, 뒤란		79	24	25	5	8	17
돌창문	들창		45	8	19	5	3	10
놀마룻	마루		36	6	11	4	4	11
마룻	마루		109	23	31	15	8	32
돌저구	돌쩌귀		109	33	24	12	8	32
문꼴기	문고리		112	24	43	13	8	24
구들	방바닥, 온돌		182	55	30	18	28	51
구들짱	온돌, 구들		297	76	84	42	29	66
벼람박	벽		89	23	21	9	8	28
배람박	벽		110	23	34	9	12	32
뒤간	변소		302	84	80	39	34	65
정낭	변소		114	40	30	16	9	19
밴소	변소		243	65	74	27	25	52
벽	부엌		76	25	17	8	10	16
보케	부엌		133	43	30	12	13	35
정지	부엌		135	32	39	16	16	32
싸리문	사립문		188	52	43	22	23	48
소깡이	관솔		94	28	17	10	9	30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광솔	관솔		53	17	10	7	2	17
석까래	서까래		155	43	37	19	17	39
연목	연목		21	8	7	1	1	4
서포살이	셋방		17	3	3	5	1	5
보강지	아궁이		146	41	30	13	17	45
버양지	아궁이		47	7	17	7	4	12
곶째	용마름		51	19	4	6	3	19
영마름	용마름		47	15	15	5	2	10
마굿간	외양간		278	82	77	41	26	52
마구	외양간		109	40	22	10	12	25
마구칸	외양간		256	77	77	32	28	42
웅굴	우물		92	19	24	10	8	31
움굴	우물		42	11	15	5	4	7
움물	우물		122	32	41	10	14	25
울쌩다리	울타리		40	10	12	5	1	12
우삭다리	울타리		26	3	13	5	1	4
이영	이영		89	25	17	7	10	30
영	이영		44	11	19	4	3	7
장독	장독		155	53	43	19	20	20
짱뚜거리	장독		107	34	27	8	13	25
장독	장독		247	70	69	35	27	46
장판지	장독		313	80	98	49	39	47
지풀집	초가집		123	28	32	13	16	34
구팡	토방		108	30	21	14	10	33

음식 등의 명칭 (읍·면별)

<표1-5>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갈기	가루		137	32	33	13	18	41
국시	국수		369	100	111	42	36	80
지령	간장		52	12	12	5	2	21
꼬갱이	고갱이		131	41	30	15	17	28
꼬루밥	고두밥, 된밥		67	22	11	6	8	20
꼬두밥	고두밥, 된밥		153	42	36	16	23	36
꼬돌밥	고두밥, 된밥		244	58	77	38	24	47
고치가루	고춧가루		202	51	54	23	29	45
꼬치가루	고춧가루		182	49	42	27	23	41
꼬치갈기	고춧가루		152	36	47	17	23	29
꼬추장	고추장		356	90	108	41	52	65
지름	기름		268	67	74	34	27	66
짐장	김장		212	60	53	25	21	53
짬지	김치		339	92	93	47	36	71
짐치	김치		220	60	73	25	21	41
소쟁이	누룽지		87	31	9	6	11	30
소디끼	누룽지		46	6	18	4	6	12
달갈	달걀, 계란		194	62	48	24	23	37
달갱이	달걀, 계란		67	24	12	6	11	14
달갱이	달걀, 계란		67	22	14	8	10	13
계란	달걀, 계란		320	86	97	39	35	63
소적	묵		43	10	15	7	3	8
밀갈기	밀가루		154	41	37	18	18	40
지지매	적, 빈대떡		86	24	21	8	10	23
지지미	적, 빈대떡		191	47	47	22	24	51
부친개	부침개		289	87	65	34	33	70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부치미	부침개		266	73	70	35	29	59
부침기	부침개		211	52	67	30	23	39
쉬쉬떡	수수떡		88	30	25	13	3	17
뚜더기국	수제비국		92	21	26	10	13	22
뚜더기국	수제비국		82	20	27	8	9	18
건추	시래기		121	34	24	8	16	39
씨래기	시래기		343	88	102	47	31	75
실기떡	시루떡		114	25	36	14	7	32
감주	식혜		376	94	108	52	38	84
감박	옥수수튀밥		166	46	42	18	20	40
강밥	옥수수튀밥		83	17	19	14	10	23
광밥	옥수수튀밥		80	14	28	11	9	18

의복(옷)의 명칭 (읍·면별)

<표1-6>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우티	옷		166	43	48	17	13	45
고쟁이	속옷·속곳		210	54	54	17	20	65
누데기	누더기		371	110	104	44	37	76
두루막	두루마기		224	62	58	30	17	57
보선	버선		144	47	34	14	13	36
치매	치마		264	68	73	33	30	60
조고리	저고리		235	74	61	27	24	49
덧조고리	조끼		156	47	38	11	15	45
대임	대님		128	31	33	12	6	46
잠뱅이	잠방이, 짧은홀바지		97	31	23	13	6	24
엽차기	호주머니		73	19	21	9	6	18

가구 등의 명칭 (읍·면별)

<표1-7>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귀	괘		51	51	7	5	4	19
고리짝	괘		125	125	36	10	9	32
웃시래	벽장		72	72	18	13	6	18
빼다지	서랍		210	210	48	22	26	56
빼랍	서랍		122	122	35	14	11	31
실경	선반, 시렁		109	109	24	12	10	39
으게	장롱		22	22	3	4	5	3
단쓰	장롱		139	139	23	11	22	41
농	장롱		230	230	49	33	27	50
차단쓰	장롱		188	188	54	19	18	48

농기구 등의 명칭 (읍·면별)

<표1-8>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깍지	갈퀴		100	28	22	15	4	31
깍쟁이	갈퀴		79	22	22	8	9	18
괴빼	고빼		89	25	19	10	9	26
코돌레	코뚜레		114	35	24	14	10	31
광우리	광주리		61	13	10	5	13	20
광지리	광주리		145	39	33	12	18	43
곡쟁이	곡괭이		291	76	85	43	29	58
후지	극쟁이		16	5	3	3	2	3
가데기	극쟁이		25	7	3	1	1	13
가데이	극쟁이		21	4	6	4	-	7
자구	자귀, 까귀		88	24	15	11	6	32
나루체	벗줄		18	2	3	5	2	6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도꾸	도끼		123	33	25	14	14	37
도꾸	도끼		137	38	41	19	13	26
돌깨	도리깨		38	9	10	9	3	7
도루깨	도리깨		154	41	44	17	13	39
돌방애	돌방아		104	25	36	12	9	22
디딜방아	디딜방아		180	50	48	24	19	39
발방아	디딜방아		83	27	16	9	9	22
발방애	디딜방아		66	16	21	8	6	15
망	맏돌		40	13	6	4	5	12
돌망	맏돌		100	29	34	12	6	19
멍지	멍에		64	19	17	9	2	17
둥구미	역둥구미		22	4	6	4	-	8
살	몽두발		22	6	7	1	1	7
쌈비방아	물레방아		25	7	5	5	3	5
물방간	물레방앗간		116	36	26	16	8	30
물방아	물레방아		223	57	72	33	19	42
발방터	디딜방앗간		22	4	9	2	1	6
디딜방아간	디딜방앗간		151	40	43	23	15	30
디딜방애간	디딜방앗간		72	16	19	12	7	18
어덩이	발채		23	4	9	3	-	7
방간	방앗간		167	48	49	12	18	40
쫄패	벼훑이		34	6	10	5	3	10
짚가리	벧가리		137	37	25	8	17	50
벧가리	벧가리		75	24	14	9	8	20
짚가래	벧가리		85	23	20	7	8	27
집갈기	벧가리		68	21	23	6	5	13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버습	보습		27	11	3	2	1	10
버섯	보습		64	18	16	6	6	18
보째기	쟁기		27	9	4	3	1	10
버습	쟁기		19	9	3	1	2	4
연장	쟁기		115	33	24	13	11	34
엔장	쟁기		73	20	21	7	5	20
삼탕이	삼태기		111	32	30	9	8	32
삽가래	삽		92	28	25	9	10	20
사까래	삽		103	25	26	15	12	25
새꾸락지	새끼		88	27	21	7	7	26
새끼줄	새끼줄		211	61	45	28	28	49
새꼬래기	새끼		97	31	32	7	9	18
명지	소입막이		35	11	3	5	1	15
명거래기	소입막이		28	10	10	2	2	4
서스랑	쇠스랑		109	26	29	11	10	33
고질	여물		105	31	21	11	13	29
구박	쇠죽바가지		62	21	8	8	6	19
여물구박	쇠죽바가지		67	23	16	6	4	18
쇠꽃방아	쇠절구		31	7	9	4	2	9
쇠곶방애	쇠절구		34	10	10	4	-	10
서래	써래		89	25	28	5	4	27
썰틀	씨아		22	5	5	6	-	6
얼개미	어레미		71	21	13	5	5	27
얼끼미	어레미		8	2	-	-	-	6
바때기	발채		32	8	8	2	4	10
챗바쿠	챗바퀴(잔 것)		78	21	20	7	6	24
얼개	얼레빗		56	11	12	7	5	21
고질까리	여물간		41	12	9	5	1	14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여물까리	여물간	36	9	8	3	4	12
연재방아	연자방아	47	10	13	6	4	14
연자방애	연자방아	73	13	21	7	10	22
작숙이	작대기	20	4	9	1	1	5
작썰미	지게작대기	104	30	26	12	8	28
절구확	절구	25	9	5	1	3	7
절구통	절구	233	63	70	25	21	54
방애공이	절구공이	61	15	18	9	4	15
지게작때기	지게작대기	138	40	30	13	17	38
작새미	지게작대기	86	26	20	6	8	26
집풀	짚	137	44	34	10	17	32
지푸락지	지푸라기	227	70	61	23	27	46
채	키	63	17	13	7	4	22
치	키	66	21	11	6	5	23
덜쩍	키	34	4	13	4	1	12
풍구	풀무, 풍구	72	20	17	8	5	22
풀미	풀무	22	7	6	2	1	6
풀미독	풀무	21	3	8	2	1	7
호무	호미	143	33	42	15	17	36
호무짚구	호미자루	116	30	34	11	12	29
방아확	확	37	9	11	2	2	13



곡식 등의 명칭 (읍·면별)

<표1-9>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곡식	곡식		149	31	41	12	20	45
꺼끄래기	까끄라기		95	26	24	7	8	30
논곡	논곡식		79	15	28	6	8	22
메조히	메조		51	13	19	3	2	14
박고지	박		71	20	13	6	8	24
바꼬지	박		111	25	26	12	13	35
밭곡	밭곡식		97	23	36	10	7	21
베	벼		252	61	80	29	27	55
베알	낱알		187	53	49	20	19	46
쌀알	쌀, 낱알		328	87	104	41	35	61
쉬시	수수		68	21	17	12	6	12
옥시기	옥수수		337	79	97	46	37	78
옥째기	옥수수		210	67	40	30	25	48
강냉이	옥수수		374	87	110	57	46	74
이스래기	이삭		33	8	7	3	5	10
이시락	이삭		92	25	18	6	11	32
찰조히	찰조		41	13	11	4	4	9
차조	찰조		126	38	21	16	15	36
차갈이	찰조		41	9	19	3	2	8
마덩이	타작		104	29	23	10	12	30
왜귀리	호밀		65	17	19	9	5	15
새째	왕겨		108	29	19	10	13	37

소채류, 과일과 식물 등의 명칭 (읍·면별)

<표1-10>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고치	고추		152	36	37	18	19	42
꼬치	고추		262	62	90	37	29	44
깨입사구	깨잎		249	66	69	27	24	63
깨보생이	깨가루		204	61	46	22	20	55
간무	당근		65	15	20	10	3	17
마늘	마늘		180	47	55	15	19	44
무우	무		249	72	72	32	30	43
무꾸	무		263	64	82	38	24	55
무순	무-잎		159	44	49	21	14	31
무입싸구	무청		216	51	62	30	26	47
배차	배추		215	60	53	20	27	55
분추	부추		214	50	60	24	24	56
생추	상추		158	47	35	22	23	31
불기	상추		53	12	16	6	8	11
상치	상추		241	47	77	34	28	55
외	오이		128	33	36	9	14	36
물외	오이		141	37	34	14	16	40
호배기	호박		48	14	14	5	3	12
안즌호박	호박		39	11	14	3	3	8
외호박	호박		159	43	48	19	15	34
개금	개암		79	20	22	5	6	26
깨금	개암		126	38	31	12	11	34
꼬들빼기	고들빼기		330	84	93	48	30	75
괴비	고비		109	29	28	13	11	28
괌	고염		71	14	20	6	6	25
개암	고염		91	26	24	4	10	27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꼬감	꽃감		320	76	100	44	33	67
꽤리	파리		126	36	36	12	11	31
등거지	그루터기		50	14	11	6	3	16
방덩이	그루터기		77	21	19	8	3	26
아치	가지		31	5	11	6	1	8
낭구	나무, 나뭇등걸		125	42	10	13	20	40
낭구떼기	나무, 나뭇등걸		152	56	40	15	12	29
낭그	나무, 나뭇등걸		129	58	22	5	9	35
낭그떼기	나무, 나뭇등걸		91	20	27	9	6	29
대까치	대, 대나무		85	19	14	6	9	37
대까지	대, 대나무		115	39	28	6	11	31
나생이	냉이		132	11	43	11	19	48
달루	달래		86	13	31	13	7	22
더대기	더덕		51	7	21	8	4	11
더더지	더덕		64	4	27	10	7	16
덩구리	덩굴		77	14	22	11	7	23
개바늘	도깨비바늘		70	23	19	4	6	18
개바늘	도깨비바늘		49	12	11	5	6	15
또개비바늘	도깨비바늘		133	24	51	16	20	22
굴밤	도토리		105	34	25	9	11	26
꿀밤	도토리		137	43	38	17	15	24
딸구	딸기		211	58	59	21	21	52
참낭구	떡갈나무, 참나무		131	35	37	13	11	35
멀구	머루		140	42	34	14	13	37
논쟁이	명아주		21	6	6	3	1	5
메내	목화		15	3	6	-	1	5
모케	목화		54	14	17	6	5	12
버드리	버드나무		61	19	17	8	5	12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버드낭구	버드나무		112	33	22	16	12	29
버들가지	버드나무		231	62	65	32	24	48
복상	복숭아		197	50	50	23	20	54
봉숭아	봉선화		362	94	109	50	39	70
붕나무	붉나무		26	10	5	2	3	6
불낭기	붉나무		24	5	6	3	3	7
불나무	붉나무		48	10	14	8	4	12
뽕	뽕기, 띠		21	8	2	2	1	8
뽕뽕	뽕기, 띠		36	7	10	3	7	9
뿌레기	뿌리		102	33	21	7	10	31
뿌랙찌	뿌리		89	22	29	8	6	24
사괴	사과		127	28	34	12	15	38
삭다리	삭정이		62	18	12	4	5	23
씩다리	삭정이		69	18	14	7	5	25
삽초삭	삽주		48	15	10	4	8	11
사초삭	삽주		42	12	11	3	4	12
참굴밤	상수리		66	17	21	5	5	18
솔검불	솔가리		75	23	17	5	11	19
솔까비	솔가지, 솔가리		49	14	12	3	5	15
솔깨비	솔가지, 솔가리		103	24	22	12	11	34
솔방구리	솔방울		72	16	22	9	6	19
쌔바구	쌔바귀		211	63	56	27	23	42
쌔바구	쌔바귀		92	21	32	9	9	21
꽤	자두		57	19	16	4	6	12
꽤	자두		47	10	12	6	5	14
괴타리	자두		58	17	12	7	6	16
오얏	자두		52	13	12	4	7	16
뽕오두	오디		116	26	27	16	15	32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오두	오디		121	33	27	16	11	34
왕대까치	왕대		56	15	17	3	4	17
왕대까지	왕대		61	14	15	7	6	19
떼짱구	질경이		34	7	9	2	5	11
빼짱구	질경이		58	15	11	6	4	22
빼짱우	질경이		41	13	9	2	3	14
함바꽃	철쭉꽃		71	24	23	3	5	16
함박꽃	철쭉꽃		175	48	41	23	19	44
통갈나무	청미래덩굴		60	12	14	6	7	21
통가리나무	청미래덩굴		42	10	12	6	3	11
포두	포도		166	32	57	17	17	43
해장우리	해바라기		20	5	5	1	2	7
해자우리	해바라기		23	6	5	2	4	6
해꽃	해바라기		38	13	9	4	5	7
울구꽃	해당화		73	28	15	3	8	19
열구꽃	해당화		50	11	12	9	5	13
울구	해당화열매		74	21	17	6	9	21
열구	해당화열매		55	14	11	11	5	14
행나무	향나무		68	15	18	3	9	23
당추새	호두		56	16	15	6	8	11
당투새	호두		32	6	7	4	4	11
호도	호두		251	61	80	29	25	56



곤충 등의 명칭 (읍·면별)

<표1-11>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깔따구	각다귀		162	35	43	24	19	41
거마리	거머리		152	47	33	11	16	45
그마리	거머리		94	27	18	9	12	28
끄마리	거머리		75	18	23	12	5	17
거무	거미		136	29	36	15	15	41
구데기	구더기		273	70	70	35	33	65
똥구데기	구더기		183	44	59	22	19	39
돈벌거지	그리마		146	33	37	17	18	41
돌벌깍지	그리마		24	7	2	1	3	11
어르맹이	그리마		24	4	7	4	2	7
나뵈	나비		66	17	10	9	8	22
날파리	날벌레		325	87	86	47	37	68
노내기	노래기		165	45	39	20	23	38
농에	누에		88	24	21	8	8	27
농어	누에		38	12	5	4	6	11
농어꼬치	누에		38	12	7	2	6	11
농에꼬치	누에		104	31	21	10	16	26
땡피	땅벌		114	33	25	13	10	33
땡뻘	땅벌		207	61	57	19	19	51
멤	매미		83	20	18	14	11	20
매음	매미		83	19	30	7	8	19
메띠기	메뚜기		83	24	14	10	11	24
메떼기	메뚜기		151	44	42	16	14	35
모구	모기		177	41	44	21	22	49
보구미	바구미		44	8	12	5	7	12
바기미	바구미		64	16	16	5	6	21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두두래기	두두러기		209	55	58	24	23	49
버리	벌		61	14	23	11	2	11
벌기	벌레		45	11	12	5	5	12
벌거지	벌레		227	56	60	32	27	52
벌걱지	벌레		108	19	31	16	19	23
써개	서개		97	22	24	7	12	32
옛장수	소금쟁이		165	48	35	15	25	42
옛장사	소금쟁이		122	34	32	9	16	31
베짖이	여치		251	71	64	31	28	57
소금쟁이	잠자리		179	50	35	21	23	50
지렁이	지렁이		180	47	52	19	24	38
찌렁이	지렁이		144	37	46	20	13	28
찢데미	진딧물		45	15	7	2	5	16
띠미	진딧물		84	27	15	6	7	29
찢드기	진드기		262	68	66	40	30	58
으냉이	진딧물		43	12	13	8	2	8
쉬파리	쇠파리		177	49	43	21	22	42
거시	회충		138	36	36	16	13	37
개똥벌걱지	반딧불, 개똥벌레		59	16	15	6	4	18
개똥벌레	반딧불, 개똥벌레		253	64	67	37	30	55
물강아지	방개		108	32	24	18	12	22
방아다리	방아깨비		94	27	24	9	11	23
방애다리	방아깨비		74	17	23	7	6	21
사마구	사마귀, 버마재비		248	60	58	40	28	62

파충류 등의 명칭 (읍·면별)

<표1-12>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개구리	개구리		240	62	71	31	24	52
개구락지	개구리		366	118	92	45	40	71
깨고락지	개구리		176	45	56	24	16	35
구렁이	구렁이		240	69	58	30	26	57
구레이	구렁이		77	15	19	7	13	23
개맹이	구렁이		71	14	24	12	8	13
두꺼비	두꺼비		205	61	51	27	26	40
뚜꺼비	두꺼비		210	43	68	29	23	47
올챙이새끼	올챙이		269	71	86	33	24	55
으심이	이무기		33	6	7	3	4	13
살무사	살모사		265	74	79	34	29	49



물고기 등의 명칭 (읍·면별)

<표1-13>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괴기	고기		218	52	55	28	26	57
꼬기	고기		80	15	29	7	10	19
가우리	가오리		117	31	30	11	14	31
가재미	가자미		303	83	78	39	34	69
참가재미	가자미		180	52	40	18	22	48
물가재미	가자미		171	52	33	19	20	47
돌가재미	가자미		170	41	51	20	20	38
칼치	갈치		265	67	79	29	33	57
기	게		302	72	89	38	37	66
고망어	고등어		82	16	34	10	6	16
쪽저구	돝지		95	27	19	8	9	32
돝저기	돝지		57	14	7	5	7	24
뚜거리	돝지		58	12	11	2	8	25
돝저구	돝지		135	30	30	17	16	42
공치	꽁치		136	35	32	20	14	35
부채기	꽃게		43	10	10	5	3	15
놀래미	놀래기		326	76	89	50	40	71
골뱅이	골뱅이		290	69	79	39	43	60
꼴뱅이	골뱅이		122	38	28	13	18	25
꼴배	골뱅이		84	23	28	9	10	14
쌍치	도치		24	5	4	1	5	9
쌍통이	도치		141	30	37	18	15	41
쌍튀	도치		40	7	14	8	4	7
똥패	망둥이		30	5	3	7	2	13
며치	멸치		90	26	24	11	10	19
매치	멸치		102	24	35	16	8	19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맹태	명태		232	59	70	19	29	55
동태	냉동명태		298	78	82	38	39	61
생태	명태		316	78	95	41	37	65
문애	문어		141	28	31	15	26	41
해태	물개		47	7	19	7	4	10
장광이	뱀장어		35	8	9	3	7	8
미꾸리	미꾸라지		145	44	28	13	23	37
미꾸라지	미꾸라지		333	84	90	46	35	78
벨	뱌, 창자		111	32	27	8	12	32
장괭이	뱀장어		24	2	9	4	2	7
버들각지	버들치, 송사리		122	38	25	13	12	34
버들기	버들치, 송사리		101	36	20	14	11	20
열갱이	불락		214	52	48	27	26	61
뿔갱이	불락		45	13	7	6	5	14
아까모찌	불락		56	11	16	12	3	14
살치	송사리		31	6	11	3	4	7
눈팅거리	송사리		44	8	17	7	1	11
알땅구	붉은성게		65	21	9	11	5	19
아까이	붉은성게		53	8	21	9	4	11
구로	검은성게		48	9	10	13	3	13
새비새끼	새우		51	9	22	3	4	13
아굼치	아가미		49	13	12	3	7	14
서거리	아가미		108	27	20	13	14	34
아감지	아가미		64	16	18	6	6	18
아굼지	아가미		71	22	16	5	6	22
앵미리	양미리		249	64	64	32	28	61

방언\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영매리	양미리		101	22	34	14	12	19
이까	오징어		178	43	49	16	18	52
우리기	우럭		128	35	19	24	16	34
우레기	우럭		98	22	19	15	12	30
멍게	우렁쟁이, 멍게		200	52	46	27	21	54
행우	우렁쟁이, 멍게		52	15	11	6	5	15
논꼴뱅이	우렁이		128	39	26	13	15	35
꼴배이	꼴뱅이		83	18	21	11	12	21
가시리	우뭇가사리		155	40	35	19	18	43
새치	임연수어		224	56	47	27	26	68
이면수	임연수어		221	58	49	33	24	57
가리쟁이	임연수어새끼		88	20	22	12	7	27
조가지	조개		92	19	26	10	7	30
용고지	쌀미꾸리		38	11	10	2	5	10
옹고지	쌀미꾸리		156	39	35	18	15	49
옹곡지	쌀미꾸리		45	11	12	2	3	17
등날개	지느러미		38	13	5	3	5	12
지데미	지느러미		24	7	4	2	5	6
배날개	지느러미		19	4	2	3	4	6
날개미	지느러미		71	14	20	6	9	22
칠쟁이	칠성장어		47	10	17	4	5	11
중사리	피라미		21	8	2	2	3	6
눈옹고찌	피라미		35	7	10	5	3	10
썰	홍합		149	37	35	22	14	41
섭	홍합		232	61	66	30	21	54

어구 등의 명칭 (읍·면별)

<표1-14>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낙수	낙시		132	31	40	15	12	34
낙찌	낙시		276	57	94	38	27	60
경심	낙싯줄		134	30	45	18	9	32
우끼	낙시찌, 찌		74	18	19	3	10	24
때	낙시찌, 찌		86	19	26	9	10	22
찌	낙시찌, 찌		215	52	70	24	25	44
미갓	미끼		157	41	37	17	17	45
사들	반두		32	7	8	4	3	10
뚝박	부표		32	7	7	8	4	6
뚝박	부표		37	6	14	6	2	9
삼마이그물	삼중자망		115	24	30	16	11	34
깍짓대	삿대		39	9	7	2	4	17
놀	노(櫓)		72	14	23	13	4	18
파리	방향키		56	13	20	3	5	15
풍	돛		82	17	25	8	10	22

길집승 등의 명칭 (읍·면별)

<표1-15>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고냉이	고양이		215	43	62	30	23	57
고앵이	고양이		182	52	43	22	25	40
괴	고양이		131	31	49	23	9	19
노름	노루		66	15	14	7	8	22
놀기	노루		89	17	31	12	10	19
산쥐	다람쥐		109	25	35	10	12	27
당나구	당나귀		245	50	69	34	34	58
데지	돼지		140	30	36	25	16	33
꿀데지	돼지		190	46	48	25	27	44
도야지	돼지		269	66	80	40	27	56
두더쥐	두더지		257	56	76	38	27	60
뫼이	모이		103	27	24	14	10	28
머기	모이		70	14	23	8	9	16
사심	사슴		94	19	29	12	10	24
살기	삼, 살괭이		71	23	13	4	5	26
살기	삼, 살괭이		108	24	28	13	10	33
골방쥐	생쥐		131	36	27	13	13	42
쇠	소		194	42	63	22	17	50
천생이	여우		39	9	11	6	3	10
영우	여우		54	15	12	7	4	16
백여우	여우		165	48	40	20	18	39
불여우	여우		224	64	54	31	27	48
용우	여우		111	20	42	23	8	18
염쇠	염소		143	31	47	12	12	41
퇴끼	토끼		223	52	63	26	24	58
호랭이	호랑이		363	93	99	48	44	79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호래이	호랑이		189	38	75	24	20	32
화소	황소, 수소		111	33	19	12	13	34
숫소	황소, 수소		161	43	44	19	22	33

날짐승 등의 명칭 (읍·면별)

<표1-16>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갈매기	갈매기		160	27	59	21	17	36
거시	거위		92	16	31	12	7	26
기레기	기러기		101	34	18	12	13	24
지러기	기러기		106	19	38	14	6	29
까마구	까마귀		333	84	91	43	34	81
꿩	꿩		130	36	33	15	12	34
까투리	꿩(암꿩)		244	65	57	33	27	62
쟁끼	꿩(수꿩)		165	47	43	21	15	39
닭	닭		186	43	58	32	13	40
둥지리	닭어리		35	10	2	1	6	16
닭집	닭어리		123	31	34	18	17	23
닭터래기	닭털		145	40	30	20	17	38
빻지	박쥐		120	17	42	16	15	30
병아리	병아리		133	37	33	17	13	33
닭새끼	병아리		162	47	42	17	21	35
뺑아리	병아리		232	47	81	34	24	46
장닭	수탉, 장닭		228	57	61	21	27	62

시후(날씨와 계절) 등의 명칭 (읍·면별)

<표1-17>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갈강비	가랑비		94	27	25	7	8	27
가을기	가을		89	34	19	7	6	23
갈	가을		128	32	46	10	11	29
겨울	겨울		82	16	22	7	8	29
동삼	겨울		151	31	44	21	16	39
깨	경, 쯤		88	26	18	10	8	26
글때	글피		176	46	47	19	19	45
그글때	그글피		151	41	35	14	16	45
오늘	오늘		157	37	49	16	17	38
아침	아침		123	26	34	9	19	35
식전	이른아침		214	63	41	19	26	65
아침	아침		102	26	29	11	11	25
지악	저녁		89	29	19	3	7	31
지악	저녁		159	46	37	12	19	45
올저녁	오늘저녁		166	44	45	22	21	34
올지악	오늘저녁		162	43	39	17	18	45
넬지악	내일저녁		156	42	33	14	23	44
넬저녁	내일저녁		217	50	67	33	25	42
접때	그때		200	55	51	21	23	50
노리	놀(霞彩)		47	13	8	7	3	16
능개	능개		29	5	12	2	2	8
우내비	능개		20	5	6	3	1	5
안개비	능개		123	33	31	14	16	29
베락	벼락		163	38	36	20	19	50
벨	별		68	13	17	4	10	24
뵈	별		96	23	22	9	13	29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새백	새벽		103	23	31	8	16	25
새박	새벽		69	18	22	6	5	18
새복	새벽		81	19	24	8	11	19
새벽	새벽		128	22	45	16	10	35
숫말	선달		151	38	39	16	17	41
소내기	소나기		162	40	38	19	20	45
소낙비	소나기		220	63	59	20	22	56
아지랭이	아지랑이		303	80	81	47	28	67
요새	요즈음		295	80	77	36	35	67
요즘	요즈음		305	75	92	52	29	57
반공일	토요일		162	36	43	10	20	53
방공일	토요일		92	20	24	9	8	31
온공일	일요일		132	29	36	14	8	45
해저름	해거름		52	14	10	4	6	18
해질물	해거름		79	22	18	6	9	24
시방	지금		240	68	52	27	31	62
막	지금		169	44	41	22	18	44
계따가	조금 지난 후에		216	63	41	27	26	59
이따가	조금 지난 후에		317	80	87	51	36	63
느리	우박		32	11	11	2	2	6
우박비	우박		131	33	36	20	12	30
부슬비	이슬비		113	26	15	19	15	38
개력	홍수		92	34	44	2	3	9
포락	홍수		32	4	9	5	3	11
개락	홍수		70	11	10	6	12	31
돌깐바람	회오리바람		75	23	29	6	6	11
회리바람	회오리바람		80	21	16	8	12	23
돌개바람	회오리바람		228	60	57	26	25	60

지리(地理) 등의 명칭 (읍·면별)

<표1-18>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건느말	건너마을	128	29	29	15	11	44
거른말	건너마을	85	16	32	12	8	17
지숙	기숙	45	9	11	3	5	17
지실	기숙	33	6	11	3	4	9
질	길(道路)	74	16	21	4	11	22
질깡	길(道路)	124	37	26	10	17	34
길깡	길(道路)	117	28	28	10	16	35
길깡여카리	갓길, 길옆	101	35	21	6	11	28
질깡ㄴ으카리	갓길, 길옆	59	15	16	2	7	19
말기뚝	논둑, 높은 둑	78	22	14	11	7	24
말기	마루	56	11	11	8	9	17
돌맹이	돌	333	86	101	40	38	68
돌빼이	돌	139	33	34	14	21	37
짱돌	돌	348	90	104	47	36	71
드루	들	34	8	10	3	4	9
버덩	들	139	41	32	11	13	42
뜰	들	183	43	57	25	19	39
말	마을	151	37	42	17	10	45
맹산	명산	48	11	12	4	4	17
물개	모래	80	13	22	8	9	28
물기	모래	68	13	22	7	6	20
바웃돌	바위	157	44	36	13	25	39
바우	바위	182	42	45	24	23	48
된바우	바위	62	13	21	6	7	15
돌빠우	바위	189	50	55	22	19	43
베랑	벼랑	77	20	12	6	10	29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산태개비	벼랑	55	14	12	8	5	16
산봉오리·산뽕우리	산봉우리	265	66	74	32	31	62
소롯길	소로(小路)	48	11	11	3	4	19
개	시내, 개울	80	3	29	8	14	26
개울	시내, 개울	266	63	73	41	29	60
갯가	시내, 개울	207	48	64	24	22	49
신장노	신작로	202	46	55	24	18	59
언데기	언덕바지	65	22	20	3	6	14
언드박	언덕바지	88	23	26	7	12	20
언덕빼기	언덕바지	192	48	40	23	19	62
영말기	영마루	74	19	20	9	6	20
덤병	웅덩이	84	15	30	9	8	22
웃말	웃마을	220	53	57	26	28	56

방위(方位) 등의 명칭 (읍·면별)

<표1-19>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ㄴ으가리	가장자리	30	3	10	2	5	10
가생이	가장자리	137	34	27	16	25	35
여강사리	가장자리	62	22	18	4	6	12
ㄴ으강사리	가장자리	51	8	21	8	4	10
귀테기	구석, 모퉁이	179	50	40	27	18	44
구석배기	구석, 모퉁이	170	50	37	15	16	52
귀재비	구석, 모퉁이	60	18	22	6	4	10
꼭때기	꼭대기	336	75	96	54	38	73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콩지머리	뒤		272	71	72	33	27	69
미테	밑		272	63	77	40	30	62
알	아래		96	25	23	9	11	28
위칸	윗방		158	45	39	18	19	37
웃빵	윗방		227	55	63	29	26	54
아래칸	아랫방		239	65	64	34	24	52
아랫칸	아랫방		239	58	75	29	25	52
어디루	어디로		266	76	78	33	28	51
어데	어디에		261	64	84	39	24	50
우	위		90	21	26	8	8	27
우에	위에		190	43	54	28	18	47

수치 관련 명칭 (읍·면별)

<표1-20>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하내	하나		184	39	61	20	20	44
둘히	둘		239	44	88	25	27	55
서이	셋		373	91	111	52	44	75
서히	셋		290	67	102	34	31	56
너이	넷		452	108	149	60	49	86
다서	다섯		318	79	97	39	37	66
댓	다섯		258	55	90	33	26	54
여서	여섯		316	72	107	40	30	67
일곱	일곱		258	56	82	30	26	64
여들비	여덟		139	35	38	10	17	39
여덜	여덟		360	84	113	49	40	74
열일곱	열일곱		228	60	60	20	28	60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엘아홉	열아홉		208	50	57	21	22	58
시물다섯	스물다섯		162	44	42	14	23	39
수물다섯	스물다섯		300	69	95	41	31	64
설흔	서른		303	77	99	34	31	62
설흔여들비	서른여덟		162	38	42	16	14	52
이른너이	일흔넷		258	58	72	27	29	72
이른여들비	일흔여덟		171	39	47	15	15	55
사날	사나흘		197	45	51	20	21	60
아레	아흐레		146	33	42	8	16	47
베미	마지기		93	27	20	6	11	29
커리	컬레		103	30	24	12	5	32
뽀(뽀)	뽀		64	17	13	6	6	22
마카	모두		134	31	30	13	16	44
마캥	모두		106	17	30	11	10	38
무꾸미	뭍음, 단, 못		71	22	14	4	7	24
무데기	뭍음, 단, 못		184	48	43	23	19	51
한바리	100두름		147	27	45	21	14	40
메칠	며칠		186	39	56	17	22	52
시다	헤아리다		107	29	29	5	9	35
세다	헤아리다		189	41	50	26	19	53
췌다	많다, 흔하다		168	36	33	20	26	53

용언과 관용어 등 (읍·면별)

<표1-21>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자꾸	계속		315	81	81	49	36	68
대구	계속		155	36	50	16	15	38
제우	겨우, 가까스로		66	14	17	6	9	20
게우	겨우, 가까스로		93	19	20	14	13	27
제와	겨우, 가까스로		114	37	26	11	12	28
가차이	가까이		134	33	30	12	18	41
씩	가까이		132	43	35	12	13	29
개롭다	가렵다		161	41	34	21	20	45
가롭다	가렵다		176	46	47	23	17	43
갈치다	가르치다		153	36	37	21	16	43
갈채준다	가르쳐준다		176	45	46	22	18	45
갈키다	가르키다		207	47	57	33	19	51
갈케준다	가르켜준다		190	47	47	28	24	44
개벼우니까	가벼우니까		153	38	37	19	20	39
개뿐하다	가뿐하다		227	52	59	31	26	59
각고	가지고		82	15	21	10	7	29
객고	가지고		61	11	12	9	6	23
벨안간	갑자기, 별안간		171	44	36	22	21	48
급짜기	갑자기, 별안간		146	37	41	16	18	34
깡파르다	강파르다		91	24	15	10	16	26
꺼꿀루	거꾸로		149	41	30	13	22	43
까꾸루	거꾸로		196	46	50	27	28	45
거시르다	거스르다		137	40	31	15	15	36
거실러	거슬러		180	43	46	27	23	41
거진	거의		198	50	42	21	25	60
근내가다	건너가다		128	31	30	19	12	36

방언 \ 표준어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근들지마	건들지마	233	49	69	32	23	60
꺼지다	건지다	218	48	59	33	25	53
얼쩨하문	걸핏하면	83	21	20	7	10	25
정황	경황	132	31	29	12	14	46
전디다	건디다	73	20	19	7	2	25
전디다	건디다	85	21	20	10	6	28
막빠루	곧장	140	28	35	13	18	46
고빨리	곧장	45	10	10	3	6	16
고빠루	곧장	180	48	41	22	17	52
부러	팬시리	133	32	23	15	15	48
개아나	팬참아	196	45	59	32	17	43
개이다	괴다	59	16	14	8	6	15
개우다	괴다	81	23	18	10	5	25
학상들이 구먹다	구워먹다	246	59	72	30	30	55
꼬먹다	구워먹다	224	48	64	35	24	53
강아지 끈다	굴뚝 쭈시다	46	8	16	6	5	11
기래서	그래서	249	56	64	39	28	62
글거 모:다	굶어모으다	90	24	18	9	10	29
그러모다	굶어모으다	75	17	17	9	11	21
꼰도	그만 뒤	112	31	22	11	15	33
노아서 지르다	기르다	77	17	20	10	7	23
지울다	기울다	154	34	35	19	21	45
기다라케	기다랗게	198	48	55	27	20	48
길쭉한 거	길쭉한 거	137	35	29	19	12	42
짚다	깊다	109	25	21	15	13	35
깨까타다	깨끗하다	92	21	22	6	15	28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깨까시	깨끗이		171	40	45	26	19	41
끼안타	껴안다		160	36	42	28	13	41
끼지버서	꼬집어서		48	5	13	9	10	11
꾸물뻗꾸나	꿈을 뻗구나		54	16	9	6	5	18
뀼ㅅ다	뻗다		38	5	14	7	3	9
나물쿤다	꾸짖다		55	15	6	3	10	21
야단치다	꾸짖다		189	36	54	32	18	49
꺄이다	끓이다		133	27	35	21	17	33
농가 먹었지요	나눠 ...		171	37	44	25	20	45
가치 농구구	같이 나누고		179	45	45	27	18	44
농구다	나누다		142	28	37	24	12	41
내중에	나중에		172	36	47	26	22	41
냉중에	나중에		242	69	60	30	25	58
헐었다	남았다		247	53	66	35	32	61
남새스럽다	남부끄럽다		194	47	41	32	21	53
냄새시럽다	남부끄럽다		187	38	57	29	20	43
얇추다	낮추다		108	26	27	10	15	30
넙죽하구	넙적하고		158	33	46	22	16	41
노푸다	높다		122	27	30	17	12	36
늘쌍	늘, 항상		214	48	55	28	26	57
늑시그레한	늑수그레한		79	15	22	9	11	22
틀리다	다르다		199	42	52	32	21	52
달라	다르다		146	33	40	25	16	32
잡도리하다	단속하다		40	7	5	3	7	18
단도리하다	단속(채비)하다		179	47	36	20	23	53
데워야겠다	덥혀야겠다		179	43	36	29	24	47
뜨세야겠다	덥혀야겠다		124	34	26	14	15	35
도맹쳐서 왓썌	도망쳐 왔어		148	28	42	21	17	40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똥글라하게	동그랗게		169	39	36	28	19	47
땃거렁	땃거든		191	48	52	27	23	41
우라지게	대단히, 되게		139	38	27	13	21	40
되아지게	대단히, 되게		94	23	25	8	9	29
되지게	대단히, 되게		157	39	30	23	19	46
쎄게	대단히, 되게		166	39	38	26	19	44
되잘라빠진거	되잡다		63	16	19	3	10	15
되잔나빠진거	되잡다		79	23	20	13	5	18
뚜꿍다	두꿍다		173	43	37	21	22	50
쫄다	두려워하다		134	35	32	14	15	38
얼다	겁내다		139	29	36	20	17	37
조히두 떨구	떨다		54	13	15	7	3	16
나-안자	떨어져 앉아		124	39	17	17	16	35
똥른다	똥는다		79	18	10	13	13	25
똥분다	똥는다		107	22	28	12	12	33
디레다 본다	들여다 본다		160	40	39	20	16	45
매냥	마냥		119	21	29	14	15	40
말도리 간다	마을 간다		70	21	14	7	9	19
마실 간다	마을 간다		154	30	38	25	15	46
맹근다	만든다		153	42	33	13	17	48
맹글다	만들다		154	35	37	18	24	40
망글다	만들다		64	21	10	5	8	20
맹길다	만들다		90	18	23	10	10	29
걸구 들렀다	많이 먹는다		85	22	16	6	10	31
계걸이 들렀다	많이 먹는다		151	41	31	16	20	43
마이 메긴다	많이 먹인다		121	26	33	17	12	33
미식거리다	메숙거리다		249	63	62	39	27	58
메꾸다	메우다		259	61	68	41	28	61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예으를 몰르문	… 모르면	71	14	16	6	9	26
매들게	모여들다	23	3	2	1	6	11
매들다	모여들다	70	15	14	8	10	23
뭇 할라구	무엇 하려고	142	34	37	23	15	33
메타라	무엇 하려고	143	47	31	18	9	38
바로 무꺼서	바로 묶어서	118	26	30	16	14	32
발쿤다	바루다, 퍼다	65	14	11	6	8	26
편다	편다	114	25	24	15	11	39
내꼔지다	버리다	223	62	51	22	28	60
비빠라구	베어버리다	43	8	13	5	2	15
베리는데	버리다	54	13	10	3	7	21
베림질하다	벼림질 하다	39	10	10	3	2	14
뿐본다	본 받는다	64	15	10	5	7	27
나른한 풀	보드라운 풀	50	10	15	9	5	11
풀미풀미	부라부라	25	2	9	4	4	6
부신다	부순다	148	35	32	24	19	38
뿌신다	부순다	191	48	49	26	19	49
부지랭이	부지런히	147	32	46	25	16	28
문디다	비비다	232	58	57	32	28	57
비젓하다	비슷하다	87	23	22	8	9	25
불래	비켜	24	7	3	1	4	9
물래	비켜	64	17	13	8	7	19
난자	물러 앉아	114	33	18	12	11	40
지르고 쌀마서	… 삶다	75	20	18	12	7	18
쌀마노쿠	삶아…	95	18	23	13	7	34
새켜서 업서지고	삭히다	52	6	17	9	5	15
곰치다	숨기다	158	36	36	19	22	45
숨키다	숨기다	235	50	73	32	28	52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시구럽다	시다	182	44	49	19	20	50
씨언하다	시원하다	163	41	46	20	21	35
숨다	심다	95	16	25	10	13	31
숨그는	심는	80	18	22	8	10	22
헐하다	값이 싸다	139	28	31	16	22	42
쓰겁다	쓰다	122	28	34	11	15	34
씨굽다	쓰다	182	42	39	23	28	50
씨구와서	쓰다	175	44	42	23	16	50
씨러지다	쓰러지다	133	27	39	15	15	37
애끼다	아끼다	217	53	50	35	23	56
말도 양이 해	말도 안 해	26	4	7	2	3	10
앙야	아니야	18	2	7	3	-	6
나젠 양해도	낫엔 안 해도	38	8	12	6	5	7
상가두	아직도	126	30	30	14	15	37
앙이 베키지	안 보이다	46	7	15	8	4	12
안기래	안 그래	222	48	61	36	22	55
알기지 안쿠	알리지 않고	61	12	18	5	4	22
알구다	알리다	91	24	15	8	10	34
패랏다	야워다	91	20	17	12	10	32
예뻐다	야워다	61	10	15	8	8	20
언가니	어지간히	78	17	20	8	11	22
앵가이	어지간히	147	29	45	19	17	37
얼거서 잇는다	엮다	41	9	11	6	2	13
영글믄	영글면	78	20	18	10	9	21
오믄	오면	193	54	43	32	19	45
오거덩	오거든	156	40	36	23	19	38
오골차다	오지다	63	6	23	5	7	22
되레	오히려	192	56	43	23	21	49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올라갈라지문	올라가다		64	10	16	7	8	23
치다 봐	쳐다 보다		72	14	17	13	4	24
올래다 보다	올려다 보다		133	31	29	21	15	37
윙기진 안터라구	윙기다		46	10	13	7	3	13
외서	왜		70	18	17	7	5	23
원금으로	외워서		31	8	10	1	5	7
앵그므로	외워서		43	9	17	6	2	9
하마	이미		133	39	27	16	13	38
하마트면	하마터면		194	50	43	28	26	47
하마트믄	하마터면		154	38	33	24	17	42
우정	일부러		77	19	18	5	10	25
역부러	일부러		71	19	12	5	12	23
부러	일부러		156	38	30	21	20	47
일나	일어나		172	40	39	24	21	48
인나	일어나		264	59	71	42	26	66
일커 세워	일으켜 세워		182	46	38	26	16	56
일찌간치 지상	일찌감치		113	17	37	15	13	31
이러 머것다	잃어버렸다		116	28	24	19	12	33
잇짜나	있잖아		111	28	27	13	11	32
이짚니	있잖니		216	50	55	33	27	51
생깁이 안나	생각이 앓나		31	7	8	3	6	7
이저 빼렷썌요	잊어버렸다		107	31	26	11	11	28
째단하게 달린다	자잘하게		71	12	21	9	10	19
잘게	작게		254	63	60	36	32	63
재롬하다	작다		92	21	17	8	11	35
어래이 아라서	어련히 알아서		86	20	21	7	9	29
재와서	재우다		126	28	37	17	10	34
재간치다	저지레하다		110	36	19	5	16	34

방언 \ 표준어	읍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재간하다	저지레하다	55	11	10	4	10	20
우명하게 해	정갈하다	30	3	8	7	2	10
정내미 떨어졌다	정나미 없다	217	58	48	23	24	64
똑소리나다	정확하다	201	49	50	30	23	49
질 시러한대	제일 싫어	144	32	36	21	19	36
찌끄만 것	조그맣다	248	58	61	39	26	64
찌끔씩	조금씩	202	47	49	30	19	57
아까	조금 전에	255	67	58	33	34	63
아께	조금 전에	217	54	54	28	29	52
사작사작	천천히	117	32	28	12	12	33
히딱까무러치다	졸도하다	123	29	26	8	18	42
종이째비	종이조각	95	26	18	11	10	30
종우째기	종이조각	105	18	33	15	9	30
제금도 말에 와	지금도...	48	10	15	3	7	13
진페이	진짜	146	37	33	15	15	46
메두 지찌	...짓다	31	5	11	4	1	10
짜쟁이	짜짜궁이	88	19	23	14	10	22
차구어	차가워	84	19	23	10	11	21
차구와	차가워	170	40	35	23	24	48
쫓뽕해 노쿠	쫓불 해 놓고	76	10	28	6	11	21
치질하다	키질하다	63	13	14	7	11	18
빠지다	토라지다	268	76	61	37	35	59
트리지다	토라지다	159	44	46	18	17	34
씨그려거리문	투정부리다	46	8	16	8	4	10
트리노래	틀어놓을까	73	16	26	10	7	14
펜히 주무셨습니	편히...	168	37	46	23	22	40
부애가 나서	화가 나서	218	66	45	26	24	57
부애나게	화나게	117	25	29	12	11	40

방언 \ 표준어	음면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부애감이 생겼어요	화나다	41	2	13	5	7	14
화딱지	화	302	76	70	43	40	73
부애를 독아서	화를 돌우다	125	34	26	7	15	43
화를 도까서	화를 돌우다	105	27	27	11	11	29
헤트리다	흐트리다	123	29	38	17	12	27
…하믄	…하면	188	48	48	28	16	48
옥새기 송거논거	…심어놓은 것	163	41	35	24	19	44
지시랑물	낙숫물	99	28	19	13	9	30
쌀잘기 널커나	쌀자루 내려놔	107	26	26	13	13	29
아치게 했다	아침에 했다	117	25	29	12	12	39
낭그떼기 앵겨	… 옮겨	136	37	35	14	11	39
보강지에 앵구리	아궁이 연기	158	44	44	17	14	39
냉가다 보며는	넘겨다 보면	118	23	26	21	11	37
질깁 여카리 낭구	갓길 나무	137	37	31	16	13	40
벧잘구 동가매	벧자루 묶어	102	21	25	14	10	32
쿤내난다	냄새난다	189	49	44	17	28	51
동쿨래난다	동냄새난다	191	43	50	21	24	53

가족관계 호칭 (농·어촌)

<표2-1>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하라버이	할아버지		354	152	182	20
할머이	할머니		430	184	225	21
시어머이	시어머니		394	176	195	23
친정아부지	친정아버지		358	161	176	21
아재	숙부 등		219	107	97	15
큰 아버지	큰 아버지		410	181	207	22
작은 아번님	중부		232	114	100	18
시누	시누이		210	104	96	10
계수	제수		122	56	57	9
성	형		303	132	151	20
동상	동생		391	174	193	24
애기씨	시누이		276	127	136	13

일상생활 용어 (농·어촌)

<표2-2>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가름뱅이	가르마		46	27	13	6
가름마	가르마		249	116	112	21
돌방개	가부좌		48	22	22	4
저드랑이	겨드랑이		140	64	66	10
지지바	계집아이		257	123	116	18
간나	계집아이		341	161	158	22
언니미	계집아이		138	53	76	9
얼금뱅이	곰보		68	29	32	7
곶새	곶사		191	94	82	15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굽뱅이	구두쇠		93	46	38	9
노랭이	구두쇠		219	99	102	18
귀부랄	긱볼		72	41	23	8
긱볼	긱볼		271	123	129	19
지지개	기지개		194	82	95	17
날살	나이		166	74	75	17
니	너		285	120	148	17
신다리	넓적다리, 허벅지		79	38	32	9
깔떼기	딸꾹질		161	72	70	19
미시리	바보		319	149	144	26
배떼기	복부, 배		285	125	139	21
뒤꾸배	발뒤축		53	23	23	7
뺨따구	뺨다귀		401	169	206	26
썰미	수염		152	73	67	12
쇠꼽	쇠		155	82	62	11
쇠꼳	쇠		71	35	31	5
쇠꼬치	쇠		179	80	85	14
얼라	갓난아이		324	138	166	20
언나(해다)	갓난아이		6	3	2	1
냉구리	연기		84	45	26	13
앵구리	연기		39	22	11	6
내구리	연기		39	25	9	5
내구레기	연기		32	11	16	5
풍구	풀무		65	37	18	10
핵교	학교		361	156	179	26
허재비	허수아비		162	70	83	9
장지뿔	가위바위보		40	17	19	4
장깨이보	가위바위보		220	97	106	17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거래이	거지		62	25	28	9
동고리	거지		34	15	15	4
거름뱅이	거지		209	96	95	18
거짓뿌리	거짓말		174	88	70	16
거짓뿌렁	거짓말		249	128	104	17
공갈	거짓말		299	145	134	20
뽕	거짓말		330	143	164	23
기력지	갈이		340	157	156	27
거두리	껍질		41	14	24	3
껍떼기	껍데기		420	184	208	28
곤드레미	고드름		39	21	14	4
고드래미	고드름		80	29	41	10
질쌈	길쌈		100	53	37	10
팽새	팽과리		34	14	18	2
팽가리	팽과리		214	100	97	17
팽쇠	팽과리		87	26	54	7
통쇠	통소		103	53	39	11
농작대	농악대		49	16	28	5
농에	누에		91	42	39	10
승냥간	대장간		30	16	10	4
베림질칸	대장간		23	12	8	3
대장간	대장간		241	119	104	18
또깨비	도깨비		247	110	121	16
질	두레		58	24	28	6
두벌집	두벌 김매기		43	23	15	5
걸금	두엄, 거름		125	70	39	16
거름	두엄, 거름		171	92	67	12
문지	먼지		149	81	56	12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몬지	먼지		111	38	65	8
마댕이	마당질		83	39	33	11
산자리	밋자리		64	35	22	7
뽕꾸댕이	밋자리		97	46	39	12
젠노리	새참		111	62	35	14
세맨	북		66	33	27	6
장구	북		250	108	123	19
서황당	서낭당		129	63	54	12
애기짐	애벌 김매기		36	17	15	4
옹노	올가미		80	39	31	10
잘기	자루		158	72	60	26
장작깨비	장작개비		177	88	73	16
장재기	장작		77	36	28	13
장개	장구		71	26	38	7
주레	호드기		17	7	8	2
줄레	호드기		16	10	4	2
철엽	천렵		90	48	28	14
꼬니	고누		38	19	16	3
꼰지니	고누		27	13	12	2
움물고누	고누		24	9	11	4
동개	동고리		26	9	12	5
목마	동고리		57	29	23	5
목말	동고리		61	30	24	7
구녕	구멍		286	136	131	19
구엥	구멍		62	26	32	4
구용	구멍		121	42	69	10

생활용품의 명칭 (농·어촌)

<표2-3>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가마	가마솔		213	111	87	15
가마전	가마솔		71	33	36	2
가매솔	가마솔		216	88	110	18
곰배	고무래		43	25	13	5
불깍대기	고무래		32	16	9	7
골미	골무		110	55	43	12
작기장	공책		59	30	20	9
잭기장	공책		80	27	43	10
동태바꾸	굴렁쇠		7	2	4	1
굴레바꾸	굴렁쇠		139	67	57	15
폴비	귀얄		18	9	8	1
폴솔	귀얄		25	12	10	3
근네	그네		117	57	49	11
넉동바리	넉동무니		18	7	8	3
빨랫돌	다듬잇돌		177	92	76	9
다드미돌	다듬잇돌		253	116	119	18
따깡	뚜껑		123	61	52	10
따까리	뚜껑		203	101	87	15
뚜껑	뚜껑		227	98	115	14
대리미	다리미		265	120	123	22
척세	다리쇠		26	12	9	5
삼바리	다리쇠		85	38	36	11
갈보단지	단지		27	15	9	3
오갈단지	단지		83	36	34	13
대터리	재떨이		49	29	15	5
재털이	재떨이		344	145	176	23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장죽	곰방대, 담뱃대		39	18	18	3
담뱃대	곰방대, 담뱃대		71	40	20	11
곰뱃대	곰방대, 담뱃대		70	37	23	10
사발	대접		416	190	200	26
장판지	장독		380	166	190	24
도짜리	돗자리		250	125	107	18
돗자리	돗자리		114	43	64	7
뒤지	뒤주		97	58	30	9
또아리	파리		190	96	74	20
따바리	파리		132	75	51	6
통거리	독배기		58	23	29	6
퇴침	목침		48	25	14	9
몽치매기	목침		16	11	4	1
몽치미	목침		55	28	20	7
꼬바리	물뿌리개		41	20	16	5
물뿌리	물뿌리개		30	17	9	4
물조리	물뿌리개		206	102	91	13
찍개	밀신개		41	24	14	3
벌찍개	밀신개		11	5	5	1
근네	밀신개		25	13	8	4
바각지	바가지		133	55	60	18
바늘	바늘		169	65	85	19
바쿠	바퀴		121	57	51	13
바꾸	바퀴		185	86	87	12
간끄룩	간그릇, 반찬그릇		66	30	24	12
웃판	말판		206	92	96	18
빨래방치	방망이, 빨랫방망이		94	47	38	9
다듬방치	방망이		68	31	28	9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방추	방망이		43	13	26	4
비개	베개		288	142	129	17
벼개	베개		250	118	115	17
뱅	병		95	43	41	11
벙풍	병풍		79	42	30	7
팽풍	병풍		31	14	15	2
평풍	병풍		96	41	45	10
불가래	부삽		40	22	15	3
불비딩이	부삽		21	9	8	4
불까리	부젓가락		24	13	9	2
부절까지	부젓가락		49	27	14	8
부절갈	부젓가락		66	34	26	6
부지깥이	부지깥이		106	67	38	1
비지깥이	부지깥이		83	46	29	8
부지깨	부지깥이		96	54	35	7
비네	비녀		113	50	54	9
폴종우	비닐		142	68	58	16
얼개	얼레빗		53	28	16	9
어르개	얼레빗		23	11	8	4
빗짚기	빗자루		162	79	69	14
사닥다리	사다리		177	92	71	14
모태	석쇠		71	39	23	9
성냥곽	성냥갑		190	104	73	13
성냥통	성냥갑		155	79	65	11
다황	성냥		51	17	29	5
시숫대야	세숫대야		168	77	80	11
소치	솔		29	12	13	4
쇠꼭솔	솔		46	22	20	4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술단지	술		258	117	120	21
소두뱅이	술뚜껑		80	38	34	8
숯갈	숯가락		269	131	121	17
수가락	숯가락		290	125	146	19
절	젓가락		217	101	100	16
절가락	젓가락		236	116	104	16
적갈	젓가락		230	108	107	15
저까지	젓가락		153	63	78	12
술뱅	술병		132	64	56	12
술종지	술잔		95	48	37	10
종지	종지		146	74	61	11
종발	종발		119	57	51	11
실기	시루		102	52	36	14
쌀잘기	쌀자루		139	80	47	12
엔경	안경		142	74	58	10
앵경	안경		173	69	91	13
빙고	얼음썰매		142	70	64	8
빙구	얼음썰매		285	132	131	22
연짜새	얼레		45	17	23	5
연찹개	얼레		19	11	7	1
연짜개	얼레		17	9	3	5
연자새	얼레		45	27	13	5
장군	오줌항아리		44	27	14	3
오줌장군	오줌항아리		68	30	33	5
옹구	옹기		97	54	35	8
질그룩	질그릇		159	73	71	15
윙	윳		33	11	19	3
남박	이남박		46	23	16	7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쌀남박	이남박	105	51	40	14
씻때	자물쇠	166	89	61	16
자물통	자물쇠	170	90	69	11
쇠통	자물쇠	115	54	52	9
자봉틀	재봉틀	94	53	30	11
자방침	재봉틀	35	15	16	4
메띠기	자치기	80	42	30	8
땅치기	자치기	55	26	23	6
짚치는거	자치기	37	14	20	3
잔전	잔돈	87	46	30	11
잔돈	잔돈	128	62	54	12
날전	잔돈	55	27	23	5
조루	조리	53	30	18	5
죄리	조리	60	32	20	8
종우	종이	144	67	62	15
밥주걱	주걱	361	165	173	23
밥주발	주발	119	59	48	12
복짓깨, 복지깨	주발뚜껑	100	52	35	13
참빋	참빋	109	54	41	14
쏘개울치	참빋	37	14	20	3
구르무	크림	134	71	49	14
뽕이	팽이	85	39	37	9
채쭉	팽이채	49	22	23	4
단지	항아리, 단지	281	137	125	19
독	항아리, 단지	286	128	142	16
흥겘	형겘	131	73	48	10
흔겅	형겘	83	44	31	8
헌겅	형겘	192	93	87	12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화루	화로		114	61	41	12
화리	화로		74	37	28	9
흙갈	흙손		113	50	49	14

주거 관련 명칭 (농·어촌)

<표2-4>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고방	곳간, 광		112	62	40	10
구수	구유		22	13	8	1
비구수	구유		17	12	4	1
구송	구유		66	42	17	7
여물통	구유		148	69	64	15
끄시레미	그을음		62	33	21	8
끄으름	그을음		106	55	43	8
끄스름	그을음		129	60	58	11
지둥	기둥		212	101	96	15
기아집	기와집		200	95	91	14
한아기와집	기와집		99	41	52	6
지시랑물	낙숫물		84	47	23	14
달기둥지	닭장		82	40	35	7
또랑	도랑		218	115	85	18
도랑창	도랑		139	80	49	10
웅그르버리개	도랑		46	18	24	4
대지울칸	돼지우리		167	87	66	14
뒤란	뒤꼍, 뒤뜰		181	96	67	18
두란	뒤꼍, 뒤뜰		68	38	25	5
울안	뒤꼍, 뒤뜰		79	35	34	10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돌창문	들창		45	21	21	3
놀마룻	마루		36	20	15	1
마룻	마루		109	49	48	12
돌저구	돌찌귀		109	62	39	8
문꼴기	문고리		112	44	58	10
구들	구들, 온돌		182	94	75	13
구들짱	온돌, 구들		297	137	138	22
벼람박	벽		89	43	36	10
배람박	벽		110	50	51	9
뒤간	변소		302	142	136	24
정낭	변소		114	51	52	11
밴소(벤소)	변소		243	109	120	14
벽	부엌		76	36	32	8
보케	부엌		133	72	49	12
정지	부엌		135	63	61	11
싸리문	사립문		188	88	86	14
소깡이	관솔		94	48	37	9
광솔	관솔		53	25	21	7
서까래	서까래		155	80	61	14
연목	연목		21	12	7	2
서포살이	셋방		17	7	7	3
보강지	아궁이		146	77	53	16
버양지	아궁이		47	18	25	4
곶째	용마름		51	31	15	5
영마름	용마름		47	21	18	8
마굿간	외양간		278	131	129	18
마구	외양간		109	59	40	10
마구간	외양간		256	119	119	18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웅굴	우물		92	40	43	9
움굴	우물		42	18	21	3
움물	우물		122	50	62	10
울쌩다리	울타리		40	21	18	1
우삭다리	울타리		26	7	17	2
이영	이엉		89	48	30	11
영	이엉		44	17	23	4
장독	장독		155	74	69	12
짱뚜거리	장독		107	56	44	7
장독	장독		247	118	116	13
장판지	장독		313	138	157	18
지풀집	초가집		123	56	54	13
구팡	토방		108	62	34	12

음식 등의 명칭 (농·어촌)

<표2-5>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갈기	가루		137	70	54	13
국시	국수		369	166	180	23
지령	간장		52	27	21	4
꼬갱이	고갱이		131	67	52	12
꼬루밥	고두밥, 된밥		67	35	23	9
꼬두밥	고두밥, 된밥		153	72	67	14
꼬돌밥	고두밥, 된밥		244	106	122	16
고치가루	고춧가루		202	94	94	14
꼬치가루	고춧가루		182	90	82	10
꼬치갈기	고춧가루		152	65	76	11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꼬추장	고추장		356	151	183	22
지름	기름		268	130	117	21
짐장	김장		212	106	91	15
짬지	김치		339	161	155	23
짐치	김치		220	92	112	16
소쟁이	누룽지		87	52	20	15
소디끼	누룽지		46	15	26	5
달갈	달걀, 계란		194	100	80	14
달갱이	달걀, 계란		67	36	26	5
달갱이	달걀, 계란		67	31	31	5
계란	달걀, 계란		320	148	152	20
소적	묵		43	20	18	5
밀갈기	밀가루		154	73	63	18
지지매	적, 빈대떡		86	39	41	6
지지미	적, 빈대떡		191	89	89	13
부침개	부침개		289	139	131	19
부치미	부침개		266	123	123	20
부침기	부침개		211	84	111	16
쉬쉬떡	수수떡		88	40	36	12
뚜더기국	수제비국		92	45	41	6
뚜덕국	수제비국		82	33	40	9
건추	시래기		121	65	47	9
씨래기	시래기		343	155	167	21
실기떡	시루떡		114	50	53	11
감주	식혜		376	172	177	27
깜박	옥수수튀밥		166	91	62	13
강밥	옥수수튀밥		83	38	34	11
광밥	옥수수튀밥		80	31	42	7

의복(옷)의 명칭 (농 · 어촌)

<표2-6>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우티	옷		166	80	73	13
고쟁이	속옷·속곳		210	102	89	19
누데기	누더기		371	172	173	26
두루막	두루마기		224	105	102	17
보선	버선		144	71	60	13
치매	치마		264	125	123	16
조고리	저고리		235	113	103	19
덧조고리	조끼		156	78	63	15
대임	대님		128	69	47	12
잠뱅이	잠방이, 짧은 훔바지		97	51	38	8
엽차기	호주머니		73	32	35	6

가구 등의 명칭 (농 · 어촌)

<표2-7>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귀	궤		51	25	20	6
고리짝	궤		125	61	51	13
옷시래	벽장		72	28	39	5
빠다지	서랍		210	107	89	14
빠랍	서랍		122	52	59	11
실경	선반, 시렁		109	56	42	11
으게	장롱		22	10	9	3
단쓰	장롱		139	77	50	12
농	장롱		230	119	95	16
차단쓰	장롱		188	88	87	13

농기구 등의 명칭 (농·어촌)

<표2-8>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깍지	갈퀴		100	54	39	7
깍쟁이	갈퀴		79	38	34	7
괴뻘	고뻘		89	45	35	9
코뿔레	코뚜레		114	59	48	7
광우리	광주리		61	30	24	7
광지리	광주리		145	77	59	9
곡괭이	곡괭이		291	135	139	17
후지	극쟁이		16	8	7	1
가데기	극쟁이		25	17	7	1
가데이	극쟁이		21	9	10	2
자구	자귀, 까귀		88	47	31	10
나루채	벗줄		18	7	8	3
도꾸	도끼		123	63	49	11
도귀	도끼		137	58	70	9
돌깨	도리깨		38	16	20	2
도루깨	도리깨		154	80	61	13
돌방애	돌방아		104	45	52	7
디딜방아	디딜방아		180	91	78	11
발방아	디딜방아		83	43	30	10
발방애	디딜방아		66	30	28	8
망	맷돌		40	19	16	5
돌망	맷돌		100	49	43	8
멍지	멍에		64	34	23	7
등구미	먹등구미		22	7	11	4
살	몽두발		22	12	8	2
쌈비방아	물레방아		25	8	14	3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물방간	물레방앗간		116	55	52	9
물방아	물레방아		223	94	114	15
발방터	디딜방앗간		22	10	10	2
디딜방아간	디딜방앗간		151	69	67	15
디딜방애간	디딜방앗간		72	28	38	6
어덩이	발채		23	7	14	2
방간	방앗간		167	88	62	17
쫓패	벼훑이		34	17	15	2
짚가리	벼가리		137	74	52	11
벧가리	벼가리		75	44	26	5
짚가래	벼가리		85	48	32	5
집갈기	벼가리		68	33	30	5
버습	보습		27	11	11	5
버섯	보습		64	30	27	7
보째기	쟁기		27	11	13	3
버습	쟁기		19	12	5	2
연장	쟁기		115	58	43	14
엔장	쟁기		73	43	25	5
삼탱이	삼태기		111	61	42	8
삽가래	삽		92	47	38	7
사까래	삽		103	52	44	7
새꾸락지	새끼		88	43	36	9
새끼줄	새끼줄		211	103	90	18
새꼬래기	새끼		97	46	42	9
멍지	소입막이		35	19	10	6
멍거래기	소입막이		28	14	11	3
서스랑	쇠스랑		109	51	46	12
고질	여물		105	63	32	10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구박	쇠죽바가지		62	39	18	5
여물구박	쇠죽바가지		67	36	25	6
쇠꽃방아	쇠절구		31	15	11	5
쇠꼭방애	쇠절구		34	16	16	2
서래	써래		89	43	39	7
썰틀	씨아		26	11	11	4
얼개미	어레미		71	40	23	8
얼끼미	어레미		8	4	3	1
바때기	발채		32	13	17	2
챗바쿠	챗바퀴, 잔것		78	39	32	7
얼개	얼레빋		56	29	21	6
고질까리	여물간		41	25	13	3
여물까리	여물간		36	18	14	4
연재방아	연자방아		47	21	21	5
연자방애	연자방아		73	34	34	5
작숙이	작대기		20	5	13	2
작썰미	지게작대기		104	51	41	12
절구확	절구		25	11	12	2
절구통	절구		233	111	105	17
방애공이	절구공이		61	26	28	7
지게작때기	지게작대기		138	77	53	8
작새미	지게작대기		86	42	36	8
집풀	짚		137	73	53	11
지푸락지	지푸라기		227	111	100	16
채	키		63	29	28	6
치	키		66	42	19	5
덜쩍	키		34	11	20	3
풍구	풀무, 풍구		72	39	26	7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풀미	풀무		22	11	9	2
풀미독	풀무		21	4	14	3
호무	호미		143	72	60	11
호무짚구	호미자루		116	56	53	7
방아확	확		37	18	16	3

곡식 등의 명칭 (농·어촌)

<표2-9>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곡석	곡식		149	68	71	10
꺼끄래기	까끄라기		95	53	33	9
논곡	논곡식		79	37	37	5
메조히	메조		51	25	22	4
박고지	박		71	42	18	11
바꼬지	박		111	60	46	5
밭곡	밭곡식		97	40	52	5
베	벼		252	116	119	17
베알	밭알		187	94	81	12
쌀알	쌀, 낱알		328	147	163	18
쉬시	수수		70	32	31	7
옥시기	옥수수		337	148	168	21
옥쌌기	옥수수		210	107	88	15
강냉이	옥수수		374	158	198	18
이스래기	이삭		33	16	13	4
이시락	이삭		92	53	31	8
찰조히	찰조		41	20	16	5
차조	찰조		126	62	51	13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차갈이	찰조		41	12	27	2
마덩이	타작		104	56	38	10
왜귀리	호밀		65	31	29	5
새째	왕겨		108	66	29	13

소채류, 과일과 식물 등의 명칭 (농·어촌)

<표2-10>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고치	고추		152	75	68	9
꼬치	고추		262	114	137	11
깨입사구	깨잎		249	122	110	17
깨보생이	깨가루		204	103	82	19
간무	당근		65	24	37	4
마늘	마늘		180	83	83	14
무우	무		249	124	113	12
무꾸	무		263	117	126	20
무순	무-잎		159	75	74	10
무입싸구	무청		216	101	103	12
배차	배추		215	111	85	19
분추	부추		214	104	92	18
생추	상추		158	78	67	13
불기	상추		53	25	26	2
상치	상추		241	102	127	12
외	오이		128	61	56	11
물외	오이		141	72	56	13
호배기	호박		48	23	23	2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안즌호박	호박	39	18	19	2
외호박	호박	159	74	70	15
개금	개암	79	42	29	8
깨금	개암	126	67	44	15
꼬들빼기	고들빼기	330	153	156	21
괴비	고비	109	59	42	8
괘	고염	71	36	28	7
개암	고염	91	47	33	11
꼬감	곶감	320	137	161	22
꽤리	파리	126	66	49	11
등거지	그루터기	50	26	20	4
방덩이	그루터기	77	44	26	7
아치	가지	31	15	14	2
낭구	나무, 나뭇등걸	155	80	63	12
낭구떼기	나무, 나뭇등걸	128	62	56	10
낭그	나무, 나뭇등걸	99	58	36	5
낭그떼기	나무, 나뭇등걸	102	58	39	5
대까치	대, 대나무	90	49	35	6
대까지	대, 대나무	105	58	41	6
나생이	냉이	167	87	65	15
달루	달래	102	51	43	8
더대기	더덕	60	27	28	5
더더지	더덕	85	39	38	8
덩구리	덩굴	85	39	38	8
개바늘	도깨비바늘	70	39	25	6
개바늘	도깨비바늘	49	23	22	4
또깨비바늘	도깨비바늘	143	63	70	10
굴밤	도토리	105	60	37	8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꿀밤	도토리		137	72	58	7
딸구	딸기		211	106	90	15
참낭구	떡갈나무, 참나무		131	72	50	9
멀구	머루		140	75	52	13
논쟁이	명아주		21	11	8	2
메내	목화		15	8	6	1
모케	목화		54	23	25	6
버드리	버드나무		61	29	28	4
버드낭구	버드나무		112	61	42	9
버들가지	버드나무		231	109	105	17
복상	복숭아		197	98	84	15
봉숭아	봉선화		362	167	174	21
붕나무	붉나무		26	14	8	4
불낭기	붉나무		24	10	12	2
불나무	붉나무		48	18	25	5
뽕	뽕기, 띠		21	13	6	2
뽕	뽕기, 띠		36	19	15	2
뿌레기	뿌리		102	55	36	11
뿌랙찌	뿌리		89	41	44	4
사괴	사과		127	61	57	9
삭다리	삭정이		62	31	24	7
씩다리	삭정이		69	38	28	3
삽초썩	삽주		48	25	17	6
사초썩	삽주		42	23	16	3
참굴밤	상수리		66	28	30	8
솔검불	솔가리		75	42	26	7
솔까비	솔가지, 솔가리		49	25	21	3
솔깨비	솔가지, 솔가리		103	55	39	9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솔방구리	솔방울		72	32	35	5
썸바구	썸바귀		211	111	87	13
썸바구	썸바귀		92	40	48	4
꽤	야생자두		57	29	21	7
꽤	야생자두		47	22	20	5
괴타리	야생자두		58	31	22	5
오얏	자두		52	27	21	4
뽕오두	오디		116	64	42	10
오두	오디		121	58	51	12
왕대까치	왕대		56	32	19	5
왕대까지	왕대		61	32	24	5
떼짱구	질경이		34	20	11	3
빼짱구	질경이		58	36	19	3
빼짱우	질경이		41	21	16	4
함바꽃	철쭉꽃		71	39	26	6
함박꽃	철쭉꽃		175	87	77	11
통갈나무	청미래덩굴		60	28	26	6
통가리나무	청미래덩굴		42	18	19	5
포두	포도		166	68	87	11
해장우리	해바라기		20	10	8	2
해자우리	해바라기		23	10	11	2
해꽃	해바라기		38	20	14	4
울구꽃	해당화		73	43	23	7
열구꽃	해당화		50	16	29	5
울구	해당화열매		74	39	31	4
열구	해당화열매		55	23	28	4
행나무	향나무		68	32	33	3
당추새	호두		56	32	19	5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당투새	호두		32	18	12	2
호도	호두		251	110	127	14

곤충 등의 명칭 (농 · 어촌)

<표2-11>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깔따구	각다귀		162	76	75	11
거마리	거머리		152	82	58	12
그마리	거머리		94	50	38	6
끄마리	거머리		75	32	38	5
거무	거미		136	61	64	11
구데기	구더기		273	129	126	18
똥구데기	구더기		183	77	95	11
돈벌거지	그리마		146	71	67	8
돌벌깍지	그리마		24	13	10	1
어르맹이	그리마		24	6	15	3
나뽀	나비		66	29	31	6
날파리	날벌레		325	153	151	21
노내기	노래기		165	77	77	11
눔에	누에		88	51	31	6
눔어	누에		38	21	16	1
눔어꼬치	누에		38	22	15	1
눔에꼬치	누에		104	54	40	10
땡피	땅벌		114	57	47	10
땡뼤	땅벌		207	104	87	16
맴	매미		83	35	45	3
매음	매미		83	28	48	7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매떡기	매두기		83	39	37	7
매떼기	매두기		151	72	67	12
모구	모기		177	81	83	13
보구미	바구미		44	18	22	4
바기미	바구미		64	29	28	7
개똥벌격지	반딧불, 개똥벌레		59	27	29	3
개똥벌레	반딧불, 개똥벌레		253	117	119	17
물강아지	방개		108	53	43	12
방아다리	방아깨비		94	47	40	7
방애다리	방아깨비		74	28	41	5
사마구	사마귀, 버마재비		248	119	112	17
두두래기	두드러기		209	96	100	13
버리	벌		61	21	34	6
벌기	벌레		45	20	20	5
벌거지	벌레		227	111	100	16
벌격지	벌레		108	45	56	7
써개	서개		97	50	40	7
옛장수	소금쟁이		165	86	67	12
옛장사	소금쟁이		122	62	50	10
베짖이	여치		251	119	114	18
소금쟁이	잠자리		179	93	73	13
지렁이	지렁이		180	77	91	12
찌렁이	지렁이		144	57	78	9
찢데미	진딧물		45	27	16	2
띠미	진딧물		84	52	25	7
찢드기	진드기		260	124	123	13
으녕이	진딧물		43	17	24	2
쉬파리	쇠파리		177	90	74	13
거시	회충		138	64	61	13

파충류 등의 명칭 (농·어촌)

<표2-12>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깨구리	깨구리		240	111	116	13
깨구락지	깨구리		366	189	153	24
깨고락지	깨구리		176	68	97	11
구렁이	구렁이		240	116	104	20
구레이	구렁이		77	35	35	7
개맹이	구렁이		71	25	41	5
두꺼비	두꺼비		205	90	97	18
뚜꺼비	두꺼비		210	82	118	10
올챙이새끼	올챙이		279	126	135	18
으심이	이무기		33	15	15	3
살무사	살모사		265	119	126	20

물고기 등의 명칭 (농·어촌)

<표2-13>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괴기	고기		218	104	95	19
꼬기	고기		80	30	45	5
가우리	가오리		117	52	56	9
가재미	가자미		303	145	137	21
참가재미	가자미		180	88	79	13
물가재미	가자미		171	85	73	13
돌가재미	가자미		170	73	88	9
칼치	갈치		265	118	132	15
기	게		302	131	153	18
고망어	고등어		82	31	47	4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쪽저구	독지		95	55	34	6
독저기	독지		57	35	20	2
뚜거리	독지		58	35	20	3
독저구	독지		135	71	54	10
공치	공치		136	62	64	10
부채기	꽃게		43	18	21	4
놀래미	놀래기		326	142	163	21
골뱅이	골뱅이		290	140	134	16
꼴뱅이	골뱅이		122	60	56	6
꼴배	골뱅이		84	31	47	6
쌍치	도치		24	12	10	2
쌍둥이	도치		141	72	56	13
쌍튀	도치		40	14	22	4
동패	망둥이		30	12	14	4
며치	멸치		90	38	46	6
매치	멸치		102	43	55	4
맹태	명태		232	112	110	10
동태	냉동명태		298	136	144	18
생태	명태		316	133	161	22
문예	문어		141	69	63	9
해태	물개		47	16	28	3
장괭이	뱀장어		35	15	17	3
미꾸리	미꾸라지		145	74	61	10
미꾸락지	미꾸라지		333	158	157	18
벨	뱌, 창자		111	61	43	7
장괭이	뱀장어		24	6	15	3
버들각지	버들치, 송사리		122	66	49	7
버들기	버들치, 송사리		101	45	45	11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열갱이	볼락		214	112	89	13
빨갱이	볼락		45	25	19	1
아까모찌	볼락		56	24	28	4
살치	송사리		31	13	17	1
눈팅거리	송사리		44	13	27	4
알땅구	붉은성게		65	35	24	6
아까이	붉은성게		53	22	28	3
구로	검은성게		48	18	24	6
새비새끼	새우		51	18	30	3
아꿈치	아가미		49	26	21	2
서거리	아가미		108	58	39	11
아감지	아가미		64	31	27	6
아굼지	아가미		71	42	24	5
앵미리	양미리		249	121	110	18
영매리	양미리		101	36	56	9
이까	오징어		178	91	75	12
우리기	우럭		128	65	54	9
우레기	우럭		98	49	45	4
멍게	우렁챙이, 멍게		200	103	84	13
행우	우렁챙이, 멍게		52	25	22	5
논꼴뱅이	우렁이		128	75	40	13
꼴배이	꼴뱅이		83	38	39	6
가시리	우뚝가사리		155	82	59	14
새치	임연수어		224	119	92	13
이면수	임연수어		221	104	98	19
가리쟁이	임연수어새끼		88	38	43	7
조가지	조개		92	44	42	6
용고지	쌀미꾸리		38	22	14	2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옹고지	쌀미꾸리		156	86	58	12
옹곡지	쌀미꾸리		45	23	20	2
등날개	지느러미		38	20	16	2
지데미	지느러미		24	13	9	2
배날개	지느러미		19	8	10	1
날개미	지느러미		71	35	31	5
칠쌍이	칠성장어		47	18	26	3
중사리	피라미		21	10	9	2
눈옹고찌	피라미		35	14	19	2
썩	홍합		149	73	68	8
섭	홍합		232	109	108	15

어구 등의 명칭 (농 · 어촌)

<표2-14>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낙수	낙시		132	58	67	7
낙씨	낙시		276	110	148	18
경심	낙싯줄		134	56	70	8
우끼	낙시찌, 찌		74	38	31	5
때	낙시찌, 찌		86	36	44	6
찌	낙시찌, 찌		215	100	98	17
미깻	미끼		157	73	71	13
사들	반두		32	14	15	3
뚝박	부표		32	14	16	2
뚝박	부표		37	14	21	2
삼마이그물	삼중자망		115	49	59	7
깍짓대	삿대		39	20	15	4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놀	노(櫓)		72	29	34	9
따리	방향키		56	18	32	6
풍	돛		81	35	42	4

길짐승 등의 명칭 (농·어촌)

<표2-15>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고냉이	고양이		215	105	102	8
고앵이	고양이		182	78	91	13
괴	고양이		131	43	78	10
노름	노루		66	31	32	3
놀기	노루		89	35	47	7
산쥐	다람쥐		109	45	56	8
당나구	당나귀		245	111	123	11
돼지	돼지		140	60	70	10
꿀돼지	돼지		190	81	97	12
도야지	돼지		269	123	130	16
두더쥐	두더지		257	112	130	15
뫼이	모이		103	56	38	9
머기	모이		70	32	33	5
사슴	사슴		94	37	50	7
살기	삼, 살랭이		71	39	26	6
살키	삼, 살랭이		108	40	57	11
꿀방쥐	생쥐		131	64	54	13
쇠	소		194	84	101	9
천생이	여우		39	16	20	3
영우	여우		54	29	21	4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백여우	여우		165	75	78	12
불여우	여우		224	105	102	17
용우	여우		100	41	53	6
염쇠	염소		154	63	82	9
퇴끼	토끼		223	106	108	9
호랭이	호랑이		363	174	171	18
호래이	호랑이		189	73	110	6
황소	황소, 수소		111	64	37	10
숫소	황소, 수소		161	80	69	12

날짐승 등의 명칭 (농·어촌)

<표2-16>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갈매기	갈매기		160	61	89	10
거시	거위		92	39	48	5
기레기	기러기		101	54	41	6
지러기	기러기		106	44	55	7
까마구	까마귀		333	156	157	20
꿩	꿩		130	60	58	12
까투리	꿩(암꿩)		244	117	113	14
쟁끼	꿩(수꿩)		165	83	73	9
닭	닭		186	72	98	16
둥지리	닭어리		35	20	14	1
닭집	닭어리		123	52	60	11
닭터래기	닭털		145	72	61	12
빻지	박쥐		120	39	74	7
병아리	병아리		133	66	59	8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닥새끼	병아리		162	82	69	11
뺨아리	병아리		232	89	132	11
장닭	수탉, 장닭		228	107	104	17

시후(날씨와 계절) 등의 명칭 (농·어촌)

<표2-17>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갈강비	가랑비		94	48	39	7
가을기	가을		89	38	33	18
갈	가을		128	55	65	8
겨울	겨울		82	44	33	5
동삼	겨울		151	64	74	13
께	경, 쯤		88	49	33	6
글패	글피		176	91	72	13
그글패	그글피		151	81	59	11
오늘	오늘		157	76	72	9
아침	아침		123	61	55	7
식전	이른아침		214	118	83	13
아침	아침		102	47	50	5
저녁	저녁		89	51	29	9
저녁	저녁		159	89	59	11
올저녁	오늘저녁		166	76	78	12
올저녁	오늘저녁		162	82	69	11
내일저녁	내일저녁		156	89	59	8
내일저녁	내일저녁		217	93	114	10
접때	그때		200	103	81	16
노리	놀(霞彩)		47	24	19	4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능개	능개		29	13	13	3
우내비	능개		20	7	11	2
안개비	능개		123	57	55	11
벼락	벼락		163	88	64	11
별	별		68	32	31	5
뺨	별		96	43	45	8
새백	새벽		103	48	51	4
새박	새벽		69	29	36	4
새복	새벽		81	36	39	6
새벽	새벽		128	46	75	7
숫딸	설딸		151	75	63	13
소내기	소나기		162	77	76	9
소낙비	소나기		220	112	94	14
아지랭이	아지랑이		303	147	139	17
요새	요즈음		295	147	131	17
요즘	요즈음, 요즘		305	128	159	18
반공일	토요일		162	83	66	13
방공일	토요일		92	46	40	6
온공일	일요일		132	67	54	11
해저름	해저름		52	30	20	2
해질물	해저름		79	43	29	7
시방	지금		240	131	92	17
막	지금		169	82	80	7
계따가	조금 지난 후에		216	109	89	18
이따가	조금 지난 후에		317	147	150	20
느리	우박		32	16	14	2
우박비	우박		131	56	61	14
부슬비	이슬비		150	68	68	14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개력	홍수		27	10	16	1
포락	홍수		40	20	17	3
개락	홍수		101	44	47	10
돌깐바람	회오리바람		41	20	20	1
회리바람	회오리바람		80	43	34	3
돌개바람	회오리바람		228	116	95	17

지리(地理) 등의 명칭 (농·어촌)

<표2-18>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건느말	건너마을		128	63	52	13
거른말	건너마을		85	33	47	5
지숙	기슭		45	22	21	2
지실	기슭		33	14	16	3
질	길(道路)		74	40	31	3
질깡	길(道路)		124	74	42	8
길깡	길(道路)		117	65	42	10
길깡여카리	갓길, 길옆		101	59	29	13
질깡ㄴ으가리	갓길, 길옆		59	34	21	4
말기뚝	논둑, 높은 둑		78	46	24	8
말기	마루		56	34	18	4
돌맹이	돌		333	161	156	16
돌빼이	돌		139	62	69	8
짱돌	돌		348	159	169	20
드루	들		34	17	16	1
버덩	들		139	80	48	11
뜰	들		183	79	91	13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말	마을	151	77	62	12
맹산	명산	48	27	17	4
물개	모래	80	40	37	3
물기	모래	68	30	33	5
바웃돌	바위	157	84	66	7
바우	바위	182	85	87	10
된바우	바위	62	25	36	1
돌빠우	바위	189	91	87	11
벼랑	벼랑	77	43	27	7
산태깨비	벼랑	55	28	22	5
산봉오리·산뽕우리	산봉우리	265	132	118	15
소롯길	소로(小路)	48	25	20	3
개	시내, 개울	100	44	51	5
개울	시내, 개울	266	125	126	15
갯가	시내, 개울	207	92	103	12
신장노	신작로	202	95	91	16
언데기	언덕바지	65	33	29	3
언드박	언덕바지	88	43	38	7
언덕빠기	언덕바지	192	93	82	17
영말기	영마루	74	36	29	9
덤병	웅덩이	84	36	42	6
웃말	윗마을	220	111	94	15

방위(方位) 등의 명칭 (농·어촌)

<표2-19>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ㄴ으가리	가장자리		30	14	14	2
가생이	가장자리		137	74	51	12
여캥사리	가장자리		62	35	23	4
ㄴ으캥사리	가장자리		51	18	30	3
귀테기	구석, 모퉁이		179	96	69	14
구석배기	구석, 모퉁이		170	88	70	12
귀재비	구석, 모퉁이		60	26	32	2
꼭때기	꼭대기		336	147	172	17
꽁지머리	뒤		272	136	123	13
미테	밑		272	128	131	13
알	아래		96	46	39	11
위칸	윗방		158	80	69	9
웃빵	윗방		227	106	104	17
아래칸	아랫방		239	115	112	12
아랫칸	아랫방		239	111	115	13
어디루	어디로		266	135	117	14
어데	어디에		261	117	129	15
우	위		90	40	43	7
우에	위에		188	86	90	12

수치 관련 명칭 (농·어촌)

<표2-20>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하내	하나		184	73	99	12
둘히	둘		239	99	130	10
서이	셋		373	175	177	21
서히	셋		290	115	158	17
너이	넷		452	206	223	23
다서	다섯		318	150	154	14
댓	다섯		258	103	137	18
여서	여섯		316	140	161	15
일굽	일곱		258	117	126	15
여들비	여덟		139	62	67	10
여덜	여덟		360	164	178	18
엘일굽	열일곱		228	108	102	18
엘아홉	열아홉		208	101	91	16
시물다섯	스물다섯		162	80	71	11
수물다섯	스물다섯		300	138	149	13
설흔	서른		303	133	151	19
설흔여들비	서른여덟		162	78	70	14
이른너이	일흔넷		258	124	121	13
이른여들비	일흔여덟		171	78	80	13
사날	사나흘		197	96	83	18
아레	아흐레		146	77	58	11
베미	마지기		93	51	33	9
커리	컬레		103	58	35	10
뽕(뽕)	뽕		64	30	27	7
마카	모두		134	64	58	12
마강	모두		106	46	54	6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무꾸미	뭍음, 단, 못	71	41	26	4
무데기	뭍음, 단, 못	184	89	80	15
한바리	100두름	147	67	69	11
매칠	며칠	186	87	89	10
시다	헤아리다	107	57	44	6
세다	헤아리다	189	83	97	9
췌다	많다, 흔하다	168	82	74	12

용언과 관용어 등 (농·어촌)

<표2-21>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자꾸	계속	315	151	142	22
대구	계속	155	59	85	11
제우	겨우, 가깝스로	66	32	29	5
계우	겨우, 가깝스로	93	48	39	6
제와	겨우, 가깝스로	114	55	48	11
가차이	가까이	134	73	53	8
썩	가까이	132	70	50	12
개롭다	가럽다	161	84	65	12
가롭다	가럽다	176	77	88	11
갈치다	가르치다	153	77	66	10
갈채준다	가르쳐준다	176	84	78	14
갈키다	가르키다	207	98	97	12
갈켜준다	가르켜준다	190	92	87	11
개벼우니까	가벼우니까	83	7	67	9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개뽀하다	가뽀하다	227	103	109	15
각고	가지고	82	37	38	7
객고	가지고	61	27	27	7
벨안간	갑자기, 별안간	171	96	63	12
급짜기	갑자기, 별안간	146	62	75	9
강파르다	강파르다	91	44	38	9
꺼꿀루	거꾸로	149	79	60	10
까꾸루	거꾸로	196	100	87	9
거시르다	거스르다	137	72	55	10
거실러	거슬러	180	86	83	11
거진	거의	198	99	84	15
근내가다	건너가다	128	62	56	10
근들지마	건들지마	233	102	118	13
건지다	건지다	218	94	110	14
얼찐하문	겉핥하면	83	40	37	6
정황	경황	132	67	53	12
견디다	견디다	73	39	28	6
전디다	견디다	85	39	38	8
막빠루	곧장	140	71	60	9
고빨리	곧장	45	19	22	4
고빠루	곧장	180	88	81	11
부러	팬시리	133	70	51	12
게아나	팬찮아	196	84	96	16
개이다	괴다	59	27	28	4
개우다	괴다	81	42	32	7
학상들이 구먹다	구워먹다	246	113	118	15
꼬먹다	구워먹다	224	99	113	12
강아지 끈다	굴뚝 쭈시다	46	19	24	3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기래서	그래서	249	113	123	13
글거 모:다	글어모오다	90	47	38	5
그러모다	글어모오다	75	38	32	5
꼰도	그만 뒤	112	60	45	7
노아서 지르다	기르다	77	38	33	6
지울다	기울다	154	75	69	10
기다라케	기다랄게	198	93	94	11
길쭉한 거	길쪽한 거	137	67	61	9
짚다	깊다	109	55	43	11
깨까타다	깨끗하다	92	53	36	3
깨까시	깨끗이	171	78	82	11
끼안타	껴안다	160	67	81	12
깨지버서	꼬집어서	48	17	27	4
꾸물뻗꾸나	꿈을 뻗구나	54	25	24	5
뽀스다	뽀다	38	8	27	3
나물쿤다	꾸짚다	55	32	19	4
야단치다	꾸짚다	189	80	98	11
끓이다	끓이다	133	63	62	8
농가 먹었지요	나눠 ...	171	81	79	11
가치 농구구	같이 나누고	179	84	85	10
농구다	나누다	142	56	73	13
내중에	나중에	172	75	87	10
냉중에	나중에	242	115	109	18
혈었다	날았다	247	111	121	15
남새스럽다	남부끄럽다	194	101	79	14
냄새시럽다	남부끄럽다	182	86	83	13
얇추다	낮추다	108	56	48	4
넙죽하구	넙적하고	158	69	80	9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노꾸다	높다		122	54	59	9
늘쌍	늘, 항상		214	93	106	15
늑시그레한	늑수그레한		79	33	39	7
틀리다	다르다		199	90	96	13
달라	다르다		146	58	79	9
잡도리하다	단속하다		40	19	17	4
단도리하다	단속(채비)하다		179	95	68	16
데워야겠다	덥혀야겠다		179	90	78	11
뜨세야겠다	덥혀야겠다		124	60	53	11
도맹쳐서 왓썬	도망쳐 왔어		148	67	71	10
동글라하게	동그랑게		169	79	76	14
뎃거렁	뎃거든		191	81	93	17
우라지게	대단히, 되게		139	68	58	13
되야지게	대단히, 되게		94	44	42	8
되지게	대단히, 되게		157	83	64	10
썰게	대단히, 되게		166	74	79	13
되잘라빠진거	되잖다		63	30	28	5
되잔나빠진거	되잖다		79	36	37	6
뚜꿍다	두꿍다		173	77	82	14
쫄다	두려워하다		134	68	60	6
얼다	겁내다		139	63	67	9
조히두 떨구	떨다		54	21	27	6
나-안자	떨어져 앉아		124	65	46	13
똥른다	똥는다		79	39	35	5
똥분다	똥는다		107	49	50	8
디레다 본다	들여다 본다		160	77	71	12
매냥	마냥		119	56	55	8
말도리 간다	마을 간다		70	40	21	9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마실 간다	마을 간다		154	71	73	10
맹근다	만들다		153	75	63	15
맹글다	만들다		154	85	57	12
망글다	만들다		64	29	27	8
맹길다	만들다		90	39	43	8
걸구 들렀다	많이 먹는다		85	43	37	5
계걸이 들렀다	많이 먹는다		151	85	54	12
마이 메긴다	많이 먹인다		121	54	56	11
미식거리다	메식거리다		249	126	108	15
메꾸다	메우다		259	125	119	15
에으를 몰르문	… 모르면		71	35	30	6
메들게	모여들다		23	10	11	2
메들다	모여들다		70	26	34	10
뭇할라구	무엇 하려고		142	64	69	9
메타라	무엇 하려고		143	69	62	12
바로 무꺼서	바로 묶어서		118	52	58	8
발쿤다	바루다, 펴다		65	30	31	4
편다	편다		114	56	51	7
내꼐지다	버리다		223	113	92	18
비뻘라구	베어버리다		43	15	25	3
베리는데	버리다		54	26	26	2
베림질하다	버림질 하다		39	17	19	3
뽀본다	본 받는다		64	33	28	3
나른한 풀	보드라운 풀		50	15	28	7
풀미풀미	부라부라		25	7	16	2
부신다	부순다		148	64	74	10
뽀신다	부순다		191	90	92	9
부지랭이	부지런히		147	61	75	11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문디다	비비다		232	110	106	16
비젓하다	비슷하다		87	36	44	7
불래	비켜		24	15	8	1
물래	비켜		64	34	23	7
난자	물러 앉아		114	60	45	9
지르고 쌀마서	… 삶다		75	37	36	2
쌀마노쿠	삶아 놓고		95	46	44	5
새켜서 업서지고	삭혀서		52	23	26	3
곰치다	숨기다		158	78	72	8
숨키다	숨기다		235	92	128	15
시구럽다	시다		182	90	80	12
씨연하다	시원하다		163	75	77	11
숨다	심다		95	48	42	5
숨그는	심는		80	41	35	4
혈하다	값이 싸다		139	63	66	10
쓰겁다	쓰다		122	56	59	7
씨굽다	쓰다		182	97	73	12
씨구와서	쓰다		175	85	76	14
씨러지다	쓰러지다		133	55	70	8
애끼다	아끼다		217	109	96	12
말도 양이 해	말도 안 해		26	9	14	3
양야	아니야		18	7	10	1
나젠 양해도	낫엔 안 해도		38	14	20	4
상가두	아직도		126	67	52	7
양이 베키지	안 보이다		46	15	24	7
안기래	안 그래		222	107	101	14
알기지 안쿠	알리지 않고		61	33	23	5
알구다	알리다		91	53	30	8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패랏다	야위다	91	49	34	8
예뻤다	야위다	61	23	33	5
언가니	어지간히	78	37	34	7
앵가이	어지간히	147	63	76	8
얼거서 잇는다	엮다	41	17	19	5
영글믄	영글면	78	38	35	5
오믄	오면	193	87	93	13
오거덩	오거든	156	69	75	12
오골차다	오지다	63	25	34	4
되레	오히려	192	99	81	12
올라갈라지문	올라가다	64	25	36	3
치다 봐	쳐다 보다	72	32	37	3
올래다 보다	올려다 보다	133	66	59	8
윙기진 안터라구	윙기다	46	18	24	4
외서	왜	70	35	31	4
원금으로	외워서	31	12	17	2
앵그므로	외워서	43	15	23	5
하마	이미	133	65	60	8
하마트면	하마터면	194	97	91	6
하마트믄	하마터면	154	74	70	10
우정	일부러	77	44	27	6
역부러	일부러	71	33	34	4
부러	일부러	156	74	69	13
일나	일어나	172	84	79	9
인나	일어나	264	118	133	13
일커 세워	일으켜 세워	182	95	74	13
일찌간치 지상	일찌감치	113	47	61	5
이러 머것다	잃어버렸다	116	54	55	7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잇짜나	있잖아		111	55	49	7
이짤니	있잖니		216	95	105	16
생깁이 안나	생각이 앓나		31	13	16	2
이저 빼렷썬요	잊어버렸다		107	54	46	7
째단하게 달린다	자잘하게		71	31	35	5
잘게	작게		254	122	114	18
재롬하다	작다		92	51	33	8
어래이 아라서	어련히 알아서		86	43	38	5
재와서	재우다		126	54	61	11
재간치다	저지레하다		110	65	35	10
재간하다	저지레하다		55	31	21	3
우명하게 해	정갈하다		30	7	18	5
정내미 떨어졌다	정나미 없다		217	115	86	16
똑소리나다	정확하다		201	97	91	13
질 시러한대	제일 싫어		144	62	73	9
찌끄만 것	조그맣다		248	118	115	15
찌끔씩	조금씩		202	92	99	11
아까	조금 전에		255	126	114	15
아께	조금 전에		217	101	105	11
사작사작	천천히		117	60	46	11
히딱까무러치다	졸도하다		123	70	48	5
종이째비	종이조각		95	47	41	7
종우째기	종이조각		105	53	46	6
제품도 말에 와	지금도...		48	18	27	3
진때이	진짜		146	69	65	12
매두 지찌	...짓다		31	14	15	2
짜쟁이	짜짜공이		88	41	42	5
차구어	차가워		84	37	41	6

방언 \ 표준어		지역별	계	농촌	어촌	기타
차구와	차가워		170	83	77	10
쫄뿔해 노쿠	쫄뿔 해 놓고		76	33	41	2
치질하다	키질하다		63	29	29	5
빠지다	토라지다		268	131	119	18
트리지다	토라지다		159	68	79	12
씨그러거리문	투정부리다		46	14	29	3
트리노래	틀어놓을까		73	29	38	6
편히 주무셨습니	편히...		168	72	82	14
부애가 나서	화가 나서		218	114	84	20
부애나게	화나게		117	54	55	8
깜이 생겨썬요	화나다		41	16	24	1
화딱지	화나다		302	148	133	21
부애를 독아서	화를 돋우다		125	66	50	9
화를 도까서	화를 돋우다		105	51	48	6
헤트리다	흐트리다		123	52	61	10
...하믄	...하면		188	90	84	14
옥쌌기 송겨농거	...심어놓은 것		163	78	67	18
지시랑물	낙숫물		99	51	37	11
쌀잘기 널커나	쌀자루 내려놔		107	53	43	11
아치게 했다	아침에 했다		117	60	48	9
낭그떼기 앵겨	... 옮겨		136	69	54	13
보강지에 앵구리	아궁이 연기		158	89	54	15
냉가다 보며는	넘겨다 보면		118	59	50	9
질깁여카리낭구	갓길 나무		137	70	56	11
벧잘구 동가매	벧자루 묶어		102	54	38	10
쿤내난다	냄새난다		189	99	78	12
똥쿨래난다	똥냄새난다		191	88	90	13

거주 지역(기본 문항)

<표3-1>

구분	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무응답
인원(명)	855	388	170	87	83	127	-
%	100%	45.4	19.9	10.2	9.7	14.8	-

산업별 분포(기본 문항)

<표3-2>

구분	계	농촌	어촌	기타	무응답
계	855	481	298	76	0
간성읍	388	310	14	64	-
거진읍	170	28	142	-	-
현내면	87	37	44	6	-
죽왕면	83	43	40	-	-
토성면	127	63	58	6	-

출신 지역(기본 문항)

<표3-3>

구분	계	고성군	영동	영서	서울·경기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북한	무응답
계	855	455	67	24	77	5	15	6	1	0	205
간성읍	388	132	17	8	27	-	3	2	-	-	199
거진읍	170	130	9	5	18	2	2	3	-	-	1
현내면	87	65	9	-	8	-	4	-	-	-	1
죽왕면	83	55	11	5	11	1	-	-	-	-	-
토성면	127	73	21	6	13	2	6	1	1	-	4

거주 기간별 분포(기본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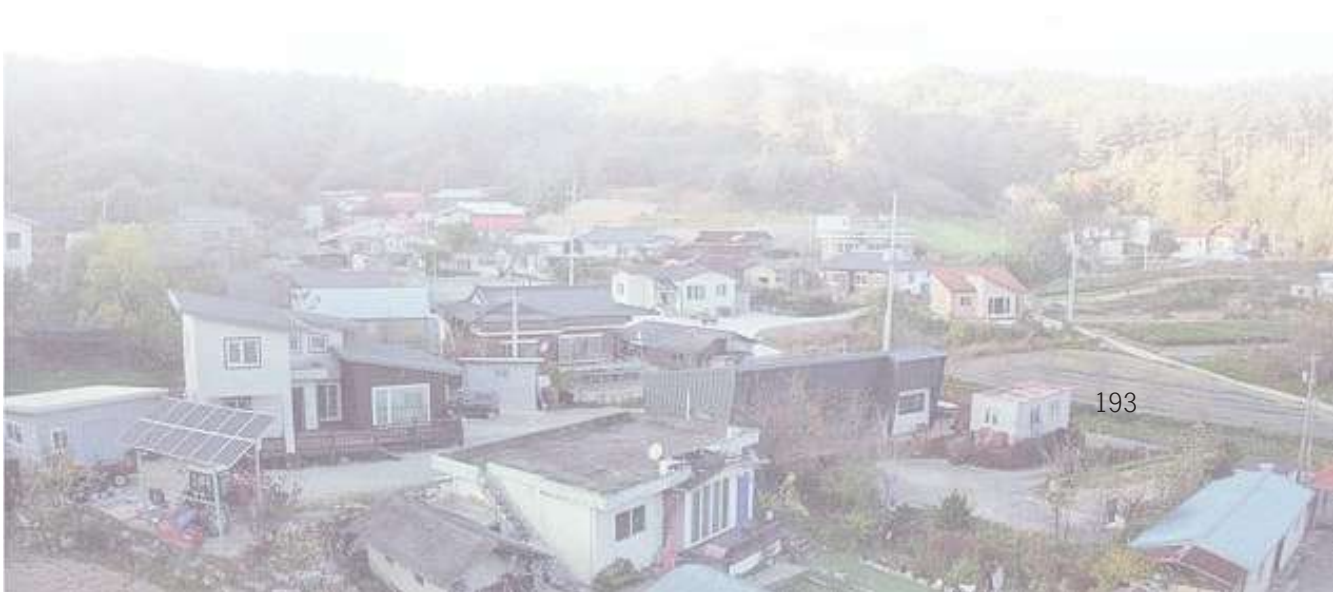
<표3-4>

구분	계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무응답
계	855	100	154	379	215	7
간성읍	388	42	70	184	92	-
거진읍	170	15	32	85	32	6
현내면	87	10	9	44	23	1
죽왕면	83	11	26	29	17	-
토성면	127	22	17	37	51	-

응답자 연령(기본 문항)

<표3-5>

구분	계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무응답
계	855	50	62	130	106	29	466	12
간성읍	388	24	28	62	48	8	218	-
거진읍	170	4	9	23	12	6	108	8
현내면	87	9	3	4	6	3	58	4
죽왕면	83	2	7	11	14	2	47	-
토성면	127	11	15	30	26	10	35	-



방 언 설문 문항





토속적인 우리 말(사투리) 조사서

방언(사투리)은 그 지역 문화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그 지방의 생활과 가꾸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그 언어의 질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사서의 사례는 1980년 한국방언집문지 등을 통해 조사 정리한 송설대 박종철 명예교수의 자료와 1990년 고성군지(高城郡誌)증보편을 편찬하면서 현장 녹취를 통해 추가적으로 수록한 방언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분의 집중과 보정을 통해 사라져 가는 우리들의 언어를 찾아보고자 우리 말(사투리)을 추가 조사하오니 항목별로 좀 더 많은 우리말이 수록되도록 점성껏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문화포럼

□ 기본문항

② 다음 문항에 해당하는 ()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살고 있는 곳은 어느 읍면에 속해 있습니까?

①간성읍() ②지진읍() ③현내면() ④죽왕면() ⑤도성면() ⑥기타()

2. 귀하께서 살고 있는 곳은 농촌과 어촌지역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농촌() ②어촌() ③기타()

3. 귀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①고성군() ②영동지방() ③ 강원 영서지방() ④서울경기도() ⑤충청도()
⑥경상도() ⑦전라도() ⑧제주도() ⑨북한지방() ⑩기타()

4. 귀하께서는 이곳에 몇 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5년 미만() ②10년 미만() ③20년 미만() ④20년 이상()

5. 귀하의 연령은

①60대 이상() ②50대() ③40대() ④30대() ⑤20대() ⑥10대()

□ 우리말 찾기

1. 가족관계 호칭

1-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아버지(할아버지), 할머니(할머니), 시어머니(시아머니), 친정아부지
(친정아버지), 아재(숙부 등), 큰 아부지(큰 아버지), 작은 아낸님(중부), 시누 - 애기씨(시누이), 제수(제수), 성(형), 동상(동생) ... 등

1-2. 가족관계 호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란이 부족할 경우 여백을 활용해 주세요. ^^

- 1 -

2. 일상생활 용어

2-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카름땡이 · 카름마(가리마), 툇방개(가부파), 저드랑이(거드랑이), 지
지바 · 간나 · 인니비(제집아이), 일금땡이(곰보), 쫄새(곰사), 굴땡이 ·
노랭이(구구치), 귀루랄 · 쫄물(쫄물), 지저개(기저개), 낱살(나아), 니
(너), 신다리(넙적다리, 허벅지), 찰매기(찰떡질), 미시리(마보), 배땡
기(복부), 위꾸배(발뒤축), 뽕따구(뽕따귀), 레비(수염), 처칼 · 처곳 ·
처꼬치(쇠), 얼타(아기), 냉구리 · 영구리 · 내구리 · 내구레가(전기), 풍
구(풍무), 책교(학교), 허깨미(허수아미), 장지뽕 · 장개이보(가위와워
보), 거대이 · 동고라거름땡이(거지), 거깃뿌리 · 거깃뿌림 · 공갈 · 뽕
(거깃질), 기럭지(길이), 거두리 · 찰떡기(찰떡), 곤두래미 · 고드래미
(고드름), 길쌈(길쌈), 뽕새 · 뽕가리 · 뽕쇠(뽕파리), 뽕쇠(뽕소), 농작
대(농악대), 농예(누예), 송냥간 · 뽕뽕질간 · 대장간(대장간), 도깨비
(도깨비), 꿀(두레), 두벌길(두벌 길매기), 권금 · 거름(두엄), 분지 ·
분지(민지), 마땡이(마당질), 산자리 · 뽕구땡이(보자라·산소), 켄노리
(새참), 세넨 · 장구(복), 서황당(서낭당), 예기침(예발 김매기), 웅노
(을가미), 갈기(자두), 장작깨비 · 장작기(장작깨기), 장개(장구), 주레
· 줄레(호드기), 철엽(천렵), 꼬니 · 끈지니 · 움돌고누(고누), 뽕개 · 뽕
마 · 뽕말(뽕고리), 구녕 · 구영 · 구웅(구멍) ...등

2-2. 일상생활 용어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용종과 명칭

3-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가마 · 가마진 · 가매술(가마술), 골비 · 불딱대기(고무레), 골미(골무),
작기장 · 책기장(공책), 동태바꾸 · 굴레바꾸(굴렁쇠), 풀비 · 풀술(귀
알), 근네(그네), 넉동바리(넉동무늬), 뽕렛틀 · 다드미틀(다듬잇틀),
파향 · 파파리 · 푸쟁(푸쟁), 대리미(다리미), 척새 · 삼바리(다리쇠), 갈
보단지 · 오갈단지(단지), 대터미 · 제벌이(재벌이), 장죽 · 담뽕대 · 곰
뽕대(곰뽕대·담뽕대), 사뽕(대검), 장단지(죽·항아리), 도짜리 · 뽕짜리

* 공란이 부족할 경우 이백을 활용해 주셔요. ^^

- 2 -

(뚫자리), 뒤지(뒤주), 또아리·따바리(따리), 통거리(통배기), 외침·
 봉치대기·봉치미(복집), 고바리·물뿌리·물조리(물뿌리개), 찍개·
 벌찍개·근네(밀싹개), 바가지(바가지), 바늘(바늘), 바구·바구(바
 귀), 간고죽(반찬그릇), 솥판(달판), 팔래방치·다듬방치·방추(방당
 이), 비개·벼개(벼개), 병(병), 병풍·쟁풍·경풍(병풍), 불카래·불
 비달이(부살), 불자리·부질까지·부질한(부것가락), 부지깥이·비지깥
 이·부지개(부지깥이), 띠대(띠너), 풀중추(띠널), 얼개·어뜨개(얼개-
 빗), 빗질기(빗자루), 사닥다리(사다리), 모태(석쇠), 성냥판·성냥통·
 다향(성냥갑), 시숫대야(새숫대야), 소취·석품술·술단지(술), 소두명
 이(술뚜껑), 솥알·수까락(술가락), 절·절까락·적알·저까지(젓가
 락), 술병(술병), 술종지·종지·종반(술잔), 실기(서루), 쌀갈기(쌀자
 루), 연경·영경(안경), 빙고·빙구(얼음얼대), 연자새·연짚개·연짜
 개·연자새(얼대), 장군·오줌장군(오줌할아리), 용구·질그릇(용기),
 읍(읍), 남박·쌀남박(이남박), 싯때·자물통·쇠통(자물쇠), 자물통·
 자방침(자물쇠), 데피기·팡치기·팡치논거(자치기), 짬전·전돈·날
 전(잡돈), 조루·죄리(조리), 종루(종이), 밥주려(주려), 밥주말(주
 말), 복짓재(주발뚜껑), 뽕빚·쏘개울치(뽕빚), 구르무(크림), 뽕이(뽕
 이), 꿩떡(꿩이재), 단지·독(할아리·단지), 흘길·흔집·헛집(헛길),
 화루·화리(화로), 흙갈(흙손)··· 등

3-2. 일상 생활용품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거와 관련된 명칭

4-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방(꽃간방), 구수·비구송·구송·여물통(구유), 끄스레미·끄으름
 ·끄스름(끄으름), 지둥(기둥), 기아집·한아기와집(기와집), 지시랑을
 (낙숫물), 달기둥지(닭장), 도랑·도랑창·용그르비리개(도랑), 대지울
 칸(대지우리), 뒤란·두란·울안(뒤걸), 들장물(들장), 할바문·마문
 (마루), 불저구(불저귀), 문물기(문고리), 구들·구들랑(방바닥온들),

벼랑박·배랑박(백), 뒤편·정낭·뽕소(빈소), 박·보케·정지(부엌),
 찰리문(사립문), 소랭이·장술(판술), 서까래·연록(서까래), 서포살이
 (셋방), 보강지·비양지(아궁이), 굵새·영마름(용마름), 마굿간·마구
 ·마구간(외양간), 웅굴·웅굴·웅물(우물), 율작다리·우작다리(율타
 리), 이영·영(이영), 장독·뽕주거리·장독·장만지(장독), 지풀집(초
 가집), 구창(토방)··· 등

4-2. 일상생활 주거와 관련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음식 등의 명칭

5-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밀기(가루), 국시(국수), 적경(간장), 꼬쟁이(꼬쟁이), 꼬루밥·꼬두
 밥·꼬물밥(된밥), 고치가루·고치가루·고치갈기(고춧가루), 꼬추장
 (고추장), 지름(기름), 짬장(김장), 한지·집치(김치), 소랭이·소디끼
 (누룽지), 달갈·달쟁이·달쟁이·재관(달걀계란), 소적(묵), 밀갈기
 (밀가루), 지지매·지지미·무전개·무치미·무칠기(적선대떡), 위위
 떡(수수떡), 누더기국·누덕국(수제비국), 전추·씨래기(시래기), 실기
 떡(시루떡), 감주(식혜), 함박·장밥·장밥(옥수수튀밥)··· 등

5-2. 음식과 관련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옷(의복)의 명칭

6-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옷), 고쟁이(속옷), 누더기(헤진 옷), 두루막(두루마기), 보선(버
 선), 척매(척마), 조고리(척고리), 땃조고리(조끼), 대임(대님), 감병이
 (감방이·좁은 흙바지), 업차기(호주머니)··· 등

※ 공란이 부족한 경우 여백을 활용해 주세요. < >

- 4 -

6-2. 옷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구의 명칭

7-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 · 고리락(귀), 옷시리(백장), 배다지 · 배밥(설합), 실경(선반시병),
오계 · 단쓰 · 농 · 자단쓰(장롱) ... 등

7-2. 가구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농기구 등의 명칭

8-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띠지 · 띠쟁이(갈퀴), 괴떡 · 꼬뚜레(고삐), 장우리 · 장지리(장주리),
꼭쟁이(꼭쟁이), 후지 · 가대기 · 가대이(극쟁이), 지구(까뒤·자귀), 나무
채(빗줄), 도꾸 · 도귀(도끼), 들개 · 도루개(도리개), 들방애(들방아),
디딜방아 · 발방아 · 발방애(디딜방아), 망 · 불망(멧줄), 명지(명예), 들
구미(떡장구미), 살(콩두발), 삼비방아 · 불방간 · 불방아(불레방아), 말
방터 · 디딜방아간 · 디딜방애간(디딜방앗간), 어탱이(말채), 방판(방앗
간), 보괘(벼·출이), 질가리 · 뱃가리 · 질가래 · 집갈기(멧가리), 벼습 ·
벼섯(보습), 보괘기 · 벼습 · 연강 · 연강(쟁기), 들쟁이(살대기), 삼가래
· 삼가래(삼), 새꾸락지 · 새끼줄 · 새꼬래기(새끼), 명지 · 말겨래기(소
입타이), 서스랑(쇠스랑), 고질(여물), 구박 · 여물구박(쇠죽바가지),
쇠꽃방아 · 쇠꽃방애(쇠질구), 서래(서래), 해물(씨아), 열개미 · 열끼미
· 바래기(길바탕), 뱃바루(잔짓)·열개(어태미), 고질까지 · 여물까지(여물
장), 연재방아 · 연자방애(연자방아), 작숙이 · 작세미(작대기), 질구활 ·
질구통(질구), 방애공이(질구공이), 지계라대기 · 작세미(지계받침대),
짐줄 · 지푸라지(짚), 재 · 치 · 덜떡(키), 풍구 · 물미 · 물미목(물무),
호무(호미), 호무줄구(호미자루), 방아활(활) ... 등

※ 공간이 부족한 경우 여백을 활용해 주세요. ^^

- 5 -

8-2. 농기구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곡식의 명칭

9-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곡식(곡식), 끼끄래기(까끄라기), 논곡(논-곡식), 메조히(메조), 박고지·바꼬지(박), 팔곡(팔-곡식), 벼(벼), 벼알(낱알), 쌀알(쌀, 낱알), 쉬시(수수), 옥시기·옥새기·강냉이(옥수수), 이스래기·이시락(이삭), 찰조히·찰조·찰같이(찰조), 따뎡이(타작), 왜귀리(호밀), 섶새(참기) 등

9-2. 곡식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소재류, 과일과 식물 등의 명칭

10-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치·꼬치(고추), 깨입사구(깨잎), 깨보쟁이(깨가루), 간무(당근), 마늘(마늘), 무·무구(무), 무순·무잎새구(무-잎), 배차(배추), 분추(부추), 쟁추·불기·상치(상추), 외·물외(오이), 호태기·인준호박·외호박(호박), 개금·해금(개암), 고들빼기(고들빼기), 피비(고미), 뽕·개암(고욤), 고잡(꽃감), 껌디(부디), 들겨지·밤댕이(그루터기), 아치(가지), 남구·남구매기·남그·남그매기(나무·나뭇등걸), 대까지·대까지(대 竹), 나쟁이(냉이), 달루(달래), 더대기·더더지(더덕), 덩구리(덩굴), 개바늘·개바늘·도깨비바늘(도깨비바늘), 꿀밭·꿀밭(도토리), 뽕구(뽕기), 찰낭구(떡갈나무·참나무), 뽕구(뽕), 논쟁이(명아주), 매내·모께(목화), 버트리·버드낭구·버들가지(버드나무), 복상(복숭아), 봉숭아(복숭아), 봉나무·봉낭기·봉나무(봉-나무), 뽕·뽕(뽕기), 뿌리기·뿌리씨(뿌리), 사피(사과), 삭다리·썩다리(삭정미),

※ 공란이 부족한 경우 여백을 활용해 주세요. ^^

- 8 -

삽초박·사초박(삽주), 참글밥(상수리), 술걸불·술까비·술깨비(술가
지·술가리), 술방리(술방울), 씀바귀·뽕바귀(씀바귀), 폐·피·피파리
·오얏(야생자두), 뽕오두·오두(오디), 왕대까치·왕대까지(왕대), 배
향구·배향구·배향우(필경이), 함박꽃·함박꽃(원목꽃), 통길냥구·
통가리나무(청미래덩굴), 포부(포도), 해장우리·해자우리·해꽃(해바
라기), 읍구꽃·읍구꽃(해당화), 읍구·읍구(해당화열매), 쉼나무(참나
무), 당추새·당루새·호도(호두) ... 등

10-2. 소재류, 과일과 식물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곤충의 명칭

11-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팔파구(각다귀), 거마리·그마리·끄마리(거머리), 거무(거미), 구데
기·통구데기(구더기), 둔벌저지·물벌짜지·어르맹이(그리마), 나뽀
(나비), 날파리(날벌레), 노대기(노대기), 능에·능어·능어꼬치·능에
꼬치(누에), 땡피·땡뽀(땡벌), 땡·땡음(땡미), 매띠기·제띠기(매뚜
기), 모구(모기), 포구미·바기미(바구미), 개똥벌저지·개똥벌레(만딧
불), 물강아지(방개), 밤아다리·밤애다리(밤아래비), 사마구(벼아래비·
사마귀), 두두래기(두두러기), 버리(벌), 벌기·벌거지·벌각지(벌레),
췌개(서개), 옛장수·옛장사(소금쟁이), 배짱이(여치), 소금쟁이(잠자
리), 지렁이·저렁이(지렁이), 퐁대미·피미, 퐁드기·오냉이(전딧
물), 쉬과리(파리), 커시(희충) ... 등

11-2. 곤충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파충류의 명칭

12-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꾀구리 · 개구락지 · 꾀고락지(개구리), 구렁이 · 구렁이 · 개렁이(구렁이), 두꺼비 · 두꺼비(두꺼비), 올챙이새끼(올챙이), 으렁이(이무기), 살무사(살모사)··· 등

12-2. 파충류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물고기 등의 명칭

13-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꾀기 · 꼬지(고기), 카우리(가오리), 가재미 · 참가재미 · 물가재미 · 물가재미(가자미), 갈치(갈치), 기(게), 고망어(고등어), 쪽지구 · 쪽지기 · 두꺼비 · 쪽지구(쪽지), 쫄지(쫄지), 우재기(우재), 놀래미(놀래기), 골뱅이 · 골뱅이 · 골배(고등다슬기), 뽕지 · 뽕통이 · 뽕뚱(도치), 뽕배(망둥어), 머치 · 뽕치(뽕치), 뽕배 · 뽕배 · 뽕배(뽕배), 문에(문어), 뽕배(뽕배), 장정어 · 미꾸리 · 미꾸라지(미꾸라지), 뽕(뽕광자), 장정어(뽕장어), 뽕각지 · 뽕각지(뽕각지송사리), 뽕정어 · 뽕정어 · 아까모찌(뽕박), 살치 · 뽕가리(뽕가리), 알뽕구 · 아까이(뽕성게), 구로(검은성게), 뽕배새끼(새우), 아까치 · 서지리 · 아까지 · 아까지(아까미), 뽕미리 · 뽕미리(뽕미리), 이까(오징어), 우렁기 · 우렁기(우렁), 뽕배 · 뽕배(우렁성어), 뽕배 · 뽕배(우렁성어), 가시리(우렁가시리), 새치 · 이면수(이면수어), 가리경이(이면수어새끼), 조가재(조가), 뽕고지 · 뽕고지 · 뽕고지(뽕미꾸리), 뽕배 · 뽕배 · 뽕배 · 뽕배(뽕배), 뽕배 · 뽕배(뽕배), 뽕배 · 뽕배(뽕배), 뽕배 · 뽕배(뽕배)··· 등

13-2. 물고기 등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어구들의 명칭

14-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수 - 낙씨(낙시), 경심(낙시-글), 우끼 - 띠 - 째(낙시째), 미갯(미끼), 사들(반두), 동박 - 품박(부표), 삼마이그들(삼중자탕), 짝짓대(삿대), 놀(노 槽), 따리(리), 퐁(뚝)… 등

14-2. 어구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길잡승 등의 명칭

15-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냉이 - 고앵이 - 꾀(고양이), 노름 - 놀기(노루), 산귀(다람쥐), 달나귀(당나귀), 데지 - 끝데지 - 도야지(뻬지), 두더귀(두더지), 댕이 - 댕기(모이), 사슴(사슴), 달기 - 달기(삼·살갱이), 풀방귀(생귀), 쇠(소), 원갱이 - 염우 - 뻬며우 - 불며우 - 용우(며우), 염쇠(염소), 뽕끼(트끼), 호랭이 - 호래이(호랑이), 화소 - 솟소(황소·수소)… 등

15-2. 길잡승 등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날검승 등의 명칭

16-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떼기(갈떼기), 거시(거위), 기레기 - 지러기(기러기), 까마구(까마귀), 뽕 - 까투리 - 쟁끼(쟁), 달(달), 둥지리 - 닭집(닭-어리), 닭터래기(닭털), 빠지(박쥐), 병아리 - 닥새끼 - 뺨아리(병아리), 장닭(수탉)… 등

16-2. 날검승 등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시후(날씨와 계절) 등의 명칭

17-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감비(가랑비), 가을기 · 갈(가을), 저울 · 동삼(겨울), 켈(결쫂), 글래(글지), 그글래(그글피), 오늘(오늘), 아흔 · 식전 · 아직(아침), 지아 · 지악(저녁), 올저녁 · 올지악(오늘저녁), 벨지악 · 벨저녁(대일저녁), 갈때(그때), 노리(날 露彩), 능개 · 우내비 · 안개비(능개), 배락(벼락), 벨(벨), 벨(벨), 새벽 · 새박 · 새벽 · 새벽(새벽), 솟팔(설달), 소내가 · 소나비(소나기), 아지랭이(아지랑이), 요새 · 요즘(요즈음), 반공일 · 방공일(토요일), 온공일(일요일), 해저름 · 해질름(해저름), 시방 · 막(지금), 계따가 · 이따가(잠시 후에), 느리 · 우박비(우박), 갈감비 · 부슬비(이슬비가달비), 개떡 · 포떡 · 개떡(홍수), 졸잔바람 · 회리바람 · 놀개바람(회오리바람)… 등

17-2. 시후 등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지리(地理) 등의 명칭

18-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느알 · 거른말(건너 마을), 지숙 · 지실(기슭), 질 · 질랑 · 질랑(길 道路), 길랑여카리 · 질랑요가리(길옆·갓길), 말기떡 · 말기(눈뜯·눈은뜯), 돌명이 · 돌메이 · 풍돌(돌), 드루 · 비명 · 돌(돌), 말(마을), 명산(명산), 불개 · 불기(모래), 바웃할 · 나무 · 뽕나무 · 불바위(바위), 벼당 · 산태깼비(벼당), 산봉우리(산마루·산등성마루), 소뽕길(소로 小路), 개 · 개울 · 갯가(시내), 신장노(신작로), 언데기 · 언드박 · 언덕배기(언덕바지), 명달기(명마루), 동병(웅덩이), 웃달(웃마을) … 등

18-2. 지리 등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방위(方位) 등의 명칭

19-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으가리 · 가셈이 · 역강사리 · 으강사리(가장자리), 귀테기 · 구석배기
· 귀제비(구석), 꼭대기(꼭대기), 뽕지머리(뒀), 밭테(밭), 앞(아래),
위간 · 웃뿔(윗뿔), 아래간 · 아랫간(아랫뿔), 어디루 · 어데(어디서), 우
· 우에(위 우르) ... 등

19-2. 지리 등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수치와 관련된 명칭

20-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하나), 둘리(둘), 나이 · 서히(셋), 네이(넷), 다섯 · 땃(다섯), 여
서(여섯), 일얹(일곱), 여물비 · 여덜(여덟), 열일얹(열일곱), 열아홉
(열아홉), 서물다섯 · 수물다섯(스물다섯), 설흔(서흔), 설흔여물비(서
흔여덟), 이른너이(일흔넷), 이른여물비(일흔여덟), 사날(사나흘·삼사
일), 아레(아흐레), 매미(마지미), 찌리(절레), 뽕 · 뽕(뽕), 마카 · 마
강(모부), 부꾸미 · 부대기(뽕음·단뽕), 한바리(100뽕), 꿩질(며칠),
시다 · 세다(꽤아리다), 쪼다(꽤다·흔하다) ... 등

20-2. 수치와 관련된 명칭에 대한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용언 · 관용어

21-1. 다음 알고 계시는 우리말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 대구(계속), 게우 · 게우 · 게와(가까스로·겨우), 가차이 · 켜(가까
이), 개롭다 · 가롭다(가깝다), 갑치다 · 갑제준다(가르치다), 갑키다 ·
갑제준다(가르키다), 개벼우너까 · 개쁜하다(가볍다), 각고 · 각고(가지

고), 별안간·갑작기(갑자기), 향파르다(장파르다), 쩌물투·하구투(거
무투), 거시르다·거실러(거스르다), 거진(거의), 근내가다(전너가다),
근들지마(전들지마), 번지다(번지다), 얼얼하든(질겅하면), 경황(경황),
견디다·견디다(견디다). 락박투·고빨리·고빠투(곧장), 부러(편지리),
게아나(편찮아), 개이다·개우다(괴다), 학살문(학생문)이 구막다·고
막다(구워먹다), 강야직 끈다(글뚝 쏘시다), 거래서(그래서), 글저 모:
다·그려모다(글어모으다), 곧도(그만 뒤), 콩나물을 노아서 지르다(기
르다), 지을다(기을다), 기다라케(기다탈게), 길쭉한 거(길쭉한 거), 길
다(깊다), 께까타다·꿔까시(꽤끗하다·꽤끗이), 끼안타(찍안다), 소도글
찌지버서(찌집다), 꾸물 쑤스꾸나·쑤스다(쑤을 꾸다), 나물꾼다·야단
치다(꾸짖다), 뽕이다(끓이다), 농가 먹었지요·가치(같이)농구구·농
구다(니누다), 냉증에·냉증애(나증애), 열었다(날았다), 남새스럼다·
남새시럼다(남부끄럼다), 알추다(날추다), 넓죽하구(넓적하고), 노꾸다
(놀다), 놀쌍(놀함상), 늑시그레한 할머니(늑수구레하다), 물리다·달
다(다르다), 잡도리하다·단도리하다(단속하다), 태워야겠다·뜨게야졌
다(국을 덥히다), 도맹쳐서 왔써(도맹쳐 왔어), 똥글라하게 생긴(똥그랄
게 생긴), 땃기령(땃겨든), 우라지게·되야지게·되지게·세게(대단하
되게), 할멈들 되잘라빠진거·되잔나빠진거(되잡다), 두끔다(두렵다),
쫄다·얼다(두려워하다·겁내다), 조허두 멸구(멸다), 나 안자(떨어져 얹
아), 찰끈다·찰끈다(찰끈다), 디려다 본다(찰여다 본다), 데냥(마냥),
말도리 간다·마실 간다(마을 간다), 멍근다·멍글다·망글다·멍길다
(만들다), 절구 들렀다·재절이 들렀다·마이 메킨다(많이 먹는다· 많이
먹인다), 미식거리다(메숙거리다), 메꾼다(메운다), 메으를 줄프든(모르
면), 메들게·메들다(모여들다), 뭇 하려고·메타라(무엇 하려고), 바
로 푸꺼서(푸여서), 말꾼다·웁다(바투다·퍼다), 내꾼지다(버리다), 비

베라구(베어버리다), 베리는데·베릴질 하다(베리다), 뽀 받다(뽀 받는다), 나쁜 풀(부드럽다), 풀미풀미(부라부라), 부신다·쭈신다(부순다), 부지깅이(부지런히), 문티다(비비다), 비젓하다(비슷하다), 불래·물래(물러 얹아), 난자(비켜), 지르고 할마서·끝다노루(살다), 물에 세켜서 염서치고(참키다), 골쫄다·숨킨다(숨긴다), 시구렵다(시다), 시연하다(시원하다), 숨다·숨그는 건 감자(심다), 힐하다(갈이 썩다), 쓰겁다·씨겁다·씨구와서(쓰다), 씨러지다(쓰러지다), 애끼다(아끼다), 말도 알아 해·알아·나쁜 알해요(아니하다), 삼가두(아직도), 알이 빠키지(안 보이다), 안기래(안 그래), 알기지 안주·알구다(알리다), 애뻐다·애뻐다(아위다), 연가니·엿가이(어지간히), 지킬라문 얼저서 잇는다(엮다), 열글은 따가지구 써서(엮글다), 오몬(오면), 오거덜(오기든), 오곧치다(오지각), 되래(오히려), 올라팔라지문(올라가다), 켜다 바·올래다 보다(올려다 보다), 왕기진 안티라구(옮기다), 외서(외), 원금으로·엿그르코(외워서), 짜다·하마터면·하마드문(이미), 우경·역부터·부터(일부터), 일어나·인나(일어나), 일커 세워(일으켜 세워), 일찌간치 지삼(제삼)노루(일찌감치), 이리 버젓다(잃어버렸다), 잇판나·이판니(잇잖아), 내호라구 생쟁이 안나·이지 빼젓서요(잊어버린다), 짚단하게 달틴다(자질하다), 잘게(작게), 재툼하다(작은), 아래이 아라서(잘 알아서), 재와서(재우다), 재간치다·재간하다(저지레하다), 만간은 우명하게 재(정갈하다), 정내미 없다(정이 없다), 푹소리나다(정확하다), 쥔 시러한대(제일 싫다), 쪼끄만 것(조그맣다), 쪼글쪼글(조금씩), 아까·아께(조금 전에), 사작사작(조심스럽게 천천히), 허파 까무리치다(꼴도하다), 콩이재비·종우재기(콩이조각), 재광도 팔(마음)에 와(지금도), 진베이(진짜), 예두 지찌(짓다), 짹쟁이(딱따구리), 차구여·차구와(차가워 冷), 쏘뿔(쏘뿔)해 노루(켜다), 치질하다(키질하

다), 빠지다 - 빠러지다(토라지다), 씨끄러거리든 등개해(무정부리다),
 프리노래?(틀어놓을래?), 괜히 주무셨습니까?(편히), 부애가 나서 - 부
 애나개(화가나서), 칼이 썰겨해요 - 화박지(화나다), 부애를 독아서 - 화
 를 독아서(화를 돋우다), 헤뜨리다(흐뜨리다), -하든(-하면), 옥세기 술
 기눔기(옥수수 심어 놓은 것), 지시팔팔 떨어킨다(제마 팔 팔 떨어킨다),
 쌀질구 널커나(쌀자루 내려 놔), 아치게 헛다(아침에 헛다), 낭그때기 영
 지(나무 옮겨), 보강지에 행구리 난다(부엌(아궁이)에 연기 난다), 냇가
 다 보며는(넘겨다 보면), 질참 여카리 남구(길옆에 나무), 땃갈구 통가
 때(땃자루 묶어 데어), 굳내난다 - 똥글래난다(넘세난다) ... 등

21-2. 용언과 관용어의 우리말을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 언 찾 기





일러두기

1. 순서는 방언의 가, 나, 다 순으로 배열했으며, 방언 아닌 낱말은 가급적 수록하지 않음.
2. ①은 표준어, ② 이하의 낱말 풀이는 인터넷 네이버 사전을 인용해 설명함.
3. 낱말 풀이 아래에는 방언의 용례(👉)를 두었음

가: ‘그 아이’의 방언, ‘그’의 인칭대명사

☞ 가는 이 동네서 나구 자란 본토배기야.

가가주구: ‘가다’의 활용형으로 ‘가서’의 뜻임.

☞ 그 늙은 심부름 가가주구 여태 오지 않았어.

가게빵: ① ‘가게’의 방언

② 작은 규모로 물건을 파는 집.

☞ 그 가게빵에는 벨게 벨게 다 있어.

가굼다: ‘가볍다’의 방언

☞ 벤소판을 샀다왔더니 몸이 가굼다.

가근방: ‘근방’ ‘근처’의 방언

☞ 개네 집은 학교 가근방에 있어유.

가까?: ‘갈까?’의 방언

☞ 언제 니네 집에 가까?

가꺼: ‘그 애의 것’의 방언

☞ 그 가게빵에 있는 퍼런 가방은 가꺼래유.

가께: ‘갈게’의 방언

☞ 지약 때쯤 니네 집에 가께.

가는 비: ‘이슬비’의 방언

☞ 진종일 가는 비가 내레서 몽땅 저졌어.

가다리: ① ‘가랑이’의 방언

② 하나의 몸에서 끝이 갈라져 두 갈래로 벌어진 부분.

☞ 발재간이 좋아 뿔이 가다리 새루 빠져 나왔대.

가데기: ① ‘극쟁이’의 방언

② 땅을 가는데 쓰는 농기구. 쟁기와 비슷하나 쟁깃술이 곧게 내려가고 보습 끝이 무디다.

☞ 니가 나올 때 가데기 가주구 와.

가따: ‘가져다’의 방언

☞ 정지에 가서 파산 물 좀 가따 주라.

가따와: ‘갔다 와’의 방언

☞ 바쁘드래두 아침에 구장네 집에 가따와라.

가래: ‘삽’의 방언

☞ 가래가 있어야 보매기(보막이)를 하지.

가래토시: ① ‘가래툰’의 방언

② 넙다리 윗부분의 림프샘이 부어 생긴 멍울.

☞ 심하게 돌아더니 가래토시가 생겼어.

가랭이: ① ‘가랑이’의 방언

② 하나의 몸에서 끝이 갈라져 두 갈래로 벌어진 부분.

☞ 또랑을 건너뛰다가 가랭이가 찢어질 뻔했대.

가루질러: ‘가로지르다’의 방언

☞ 가는 길이 하두 멀어서 지름길루 가루질러 갔어.

가롭다: ‘가렵다’의 방언

☞ 땡벌에서 살껍데기가 타서 여기저기 가롭대.

가르매: ‘가르마’의 방언

②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 **엔날** 일본놈 일대일 가르매는 증말 가관이었어.

가름마: ① ‘가르마’의 방언

②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 어른들은 늘 가름마를 타구 뽀마드를 발랐지.

가름뱅이: ① ‘가르마’의 방언

②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 기생오래비들은 가름뱅이타는 일이 멋있다고 생각했나 봐유.

가리마: ① ‘가르마’의 방언

②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 남자들은 이대팔 가리마가 신식이라고 생각했었나봐.

가리쟁이: ① ‘임연수어 새끼’의 방언

② 쥐노래미트과의 바닷물고기 새끼.

☞ 앞바다에선 늘 가리쟁이가 개락이었어.

가마떼기: ① ‘가마니떼기’의 방언

② ‘헌 가마니’를 낫잡아 이르는 말.

☞ 미역은 백사장 가마떼기에 넣어 말랬지.

가마이: ① ‘가마니’의 방언

② 곡식이나 소금 따위를 담기 위해 짚을 돛자리 치듯이 쳐서 만든 용기.

☞ 쌀을 가마이에 넣어 고방에 쌓아 두었지.

가막살이: ‘감옥살이’의 방언

☞ 가막살이 10년이른 바눌루 파옥한다지.

가망댕이: ‘몰래 하는 짓’의 방언

☞ 가망댕이루 하다가 걸리른 맞아 죽어.

가매: ① ‘가마’의 방언

② 사람의 머리나 일부 짐승의 대가리에 털이 한곳을 중심으로 빙 돌아 나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된 부분.

☞ 사내가 쌍가매른 장가 두 번 간다는 속설이 있었어.

가매²: ① ‘가마’의 방언

② 예전에, 한 사람이 안에 타고 돌이나 넷이 들거나 메던, 조그만 집 모양의 탈 것.

☞ 엔날 시집 갈 때 가매 타구 갔었지.

가메(가매): ① ‘가마술’의 방언

② 아주 크고 우묵한 술.

☞ 가메 밑이 노구술 밑을 겹다 한다는 속담이 있다.

가상사리: ① ‘가장자리’의 방언

②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

☞ 가상사리가 가운데 보덤 증말 편해.

가생이: ① ‘가(가장자리)’의 방언

②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

☞ 사람들이 모두 가생이루 몰래 왔었어.

가세(가새): ‘가위’의 방언

☞ 비닐종우 짜를 때는 가세가 좋아.

가수원: ‘과수원’의 방언

☞ 엔날부터 이 동네엔 가수원이 벨루 없어.

가슴팍(가심패기): ① ‘가슴팍’의 방언

② 가슴의 판판한 부분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가슴팍이가 찢어지듯 아파서 숨을 제대루 쉴 수가 없어.

가시나: ① ‘계집아이’의 방언

② ‘여자아이’를 낫잡아 이르는 말.

☞ 그 가시나, 우리 동네를 벌써 떠났대.

가시리묵: ① 우뚝가사리로 만든 묵

② 홍조류 우뚝가시릿과의 해조류를 묵으로 만든 것.

☞ 가시리묵은 야들야들 해서 중말 맛 있어.

가심: ‘가슴’의 방언

☞ 그 말을 듣고 놀란 가심을 쓸어내렸다.

가우리: ① ‘가오리’의 방언

② 가오릿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요즘 고기가 잘 안 잡해서 가우리 맛을 몰라.

가운데: ‘가운데’의 방언

☞ 사람들은 시장 가운데로 마이 몰려들지.

가을기: ‘가을철’의 방언

☞ 가을기에 동네마다 마당이 하느라 중말 바빠.

가재미(까재미): ① ‘가자미’의 방언

② 넙치과의 붕넙치과의 넙치가자미, 동백가자미, 참가자미, 목탁가자미, 줄가자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판장에 가른 까재미가 개락이야.

가재미바리(까재미바리): ① ‘가자미조업’의 방언

② 바다에 가자미를 잡은 어업.

☞ 어렸을 때 까재미바리 마이 땡겼지.

가주(가주구): ‘가지고’의 방언

☞ 가루 가주구 떡 못 만들랴.

가즈런히: ‘가지런히’의 방언

☞ 땃돌 위에 신발을 가즈런히 놔둬라.

가차이: ‘가까이’ 방언

☞ 니네 집은 개네 집 가차이 있어.

가잡다: ‘가깝다’의 방언

☞ 개네 집은 애네 집보다 가잡다.

가태: ‘갈아’의 방언

☞ 가을 중 시주 바가지 가태.

각고(각구): ‘가지고’의 방언

☞ 옆집은 보따리 싸 각구 야밤도주 했다.

각승바지: ① ‘각성바지’의 방언

② 성이 각각 다른 사람

③ 어미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

☞ 그 동네는 각승바지가 모에 산다.

각쫓가리(깍쫓가리): ① ‘갑쫓가리’의 방언

② 물건을 담은 두꺼운 종이 상자(포장재) 쫓가리.

☞ 각쫓가리는 전수 와서 불쏘시개루 썼다.

간: ‘반찬’의 방언

☞ 간이 입에 맞아 밥 한 그릇 푹팍했다.

간고릇: ‘반찬그릇’의 방언

☞ 빈 간고릇 들구 부엌에 들어갔다.

간나: ‘계집아이’를 낫잡아 이르는 말.

☞ 그 간나, 하는 짓마다 얄미롭다.

간나새끼: ‘아이’를 낫잡아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간나새끼들은 두구두구 욕을 먹을 놈들이야.

간난애기(간난아기): ① ‘갓난아이’의 방언

②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아.

☞ 간난애기는 밤새두룩 울구 보챘다.

간뎡이 : ① ‘간덩이’의 방언
 ② ‘간’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간뎡이가 부었나, 허파에 바람 들었나.

간질구다(간줄구다) : ① 간지럽히다’의 방언
 ② ‘간지럽다’의 사역동사.
 ☞ 온몸을 간질구자 자부라지구 말았어.

갈 : ‘가을’의 준말
 ☞ 갈바람에 곡식이 세 빼물구 자란대.

갈강비 : ① ‘이슬비’의 방언
 ②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눈개보다 굵고 가랑비보다는 가늘다.
 ☞ 갈강비에 옷 젖는 줄 몰랐다가야.

갈게 쓰다(휘갈게 쓰다) : ① ‘갈겨쓰다’의 방언
 ② 글씨를 아무렇게나 마구 쓰다.
 ☞ 마음 급한 아저씨는 글씨를 휘갈게 썼어.

갈기 : ‘가루’의 방언
 ☞ 갈기는 칠수록 고와지구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대.

갈게 : ‘가을에’의 방언
 ☞ 갈게 물은 소 발자국에 고인 물도 먹는다.

갈라놨다 : ① ‘갈라놓다’의 방언
 ② ‘각각 떼어놓았다’는 뜻임.
 ☞ 그 일루 부부 사이를 갈라 놔어.

갈라문 : ‘가려면’의 방언
 ☞ 빨리 갈라문 혼차 가구 멀리 갈라문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다.

갈르다 : ‘가르다’의 방언
 ☞ 여기서 갈르지 못하는 거기서 갈른다.

갈보단지 : ① ‘단지’의 한 유형
 ②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
 ☞ 갈보단지는 꼬추장이나 술단지루 좋대.

갈수록 : ‘갈수록’의 방언
 ☞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줄었다.

갈체 주다 : ‘가르쳐 주다’의 방언
 ☞ 야학에서 애들에게 수학을 갈체 주었다.

갈치다 : ‘가르치다’의 방언
 ☞ 그 여자는 영어를 갈치는 선생님이었어.

갈케 주다 : ‘가르켜 주다’의 방언
 ☞ 처음 온 길손에게 길을 갈케 주었다.

갈쿠리(갈고랭이) : ① ‘갈고리’ ‘갈고랑이’의 방언
 ②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진 물건.
 ☞ 갈쿠리 맞은 고기이라는 말이 있어.

갈키다 : ‘가르키다’의 방언
 ☞ 언덕배기에 있는 등대를 갈켰다.

감재 : ‘감자’의 방언
 ☞ 감재 위에 노루 고기를 싸 먹겠다.

갑자기(갑짜기) : ‘갑자기’의 방언
 ☞ 갑짜기 시력이 좋아진 것처럼 느끼구 있어.

갯바리 : ① ‘근해어업’의 방언
 ② 해안에서 멀리 아니한 바다에서 하는 어업.
 ☞ 요즘 갯바리 열심히 해두 고기가 안 잡헤.

갯질 : ‘갯길’의 방언
 ☞ 갯질에는 가로수와 토랑이 있었어.

강구 : ① ‘갯강구’의 방언
 ② 갯강굿과의 갑각류.
 ☞ 원래 강구는 갯바우에 마이 살아.

강구²: ① ‘바퀴벌레’의 방언

② 바퀴과의 바퀴, 산바퀴와 왕바퀴과의 먹바퀴, 집바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지저분한 집에는 강구가 마이 돌아 땀간다.

강기: ‘감기’의 방언

☞ 강기는 밥상머리에 내려앉는데.

강밥(감박): 옥수수 따위의 곡식 튀밥을 이르는 방언

☞ 강밥(감박)은 구수한 맛이 으뜸이야.

강어구: ‘강어귀’의 방언

☞ 강어구에 몰려 든 쓰레기 때문에 몸살났어.

갈애: ‘갈아’의 방언

☞ 그 사람, 짝 잃은 기러기 갈애.

개: ① ‘개울’의 방언

②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 동네 앞 맑구 깨끗한 개가 명소가 됐어.

개간나: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상대어 ‘개새끼’>

☞ 어렸을 때 여자애들 보구 개간나라구 했어.

개구녕(개구영): ① ‘개구멍’의 방언

② 담이나 울타리 또는 대문의 밑에 개 따위가 드나들 정도로 터진 작은 구멍.

☞ 담밑 개구녕으루 고냉이가 자주 드나들었어.

개굴창: ‘개울’의 방언

☞ 동네 앞 개굴창에서 물고기를 잡았어.

개굽다(개뽇다): ‘가볍다’의 방언

☞ 등짝 짐이 개구워서 좋구나.

개금: ① ‘개암’의 방언

② 개암나무의 열매, 모양은 도토리 비슷하며 껍데기는 노르스름하고 속살은 젃빛이며 맛은 밤 맛과 비슷하나 더 고소하다.

☞ 개금은 전분 덩어리 알갱이다.

개기다: ① ‘개개다’의 방언

②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 구두 뒤축이 개게서 뒤꿈치가 벗겨졌다.

개꼴나다: 아주 ‘형편없다’의 방언

☞ 준비한 선물이 개꼴나다구 송 뵈다.

개눈깔(개눈까리): 굵은 ‘알사탕’의 방언

☞ 옛날엔 개눈깔이 최고의 간식이었지.

개다: ① ‘괴다’의 방언

②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안정시킨다.

☞ 지게가 넘어지지 않게 작대기를 개다.

개두름(개두릅): ‘엄나무의 어린 순’을 이르는 말

☞ 동네에선 엄나무 순을 개두릅이라구 한다.

개들다: ‘대들다’의 방언

☞ 멧두 모르구 개들다가 혼났대.

개따(갯다가): 조금 ‘있다가’의 방언

☞ 개따 다시 올 테니 이대루 두세유.

개똥두 아니다: ‘아무 것도 아니다’ ‘별 거 아니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속된 말루 개똥두 아니라구 말했다.

개똥벌거지(개똥벌개지,개똥벌격지):

① ‘반딧불이’의 방언

② 반딧불잇과의 딱정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요즘은 개똥벌거지가 정말 귀해.

개똥벌레 : ① ‘반딧불이’의 방언

② 반딧불잇과의 딱정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시골 가든 개똥벌레 투어가 특별한 이벤트야.

개락 : ① ‘홍수’의 방언

②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불은 물.

☞ 메칠 비가 내려서 길바닥에 물이 개락이야.

개락이다 : ‘매우 많다’를 이르는 말.

☞ 한 저울에는 판장에 멍태가 개락이었어.

개롭다(개롭다) : ‘가렵다’의 방언

☞ 날씨가 건조해 피부가 개롭다.

개매 : ① ‘신주(神主)’의 방언

② 죽은 사람의 위패

☞ 기제 때 개매를 내 모신다.

개맹이 : ① ‘구렁이’의 방언

② 뱀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110~120cm 정도이며 180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 개맹이를 다치게 하든 집안에 벤고가 있다고 했어.

개바늘(개바늘) : ① ‘도깨비바늘’의 방언

②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50~100cm이며 줄기는 네모지다.

☞ 풀밭에 들어가든 개바늘이 옷에 막 달라붙어.

개박살 : ‘처참하게 깨지다’를 이르는 말.

☞ 행사 준비가 소홀해 개박살 났대.

개볍다(개볍다) : ‘가볍다’의 방언

☞ 니야까에 짐을 내려놓으니깐 훨씬 개볍다야.

개복상(괘기복상) : ① ‘개복숭아’의 방언

② 개복숭아나무의 열매. 주로 약으로 쓴다.

☞ 개복상을 약으루두 썼대.

개쁜하다 : ‘가쁜하다’의 방언

☞ 등짐을 벗었더니 개쁜하구나.

개새끼 : ① ‘개’의 새끼

② 남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상대어 ‘개간나’>

☞ 그 놈을 개새끼라고 욕했대.

개시기또랑 : ‘수채’의 방언

☞ 집안 하수는 개시기또랑으루 나가.

개암 : ① ‘개암’의 방언

② 개암나무의 열매. 모양은 도토리 비슷하며 껍데기는 노르스름하고 속살은 젓빛이며 맛은 밤 맛과 비슷하나 더 고소하다.

☞ 개암이 감보다 더 달아.

개오르다 : ① ‘기어오르다’의 방언

②윗사람에게 예의를 저버리고 버릇없이 굴다.

☞ 오냐오냐 했더니 개오르기 시작했다.

개와 : ‘호주머니’의 방언

☞ 개와에 용돈을 넣어두었다.

개우다 : ① ‘괴다’의 방언

②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안정시키다.

☞ 장작더미가 넘어지지 않두룩 개웠다.



개울창: ① ‘개울’의 방언

②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 개울창에는 웅고지가 늘 오글오글 했어.

개챙피: 심하게 ‘창피를 당함’을 이르는 말.

☞ 생각 없이 집을 나섰다가 개챙피 떨어.

개코갈다: ‘하찮고 보잘 것 없다’를 이르는 말.

☞ 그런 개코갈은 소리 그만 집어 치워.

개화(개와)주머이: ‘호주머니’의 방언

☞ 연말 한복에는 개화주머이가 없었어.

갯가: 물이 흐르는 곳의 가장자리를 이르는 말.

☞ 한적한 갯가 풍경이 그림 같애.

거두리: ① ‘껍질’의 방언

②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

☞ 거두리는 어떤 물체의 겉을 싸구 있는 막을 말한대.

거래이: ① ‘거지’의 방언

②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 거래이두 부지런하든 더운 밥 얻어먹는대.

거랭이: ‘거지’의 방언

☞ 거랭이가 도승지를 불쌍타 한다.

거른말: ‘건너 마을’의 방언

☞ 강 거른말에는 복사꽃이 만발했다.

거름뱅이(거렁뱅이): ① ‘거지’의 방언

②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 부잣집 외상보다 거렁뱅이 맞돈이 좋대.

거름데미(거룼데미): ‘거름더미’의 방언

☞ 거름데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

거릿대: 두엄, 썩은새 또는 낙엽 같은 것을 걷어 내거나 쳐내는 데 쓰는 연장.

☞ 거릿대는 원시적인 농기구 중 하나야.

거마리: ① ‘거머리’의 방언

② 거머리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흙탕물 속에서 거마리가 장단지에 붙었어.

거맹이: ① ‘그을음’의 방언

② 불에 탈 때 불꽃과 함께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같은 검은 가루.

☞ 불에 탈 때 연기에 석게 나오는 거맹이가 골치 아퍼.

거무: ① ‘거미’의 방언

② 절지동물문 거미강 거미목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거무두 줄을 체야 버러지를 잡는다.

거시: ① ‘회충’의 방언

② 선형동물문 쌍선충강 회충과의 돼지회충, 말회충, 회충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똥 검사를 하든 늘 거시가 마이 나왔다.

거시르다: ‘거스르다’의 방언

☞ 이디자인은 유행을 거시르는 것 가튼 데.

거슬러: ‘거슬러’의 방언, ‘거슬리다’의 활용형

☞ 어제 그 말이 내 귀에 거슬렸어.

거양: ‘그냥’의 방언

☞ 사람들이 몰레 오드라두 거양 있으든 돼.

거우 : ① ‘거위’의 방언

② 오리과의 새. 크기와 색깔이 다른 여러 품종이 있으며, 목이 길다.

☞ 거우는 가금화(家禽化)된 기러기래.

거적떼기 : ① ‘거적’의 방언

② 짚을 두툼하게 엮거나, 새끼로 날을 하여 짚으로 쳐서 자리처럼 만든 물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쫓겨나온 다리 밑에 거적떼기 걸치구 살지.

거진(거이) : ① ‘거의’의 방언

②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

☞ 출근 준비를 거진 다 끝냈어.

거짓뿌렁(거짓뿌리) : ‘거짓말’의 방언

☞ 거짓뿌렁하구 뽀 맞는 것보다 낫대.

거치장스럽다 : ‘거추장스럽다’의 방언

☞ 거치장스럽다구 그 물건을 치워버렸다.

건느말 : ‘건너 마을’의 방언

☞ 건느말에는 개나라가 활짝 피었다.

건늘목 : ‘건널목’의 방언

☞ 그 건늘목에는 신호등이 없어.

건드리다 : ‘건드리다’의 방언

☞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말아 줘.

건추 : ‘시래기’의 방언

☞ 건추는 영양두, 맛두 좋은 건강식품이래.

겉구들렸다 : ‘많이 먹는다’를 빗대어 이르는 말. (겉구) 돈이나 곡식, 물건 따위를거져 달라고 뵈.

☞ 겉겉스럽게 먹는 겉 겉구들렀다구 했어.

겉금(거름) : ‘거름’의 방언

☞ 겉금 만들 때는 탄소 대 질소 비율이 맞아야 한다.

겉빵 : ① ‘멜빵’ ‘질빵’의 방언

② 짐 따위를 어깨에 걸어 매는 끈.

☞ 짐을 질 때에는 멜빵이 튼튼해야 해.

겉음내기 : ‘달리기’의 방언

☞ 가을운동회 절정은 겉음내기였어.

겉불 : ① ‘솔가리’의 방언

② 말라서 땅에 떨어진 솔잎.

☞ 빨간대신 겉불을 굽어 불쏘시개를 했지.

겉대가리 : ‘겉’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어린 놈이 겉대가리가 없어.

게 : ① ‘겨’의 방언

② 벼, 보리, 조 따위의 곡식을 찢어 벗겨 낸 껍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게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지.

게겉이들렸다 : ‘많이 먹는다’를 빗대어 이르는 말.

☞ 겉신들렸다는 겉 게겉이들렀다구 하지.

게따가 : ‘조금(잠시) 지난 후에’의 방언

☞ 게따가 가께.

게란 : ‘달걀’의 방언

☞ 게란에두 뼈가 있다.

게아나 : ‘팬츠아’의 방언

☞ 아무리 게아나 해두 걱정을 지을 수 없었어.

게우 : ① ‘거위’의 방언

② 오리과의 새. 크기와 색깔이 다른 여러 품종이 있으며, 목이 길다.

☞ 게우는 특별한 요리 재료루 쓰이지.

게우² : ① ‘겨우’의 방언

② 어렵게 힘들여.

☞ 게우 그 그릇에 물을 채워 넣었다.

계쭈미 : ‘호주머니’의 방언

☞ 계쭈미에는 구슬이 잔뜩 들어 있었어.

갱기 : ① ‘경기(驚氣)’의 방언

②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 풍으로 인해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하는 병증으로 급경풍과 만경풍의 두 가지로 나뉜다.

☞ 아를 키우는 갱기 한두 번은 늘 겪는 일이야.

갱찰 : ‘경찰’의 방언

☞ 민중의 지팡이를 갱찰이라구 해.

결온 : ‘결혼’의 방언

☞ 자식들 결온은 온제 하니?

경심 : ‘낙싯줄’의 방언

☞ 낙싯할 때 잡는 고기에 따라 경심을 달리 써야 해.

계추(기추) : ‘계’ 모임을 말하며 ‘기추’라고도 함.

☞ 한 달에 한 번 계추가 가난한 집 지사 돌아오듯 하네.

고갱이 : 풀이나 나무의 줄기 한가운데에 있는 연한 심.

☞ 노란 배차 고갱이가 고소하구 맛있어.

고금 : ① ‘학질’의 방언

② 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진 학질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법정 전염병.

☞ 전문가들은 삼일열 말라리아를 고금이라구 했지.

고기날개 : ① ‘지느러미’의 방언

② 물고기 또는 물에 사는 포유류가 몸이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 손질할 때 고기날개를 잘라야 한다구 했어.

고냉이 : ① ‘고양이’의 방언

② 고양이과의 하나. 원래 아프리카의 리비아살쾡이를 길들인 것으로, 턱과 송곳니가 특히 발달해서 육식을 주로 한다.

☞ 고냉이 간 골에 쥐 죽은 듯

고냥이 : ① ‘고양이’의 방언

② 고양이과의 하나. 원래 아프리카의 리비아살쾡이를 길들인 것으로, 턱과 송곳니가 특히 발달해서 육식을 주로 한다.

☞ 고냥이 목에 방울 달기

고담 : ‘그 다음’의 방언

☞ 고담에 뭘 할지 알레달라구 했어.

고등어 : ① ‘고등어’의 방언

② 고등엇과의 바닷물고기.

☞ 등 푸른 생선 고등어는 인기가 마나.

고드래미 : ‘고드름’의 방언

☞ 고드래미는 애들 간식이었어.

고래 심줄 : ‘고래 힘줄’의 방언

☞ 그 친구는 고래 심줄 같이 질게.

고루매(고르매) : ① ‘고리매’의 방언

② 고리맷과의 해조(海藻).

☞ 이른 봄 해초 중에 고루매가 최고야.

고리짝 : ‘괘’의 방언

☞ 그 고리짝에는 옷가지들이 들었어.

고마와 : ‘고마워’의 방언

☞ 도와줘서 고마와.

고마이지 : ‘그만이지’의 방언

☞ 이제 사람들이 떠났으은 고마이지.

고만 : ‘그만’의 방언

☞ 이제 일 고만해.

고만고만하다 : ‘비슷비슷하다’의 방언

☞ 하는 일들이 고만고만하네.

고망어 : ① ‘고등어’의 방언

② 고등엇과의 바닷물고기.

☞ 고망어 구워먹으면 기차게 맛있지.

고 먼저 : ‘그 먼저’의 방언

☞ 고 먼저 한 것 보고 따라 해.

고맹 : ① ‘고명’의 방언

②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해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국시에 고맹을 얹으면 더 맛있다야.

고무다라 : 고무 ‘타라이’ 일본식 표기

☞ 물품을 고무다라 한 가득 담았어.

고무다락 : ① ‘고미다락’의 방언

② 고미와 보곡 사이의 빈 곳. 산자(撒子)를 엮고 흙을 발라서 바닥과 반자가 되는 고미로 꾸민다.

☞ 고무다락을 뒤져서라도 찾아 내놔.

고무줄빵 : 신축성 있는 고무줄처럼 ‘행동이 느슨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사람 하는 일이 늘 고무줄빵이야.

고물장사(고물장수) : 헐거나 낡은 물건 따위를 사러 다니는 사람.

☞ 어제 고물장사에게 헌 책 몽땅 팔았어.

고방 : ‘곳간’의 방언

☞ 쌀잘기 고방에 두었는데 찾아 와라.

고뱅이 : ‘무릎’의 방언

☞ 고뱅이가 아파서 더이상 걷지 못하겠어.

고빠루 : ‘곧장’의 방언

☞ 고빠루 달려가서 빼앗았지.

고빨리 : ‘곧장’의 방언

☞ 고빨리 연락해야 막을 수 있어.

고뿔 : ‘감기’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고뿔두 남을 한 준다는 속담이 있대.

고상 : ‘고생’의 방언

☞ 고상 끝에 낙이 온대.

고시네(꼬시네) : ① ‘고수레’의 방언

② 민간신앙에서,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굿을 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

☞ 들에서 먹을 때는 늘 고시네 했어.

고실고실 : ① ‘고슬고슬’의 방언

② 밥 따위가 되지도 질지도 아니하고 알맞은 상태.

☞ 밥이 고실고실 해서 먹기가 아주 좋아.

고얌 : ① ‘고욤’의 방언

② 고욤나무의 열매. 감보다 작고 달면서 좀 떫다.

☞ 옛날에는 늦가을에 촌에서 고얌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보기가 어려워.

고이한 : ① ‘고얀’의 방언

② 성미나 언행이 도리에 벗어나는.

☞ 언제부턴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고이한 놈들이 많아졌어.

고질 : ① ‘여물’의 방언

② 마소를 먹이기 위해 말려서 썬 짚이나 마른 풀.

☞ 콩팍지와 수숫대를 거둬 작두루 썰어서 고질을 만들었지.

고질까리 : ① ‘여물광’의 방언

② 마소를 먹이기 위해 말려서 썬 짚이나 마른 풀을 보관하는 곳.

☞ 마굿간 옆에 고질까리를 만들어 가을 내내 고질을 쌓아두구 소여물 끓일 때

사용했는데.

고집패기: ‘고집’의 방언

☞ 그 영광태기는 고집패기가 써서 남에 말을 듣지 않아.

고체: ‘고쳐’의 방언

☞ 망가지른 고빠루 고체.

고치(꼬치): ‘고추’의 방언

☞ 올 고치 농새가 지대루 됐어.

고치가루: ‘고춧가루’의 방언

☞ 고치가루 색깔이 너무 곱다.

고푸다: ‘고프다’의 방언

☞ 아침을 걸렀더니 배가 고푸다.

고향섭: ‘홍합과의 조개’로써 3~5cm 크기로 바닷가 바위에 군락 서식하는 섭.

☞ 갯바우에 고향섭을 따서 끓이른 국물이 끝내 준다.

곡갱이(꼭갱이): ① ‘곡괭이’의 방언

② 쇠로 황새의 부리처럼 양쪽으로 길게 날을 내고 가운데 구멍에 긴 자루를 박은 괭이

☞ 하루 종일 곡갱이루 땅을 팠어.

곡식: ① ‘논곡식’의 방언

② 논에 심어서 나는 곡식.

☞ 바람에 곡식이 세 빼물구 자란대.

곤드래미: ‘고드름’의 방언

☞ 처마 끝에 곤드래미는 한겨울 풍경.

곤지: 솟명태의 내장의 일부로 흰색 연질.

☞ 맹태 곤지국은 구수하구 시원해.

곤친다: ‘깁다’ ‘고치다’의 방언

☞ 아저씨는 고장 나른 무엇이든지 잘 곤친대.

골땡바지: ① ‘골덴바지’의 방언

② 고르덴을 옷감으로 하여 만든 바지.

☞ 저울엔 골땡바지가 최고였어.

골미: ① ‘골무’의 방언

② 바느질할 때 바늘귀를 밀기 위하여 손가락에 끼는 도구.

☞ 바느질할 때 골미가 없으면 손꼬락이 아프다.

골바께: ‘고을 밖(성 밖)’의 방언

☞ 원래 그 마을은 골바께 있었어.

골방쥐: ① ‘생쥐’의 방언

② 쥐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6~10cm, 꼬리의 길이는 5~10cm이다. 야생종은 몸 윗면이 잿빛을 띤 갈색이다.

☞ 곳간 옆에는 늘 골방쥐들이 득실거렸다.

골뱅이: 수염고둥과의 동물. 원뿔형이며 나사커에 두 줄의 굵은 나락이 있다.

☞ 술안줏감으로 골뱅이가 최고야.

골뱅이²: ① ‘다슬기’의 방언

② 다슬기과의 연체동물. 몸의 길이는 2cm 정도이며,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이고 때로 흰 얼룩무늬가 있다.

☞ 민물 골뱅이는 해장국에 넣어 먹으면 좋대.

골뱅이³: ① ‘달팽이’의 방언

② 복족류 달팽이과의 속한 연체동물. 보통 네 개의 가로무늬가 있고 등에는 나사꼴의 껍데기가 있으며, 머리에는 두 쌍의 촉각이 있다.

☞ 습한 곳에 가른 골뱅이가 드문드문 보인다.

골병: ① ‘골병’의 방언

②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속으로 깊이 든 병.

☞ 무리하게 일 했더니 골병 들은 것 같애.

골짜구니 : ‘골짜기’의 방언

☞ 그 골짜구니에 들어가든 놀기 좋아.

곰방중우 : ① ‘잠방이’의 방언

②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훌바지.

☞ 옷통을 벗어부치구 곰방중우만 걸쳤다.

곰배 : ① ‘고무래’의 방언

② 곡식을 그려모으고 퍼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丁’자 모양의 기구.

☞ 보강지 가차이 늘 곰배가 있었다.

곰뱃대 : ① ‘담뱃대’의 방언

②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구.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 할아버지는 늘 곰뱃대를 차구 다니셨다.

곰버섯 : ‘까치버섯(먹버섯)’의 방언

☞ 모처럼 산에 들었다가 귀한 곰버섯을 따다.

곰치 : ① ‘곰치’의 방언

② 곰치과의 바닷물고기. ‘물곰’ ‘물텀벙’ ‘물메기’라고도 함.

☞ 숙취에는 곰치국이 최고 해장국거리였어.

곰치다 : ‘숨기다’의 방언

☞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얼른 곰다.

곰새 : ① ‘곰사등이’의 방언

② ‘척추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곰새가 짐 지나 마나다.

곰새² : ① ‘용마루’의 방언

② 지붕의 마루.

☞ 이영에 제일 중요한 건 곰새를 엮는 일이다.

공갈 : ‘거짓말’의 방언

☞ 가는 말 같지 않는 공갈만 치구 있었다.

공구다 : ① ‘고르다’의 방언

②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 울퉁불퉁한 길바닥을 편평하게 공구기 시작했다.

공구리 : ‘콘크리트’의 일본식 표현

☞ 길바닥이 패 나가자 공구리를 쳤다.

공치 : ① ‘꽂치’의 방언

② 꽂치과의 바닷물고기.

☞ 사월이든 공치가 잡히기 시작했었다.

과재 : ‘과자’의 방언

☞ 과재 맛 들이든 밥맛이 없다.

과즐(과질) : ‘과줄’의 방언

☞ 명절 지사에는 과즐이 반드시 있어야 해.

관뒤 : ‘그만 뒤’의 방언

☞ 관뒤. 다시 시키지 않을께.

관태(貫太) : 건조된 명태를 찌리나무에 꿰는 작업.

☞ 명태가 덕장에서 마르는 수무 마리씩 관태를 했었지.

괄새 : ① ‘괄시’의 방언

② 업신여겨 하찮게 대함.

☞ 돈 없구 뺨 없으니 괄새가 심하다.

광 : ‘곳간’의 방언

☞ 속담에 광에서 인심 난다구 했어.

광밥 : 옥수수 따위의 곡식 튀밥을 이르는 방언

☞ 남녀노소의 유일한 간식은 광밥이었어.

광솔 : ① ‘관솔’의 방언

②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

👉 불쏘시개는 광솔이 최고이었지.

광우리 : ① ‘광주리’의 방언

② 대, 싸리, 버들 따위를 재료로 하는 바닥은 둥글고 촘촘하게, 전은 성기게 엮어 만든 그릇.

👉 봄나물 한 광우리 쌀뜨물 얼마 안 돼.

광이 : ① ‘괭이’의 방언

②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 칩 캐널 때에는 광이가 꼭 있어야 돼

광지리 : ① ‘광주리’의 방언

② 대, 싸리, 버들 따위를 재료로 하는 바닥은 둥글고 촘촘하게, 전은 성기게 엮어 만든 그릇.

👉 아가리가 광지리만 해두 말을 못 한다.

괘니 : ‘괘히’의 방언

👉 오늘 바쁘지도 않은 데 괘니 일찍 보냈어.

괘시리 : ① ‘괘스레’의 방언

② 까닭이나 실속이 없는 데가 있게.

👉 엉거주춤한 태도가 괘시리 마음에 걸렸다.

괴 : ① ‘고양이’의 방언

② 고양이과의 하나. 원래 아프리카의 리비아살행이를 길들인 것으로, 턱과 송곳니가 특히 발달해서 육식을 주로 한다.

👉 쥐 잡는 괴가 외레 닭을 잡아.

괴비 : ① ‘고비’의 방언

② 고빋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1미터 정도이며, 뿌리줄기는 덩이모양이다.

👉 고사리보담 괴비가 훨씬 더 맛있어.

괴빼 : ① ‘고빼’의 방언

② 소나 말을 몰거나 부리려고 코뚜레, 굴레에 잡아매는 줄.

👉 괴빼가 길은 잡힌대.

괴타리 : ① ‘재래종 자두’의 방언

② 자두나무의 열매. 살구보다 조금 크고 껍질 표면은 털이 없이 매끈하며 맛은 시큼하며 달콤하다.

👉 괴타리가 너무 시어서 침이 나온다.

괘 : ① ‘고욤’의 방언

② 고욤나무의 열매. 감보다 작고 달면서 좀 떼다.

👉 괘은 몸이 따뜻한 사람들에게 잘 맞는 약재로 쓰인다.

괘짚다 : ‘괘았다’의 방언

👉 손가락 상처가 오래돼 괘긴 것 같애.

구녕 : ‘구멍’의 방언

👉 쇠털을 뽑아 지 구녕에 박는대.

구데기 : ① ‘가시’의 방언

②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

👉 날씨가 더워서 음식에 구데기가 났어.

구데기² : ① ‘구더기’의 방언

② 파리의 애벌레. 차차 자라 꼬리가 생기고 번데기가 되었다가 파리가 된다.

👉 구데기가 나중에 파리가 되구 번데기가 돼.

구들 : ① ‘구들’의 방언

② 고래를 켜고 구들장을 덮어 흙을 발라서 방바닥을 만들고 불을 때 난방을 하는 구조물.

👉 구들이 지대루 돼야 바닥이 따뜻하지.

구들장 : ① ‘구들장의 방언

② 방고래 위에 깔아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

☞ 고래에 구돌짱을 올리는 일은 기술이야.

구라 : ‘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엉뚱하게 구라 치지 마라(거짓말 하지 마라).

구렁창 : ① ‘구렁텅’의 방언

② 몹시 험하고 깊은 구렁.

☞ 가는 구렁창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어.

구레이 : ① ‘구렁이’의 방언

② 뱀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110~120cm 정도이며 180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 구레이 담 넘어가듯 하네.

구렁이 : ① ‘구렁이’의 방언

② 뱀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110~120cm 정도이며 180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 구렁이지 몸 추듯 한다.

구로 : ‘성계’의 방언으로 검은성계를 이르는 말.

☞ 요즈음 성계는 알땅구보다 구로가 더 많아.

구르므 : ‘크림’의 방언

☞ 동동 구르므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구먹다 : ‘구워먹다’의 방언

☞ 애들 하루 감재 구먹던 일이 제일 기억나.

구박 : ① ‘쇠죽바가지’의 방언

② 쇠죽을 푸는 바가지. 소나무를 손잡이 달린 바가지 모양으로 파서 만든다.

☞ 여물 풀 때에는 구박이 있어야 돼.

구베 : ① ‘굽이’의 방언

② 휘어서 구부러진 곳.

☞ 편평한 길에는 구베가 없어야 돼.

구석배기 : ① ‘구석’의 방언

② 모퉁이의 안쪽

☞ 그 집은 동네 구석배기에 있었지.

구수 : ① ‘구유’의 방언

②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흔히 큰 나무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다.

☞ 구수는 부엌 한 칸에 외양간 입구에 있었다.

구엥 : ‘구멍’의 방언

☞ 바늘구엥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구웁 : ① ‘구유’의 방언

②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흔히 큰 나무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다.

☞ 외양간 구웁은 통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어.

구참다 : ‘귀찮다’의 방언

☞ 무슨 일이든지 하기 싫으면 구참다구 한다.

구팡 : ① ‘토방(土房)’의 방언

② 방에 들어가는 문 앞에 좀 높이 편평하게 다린 흙바닥.

☞ 옛날 대부분 집 문턱엔 구팡이 높았다.

국시 : ‘국수’의 방언

☞ 잔칫집에 가든 국시를 먹었다.

군서방질 :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정을 통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군서방질 하는 여자는 정말 나쁜 여자야.

굴레바꾸 : ‘바퀴’ ‘굴렁쇠’의 방언

☞ 굴레바꾸는 잘 굴러가야 좋은 거야.

굴밤 : ① ‘도토리’의 방언

②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따위의 열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묵을 쑤어 먹기도 한다.

☞ 굴밤을 삭혀서 한겨울 간식으로 먹었지.

굶다 : ‘굶다’의 방언

☞ 먹을 게 없어 사흘 굶다가 제우 나왔다.

궁뎡이 : ‘궁둥이’의 방언

☞ 궁뎡이가 크면 오래 산대.

귀 : ‘괘’의 방언

☞ 귀가 망가지지 않게 잘 옹개야 해.

귀 때굶다 : ① ‘귀 따갑다’의 방언

② 소리가 날카롭고 커서 듣기에 괴롭다.

☞ 시끄럽게 떠들어서 귀가 때굶다.

귀경 : ‘구경’의 방언

☞ 굿 귀경 하려면 계멘떡이나오도록 한다.

귀뚜래미 : ① ‘귀뚜라미’의 방언

② 메뚜기목 귀뚜라미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늦가을에 귀뚜래미가 집안을 돌아 땡긴다.

귀부랄 : ① ‘긱불(긱밥)’의 방언

② 귤바퀴의 아래쪽으로 늘어진 살.

☞ 그 사람은 귀부랄이 잘 생겼어.

귀뽕생이 : ‘귀’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싸가지 없는 놈에게 귀뽕생이를 올려 부쳐야지.

귀알기 : ① ‘긱불(긱밥)’의 방언

② 귤바퀴의 아래쪽으로 늘어진 살.

☞ 그 친구는 귀알기가 부처님 귀를 닮았어.

귀옹 : ‘구멍’의 방언

☞ 귀옹은 팍을수록 커진대.

귀재비 : ① ‘구석’의 방언

② 모퉁이의 안쪽

☞ 그 집 논은 버덩 귀재비에 있어.

귀젓 : ① ‘긱불(긱밥)’의 방언

② 귤바퀴의 아래쪽으로 늘어진 살.

☞ 그 사람 귀젓은 큰 사람 될 상이야.

귀창 : ① ‘귀지’의 방언

② 귤구멍 속에 낀 때.

☞ 귤구멍에 귀창이 팍 찔어.

귀청 : ① ‘귀지’의 방언

② ‘귤구멍 안쪽에 있는 막’과 다른 뜻임.

☞ 가끔씩 귀청을 소지해야 귤병이 없어.

귀탱이(귀타리, 귀따리) : ① ‘귀통이’의 방언

② 사물이나 마음의 한구석이나 부분.

☞ 동네 귀탱이에 오막살이가 있어.

귀테기 : ① ‘구석’의 방언

② 모퉁이의 안쪽.

☞ 발 귀테기에 쟁기를 놓아두었지.

긱방맹이 : ① ‘귀싸대기’의 방언

② 귀와 뺨의 어름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귀방맹이를 올레 부쳐.

긱방울 : ① ‘긱불(긱밥)’의 방언

② 귤바퀴의 아래쪽으로 늘어진 살.

☞ 그 아이씨 긱방울이 너무 잘 생겼다.

긱뿌리 : ① ‘긱불(긱밥)’의 방언

② 귤바퀴의 아래쪽으로 늘어진 살.

그 질로(그 질루) : ‘그 길로’의 방언

☞ 가는 그 질루루 학교에 달레갔다.

그그제 : ‘그그저께’의 방언

☞ 그 사람들은 그그제 여길 다녀갔다.

그글때 : ‘그글피’의 방언

☞ 온다구 한 날이 그글때였어.

그느므새끼 : ‘그놈의 새끼’의 방언

☞ 그 느므새끼가 망신을 다 썼어.

그따구 : ‘그따위’의 방언

☞ 그 따구가 뭘 책임자라구 떠들어.

그딴 소리 : ‘그런 소리’의 방언

☞ 그딴 소리하지 말구 솔직하게 말해.

그래 각구(그래 가꼬) : ① ‘그래서’의 방언

②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 각구 오늘 새 지갑을 살 거야.

그래 노니까 : ‘그렇게 해 놓으니까’의 방언

☞ 하지만. 그래 노니까 함부루 하지 못했어.

그러모다 : ① ‘그러모으다’의 방언

② 흩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거두어 한곳에 모으다.

☞ 함께 갈 사람들을 그러모았다.

그르터기(그르테기) : ① ‘그루터기’의 방언

② 풀이나 나무 따위의 아랫동아리 또는 그것들을 베고 남은 아랫동아리.

☞ 낭구를 비고 나온 그르터기가 남아.

그마리 : ① ‘거머리’의 방언

② 거머리강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모내기 하다보곤 다리에 그마리가 막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었어.

그마이다 : ‘그만이다’의 방언

☞ 거길 한기는 그마이다.

그만침 : ‘그만큼’의 방언

☞ 흠을 퍼냈으면 그만침 채워야지.

그뭉 : ① ‘그믐’의 방언

② 음력으로 그달의 마지막 날.

☞ 그뭉에는 밤길이 무서워.

그잔아도(그잔아두) : ‘그렇지 않아도’의 방언

☞ 그잔아두 연락할라구 했는데 왔네.

그제 : ‘그저께’의 방언

☞ 그제 그 사람들이 다녀갔었지.

그지(그치) : ① ‘그렇지’의 방언

② 틀림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하는 말.

☞ 내 말이 맞지? 그지?

그쪽 : ‘그쪽’의 방언

☞ 그쪽은 늘 그런 방식으로 나왔어.

근내 : ① ‘그네’의 방언

② 민속놀이의 하나. 또는 그 놀이 기구.

☞ 그 아줌마는 동네 근내뛰기 선수였어.

근내가다 : ‘건너가다’의 방언

☞ 애기한 사람은 이미 개울을 근내갔다.

근네 : ① ‘밑신개’의 방언

② 두 발을 디디거나 앉을 수 있게 그 넷줄의 맨 아래에 걸쳐 있는 물건.

☞ 근네에 올라서문 뒤에서 앞으로 밀어줬어.

근들지마 : ‘건들지마’의 방언

☞ 나 근들지마. 근들은 열 받아.

글거 모:다 : ① ‘그러모으다’의 방언

② 흩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거두어 한곳에 모으다.

☞ 땅바닥에 쏟아진 씨알을 한데 글거모았다.

글거리 : ① ‘그루터기’의 방언

② 풀이나 나무 따위의 아랫동아리.
또는 그것들을 베고 남은 아랫동아리.
☞ 땅에 남은 글거리를 몽땅 파냈다.

글짜 : ‘글자’의 방언

☞ 글짜는 갈수록 점점 커졌다.

글패 : ‘글피’의 방언

☞ 그 사람을 만난 건 글패였다.

금땡이 : ‘금덩어리’의 방언

☞ 거기서 금땡이가 나올 줄 몰랐어.

금버섯 : ① ‘기미’의 방언

② 얼굴에 끼는 거뭇한 얼룩점.
☞ 그 친구 얼굴에는 금버섯이 너무 많아.

금싸래기 : ‘금싸라기’의 방언

☞ 흥년에는 낱알 자체가 금싸래기다.

금작스레 : ‘갑작스레’의 방언

☞ 사람 이름을 금작스레 바꿔 당황했다.

금짜기 : ‘갑자기’의 방언

☞ 오늘 금짜기 계획된 일정이 바꿨다.

기 : ① ‘게’의 방언

② 갑각목의 갑각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기두 지 구멍이 아니론 들어가지 않는다.

기가다 : ‘기어가다’의 방언

☞ 개진 워낙 위험한 곳이라 기갔다.

기곤 : ‘기껏’의 방언

☞ 기곤 설명했더니 알아듣지 못했다.

기니까 : ‘그러하니까’의 방언

☞ 자꾸 옆에서 기니까 더 떨리잖아.

기다라타 : ‘기다랗다’의 방언

☞ 새루 구입한 지팡이가 너무 기다라타.

기달리다 : ‘기다리다’의 방언

☞ 가는 그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기들다 : ‘기어들다’의 방언

☞ 이쁘다구 봐줬더니 막 기들었다.

기따가 : ‘이따가’의 방언

☞ 사람들이 떠나자 ‘기따가 다시 올게’하구 돌아갔다.

기똥차다 : ① ‘기막히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② 어떤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 없다.
☞ 그것 참 기똥찬 생각이다.

기란 : ‘달걀’의 방언

☞ 기란은 하루에 한 알씩 먹어두 좋다.

기래서 : ① ‘그래서’의 방언

②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 옷이 너무 비싸. 기래서 못 샀어.

기력지 : ‘길이’의 방언

☞ 가는 기력지가 보통보다 큰 편이야.

기레기 : ① ‘기러기’의 방언

② 오리과의 딸린 철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기레기는 철에 따라 이동하는 새다.

기맥히다 : ‘기막히다’의 방언

☞ 정말 기맥한 일이 아닐 수 없어.

기바리 : ① ‘게 조업’의 방언

② 바다에서 게를 잡는 어업.
☞ 요즘 기바리가 영 신통치 않아.

기별 : ‘기별’의 방언

☞ 간밤에 기별이 왔는데 오지 말래.

기여이 : ‘기여코’의 방언

☞ 올해에는 기여이 그 목표를 이룰 거야.

기억 : ‘기억’의 방언

☞ 다시 떠올리구 싶지 않은 기억이지.

기아집 : ‘기와집’의 방언

☞ 가난한 놈이 기아집만 짓는다.

기운 차래 : ‘기운 차려’의 방언

☞ 아프다고 쓰러지지 말구 기운 차래.

기정떡 : ① ‘증편’의 방언

② 여름에 먹는 떡의 하나. 멥쌀가루를, 막걸리를 조금 탄 뜨거운 물로 묽게 반죽하여 더운 방에서 부풀려 밤, 대추, 잣 따위의 고명을 얹고 틀에 넣어 찐다.

☞ 원래 술떡의 이름이 기정떡이라구 했다.

기집(기집애) : ‘계집(계집아이)’의 방언

☞ 기집은 남의 것이 곱고 자식은 지 새끼가 곱대.

기튼날 : ‘그 이튿날’의 방언

☞ 신부집에서 혼례식을 하구 기튼날 신랑집에 갔다.

길깡(질깡) : ‘길(道路)’의 방언

☞ 길깡에는 자갈화 모래가 깔려 있었다.

길깡역카리 : ‘길옆’ 또는 ‘갓길’의 방언

☞ 길깡역카리에는 버드낭구가 빼곡하게 서 있었다.

길르다 : ‘기르다’의 방언

☞ 집에서 강아지를 길르구 있다.

길쭉하다 : ① ‘길쭉하다’의 방언

② 조금 길다.

☞ 지팽이는 짧은 것보다 길쭉한 게 좋다.

까구루(까꾸루) : ‘거꾸로’의 방언

☞ 가는 난닝구를 까구루 입었다.

까까 : ‘아기 과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애기들은 까까 소리를 좋아한다.

까깝하다 : ‘갑갑하다’의 방언

☞ 말이 통하지 않아 까깝하다.

까귀 : ① ‘자귀’의 방언

② 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의 하나.

☞ 낭구를 다듬을 때는 까귀가 있어야 돼.

까득 : ‘가득’의 방언

☞ 물잔에 물을 까득 부어.

까마구 : ① ‘까마귀’의 방언

② 까마귀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까마구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매 : ‘까맣다’의 방언

☞ 얼굴이 타서 까매.

까먹었다 : ‘잊어버렸다’의 방언

☞ 어제 선생님 알려주신 말씀을 까먹었다.

까불어치다 : ① ‘까불거리다’의 방언

② 가볍게 자꾸 흔들려 움직이다. 또는 그렇게 하다.

☞ 어른들이 떠나자 남은 친구들이 까불어치기 시작했다.

까시낭그 : ‘아까시나무’의 방언

☞ 야산에 까시낭그가 많아.

까시다 : 우물을 ‘치다’의 방언

☞ 해마다 웅굴 까시는 일이 만만찮아.

까시방석 : ‘가시방석’의 방언

☞ 시집살이가 늘 까시방석이었다.

까시밭길 : ‘가시밭길’의 방언

☞ 가가 가는 길은 까시밭길이야.

까실구다 : ‘그슬리다’의 방언

☞ 불에 살짝 까실구는 좋은 데.

까치독사 : ‘살무사’의 방언

☞ 뱀 중에서 까치독사가 더 독해.

까탈스럽다 : ‘까다롭다’의 방언

☞ 그 사람은 유난히 까탈스럽다.

까투리 : ① 암컷 꿩

② 꿩과의 새. 닭과 비슷한 크기인데, 알락달락한 검은 점이 많고 꼬리가 길다.

☞ 공의 암컷을 까투리라고 해.

까사 : 머리를 깎는 ‘이발사’를 낮잡아 이르는 말.

☞ 군대에서 까사가 편한 보직이야.

까쟁이 : ① ‘갈퀴’의 방언

② 곡식이나 검불 따위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기구.

☞ 검불을 모으는 데 까쟁이가 있어야 돼.

까지 : ① ‘갈퀴’의 방언

② 곡식이나 검불 따위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기구.

☞ 낙엽을 모으려면 까지가 제일 좋아.

까짓대 : ① ‘삿대’ ‘상앗대’의 방언

② 배질할 때 쓰는 긴 막대.

☞ 배 나가려든 까짓대루 밀어야 돼.

깔따구 : ① ‘각다귀’의 방언

② 각다귀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늦여름에 깔따구에 물리든 통통 붓는다.

깔때기 : ① ‘딸꾹질’의 방언

② 가로막의 경련으로 들이쉬는 숨이 방해받아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증세.

☞ 깔때기 하는 걸 보니 뭘 흠쳐 먹었니?

깔뚜기 : ① ‘딸꾹질’의 방언

② 가로막의 경련으로 들이쉬는 숨이 방해받아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증세.

☞ 팔뚜기를 멈추려면 물 마이 먹어.

깔세 : 임대할 때, 임대 기간만큼의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월세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건물은 깔세루 내 났어.

깜덩이 : ‘검둥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 그의 벨명을 깜덩이라고 했어.

깜박 : 옥수수 따위의 곡식 튀밥을 이르는 방언

☞ 구수한 깜박은 군것질루 제일이지.

깜빵 : ① ‘감옥’의 방언

②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한때 ‘형무소’라고 부르다가 현재 ‘교도소’라고 고쳤다.

☞ 깜빵 갔다오른 대학 갔다왔다구 그래.

깍데기(깍떼기) : ① ‘깍데기’의 방언

② 알매를 빼내고 곁에 남은 물건.

☞ 그 놈 깍데기 훌쩍 뱃게야 해.

깍박 : ‘깜박’의 방언

☞ 지갑을 깍박 두구 나왔네.

깍작거리다 : ① ‘깍죽거리다’의 방언

② 신아 나서 몸이나 몸의 일부를 자꾸 방정맞게 움직이다.

☞ 잘난 체 깍작거리다가 망신 썼어.

깍추다 : ‘깍죽거리다’의 방언

☞ 너무 깍추지 마라 얻어맞는다.

깟시미 : ① ‘나막신’의 방언

②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오는 날이나 진땅에서 신게 된, 나무로 파서 만든 신.

☞ 요즘은 깟시미 아는 사람이 없어.

깡다지 : ‘역지 또는 강압’의 방언

☞ 안 될 일이었지만 깡다지루 밀어부다.

강소주 : ‘강소주’의 비표준어. 안주 없이 먹는 소주.

☞ 실의에 빠진 강 씨는 날마다 강소주루 마음을 달랬다.

강추위 : ‘강추위’의 비표준어. 눈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으면서 몹시 매운 추위.

☞ 연거푸 강추위가 이어졌다.

강파르다 : ① ‘강파르다’의 방언

② 몸이 야위고 파리하다

③ 성질이 까다롭고 괴팍하다.

☞ 가는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강팔랐다.

개고락지 : ① ‘개구리’의 방언

② 양서강 개구리목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개고락지 낱짝에 물 붓기다.

개구락지 : ① ‘개구리’의 방언

② 양서강 개구리목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개구락지두 움츠레야 된다.

개구리 : ① ‘개구리’의 방언

② 양서강 개구리목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개구리 올챙이 짝 생각 못한다.

개금 : ① ‘개암’의 방언

② 개암나무의 열매, 모양은 도토리 비슷하며 껍데기는 노르스름하고 속살은 젃빛이며 맛은 밤 맛과 비슷하나 더 고소하다.

☞ 상가두 개금맛을 잊지 못한다.

개까시 : ‘깨끗이’의 방언

☞ 방을 개까시 치우구 다네라.

개까탄 : ‘깨끗한’의 방언

☞ 개까탄 수건을 갖다 두어라.

깨놓구(깨놓고) : ① ‘까놓다’의 방언

② 마음속의 생각이나 비밀을 숨김없이 털어놓다.

☞ 깨놓구 말하든 속상할 일이야.

깨밀다 : ① ‘깨물다’의 방언

② 아랫니와 윗니가 맞닿을 정도로 세게 물다.

☞ 집 앞 개가 노는 애들을 깨밀었다.

깨보생이 : ‘깨가루’의 방언

☞ 국시에 깨보생이를 마이 넣어 줘.

깨입사구(깨잎싸구) : ‘깨잎’의 방언

☞ 깨입사구는 늘 고소하구 싹싸름해.

깨춤추다 : 몸이 작은 사람이 툭툭 까불어 대다.

☞ 기분이 좋아서 깨춤추구 다녔다.

깨했다 : ‘죽었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옷집 개가 어제 깨했다.

꺼꿀루 : ‘거꾸로’의 방언

☞ 조개는 늘 바지를 꺼꿀루 입었다.

꺼끄래기 : ① ‘까끄라기’의 방언

② 벼, 보리, 따위의 낱알 껍질에 붙은 깔끄러운 수염, 또는 그 동강이.

☞ 꺼끄래기 때문에 온몸이 근질근질하네.

꺼끄랭이 : ① ‘까끄라기’의 방언

② 벼, 보리, 따위의 낱알 껍질에 붙은 깔끄러운 수염, 또는 그 동강이.

☞ 마당하든 꺼끄랭이 땀에 묻지가 뵈애.

꺼끄럼 : ① ‘까끄라기’의 방언

② 벼, 보리, 따위의 낱알 껍질에 붙은 깔끄러운 수염, 또는 그 동강이.

☞ 꺼끄럼이 달라붙지 않게 단디 싸매.

꺼끄름 : ‘깜부기’의 방언

☞ 꺼끄름은 베나 옥시기에 나타나는 곰팡이다.

꺼떡없다 : ① “까딱없다”의 방언

② 아무런 변동이나 탈이 없어 온전하다.

☞ 등치가 있어서 아무리 먹어도 꺼떡없어.

꺼무리 : ‘껍데기’의 방언

☞ 햇볕에 그을려 꺼무리 훌쩍 벗겨졌다.

꺼병이 : ‘멍청이(바보)’의 방언

☞ 그 친구는 꺼병이야.

꺼정 : ‘까지’의 방언

☞ 니꺼정 떠나른 나 어떡하니?

꺼져 : ‘없어져’의 방언

☞ 재수 없는 놈, 꺼져.

꺼주하다 : ① ‘허름하다’의 방언

② 사람이나 물건이 표준에 약간 미치지 못한 듯하다.

☞ 늘 외양이 꺼주하다고 숭 봤어.

꺼대기 : ① ‘나막신’의 방언

②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오는 날이나 진땅에서 신게 된, 나무로 파서 만든 신.

☞ 지금 꺼대기 찾는 사람이 없어.

꺼뛰기 : ① ‘나막신’의 방언

②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오는 날이나 진땅에서 신게 된, 나무로 파서 만든 신.

☞ 꺼뛰기 신으론 걸음걸이가 불편해.

꺼재 : ‘건져’의 방언

☞ 얼릉 꺼재, 느즈른 이제 빼레.

꺼지다 : 국시(국수) ‘건지다’의 방언

☞ 솥에서 얼릉 국시를 꺼제야 뽕치 않아.

꺼끄롭다 : ① ‘꺼끄럽다’의 방언

② 무난하거나 원만하지 못하고 매우 거북한 데가 있다.

☞ 같은 친구끼리 아무래두 꺼끄롭다구 봐야지.

꺼리다 : ① ‘걸리다’의 방언

②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들키다.

☞ 서리하다 꺾레서 혼났어.

꺼끔하다 : ‘کمکم하다’의 방언

☞ 꺾끔하니까 누군지도 몰라.

꺼덩이 : ① ‘검둥이’의 방언

② 살빛이 검은 사람.

☞ 보지 못한 꺾덩이들이 마이 왔다갔다 해.

꺼떼기 : ① ‘껍데기’의 방언

②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껍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 조개 꺾떼기는 단단해서 까기 쉽지 않아.

꺼주리 : ① ‘껍질’의 방언

② 물체의 껍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

☞ 사과 꺾주리는 그냥 먹어도 돼.

꺼 : ‘경(쫄)’의 방언

☞ 증심꺼 찾아온다구 했는데.

꺼들다 : ‘껴들다’ ‘끼어들다’의 방언

☞ 말두 안 하구 막 꺾들어 짜증나.

꺼집다 : ‘꼬집다’의 방언

☞ 역구리를 자꾸 꺾집어 혼났어.

꺼가리 : ① ‘팽과리’의 방언

② 풍물놀이와 무악 따위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 늦쇠로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징보다 작으며 주로 풍물놀이에서 상쇠가 치고 북과 함께 굿에도 쓴다.

☞ 보름마다 꺾가리 치구 돌아다냈지.

꺼깔 : ‘고깔’의 방언

☞ 돌아다닐 때 고깔 쓴 북구쟁이가 켜해.

꼬감 : ① ‘곶감’의 방언

② 껍질을 벗기고 꼬챙이에 꿰어서 말린 감.

☞ 한겨울에 먹는 꼬감이 맛있지.

꼬갱이 : ‘고갱이’의 방언

☞ 짐장할 때 노란 배차 꼬갱이가 맛있다.

꼬니 : ① ‘고누’의 방언

② 땅이나 종이 위에 말밭을 그려 놓고 두 편으로 나누어 말을 많이 따거나 말길을 막는 것을 다투는 놀이.

☞ 애들의 유일한 놀이가 꼬니였어.

꼬대이 : ① ‘언덕’의 방언

②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 꼬대이까지 가려는 너무 심들어.

꼬댕이(꼬댕이) : ① ‘언덕배기’의 방언

② 언덕의 꼭대기. 또는 언덕의 몹시 비탈진 곳.

☞ 그 친구 집은 꼬댕이에 있었어.

꼬두바리 : ‘꼴지’의 방언

☞ 가는 반에서 늘 꼬두바리였어.

꼬두밥(고돌밥) : ‘고두밥’의 방언

☞ 고두밥은 이 좋은 사람들이 좋아해.

고들빼기 : ① ‘고들빼기’의 방언

② 국화과의 두해살이풀. 높이는 60cm 정도이며, 붉은 자줏빛을 띤다.

☞ 고들빼기 짐치가 입맛을 도꾸지.

고등패기 : ① ‘언덕배기’의 방언

② 언덕의 꼭대기. 또는 언덕의 몹시 비탈진 곳.

☞ 고등패기를 오르락거리는 증말 심들어.

고랑내(고린내) : ‘구린내’의 방언

☞ 아저씨들 밭에서 고랑내가 지독해.

고랑지(고랑데이) : ‘꼬리’의 방언

☞ 개가 기 죽으면 고랑지를 바루 내레.

꼬루밥 : ‘고두밥’의 방언

☞ 아버지는 늘 꼬루밥을 좋아하셨지.

꼬매다 : ‘꺾매다’의 방언

☞ 찢겨진 상처에 열 바늘 꼬맸다.

꼬매이(꼬맹이) : ‘꼬마’의 방언

☞ 꼬매이가 심부름 잘 하구 돌아왔다.

꼬먹다 : ‘구워먹다’의 방언

☞ 초저울 도루메기 꼬먹은 맛있어.

꼬바리 : ‘물뿌리개(물조리개)’의 방언

☞ 밭에 물 주려는 데 꼬바리 찾아와.

꼬시다(꼬다) : ① ‘꼬이다’의 방언

②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다.

☞ 일 부레 먹으려구 살살 꼬셨다.

꼬시다 : ① ‘고소하다’의 방언

② 볶은 깨, 참기름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 참지름은 냄새가 꼬시다.

꼬쟁이 : ① ‘꼬챙이’의 방언

② 가늘고 길면서 끝이 뾰족한 쇠나 나무 따위의 물건.

☞ 구녕에 꼬쟁이를 넣어 봐.

꼬쟁이떡 : 꼬챙이에 꿰 떡. 상여 나갈 때 일꾼들에게 나눠주던 떡.

☞ 엔날 꼬쟁이떡 오더 먹으려구 쫓아다녔다.

꼬추 : ‘고추’의 방언

☞ 작은 꼬추가 맵다.

꼬추장 : ‘고추장’의 방언

☞ 꼬추장 단지가 열둘이라두 서방님 비위를 못 맞춘다.

꼬치 : ‘고추’의 방언

☞ 꼬치가 귀야만 매우랴.

꼬치가루: ‘고춧가루’의 방언

☞ 짐장할 때 꼬치가루가 많아야 돼.

꼬치갈기: ‘고춧가루’의 방언

☞ 꼬치갈기 색깔두 이쁘구 참 좋네.

꼬치장: ‘고추장’의 방언

☞ 밥 비빔 때는 꼬치장이 최고야.

꼬타리: ① ‘꼬투리’의 방언

②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실마리.

☞ 말 꼬타리 잡구 시비 걸지 말아야.

꼭대기: ‘꼭대기’의 방언

☞ 꼭대기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

끈도: ‘그만 뒤’의 방언

☞ 이제 끈도, 더 이상 필요 없어.

끈도 빼레: ‘관둬 버려’ ‘고만뒤’의 방언. ‘고만두다’의 활용형.

☞ 승미에 안 맞으면 끈도 빼레.

끈지니: ① ‘고누’의 방언

② 땅이나 종이 위에 말밭을 그려 놓고 두 편으로 나누어 말을 많이 따거나 말 길을 막는 것을 다투는 놀이.

☞ 끈지니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끈총: ‘권총’의 방언

☞ 끈총 차른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

끈투: ‘권투’의 방언

☞ 우리 동네 유맹 끈투 선수가 있었어.

꼴딱지: ① ‘꼬락서니’의 방언

② ‘꼴’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그놈 꼴딱지도 보기 싫어.

꼴리는 대로: 제 마음 내키는 대로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지 꼴리는 대로 망하든 말든.

꼴뱅이(꼴배이): ① ‘골뱅이’의 방언

② 수염고둥과의 동물. 원뿔형이며

나사 커에 두 줄의 굵은 나륜(螺肋)이 있다.

☞ 술안주는 꼴뱅이가 최고여.

꼴초: ① ‘골초’의 센말

②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을 놀림조 이르는 말.

☞ 그 친구는 진짜 꼴초야.

꼴통: 머리가 나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놈이 그렇게 꼴통인 줄 몰랐네.

곰보: ① ‘곰보’의 방언 ② 얼굴이 얇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요즘 주변에서 곰보를 볼 수 없어.

곰뎡이: ① ‘돌고래’의 방언

② 이가 있는 돌고래과의 포유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가끔 곰뎡이 고기가 보였는데.

곰세: ① ‘곰사등이’의 방언

② ‘척추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곰세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공: ① ‘뽕’의 방언

② 뽕과의 새. 닭과 비슷한 크기인데, 알락달락한 점이 많고 꼬리가 길다.

☞ 산에 가야 공을 잡구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고 했어.

공돈: ① ‘공돈’의 방언

② 노력의 대가로 생긴 것이 아닌, 거저 얻거나 생긴 돈.

☞ 가끔 공돈 생기면 기분이 좋아.

공짜: ‘공짜’의 방언

☞ 공짜라든 양젓물두 먹는다고 했지.

공치바리: ① ‘공치조업’의 방언

② 바다에서 공치를 잡는 어업.

☞ 공치가 나지않으니 공치바리두 볼 수 없어.

꽃망우리 : ‘꽃망울’의 방언

☞ 핀 꽃보다 꽃망우리가 더 이쁘다.

꽃방우리 : ‘꽃봉오리’의 방언

☞ 봄이든 사방에 꽃방우리가 만발하지.

꽈대다 : 담배 따위를 ‘피워대다’의 낮잡아 이르는 말.

☞ 꺾초들이 연신 담배를 꽈땀다.

꽈지 : ① ‘갈퀴’의 방언

② 곡식이나 검불 따위를 굽어모으는데 쓰는 기구.

☞ 꽈지가 있어야 검불과 낙엽을 굽지.

꽈이다 : 제비뽑기 따위에서 배당이 없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재수 없는 놈은 무엇이든지 꽈이다.

꽤(꽈) : ① ‘재래종 자두’의 방언

② 자두나무의 열매. 살구보다 조금 크고 껍질 표면은 털이 없이 매끈하며 맛은 시큼하며 달콤하다.

☞ 덜 익은 꽤는 엄청 시다.

꽤리 : ① ‘파리’의 방언

② 가짓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40~90cm이며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이다.

☞ 꽤리 보기 습지 않아.

꽈새 : ① ‘꽈과리’의 방언

② 풍물놀이와 무악 따위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 놋쇠로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징보다 작으며 주로 풍물놀이에서 상쇠가 치고 북과 함께 굿에도 쓴다.

☞ 풍물패에서는 꽈새가 제일 세.

꽈수 : ① ‘상쇠’의 방언

② 두레패나 농악대 따위에서 꽈과리를 치면서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

☞ 농악대의 우두머리가 꽈수야.

꽈대가리(꽈때가리) : ‘피’의 방언으로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친구는 꽈대가리가 없어 늘 욕먹어.

꽈미 : ① ‘고명’의 방언

②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해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국시 위에 꽈미가 국시 맛의 한 수야.

꾸레미 : ‘꾸러미’의 방언

☞ 마늘 한 꾸레미 사른 오래 먹어.

꾸매 : ① ‘꾸며’의 방언

② 모양이 나게 매만져 차리거나 손질하다.

☞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데 잘 꾸매.

꾸물꾸물 : ① ‘꾸물꾸물하다’의 어근

② 날씨가 좋지 않다는 이르는 말.

☞ 날이 올라는지 꾸물꾸물 하네.

꾸불렁하다 : ① ‘꾸불텅하다’의 방언

② 느슨하게 구부러져 있다. ‘구불텅하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 웃마를 올라가는 길이 꾸불렁해.

꾸불리다 : ① ‘구부리다’의 방언

② 한쪽으로 구부러지게 굽히다.

☞ 그 안에 넣으려면 꾸불러야 돼.

꾸정물 : ① ‘구정물’의 방언

② 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해 더러워진 물.

☞ 찌든 때를 씻은 물은 꾸정물이야.

꼭물두 없다 : ① ‘국물도 없다’의 방언

② 돌아오는 몫이나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른 꼭물두 없다.

꿀데지: ‘돼지’의 방언

☞ 꿀데지 눈에는 꿀데지만 보인다.

꿀밤: ① ‘도토리’의 방언

②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따위의 열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묵을 쑤어 먹기도 한다.

☞ 꿀밤을 삭히른 한겨울 간식이다.

꿈지렁거리다: ① ‘구물거리다’의 방언

② 매우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구물거리다’보다 여린 느낌을 준다.

☞ 가는 시킬 때마다 꿈지렁거렸다.

췌바리: ‘췌등’의 방언

☞ 여전히 췌바리를 벗어나지 못했어.

퀴미다: ‘꾸미다’의 방언

☞ 퀴미른 퀴밀수록 더 돋보이지.

끄나풀(끄나푸리): ‘끈’의 방언

☞ 끄나풀은 문제를 푸는 실마리다.

끄내다: ‘꺼내다’의 방언

☞ 그 문제를 끄내자 말문을 막았다.

끄래 먹자: ‘끓여 먹자’의 방언

☞ 날 것보다 끄래 먹는 것이 좋다.

끄시레미: ① ‘그을음’의 방언

② 불에 탈 때 불꽃과 함께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같은 검은 가루.

☞ 끄시레미가 너무 심해, 문 닫아!

끄시렘(끄스름): ① ‘그을음’의 방언

② 불에 탈 때 불꽃과 함께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같은 검은 가루.

☞ 방마다 끄시렘이 매랜없어.

끄타리: ① ‘끄트머리’의 방언

② 끝이 되는 부분.

☞ 끄타리는 그냥 뒤두 좋아.

꼭다: ‘긱다’의 방언

☞ 솔밭에서 겸불을 끌거 모았다.

꼭쩍거리다: ① ‘긱적거리다’의 방언

② 되는데로 굴이나 그림 따위를 자꾸 마구 쓰거나 그린다.

☞ 말이 끝나자 도화지에 대충 꼭쩍거렸다.

끈치다: ‘그치다’의 방언

☞ 막 쏟아지던 비가 이제 끈쳤다.

끌는다: 줄 따위를 ‘풀다’의 방언

☞ 꼭때기에 묶인 줄을 끌었다.

끌음(끄르미): ① ‘그을음’의 방언

② 불에 탈 때 불꽃과 함께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같은 검은 가루.

☞ 끌음 땀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다.

끌둥이: ① ‘막둥이’의 방언

② ‘막내’를 귀엽게 이르는 말.

☞ 우리 끌둥이는 늘 귀엽 독차지였지.

끌타리: ① ‘끄트머리’의 방언

② 끝이 되는 부분.

☞ 배차 끌타리는 그냥 놔둬두 돼.

끌탱이: ‘끌’의 방언

☞ 끌탱이는 누구두 관심 없어.

끼미: ‘낌새’의 방언

☞ 끼미를 알구 벌써 그만 두었지.

끼안타: ① ‘껴안다’의 방언

② 두 팔로 감싸서 품에 안다.

☞ 그 둘은 넘어지듯 서루 끼안구 쓰러다.

끼이다: ① ‘끓이다’의 방언

② 액체를 몹시 뜨겁게 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이 솟아오르게 하다. ‘끓다’의 사동사.

☞ 한데서 라면 끼이른 그 냄새가 죽인다.

깁구다: ‘끼우다’의 방언

☞ 단추를 깁구문 훨씬 더 따뜻해.

깡기다: ‘끼이다’의 방언

☞ 그 틈새에 깡기른 움푹달삭 못해.



ㄴ으가리: ① ‘가(가장자리)’의 방언

②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

☞ ㄴ으가리를 발음대로 쓰기 어려워.

나가떨어지다: ‘공중 넘어지다’의 방언

☞ 힘으루 내 던지자 공중 나가떨어졌다.

나노주다: ‘나눠 주다’의 방언

☞ 가져온 떡을 돌아가면서 나노 주었다.

나댕기다: ‘나가 돌아다니다’의 방언

☞ 아버지는 늘 나댕기지 말라구 말씀하셨다.

나드리: ① ‘나들이’의 비표준어

② 집을 떠나 가까운 곳에 잠시 다녀오는 일.

☞ 가끔씩 나드리하는 재미에 산다.

나라미: ‘나란히’의 방언

☞ 사람들은 배급 받으레구 나라미 섰다.

나리채: ① ‘나루채’의 방언

② 씨레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길이는 75cm쯤이며, 그 두 끝에 붓줄을 잡아맨다.

☞ 씨레질 할 때 나리채를 메구 나왔다.

나른하다: 맥이 풀리거나 고단하여 기운이 없다. 힘이 없어 보드랍다.

☞ 잠을 설더니 온몸이 나른하다.

나릿가: ‘나룻가’의 방언

☞ 나릿가 사람들은 대체루 썩세 빠다.

나마이: ‘나이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 이제 나마이에게 일 시키른 안 돼.

나무(나므): ① ‘남의’의 방언

②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격.

☞ 나무 집 물건에 함부루 손대른 안 돼.

나물쿠다: ① ‘나무라다’의 방언

②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꼬집어 말하다.

☞ 엄마는 싸움이 끝나자 애들을 불러 일일이 나물쿠기 시작했다.

나미사: ① ‘남이야’ ‘남이야’의 방언

②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 질문 같은 걸 하였을 때 ‘니가 무슨 상관이야?’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인다.

☞ 나미사 전봇대루 이빨 쑤시든 말튼.

나발불다: ① 병째로 들어 마시다.

② 함부로 떠벌리다.

☞ 함부루 나발불다 걸리른 죽는다.

나사가 빠지다: ‘정신 상태가 해이해 지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저 친구는 완존 나사가 빠졌다.

나생이: ① ‘냉이’의 방언

② 십자회과의 두해살이풀.

☞ 봄나른 나생이 캐러 밭으루 돌아다냈어.

나알: ‘나흘’의 방언

☞ 그 사람은 나알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았대.

나참: ① ‘나원참’의 방언

② 뜻밖의 일로 놀라거나 언짢아서 어이없음을 나타내는 말.

☞ 나참, 말 같잖은 소리를 또 하네.

나할 : ‘나흘’의 방언

☞ 그 일은 나할이른 다 할 수 있을 거야.

낙수 : ‘낙시’의 방언

☞ 낙수하든 시간을 잘 가서 좋아.

낙수태(낙시태) : 낙시로 잡은 명태를 이르는 말.

☞ 명태는 낙수태가 깔끔한 맛이 있어.

낙숫대 : ‘낙시대’의 방언

☞ 놀래기 낙숫대는 시누대두 좋아.

낙씨질 : ‘낙시질’의 방언

☞ 현구현 날 낙씨질하구 돌아다니든 옥해.

난닝구 : ‘러닝셔츠’의 비표준어.

☞ 집에서는 난닝구 바람에 돌아다네.

난-자 : ‘비켜 앉아’의 방언

☞ 난-자, 성가시게 굴지말구.

날알(날알)¹ : ① ‘발곡식’의 방언

②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곡식의 알 (하나하나의 알).

☞ 날알을 흘리지 말구 잘 거둬서 행게.

날알(날알)² : ① ‘쌀’의 방언

② 쌀의 하나하나의 알.

☞ 귀한 날알을 함부루 버리지 마라.

날개미 : ‘날개’의 방언

☞ 닭 날개미 먹으면 바람 핀다구 했어.

날개미² : ① ‘지느러미’의 방언

② 물고기 또는 물에 사는 포유류가 몸이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 고기 날개미는 가끔씩 잘라야 먹기 좋대.

날마동 : ‘날마다’의 방언

☞ 그 사람은 날마동 문턱에 와서 서성텨어.

날물 : 서(西)에서 동(東)으로 흐르는 조류(潮流)

☞ 날물에 고기가 벨루 잘 잡히지 않아.

날새 : ‘날씨’의 방언

☞ 날새가 나빠서 오늘은 벨루 인데.

날새게 : ‘날렵하게’의 방언

☞ 문 열자마자 날새게 집안으로 들어섰다.

날새다 : ‘날렵하다’의 방언

☞ 젊은 사람이 역시 날새다.

날이 들었다 : ‘날씨가 개었다’의 방언

☞ 바람이 일자 비가 오던 날이 갑싸기 들었다.

날 잡아 잡수 : 하고 싶은 대로 해 보라고 상대방에게 제 몸을 내놓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소죽은 귀신처럼 날 잡아 잡수 했다.

날파리 : ① ‘하루살이’의 방언

② 하루살이목의 굵은꼬리하루살이, 무늬하루살이, 밀알락하루살이, 별꼬리하루살이, 병고리하루살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날이 어두워지자 어디서 날파리들이 몰레들었다.

남달르다 : ‘남다르다’의 방언

☞ 가는 하는 일마동 역시 남달랐다.

남박 : ① ‘이남박’의 방언

② 안쪽에 여러 줄로 고랑이 지게 돌려 파서 만든 함지박.

☞ 남박에다 콩을 가득 퍼 담았다.

남사스럽다 : ① ‘남세스럽다’의 방언

②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다.

☞ 이 나이 먹구 하는 일이 남사스럽다.

남부끄럽다 : ① ‘남부끄럽다’의 방언

② 창피하여 남을 대하기가 부끄럽다.

☞ 그 일을 당하구 보니 남부끄러웠다.

남편(남편) : ‘남편’의 방언

☞ 우리 남편은 참 착한 편이야.

납작하다 : ① ‘납작하다’의 방언

② 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

☞ 까불른 코를 납작하게 해 줘.

낭거지 : ‘나머지’의 방언

☞ 돈 계산하구 낭거지는 모두 갖다 줘.

낭구(낭그) : ① ‘나무’의 방언

②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

☞ 가지 많은 낭구 바람 잘 날 없다.

낭구떼기(낭그떼기) : ① ‘나무’의 방언

②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 일부.

☞ 저울엔 낭구떼기가 많아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낭떠러지기 : ‘낭떠러지’의 방언

☞ 뒷산 꼭대기 넘어가른 낭떠러지기야.

낫빤데기 : ‘낫(얼굴의 바닥)’을 낫잡아 이르는 말.

☞ 거기 가른 그 창구 낫빤데기 보기도 싫어.

낫살 : ① ‘나잇살’의 방언

② 지긋한 나이를 낫잡아 이르는 말.

☞ 낫살이나 먹은 노인들이 주책이야.

낫전 : ‘잔돈’의 방언

☞ 낫전은 저금통에 넣어 주른 좋아해.

내구레기 : ① ‘연기’의 방언

② 무엇이 불에 탈 때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 불 때른 내구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내구리 : ① ‘연기’의 방언

② 무엇이 불에 탈 때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 보강지 앞에 앉아 매운 내구리를 고스란히 먹었지.

내굽다 : ‘연기 때문에 맵다’의 방언

☞ 촌에서는 낭그 때니까 당연히 내굽다.

내곤재 : ‘내버려’의 방언

☞ 필요 없어, 내곤재.

내곤지다 : ‘내던지다’의 방언

☞ 전에 쓰던 고무래는 낡아 내곤다.

내달구다 : ‘내쫓다’의 방언

☞ 말썽 피운다구 내달구구 말았다.

내레 굴다 : ‘내려 구르다’의 방언

☞ 그 위에서 내레 굴다가 찢어다.

내레노타 : ‘내려놓다’의 방언

☞ 그 짐을 질 옆에서 내레놔어.

내레 뛰다 : ‘내려 뛰다’의 방언

☞ 말을 마치자마자 내레 뛰었다.

내레띠리다 : ‘내려뜨리다’의 방언

☞ 물건을 아래로 내레띠렸다.

내레박았다 : ‘내려박았다’의 방언

☞ 그 차가 개울창에 내레박았어.

내렷다 : ‘내렸다’의 방언

☞ 시세가 어제보다 내렷다.

내빼다 : ‘달아나다’의 방언

☞ 그렇게 해 놓구 공지 빠지라하구 내뺐다.

내우 : ‘내외(内外)’의 방언

☞ 두 내우는 금슬이 좋다.

내자다 : ‘계속 자다’의 방언

☞ 어제 오후부터 내자다.

내중에 : ‘나중에’의 방언

☞ 내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레구.

내질르다 : ‘내지르다’의 방언

☞ 그냥 내질르기만 할뿐 실속이 없어.

내튀다 : ‘달아나다’ ‘도망가다’의 방언

☞ 그 놈들이 일을 망쳐놓고 내튀었다.

넬름 : ① ‘날름’의 방언

② 무엇을 날째게 받아 가지는 모양.

☞ 개들은 먹이를 주자마자 넬름 받아먹었다.

넬저녁 : ‘내일저녁’의 줄인 말

☞ 넬저녁에 만나서 진하게 한 잔 하자.

넬지약 : ‘내일저녁’의 방언

☞ 넬지약에 우리 집에 몽땅 모에.

넬커놓다 : ‘내려놓다’의 방언

☞ 가다가 우리 집 문턱에 넬커 놔.

넠다빠다(넠다빠다) : ‘달아나다’의 방언

☞ 동네를 벗어나자마자 넠다빠다.

냉겨(냉게) : ‘남기다’의 활용형

☞ 다 못 먹으면 그냥 냉게.

냉구리 : ① ‘연기’의 방언

② 무엇이 불에 탈 때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 보케 냉구리가 심해 못 들어가겠어.

냉기다 : ‘남기다’의 방언

☞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냉겠다.

냉멘 : ‘냉면’의 방언

☞ 한겨울 냉멘이 더 맛있다.

냉중에 : ‘나중에’의 방언

☞ 냉중에 다시 한 번 도전해 봐라.

너래바우 : ① ‘너럭바위’의 방언

② 넓고 평평한 큰 돌.

☞ 여름철 너래바우 옆에서 물놀이하곤 좋아.

너매 : ‘넘어’의 방언

☞ 요 너매에 송이밭이 있어.

너시레 : ‘너스레’의 방언

☞ 그 놈들이 한동안 너시레를 떨구 잤다.

너이 : 숫자 ‘넷’의 방언

☞ 숫자 실 때 하나, 둘, 서이, 너이 이렇게.

너줄하다 : ① ‘너절하다’의 방언

② 허름하고 지저분하다.

☞ 그 놈은 늘썩 너줄하다구 욱 먹어.

넉동바리(넉동머리) : ① ‘넉동무니’의 방언

② 옷놀이에서, 네 동이 한데 포개어져 가는 말.

☞ 이번 판은 넉동바리에 끝났어.

넉매갈기 : ① ‘녹말가루’의 방언

② 감자, 고구마, 물에 불린 녹두 따위를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을 말린 가루.

☞ 집에 넉매갈기 있으면 조금만 보내.

넉쩍다 : ‘검연쩍다’의 방언

☞ 넉쩍어서 함부로 말을 건네지 못했지.

넠판대기(넠판지) : ① ‘넠판지’의 방언

② 판판하고 넓게 켜 나뭇조각.

☞ 넠판대기가 있어야 칸막이를 하는데

넠게뜨리다 : ‘넘어뜨리다’의 방언

☞ 등치 좋은 놈을 숨게 넠게 뜨렸어.

넠떡하다 : ‘넠적하다’의 방언

☞ 그 놈 얼굴이 넠떡하게 생겼지.

넠쪽(넠쪽하다) : ‘넠죽하다’의 방언

☞ 그를 찾아가 넠쪽 절했다.

넠기다(넠기다) : ‘넠기다’의 방언

☞ 그 사업을 그 사람한테 넠겼다.

노가리 : 명태 새끼를 이르는 말

☞ 명태 새끼 말린 노가리가 맛있다.

노가리²: ‘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노가리 까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노고지나무: ① ‘노간주나무’의 방언

② 측백나뭇과의 상록 침엽 교목. 높이는 8~10미터, 잎은 세 개씩 돌려나고 실 모양이다.

☞ 노고지나무는 기념식수로 많이 이용한다.

노골노골: ① ‘노글노글’의 방언

② 성질이나 태도가 좀 무르고 보드라운 모양.

☞ 그 사람은 노골노골한 성격이지.

노나(농가): ‘나뉘’의 방언

☞ 옥시기 한 접 사다가 농가 먹어.

노내기: ① ‘노래기’의 방언

② 노래기강의 절지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건드리면 둥글게 말리고 고약한 노린내를 풍기며, 햇볕을 싫어하고 주로 습기 많은 낙엽 밑이나 초가지붕에 많이 산다.

☞ 여름철 집 주변에 노내기가 많아.

노란 자우: 달걀 ‘노란 자위’의 방언

☞ 계란 노란 자우가 영양가가 높아.

노랭이: ① ‘노랑이’의 방언

② 속이 좁고 마음 씩씩이가 아주 인색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집을 노랭이네 집이라구 불렀다.

노레보다: ‘노려보다’의 방언

☞ 화가 났는지 한참 노레보았다.

노름: ① ‘노름’의 방언

②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

☞ 노름에 미치른 신주두 팔아먹는다.

노리: ① ‘노을’의 방언

②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하늘이 햇빛에 물들어 별경게 보이는 현상.

☞ 저녁 노리가 화려하든 조만간 날이 갠지.

노리대(누리대): ① ‘누룩치’의 방언

② 신행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50~100cm, 잎은 깃 모양으로 갈라지고 잎자루가 길다.

☞ 봄철 노리대엔 특별한 향과 맛이 있어.

노릿노릿: ‘노릇노릇’의 방언

☞ 고기가 노릿노릿 구워져 맛있게 보인다.

노박: ① ‘늘’의 방언

② 계속하여 언제나.

☞ 노박 실수해서 더 봐줄게 없어.

노을: ‘노을’의 방언

☞ 아침 노을이 더 멋있게 보에.

노친네: ‘늙은 어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노친네들은 행동이 더더서 늦는 편이지.

노푸다: ‘높다’의 방언

☞ 가을 하늘이 유난히 노푸다.

녹두적: ‘녹두전’, ‘부침개’의 방언

☞ 구수한 녹두적이 먹구 싶다.

녹빠: ① ‘노끈’의 방언

②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

☞ 집을 녹빠루 단디 묶어라.

논곡: ① ‘논곡식’의 방언

② 논에 심어서 나는 곡식.

☞ 버덩이 넓어 논곡이 조금 풍족한 편이지.

논골뱅이(논골뱅이): ① ‘논우렁이’의 방언

② 우렁이과의 연체동물. 겉데기는 직경 3cm, 높이 4cm 정도의 원뿔형으로 표면은 매끈매끈하고 어두운 녹색을 띤다.

☞ 논골뱅이 삶아서 반찬으로 먹어도 좋대.

논구다 : ‘나누다’의 방언

☞ 감자 한 박스를 반으로 논겼다.

논말기 : ‘논둑’의 방언

☞ 지난 장마에 논말기가 터져서 고상했다.

논밭떼기 : ‘논밭빼기’의 방언

☞ 논밭떼기 조금 팔아두 빚 갚으려든 모 잘라.

논빼미 : ① ‘논배미’의 방언

②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이 하나하나의 구역.

☞ 이 논빼미와 저 논빼미 합해두 그리 크지 않아.

놀기 : ① ‘노루’의 방언

② 사슴과의 포유류. 여름에는 누런 갈색이고 겨울에는 누런 흑색으로 꿈무늬에 흰 반점이 나타난다.

☞ 우리 밭에 놀기가 자주 나타나 골치 아파.

놀래미 : ① ‘놀래기’의 방언

② 놀랫기과의 바닷물고기.

☞ 하루 쟁일 놀래미 몇 마리만 잡구 말았어.

놀래다 : ‘놀라다’의 방언

☞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놀랬다.

놈팡이 : ‘놈팡이’의 방언

☞ 하는 짓거리가 놈팡이 하는 짓이다.

농 : ① ‘장롱’의 방언

② 옷 따위를 넣어 두게 만든 작은 장(櫥).

☞ 농 안에 옷을 잔뜩 넣어 두었어.

농가 : ‘나누어’의 방언

☞ 고구마 한 박스를 둘이 농가 먹어.

농구다 : ‘나누다’의 방언

☞ 옥시기 한 자루를 셋이 농겼다.

농본기 : ① ‘농번기(農繁期)’의 방언

② 농사일이 매우 바쁜 시기.

☞ 농본기에는 학교 가지 았구 집에서 놀았지.

농새 : ‘농사’의 방언

☞ 개가 지 주인을 보구 짓게 되어야 농새가 풍년이 든다.

농작대 : ① ‘농악대’의 방언

② 풍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무리.

☞ 정월 대보름에 농작대가 동네 집집마다 지신밟기를 했다.

농쟁이 : ① ‘농기구’의 방언

② 농사를 짓는데 쓰는 기구.

☞ 한창 농새철에는 농쟁이가 모잘라.

농 짝 : ① ‘장롱’의 방언

② 옷 따위를 넣어 두게 만든 작은 장(櫥).

☞ 옛날 농 짝 내다버리구 새 농 짝을 들에 왔어.

누덕바지 : ① ‘누더기’의 방언

② 누덕누덕 기운 헌 옷.

☞ 그 사람은 늘 누덕바지를 입구 다녔어.

누데기 : ① ‘누더기’의 방언

② 누덕누덕 기운 헌 옷.

☞ 그 스님은 늘 누데기를 걸치구 다녔어.

누르끼리 : ① ‘누리끼리하다’의 어근

② 곱지도 질지도 않게 누르다.

☞ 흰옷을 빨지 았아 누르끼리하다.

누룽지(술쟁이) : ‘누룽지’의 방언

☞ 낭그 때서 밥 하든 누룽지가 구수한 맛이다.

누우(누) : ‘누나’의 방언

☞ 그 누우는 어디로 시집 갔지?

누케(늬케) : ‘늬혀’의 방언

☞ 언나가 잠패롱을 하니까 얼렁 방 에 누케.

눈개삔 : ① ‘진눈개비’의 방언

② 비가 섞여 내리는 눈.

☞ 간밤에 눈개삔이 잔뜩 내렸나 봐.

눈거죽 : ‘눈가죽’의 방언

☞ 그 아주머이 눈거죽이 축 늘어.

눈까리 : ① ‘눈(눈알)’의 방언

② ‘눈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느므 자숙 눈까리가 삐었나 봐.

눈까풀 : ‘눈꺼풀’의 방언

☞ 눈다리끼 땀에 눈까풀이 내려앉았어.

눈깔 : ‘눈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싸가지 없는 놈이 눈깔에 뵈는 게 없는지?

눈꼬비 : ① ‘눈곱’의 방언

② 눈에서 나오는 진득진득한 액. 또는 그것이 말라붙은 것.

☞ 피죤진한 물골에 눈꼬비까지 덕지덕지다.

눈다래끼(눈다리끼) : ① ‘다래끼’의 방언

② 속눈썹의 뿌리에 굳이 들어가 눈시울이 발갛게 붓고 붉아서 생기는 작은 부스럼.

☞ 눈다래끼는 민간 처방으로 치료했어.

눈옹고찌 : ① ‘피라미’의 방언

② 잉엇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0~16cm이고 길고 납작하며 등 쪽은 푸른 갈색, 배 쪽은 은빛 흰색이고 옆구리에는 어두운 파란색의 가로 띠가

있다.

☞ 갯가에서 광지리루 눈옹고찌를 잡았다.

눈자우 : ① ‘눈자위’의 방언

② 눈알의 언저리.

☞ 눈자우가 툭툭 부었다.

눈종지 : ① ‘다래끼’의 방언

② 속눈썹의 뿌리에 굳이 들어가 눈시울이 발갛게 붓고 붉아서 생기는 작은 부스럼.

☞ 눈종지는 여름철에 마니 생기는 것 같애.

눈탱이 : ‘눈두덩’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밤새도록 울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

놀러 : ‘빨리’ ‘곧장’의 방언

☞ 가는 군대 갔다 오자마자 놀러 여길 떠났어.

놀루다 : ‘누르다’의 방언

☞ 감투가 큰 어깨를 놀룬다.

놀쿠다 : ‘놀리다’의 방언

☞ 갈수록 집이 비좁아서 서너 칸 놀켰어.

눔에(눔어,눔애) : ① ‘누에’의 방언

② 누에나방의 애벌레. 13개의 마디로 이루어졌으며 몸에는 검은 무늬가 있다.

☞ 옛날 눀에 키우는 집이 많았지만 이젠 거의 없어졌어.

눔에꼬치 : ① ‘누에’의 방언

② 누에나방의 애벌레. 13개의 마디로 이루어졌으며 몸에 검은 무늬가 있다.

☞ 뽕나무집에서는 눀에를 키워서 눀에꼬치루 팔았다.

늬엿늬엿 : ① ‘늬엿늬엿’의 방언

② 해가 곧 지려고 산이라 지평선 너머로 조금씩 차츰 넘어가는 모양.

☞ 어느덧 해가 뉘엇뉘엇 지구 있었다.

느른국시 : ‘틀국수’의 방언

☞ 촌에서는 겨울에 느른국시를 마니 먹었다.

느릉국 : ‘칼국수’의 방언

☞ 뜨끈한 느릉국이 추위를 녹여준다.

느리 : ① ‘우박’의 방언

② 큰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갑자기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

☞ 가끔 느리가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많아.

느물쩍거리다 : ① ‘느물거리다’의 방언

② 말이나 행동을 자꾸 능글맞게 하다.

☞ 느물쩍거리다가 늘 욕을 먹었다.

느지막히 : ① ‘느지막이’의 방언

② 시간이나 기한이 매우 늦게.

☞ 그날은 느지막히 사람들이 삼삼오오 찾아오기 시작했다.

늑시그레하다 : ① ‘늑수구레하다’의 방언

② 꽤 늑어 보이다.

☞ 늑시그레한 물결이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다.

늑쟁이 : ① ‘명아주’의 방언

② 명아쭈과의 한해살이풀. 바늘명아주, 섬명아주, 좀명아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늑쟁이는 다 크큰 지팽이루 만들었다.

늘 : ① ‘넌’의 방언

② 판판하고 넓게 켜 나뭇조각.

☞ 마룻은 늘을 가지런히 깔아야 한다.

늘마루 : ① ‘마루’의 방언

②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깔

넌빤지. 또는 그 넌빤지를 깔아 놓은 곳.

☞ 늘마루는 목재라서 촉감이 따사다.

늘쌍 : ① ‘늘’의 방언

② 계속하여 언제나.

☞ 영동지방은 늘쌍 바람과 함께 살구 있다.

능개 : ① ‘능개’의 방언

②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 가는 비.

☞ 봄에는 일교차 때문에 능개가 잦다.

능에집 : ① ‘뿔집’의 방언

② 띠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전통시장에는 능에집이 많아.

능청꾸레기 : ① ‘능청꾸러기’의 방언

② 능청을 잘 부리는 사람.

☞ 그 사람은 하는 짓마다 능청꾸레기답다.

늦둥이 : ‘늦둥이’의 방언

☞ 그 친구는 집안에서 늦둥이다.

니 : ‘너’ ‘당신’의 방언으로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는 말.

☞ 니, 밥 먹었나?

니 까진 게 : ‘너 같은 것이’의 방언

☞ 니 까진 게 해 봐야. 얼마나 하겠어?

니 깐 년 : ‘너 같은 년’의 방언

☞ 니 깐 년이 얼마나 갓겠어?

니 깐 놈 : ‘너 같은 놈’의 방언

☞ 건방지게 니 깐 놈이 해 봐야.

니미 : ‘너의 엄마’를 낮추어 부르는 말.

☞ 니미는 어디 갔니?

니야까 : ① ‘리어카’의 일본어식 표현

② 사람이 끄는, 바퀴가 달린 작은 수레.

☞ 니야까 바퀴가 낡아서 열매 못가 빵꾸 났어.



다구치다 : ‘다그치다’의 방언

☞ 숨기지 말라구 다구쳤다.

다드미돌(다디미돌) : ① ‘다듬잇돌’의 방언

②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는 돌.

☞ 집집마다 다드미돌이 있었다.

다듬망치 : ① ‘방망이’의 방언

② 옷감을 두드리거나 다듬는데 쓰기 위해 둥그스름하고 길게 깎아 만든 나무 도구.

☞ 다드미돌이 있으면 다듬망치두 있다.

다디기 : ‘다대기’의 일본어 표현

☞ 순대국을 먹을 때 다디기를 넣어야 더 맛있다.

다디미방치(망치) : ① ‘방망이’의 방언

② 옷감을 두드리거나 다듬는데 쓰기 위해 둥그스름하고 길게 깎아 만든 나무 도구.

☞ 다디미방치는 낭그루 깎아 만들었다.

다라이(다라) : 금속이나 경질 비닐 따위로 만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그릇.

☞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그릇이 다라다.

다락논 : ① ‘다랑논’의 방언

②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에 층층으로 되어 있는, 좁고 긴 논.

☞ 다락논은 대부분 깊은 골짜기에 있다.

다람지 : ① ‘다람쥐’의 방언

② 쥐목의 다람쥐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산길에서 가끔 다람지를 만난다.

다리고뱅이 : ‘무릎’의 방언

☞ 나이 들은 다리고뱅이가 아프다.

다리끼 : ‘다래끼’의 방언

☞ 눈에 다리끼가 나서 퉁퉁 부었다.

다서 : 숫자 ‘다섯’의 방언

☞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서 등이다.

다항통 : ‘성냥갑’의 방언

☞ 보강지 옆에는 늘 다항통이 있었다.

닥 : ‘닭’의 방언

☞ 닥은 풀어놓구 기른 촌닥이 더 맛있다.

닥달하다 : ① ‘닭달하다’의 비표준어

② 마구 몰아대어 나무라거나 올려메다.

☞ 손주가 장난감을 사달라구 닥달했다.

닥새끼 : ‘병아리’의 방언

☞ 닥새끼는 잘 길러야 살 수 있다.

닥집 : ① ‘닭의어리’의 방언

② 나뭇가지나 싸리 따위로 엮어 닭을 넣어 두는 물건. 우산을 반쯤 펴 놓은 것 같은 것도 있고, 둥우리처럼 만든 것도 있다.

☞ 닭을 키우려면 닥집을 단디 지어야 한다.

닥터래기 : ‘닭털’의 방언

☞ 닥터래기는 그리 쓸모가 없다.

단 : ① ‘뭍음’의 방언

② 짚, 땀나무, 채소 따위의 뭍음.

☞ 시금치는 단으로 묶어서 판다.

단디 : ‘단단히’의 방언

☞ 올타리를 단디 세워야 자빠지지 않는다.

단쓰 : ① ‘장롱’의 방언

② 옷 따위를 넣어 두게 만든 작은 장(櫛).
☞ 요즘 단쓰를 사오는 신부는 없다.

달갈 : ‘달갈’의 방언
☞ 달갈루 바우 치기다.

달갱이(달갱이) : ‘달갈’의 방언
☞ 닥을 키운 달갱이를 수시루 먹을 수 있다.

달게들다 : ① ‘달려들다’의 방언
② 사나운 기세로 무섭게 다가들다.
☞ 대문을 들어서자 무섭게 달게 들었다.

달기동지 : ‘닭장’의 방언
☞ 닥을 키우레는 우선 달기동지가 있어야 한다.

달기똥 : ‘닭의 똥’의 방언
☞ 달기똥이 거름에 제일 좋다고 하네.

달라 : ① ‘다르다’의 활용형, 르 불규칙 형용사
②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 사람들은 지각각 사는 모습이 달라.

달무레 : ① ‘달무리’의 방언
②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 달무레 지른 비가 온다는 속설이 있다.

달물 : ① ‘달무리’의 방언
②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 오늘 따라 달물이 크게 지었네.

담배 물뿌리 : ‘담뱃대 물부리’의 방언
☞ 노인네들은 담배 물뿌리를 가지구 다녔다.

담배락 : ‘담벼락’의 방언
☞ 담배락에 말하는 셈이야.

담뱃대(담뱃대) : ① ‘담뱃대’의 방언
②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구.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 할아버지는 담뱃대를 차구 다니셨다.

당구다 : ‘담구다’의 방언
☞ 짐장할 때 배차를 소금물에 당겼다.

당나구 : ‘당나귀’의 방언
☞ 집을 싣구 다니는 당나구 보기 숨지 않다.

당추재(당추새) : ① ‘당추자’의 방언
② 호두나무의 열매. 속살은 지방이 많고 맛이 고소하여 식용하며, 한방에서 변비나 기침의 치료, 동독(銅毒)의 해독 따위의 약재로 쓴다.
☞ 당추새는 약용으로 더 많이 쓰인다.

당투재(당투새, 당투지) : ① ‘당추자’의 방언
② 호두나무의 열매. 속살은 지방이 많고 맛이 고소하여 식용하며, 한방에서 변비나 기침의 치료, 동독(銅毒)의 해독 따위의 약재로 쓴다.
☞ 당투재는 맛이 고시구 영양가가 높아.

당파 : ‘쪽파’의 방언
☞ 파김치에 당파를 마니 사용한다.

대가리 : ① 사람의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② 동물의 머리.
☞ 그 골치 아픈 일 때문에 대가리 빠게 졌다.

대갈빠리 : ‘대가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놈 대갈빠리를 부세버래.

대갈통 : ‘머리통’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대갈통에 뭐가 들었길래.

대고말고(대구말구) : ‘되고말고’의 방언

☞ 하는 꼴이 대구말구다.

대구 : ① ‘자꾸’의 방언

② 잇달아 거듭하여

☞ 되지두 **않**을 일을 해 달라구 대구 조른다.

대궁 : ‘줄기’의 방언

☞ 마늘 대궁을 꼬치장에 무쳐두 맛있다.

대까지(대까치) : ‘대(대나무)’의 방언

☞ 바지랑대는 대까지가 좋다.

대꼬바리 : ① ‘담뱃대’의 방언

②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구.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 할아버지는 대꼬바리를 찾으셨다.

대리미 : ① ‘다리미’의 방언

② 다리미질하는 데 사용하는 쇠붙이로 바닥을 매끄럽게 만든 기구.

☞ 요즘은 전기대리미가 더 많다.

대리바우 : ‘다리 바위’의 방언

☞ 옛날엔 교암(橋岩)을 대리바우라고 불렀대.

대림질 : ‘다림질’의 방언

☞ 대림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보름 : ‘대보름’의 방언

☞ 대보름에 망월놀이를 마니 했다.

대염 : ① ‘대님’의 방언

② 한복 바지를 입은 뒤에 그 바짓가랑이 끝을 접어서 발목에 졸라매는 끈.

☞ 한복 바지에는 대염이 꼭 있어야 된다.

대임 : ① ‘대님’의 방언

② 한복 바지를 입은 뒤에 그 바짓가랑이 끝을 접어서 발목에 졸라매는 끈.

☞ 대임을 묶을 줄 몰라 애먹었다.

대장간 : ① ‘대장간’의 방언

② 풀무를 차려 놓고 쇠를 달군 후 두드려서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 동네 대장간들이 없어진지 오래됐다.

대태(太太) : 크기로 분류할 때 가장 큰 명태.

☞ 명태 중에 대태가 제일 크고 비싸다.

대터리 : ‘재떨이’의 방언

☞ 옛날에는 집집마다 대터리가 있었다.

댓 : 숫자 ‘다섯’의 방언

☞ 사람들이 너댓 명이 찾아왔다.

댓거덩(댓거렁) : ‘됐거든’의 방언

☞ 댓거렁, 그런 말 하지 마.

댓님 : ① ‘대님’의 방언

② 한복 바지를 입은 뒤에 그 바짓가랑이 끝을 접어서 발목에 졸라매는 끈.

☞ 한복 입을 때는 댓님을 꼭 매야 해.

댓돌 : ‘댓돌’의 방언

☞ 옛날 집 문턱에는 댓돌이 있었다.

댓병 : ‘뒤틀병’의 비표준어

☞ 상갓집에 갈 때는 댓병을 들구 갔었다.

댕기다 : ‘다니다’의 방언

☞ 설날 친척 집에 새해 인사하러 댕겼다.

더대기 : ① ‘더덕’의 방언

②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풀.

☞ 더대기는 오래될수록 향이 좋다.

더바지 : ‘덤’의 방언

☞ 사둔집에 갈 때 더바지에 신경 썼다.

더벽머리 : ① ‘떠꺼머리’의 방언

② 머리카락이 길고 단정치 못함을 이르는 말.

☞ 옛날에는 더벽머리 총각이 인기 있었다.

더병머리 : ① ‘떠꺼머리’의 방언

② 머리카락이 길고 단정치 못함을 이르는 말.

☞ 머리를 찢르지 않아서 더빙머리가 됐지.

덕장: 명태 따위를 말리려고 덕을 매어 놓은 곳, 또는 그렇게 맨 덕.

☞ 불땡에는 덕장이 많았구 덕장엔 맹태가 개락이었어.

덜 익다: ‘설익다’의 방언

☞ 덜 익은 감은 펴다.

덤탱이: ‘덤터기’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사람은 고스란히 덤탱이 쓰구 갔다.

덧조고리: ‘저고리’의 방언

☞ 누가 덧조고리 벗어 놓고 가버렸다.

덩구리: ① ‘덩굴’의 방언

② 길게 뻗어 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

☞ 발머리에 덩구리가 개락이다.

데우다: ① ‘덥히다’의 방언

② 사물의 온도를 높이다. ‘덥다’의 사동사

☞ 식은 국을 따시게 데워야 좋다.

데지: ‘돼지’의 방언

☞ 검은 강아지루 데지 만든다.

데지울간: ‘돼지우리’의 방언

☞ 데지울간 주변이라서 파리가 많다.

데피다: ‘덥히다’의 방언

☞ 정종은 따시게 데피문 먹기 좋다.

델구: ‘데리고’의 방언

☞ 아 델구 방금 집을 나갔어.

델다줘: ‘데려다 줘’의 방언

☞ 가는 길이 밤길이라 델다 줘야 해.

데미: ‘덤벼’의 방언

☞ 여기 있는 놈들 몽땅 데미.

데미다: ‘덤비다’의 방언

☞ 워낙 날새기 때문에 함부루 데미다가 혼나.

도꾸: ① ‘도끼’의 방언

② 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

☞ 도꾸 자루 썩는 줄 몰른다.

도꾸리: 털실로 짠 옷깃이 없는 ‘윗도리(상의)’로써 일본어식 표현

☞ 겨울에 도꾸리 입는 애들이 많았지.

도뀌: ① ‘도끼’의 방언

② 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

☞ 믿는 도뀌에 발등 찍힌다.

도동놈: ‘도둑놈’의 방언

☞ 도동놈들이 하두 많아서 조심해야 돼.

도루깨: ① ‘도리깨’의 방언

② 곡식의 낱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 긴 막대기 한끝에 가로로 구멍을 뚫어 나무로 된 비녀못을 끼우고, 비녀못 한끝에 도리깨열을 맨다.

☞ 콩을 떨 때는 도루깨가 있어야 돼.

도루메기: ‘도루묵’의 방언

☞ 도루메기를 엔날에 은어라고 했다.

도리: 처마를 마치는 나무

☞ 집 지붕을 올릴 때 도리가 마니 필요해.

도르깨: ① ‘도리깨’의 방언

② 곡식의 낱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 긴 막대기 한끝에 가로로 구멍을 뚫어 나무로 된 비녀못을 끼우고, 비녀못 한끝에 도리깨열을 맨다.

☞ 도르깨질 잘 모르는 사람두 많아.

도매: ① ‘도마’의 방언

② 칼로 음식의 재료를 썰거나 다질 때 밑에 받치는 것.

☞ 도매는 피나무가 좋다고 하대.

도맹치다 : ‘도망치다’의 방언

☞ 사람들이 찾아 나서자 곧바로 도맹쳤다.

도야지 : ‘돼지’의 방언

☞ 고기구이는 도야지가 최고야.

도장방 : 쌀, 잡곡 따위를 보관하는 곳간.

☞ 짙은 쌀은 도장방에 두었어.

도짜리 : ① ‘돗자리’의 방언

② 왕골이나 골풀의 줄기를 재료로 하여 만든 자리.

☞ 마당에 도짜리를 깔구 누운 최고지.

독새 : ① ‘독사’의 방언

② 이빨에 독이 있어 독액을 분비하는 뱀. 살무사과의 뱀.

☞ 따바리튼 독새에게 잘못 걸리운 클나.

독자리 : ① ‘돗자리’의 방언

② 왕골이나 골풀의 줄기를 재료로 하여 만든 자리.

☞ 평상에 독자리를 깔아.

돈구르마 : ① ‘그리마’의 방언

② 절지동물 그리마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집에서는 돈벌거지라구 잡지 말라구 해.

돈벌거지(돈벌격지, 돈벌각지) :

① ‘그리마’의 방언

② 절지동물 그리마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집에서는 돈벌거지 잡지 말라구 해.

돈구다 : ‘돈우다’의 방언

☞ 화를 돈귀서 잠을 못 잤어.

돈배기 : ‘돈보기’의 방언

☞ 노인들은 돈배기가 있어야 글짜가 잘 보에.

돌가재미 : ‘가자미’의 방언으로 가자미과의 바닷물고기 중 돌가자미

☞ 돌가재미를 쇠고기로 마니 먹지.

돌개바람(회오리바람) : 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돌개바람이 일어서 배를 못 나갔어.

돌깨 : ① ‘도리깨’의 방언

② 곡식의 낱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 긴 막대기 한끝에 가로로 구멍을 뚫어 나무로 된 비녀못을 끼우고, 비녀못 한끝에 도리깨열을 맨다.

☞ 콩 마당이에는 돌깨가 있어야 솟다.

돌멩이 : ① ‘돌덩이’의 방언

② 돌멩이보다 크고 바위보다 작은 돌.

☞ 단단한 근육이 돌멩이 같애.

돌망 : ① ‘맷돌’의 방언

②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

☞ 콩을 가는 데는 돌망이 있어야 돼.

돌맹이 : ① ‘돌’의 방언

② 흙 따위가 굳어서 된 광물질의 단단한 덩어리.

☞ 난데없이 돌맹이가 날아와 유리창을 찼다.

돌무더기 : ‘돌무더기’의 방언

☞ 길 양쪽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았다.

돌방개 : ① ‘가부좌’의 방언

② 부처의 좌법(坐法)으로 좌선할 때 앉는 방법의 하나.

☞ 돌방개는 부처님 앉는 방식이래.

돌방애 : ① ‘돌방아’의 방언

② 돌로 만든 방아.

☞ 곡식을 빻는 데는 돌방애가 있어야 돼.

돌빠우 : ① ‘돌’의 방언

② 흙 따위가 굳어서 된 광물질의 단단한 덩어리.

☞ 돌빠우에 가마우지가 잔뜩 앉았다.

돌빼이 : ① ‘돌’의 방언

② 흙 따위가 굳어서 된 광물질의 단단한 덩어리.

☞ 돌빼이를 골라내야 발이 온전하지.

돌부리 : ‘돌부리’의 방언

☞ 질 가다가 돌부리에 걸레 넘어졌다.

돌쟁이 : ‘석수’ ‘석공’의 방언

☞ 망주석은 돌쟁이가 있어야 돼.

돌쩌구 : ‘돌쩌귀’의 방언

☞ 여닫이문을 닫때 돌쩌구가 있어야 돼.

돌창문(들창문) : ① ‘들창’의 방언

② 들어서 여는 창.

☞ 요즘 돌창문 있는 집이 없어.

동개비 : ‘동갑내기’의 방언

☞ 그 여자와 나는 동개비아.

동고리 : ① ‘목말’의 방언

②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 애들은 동고리 해주면 좋아해.

동구래미 : ‘동그라미’의 방언

☞ 땅바닥에 동구래미를 그렸지.

동구렁다(똥구라타) : ‘동그랑다’의 방언

☞ 그 칭구 얼굴이 똥구라타.

동냥 : ① ‘동냥’의 방언

② 거지나 동냥아치가 돌아다니며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비는 일.

☞ 보름날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동냥 달라고 했어.

동삼 : 겨울의 석 달

☞ 동삼 내내 홀적삼으로 살았지.

동상 : ‘동생’의 방언

☞ 그 동상은 내 막둥이야.

동세 : ① ‘동서’의 방언

② 시아주버니, 시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 처형이나 처제의 남편을 이르는 말.

☞ 동세끼리 우애가 참 좋다.

동에매다 : ① ‘동여매다’의 방언

② 끈이나 새끼, 실 따위로 두르거나 감거나 하여 묶다.

☞ 머리에 끈을 짚곤 동에맸다.

동지미 : ‘동치미’의 방언

☞ 한겨울에는 시원한 동지미 국물이 최고야.

동태(凍太) : 얼린 ‘명태’를 이르는 말.

☞ 요즘 맹태가 귀해 동태국도 시원해.

동태바구 : ① ‘굴렁쇠’의 방언

② 어린아이 장난감의 하나. 쇠불이나 대나무 따위로 만든 둥근 태로써, 굴렁대로 굴리며 논다.

☞ 애들이 놀 때 동태바구를 갖고 놀았지.

동투 : ① ‘동티’의 방언

② 땅, 돌, 나무 따위를 잘못 건드려 자신(地神)을 화나게 하여 재앙을 받는 일. 또는 그 재앙.

☞ 성황 낭구 건딜은 동투난다구 했어.

똥 : ‘뒤꼍’의 방언

☞ 똥 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다.

되레 : ‘오히려’의 방언

☞ 잘못을 지적하자 되레 성질을 냈어.

되련님 : ① ‘도련님’의 방언

②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높여 이르기나 부르는 말.

☞ 되련님은 오늘만 혼자 다녀오세요.

되박 : ① ‘되’의 방언

②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양을 헤아리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 콩 한 되박 주세요.

되배 : ① ‘도배’의 방언

② 종이로 벽이나 반자, 장지 따위를 바르는 일.

☞ 백지가 너무 낡아 되배를 해야 했다.

되아지게 : ① ‘되게’의 방언

② 아주 몹시.

☞ 날씨가 되아지게 춥다.

되우 : ‘되게’의 방언

☞ 가는 아이씨한테 썰러서 되우 혼났어.

되잘라빠지다 : ① ‘되잡다’의 방언

② 올바르게 않거나 이치에 닿지 않다.

☞ 갈장은 늠이 되잘라빠지네.

되지게 : ① ‘되게’의 방언

② 아주 몹시.

☞ 까불다가 되지게 얻어 터졌다.

된고비 : ‘힘든 고비’의 방언

☞ 이제 된고비를 다 넘긴 것 같은데.

된바우 : ① ‘바위’의 방언

② 부피가 매우 큰 돌.

☞ 꼭때기 된바우를 넘어가야 해.

뒷박 : ‘되’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뒷박을 좀 더 실하게 쥐.

두구두구 : ① ‘두고두고’의 방언

② 여러 번에 걸쳐 오랫동안

☞ 그 늠은 두구두구 욕 먹을 짓을 했다.

두깨비(두깨비) : ‘두꺼비’의 방언

☞ 두깨비 파리 잡아먹듯 한다.

두내우 : ① ‘두 내외’의 방언

② 남의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두 내우가 하는 짓이 똑같애.

두더쥐 : ‘두더지’의 방언

☞ 두더쥐가 온 사방을 다 쑤세 놓았다.

두두레기 : ① ‘두드러기’ ‘사마귀’의 방언

② 피부 위에 낱알만 하게 도도룩하고 납작하게 돋은 반질반질한 군살.

☞ 몸에 두두레기가 매랜두 없다.

두란 : ‘뒤란’의 방언

☞ 두란에 가른 명석 말아놓은 게 있는데.

두럭 : ① ‘두둑’의 방언

② 논이나 밭을 갈아 골을 타서 두두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

☞ 밭에 두럭을 지어야 씨앗을 숨군다.

두럼(두름) : ① ‘두름’의 방언

② 물고기를 세는 단위로 20마리 단위.

☞ 맹태 한 두럼씩 껴서 찰닝쿨루 묶었다.

두렵다 : ‘두렵다’의 방언

☞ 그가 나타나든 갱판 칠까 늘 두렵다.

두렝이 : ① ‘두렁이(두루마기)’의 방언

② 외투처럼 생긴, 겹옷 위에 입는 우리나라 고유의 옷.

☞ 유림들은 늘 두렝이를 입었다.

두루다 : ‘두르다’의 방언

☞ 저울에는 목도리를 두루구 다녔다.

두루막 : ① ‘두루마기’의 방언

② 외투처럼 생긴, 겹옷 위에 입는 우리나라 고유의 옷.

☞ 옛날 옷은 두루막을 겹쳐야 정장이다.

두루매기 : ① ‘두루마기’의 방언

② 외투처럼 생긴, 겹옷 위에 입는 우리나라 고유의 옷.

☞ 요즘 두루매기 입는 사람이 별로 없지.

두벌짐 : ① ‘두벌김’의 방언

② 논이나 밭의 김을 두 번째로 매는 일.

☞ 두벌짐을 매른 절반 농새야.

둘러머치다 : ‘매어치다’의 방언

☞ 열 받는다구 쌀 잘기를 둘러머쳤다.

둘히 : 숫자 ‘둘’의 방언

☞ 하네 둘히 서이 너이 다서

둠박 : ① ‘부표’의 방언

② 물 위에 띄워 어떤 표적으로 삼는 물건.

☞ 바다에는 둠박을 띄워 영역을 표시했다.

둠병 : ① ‘웅덩이’의 방언

② 움푹 파여 물이 괴어 있는 곳.

☞ 둠병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둥갑하다 : ‘둔갑하다’의 방언

☞ 여우가 사람으로 둥갑했다는 전설이 있다.

둥개 : ① ‘목말’의 방언

②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 애들예겐 둠개를 해주는 좋아했다.

둥구미 : ① ‘먹둥구미’의 방언

② 짚으로 둠글고 울이 깊게 결어 만든 그릇. 주로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담는데 쓰인다.

☞ 둠구미에 도라지를 잔뜩 담았다.

둥굴다 : ‘둥글다’의 방언

☞ 바우가 아주 둠글구 이쁘다.

둥기둥기 : ① ‘둥개둥개’의 방언

② 아기를 안거나 쳐들고 어를 때 내는 소리.

☞ 둠기둥기 우리 아가 잘두 선다.

둥지리 : ① ‘닭의어리’의 방언

② 나뭇가지나 싸리 따위로 엮어 닭을 넣어 두는 물건. 우산을 반쯤 펴 놓은 것 같은 것도 있고, 둠우리처럼 만든 것도 있다.

☞ 둠지리에 가른 달갈이 있다.

뒤질병(뒤질병) : ‘죽을병’의 방언

☞ 그 나쁜 놈은 뒤질병이 걸렸대.

뒤간 : ① ‘변소’의 방언

②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 뒤간에 갈 적 마음 다르구 올 적 마음 다르다.

뒤꾸배 : ‘발뒤축’의 방언

☞ 신발이 깨물러 뒤꾸배가 다 까졌다.

뒤레박 : ‘두레박’의 방언

☞ 뒤레박은 우물 안에서 깨진다.

뒤지 : ① ‘뒤주’의 방언

②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 고방 뒤지에 가른 쌀이 있다.

뒤지다 : ① ‘뒤지다’의 방언

② ‘죽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오라질 놈 어디 나가 뒤져라.

드럽다 : ‘더럽다’의 방언

☞ 그 놈이 씻지두 않아 드럽다.

드레닥치다 : ① ‘들이닥치다’의 방언

② 갑자기 바짝 다다르다.

☞ 어느 날 그 집으로 갱찰들이 드레닥했다.

드레밀다 : ‘들이밀다’의 방언

☞ 하지 말라고 했는데 드레밀구 떴었다.

드레박 : ‘두레박’의 방언

☞ 우물가에는 드레박이 없었다.

드레보내다 : ‘들여보내다’의 방언

☞ 대문 밖에서 사람을 안으로 드레보냈다.

드루: ① ‘들’의 방언

②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

☞ 넓은 드루에는 찬바람이 돌구 있었다.

드문드문(또문또문): ‘띄엄띄엄’의 방언

☞ 밭에 씨앗을 드문드문 뿌렸다.

드물다: ‘드물다’의 방언, 옛말

☞ 요즘 부모 모시구 사는 사람이 드물다.

드세: ‘드셔요’의 방언, ‘들다’의 청유형

☞ 아버지, 얼렁 밥 드세.

드시다: ‘드세다’의 방언

☞ 나랏가 사람들은 대체루 드시다.

들구뛰다: ‘달아나다’ ‘들이뛰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들구뛰었다.

☞ 여자들은 버스 안에서 들구뛰었다.

들구패다: ① ‘들고패다’의 방언

② 마구 패다.

☞ 사람들은 그를 나쁜 놈이라구 들구패다.

들다: ‘개다’의 방언

☞ 지질거리던 날이 들었다.

들리다: ‘들르다’의 방언

☞ 가끔 집에 들레 차 한 잔하구 가.

들물: 동(東)에서 서(西)로 흐르는 조류(潮流)

☞ 비교적 들물 때에 고기가 안으로 더 들어와.

들북기다: ① ‘들북이다’의 방언

② 까다롭게 굴거나 잔소리하는 이에 게 괴롭힘을 당하다. ‘들북다’의 피동사.

☞ 성이 차지 않는다고 있는 사람들을 들북기 시작했다.

들어닥치다: ‘들이닥치다’의 방언

☞ 어제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들어닥쳤다.

들어마시다: ① ‘들이마시다’의 방언

② 물이나 술 따위를 목구멍 안으로 빨아들이다.

☞ 남는 국물을 한꺼번에 들어마셨다.

들어박다: ‘들이박다’의 방언

☞ 원하는 답이 돌아오지 않자 답답하다구 들어박았다.

들지름: ‘들기름’의 방언

☞ 음식에 들지름을 넣으은 맛이 달라.

등거리: ① ‘줄기’의 방언

② 고등 식물에 있어서 기본 기관의 하나. 식물체를 받치고 뿌리로부터 흡수한 수분이나 양분을 체관부, 물관부를 통해 각 부에 나르는 역할을 한다.

☞ 상치 등거리를 잘라 절임으로두 만들어 먹어.

등거지: ① ‘그루터기’의 방언

② 풀이나 나무 따위의 아랫동아리 또는 그것들을 베고 남은 아랫동아리.

☞ 등거지는 불에 오래 타.

등거지²: ① ‘줄기’의 방언

② 고등 식물에 있어서 기본 기관의 하나. 식물체를 받치고 뿌리로부터 흡수한 수분이나 양분을 체관부, 물관부를 통해 각 부에 나르는 역할을 한다.

☞ 등거지를 잘 손질하든 좋은 식재료가 돼.

등걸잠뱅이: ① ‘잠방이’의 방언

②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홑바지.

☞ 모심기 할 때는 등걸잠뱅이를 걸친다.

등날개: ① ‘지느러미’의 방언

② 물고기 또는 물에 사는 포유류가

쓰는 기관.

☞ 생선 등날개는 손질할 때 잘라낸다.

등말기: ① ‘등마루’의 방언

② 산이나 파도 따위의 두두룩한 부분.

☞ 등말기에 올라서든 전망이 좋아.

등어리: ① ‘등’의 방언

②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에서 가슴과 배의 반대쪽 부분.

☞ 등어리에 담이 와서 꼼짝 못해.

등짝: ‘등’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등짝에다 큰 파스를 올려 부체.

등쳐먹다: 위협하거나 속여 재물 따위를 빼앗아 차지하다.

☞ 그 늙은 꺾리는 사람마다 등쳐 먹었어.

등치: ‘등치’의 방언

☞ 등치가 있어서 그 한이 베좁아.

등판대기(등때기): ‘등판’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등판대기에 글씨를 써 부치구 돌아다녔다.

디다: ① ‘데다’의 방언

② 불이나 뜨거운 기운으로 말미암아 살이 상하다.

☞ 뜨거운 물이 쏟아져 손을 디었다.

디다보다: ‘들여다 보다’의 방언

☞ 신혼방을 몰래 디다보다 걸렸다.

디딜방앗간: ① ‘디딜방앗간’의 방언

② 디딜방아로 곡식을 찧거나 빻는 집.

☞ 옛날 잘 사는 집에는 디딜방앗간이 있었다.

디딜방애간: ① ‘디딜방앗간’의 방언

② 디딜방아로 곡식을 찧거나 빻는 집.

☞ 동네마다 디딜방애간 한 개 정도 있지.

디딜방아: ① ‘디딜방아’의 방언

②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찧거나 빻게 된 방아.

☞ 디딜방아질 삼 년에 어뎡이춤만 배웠다.

디레다보다: ‘들여다 보다’의 방언

☞ 개울을 디레다보든 고기들이 노는 게 보에.

디룩디룩: ① ‘뒤룩뒤룩’의 방언

② 군살이 처지도록 살이 몹시 찌서 뚱뚱한 모양.

☞ 그 개는 살이 찌서 디룩디룩 해.

디리대다: ‘들이대다’의 방언

☞ 그 칭구는 껌도 없이 막 디리댔지.

따갑다: ‘따갑다’의 방언

☞ 저울 햇살이 너무 따갑다.

따까리: ‘뚜껑’의 방언

☞ 그 뽕 따까리를 찾아봐.

따깡: ‘뚜껑’의 방언

☞ 뽕 따깡이 없으면 술을 보관할 수 없어.

따루: ‘따로’의 방언

☞ 두 내우는 늘 따루따루 다녔어.

따리: ① ‘키(방향타)’의 방언

②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 그 배 따리가 고정 나서 방향을 잃었지.

따바리: ① ‘파리’의 방언

②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

③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 다라에 따바리를 받치구 머리에 이었지.

☞ 질가에 독새가 따바리를 틀구 있었어.

딱딱: ‘정확’의 방언

☞ 그 사람 말이 딱딱 맞았어.

판따라 : ‘연예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연날 노인들은 연예인을 판따라라구** 했지.

딸개미 : ‘딸기’의 방언

☞ **이른 봄에 나는 딸개미** 맛이 그저 그만이야.

딸구 : ‘딸기’의 방언

☞ **촌에서는 뱀딸구, 산딸구가** 흔했지.

딸랑무 : ‘총각무’의 방언

☞ **딸랑무루** 집치하른 증말 맛있다.

딸래미 : ‘딸’의 방언

☞ **그 딸래미는** 일찍 시집갔었지.

딸리다 : ① ‘달리다’의 방언

② 재물이나 기술, 힘 따위가 모자라다.

☞ **힘이 딸려서** 결국 지구 말았어.

딸퀴 : ‘따라 부어’의 방언

☞ **잔에 술을** 확 딸퀴.

땀때 : ① ‘땀띠’의 방언

② 땀으로 피부가 자극되어 생기는 발진.

☞ **여름철** 애기들은 **땀때루** 고상했어.

땡두더지 : ‘두더지’의 방언

☞ **촌에는** 땡두더지가 **매련두** 없어.

땡땡하다 : ① ‘땡팔하다’의 방언

② 키가 작고 몸집이 옆으로 딱 바라지다.

☞ **그 친구는** 키는 작달막한데 몸이 **땡땡해**.

땡땡기 : ① ‘땡땡기’의 방언

② 얼마 안 되는 자그마한 땡. 주로 논밭을 가리킨다.

☞ **이곳저곳** 조상 **땡땡기**가 많아 부자였어.

땡치기 : ① ‘자치기’의 방언

② 아이들 놀이의 하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짚막한 나무토막을 긴 막대기로 쳐서 날아간 거리를 재어 승부를 정한다.

☞ **추운 겨울에** 애들하구 **땡치기** 하구 하루 종일 놀았어.

때(떼) : ‘찌’ ‘남시찌’의 방언

☞ **물고기** 입질하는 **때**를 잘 봐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

때굽다 : ‘따갑다’의 방언

☞ **돋보기** 햇빛이 살에 닿으론 **때굽다**.

때끔거리다 : ‘따끔거리다’의 방언

☞ **베루기(벼룩)**가 물었는지 등어리가 **때끔거리다**.

때끔불 : ① ‘불침’의 방언

② 성냥개비 따위를 태워 만든 숯. 흔히 장난으로 이것을 자는 사람의 살에 놓고 불을 붙여 놀라서 깨게 한다.

☞ **어렸을 때** 애들한테 **때끔불루** 장난을 많이 쳤었지.

때레 부시다 : ① ‘때려 부수다’의 방언

② 손이나 손에 든 물건 따위로 쳐서 부수다.

☞ **거추장스럽다구** 그 **담**을 **때레** 부셨다.

때레 치우다 : ① ‘때려 치우다’의 방언

② 하던 일을 아주 그만두다.

☞ **마음에 들지 않는다구** 하던 일을 **때레** 치웠다.

때리다 : ‘달이다’의 방언

☞ **화롯불에** 아버지 보약을 하루 종일 **때**렸다.

땡기다 : ‘당기다’의 방언

☞ **사람들이** 줄에 매달래서 죽어라 **땡**겼다.

땡깡 : ‘생떼’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원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자 **땡깡**을 부렸다.

땡땡이 치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눈을 피해 게으름을 피우는 짓.

☞ 그는 하던 일을 하지 않고 땡땡이 치기 시작했다.

땡뼤(땡피): ① ‘말벌’ 또는 ‘땅벌’의 방언

② 말벌과의 벌을 통틀어 이르는 말. 땅에 집을 짓고 사는 벌.

☞ 땡뼤한테 쏘किन 까물어 쳐.

떠내레가다: ‘떠내려가다’의 방언

☞ 지난 장마 때 개울에 다 떠내레갔어.

떠넝기다: ‘떠넝기다’의 방언

☞ 막상 일이 벌어지자 책임을 떠넝겼다.

떠댕기다: ‘떠다니다’의 방언

☞ 바다에 부서진 뱃조각들이 떠댕겼다.

떠리미: ① ‘떨이’의 방언

② 팔다 조금 남은 물건을 다 떨어져 싸게 파는 일. 또는 그렇게 파는 물건.

☞ 파장 무렵 장사꾼들이 떠리미를 불렀다.

떠버리: 자주 수다스럽게 떠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친구는 떠버리라고 소문났다.

떡잎사귀: ‘떡잎’ ‘떡잎사귀’의 방언

☞ 될성 뉘은 낭그는 떡잎사귀부터 알아본대.

떤제: ‘던저’의 방언

☞ 낭그 꼭대기에서 아래로 댕다 댕제.

떨구: ① ‘떨다’의 방언으로 활용형

② 몹시 추워하거나 두려워하다.

☞ 겁나서 온몸 사시나무 떨 듯 떨구 있다.

떨구다: ‘떨어뜨리다’의 방언

☞ 바람은 감나무에 잘 익은 홍실을 떨궜다.

떨레나다: ‘떨러나다(떨리어나다)’의 방언

☞ 결국 그는 거기서 떨레났다.

떼(뺏장): ① ‘잔디’의 방언

② 벼과의 잔디. 물잔디, 금잔디, 비로드잔디, 갯잔디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청명 한식에는 밋자리에 떼를 입힌다.

떼가리: ‘떼거리’의 방언

☞ 사람들은 파출소로 떼가리루 몰레갔다.

떼눔: 중국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떼눔들은 으심이 많아 도대체 믿을 수 없어.

떼짱구: ① ‘질경이’의 방언

② 질경잇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90cm 정도이며,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긴 타원형이다.

☞ 예전에는 떼짱구를 먹기두 했다.

또깨비: ① ‘도깨비’의 방언

②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의 하나.

☞ 그 하는 짓이 어느 모로 보나 또깨비 같애.

또랑: ① ‘도랑’의 방언

② 매우 좁고 작은 개울.

☞ 또랑 치구 가재 잡구.

또바리: ① ‘파리’의 방언

②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

☞ 함지박 이구 갈 때 또바리를 받쳐야 돼.

뚝바루: ‘뚝바로’의 방언

☞ 걸어갈 때는 뚝바루 걸어가야지.

뚝부러지게: ‘뚝부러지게’의 방언

☞ 가는 이번 일을 뚝부러지게 처리했다.

똑소리나다 : ‘정확하다’의 방언

☞ 그의 말은 똑소리가 났다.

똥구데기 : ① ‘구더기’의 방언

② 파리의 애벌레. 차차 자라 꼬리가 생기고 번데기가 되었다가 파리가 된다.

☞ 쓰레기통에 가문 똥구데기가 버글버글 해.

똥글라타 : ‘동그랗다’의 방언

☞ 한국형 얼굴은 비교적 똥글라타.

똥되다 : 체면, 면목 따위가 형편없이 되다.

☞ 가는 말 한 마디에 똥 됐다.

똥딱개 : ‘화장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옛날 벤소에서 사용되는 똥딱개는 폐지였다.

똥방맹이 : ‘궁둥이’의 방언

☞ 말 안 드는 놈에게 똥방맹이를 권어쳤다.

똥배짱 : 허투루 부리는 배짱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요구에 배째라구 똥배짱을 썼다.

똥심 : ① ‘뱃심’의 방언

② 염치나 두려움이 없이 제 고집대로 버티는 힘.

☞ 가는 모두가 반대하는 일을 똥심으로 밀구 나갔다.

똥패 : ① ‘망둥이’의 방언

② 망둑어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똥패는 못생겼지만 매운탕으로 좋다.

똥품 :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못나다고 생각되는 자세를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사람은 있는 대루 똥품을 잡았다.

뚜가리 : ① ‘뚝배기’의 방언

②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 추어탕은 뚜가리 맛두 있다.

뚜깅 : ‘뚜껑’의 방언

☞ 그 냄비 뚜깅을 덮어야 잘 끓는다.

뚜더기국(뚜덕국) : ‘수제비국’의 방언

☞ 가끔 뚜더기국을 먹으면 맛이 있다.

뚜대기 : ‘수제비’의 방언

☞ 예전엔 뚜대기를 자주 먹었다.

뚝 : ‘뚝’의 방언

☞ 뚝이 터져서 그 아래 논들이 피해를 입었다.

뚝깅 : ‘뚜껑’의 방언

☞ 뚝깅을 덮어야 감재가 잘 익어.

뚝저구 : ① ‘뚝중개’의 방언

② 뚝중개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4cm정도, 등은 잿빛을 띤 갈색, 배는 연한 회색이다.

☞ 민물고기 중에서 뚝저구가 못생긴 편이다.

뚝저기 : ① ‘꺼저기’의 방언

② 꺼저기과의 민물고기. 꺼지와 비슷한데 다소 작으며, 갈색 바탕에 붉은 가로줄이 있다.

☞ 냇가에서 뚝저기 잡는 재미도 있었다.

뚫다 : ① ‘뚫다’의 방언

② 구멍을 내다.

☞ 잘 흐르도록 하수도 구녕을 뚫었다.

뚫부다 : ① ‘뚫다’의 방언

② 구멍을 내다.

☞ 막힌 하수도 구녕을 뚫뿔야 물이 흐른다.

뚝박: ① ‘부표’의 방언

② 물 위에 띄워 어떤 표적으로 삼는 물건.

☞ 바다에 나가든 여기저기 뚝박이 있다.

뚝땡이: ‘뚝땡이’의 방언

☞ 그 뚝땡이는 어그적거리며 걸었다.

뜨덕국: ‘수제비’의 방언

☞ 쌀이 없어서 뜨덕국을 더 먹었던 갈래.

뜨세다(뜨시다): ① ‘덥히다’의 방언

② 사물의 온도를 높이다. ‘덥다’의 사동사

☞ 순대국은 뜨세야 맛있다.

뜬물: ① ‘뜨물’의 방언

② 곡식을 씻어 내어 부엌에 된 물.

☞ 뜬물은 장국 끓일 때 넣으면 더 좋다.

뜰¹: ① ‘들’의 방언

②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

☞ 수확이 끝난 뜰이 더 황량해.

뜰²: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있는 빈터로써 뜨락 또는 마당.

☞ 앞뜰 청소를 말끔하게 마쳐야 한다.

뜸복새: ① ‘뜸부기’의 방언

② 뜸부기와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뜸복새는 보기두, 잡기두 어루와.

띠꿈거리다: ‘따꿈거리다’의 방언

☞ 베틀이한테 물렸는지 띠꿈거리다.

띠다: ① ‘떼다’의 방언

② 붙어 있거나 잇닿은 것을 떨어지게 하다.

☞ 백에 붙은 백지를 몽땅 띠어라.

띠먹다: ① ‘떼어먹다’의 방언

② 남에게 갚아 주어야 할 것을 갚지 않다.

☞ 그동안 외상값을 완존 띠먹었다.

띠미: ① ‘진딧물’의 방언

② 진딧물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밭에 띠미가 매랜두 없다.

띠밀다: ‘떠밀다’의 방언

☞ 사람들이 띠밀어 넘어졌다.

띠어: ‘뛰어’의 방언

☞ 비가 쏟아진다. 빨리 띠어.

띠키다: ① ‘떼이다’의 방언

② 남에게 빌려 준 돈 따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다.

☞ 돈을 빌려 줬는데 몽땅 띠켰다.

마구: ① ‘외양간’의 방언

② 마소를 기르는 곳.

☞ 마구에 가서 짚을 깔아 주었다.

마굿간(마구간): ① ‘외양간’의 방언

② 마소를 기르는 곳.

☞ 마굿간 소똥을 쳐서 걸금더미루 웅겔다.

마눌: ‘마늘’의 방언

☞ 마눌은 가을에 숨었다.

마댕이: ① ‘마당질(打作)’의 방언

② 곡식을 떨어 알곡을 거두는 일.

☞ 가을에는 집집마다 마댕이로 바빴다.

마롭다: ‘마렵다’의 방언

☞ 오줌통이 터질 만큼 오줌이 마롭다.

마룻 : ① ‘마루’의 방언

②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 연날에는 마룻이 있는 집들이 많았다.

마마 : ‘천연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어렸을 적에 마마루 고역을 치렀다.

마빠구 : ① ‘이마’의 방언

② 사람의 이마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마빠구에 나 나쁜 놈이라구 불이구 다 니지 않는다.

마빡 : 사람의 이마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마빡에 피두 안 말랐다.

마세 : ① ‘마셔요’의 방언 ‘마시다’의 청 유형

② 물이나 술 따위의 액체를 목구멍으로 넘기다.

☞ 야, 그 술을 얼렁 마세.

마수거리 : ① ‘마수걸이’의 방언

②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 또는 거기서 얻은 소득.

☞ 오늘은 상가두 마수거리두 못했다.

마실 : ① ‘마을’의 방언

②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 시골이라 저녁 무렵에 마실 다녔다.

마아 : ‘모아’의 방언

☞ 방바닥에 쏟아진 콩을 한데 마아.

마이 메기다 : ‘많이 먹이다’의 방언

☞ 소 먹이러 가문 풀을 마이 메겼다.

마주 : ① ‘마저’의 방언

② 남김없이 모두

☞ 집에 남아 있는 거 마주 보내.

마주막 : ‘마지막’의 방언

☞ 그분은 어제 마주막 인사 하구 떠났어.

마랑(마카) : ① ‘죄다’의 방언

② 남김없이 모조리.

☞ 여기 있는 거 마카 싸서 보내.

마파람 : 뱃사람들의 은어로, ‘남풍’을 이르는 말.

☞ 마파람에 게 는 감추 듯 했다.

막냉이 : ‘막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

☞ 오늘은 막냉이네 집에서 머물렀다.

막니 : ‘사랑니’의 방언

☞ 막니가 나레는지 한쪽 잇몸이 아팠다.

막빠루 : ‘곧장’의 방언

☞ 도착하자마자 막빠루 돌아섰다.

만내다 : ‘만나다’의 방언

☞ 어제 만낸 사람이 그 사장이었어?

만들물 : 동남(東南)에서 서북(西北)으로 흐르는 조류(潮流)

☞ 만들물에는 작업이 그리 좋은 펜이 아니야.

만물 : 북(北)에서 남(南)으로 흐르는 조류(潮流)

☞ 만물에는 물고기들이 조류를 따라 이동해.

말 : ‘마을’의 방언

☞ 저녁마동 말에 마실 간다.

말꼬라지(말따구) : ‘말본새’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그놈 말꼬라지하구는 정말 기가 막해.

말래 : ‘마라’의 방언

☞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래.

말마따나 : ‘말처럼’의 방언

☞ 그 사람 말마따나 증말 개행피 떨어.

말쌈 : ‘말싸움’의 줄인 말

☞ 말쌈해 봐야 서루 좋지 못해.

말아먹다 : 재물 따위를 송두리째 날려 버리다.

☞ 그 집 아들이 재산 다 말아 먹었대.

말짱 도루묵 :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애써 봤자 말짱 도루묵이야.

말챙견 : ① ‘말참견’의 방언

② 다른 사람이 말하는 데 끼어들어 말하는 짓.

☞ 자꾸 말챙견하든 증말 짜증나.

말하자문 : ‘말하자면’의 방언

☞ 심으루 말하자자문 그에게 결코 뒤지지 않아.

맛보기 : ‘맛보기’의 방언

☞ 이견 맛보기루 주는 거야.

맛이가다 : 어떤 사람이 정상이 아닌 듯하다.

☞ 증말 열받아 완전 맛이 갔어.

망 : ① ‘맏돌’의 방언

②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

☞ 곡식 가는 걸 망이라고 해.

망가트리다 : ① ‘망가뜨리다’의 방언

② 부수거나 찌그러지게 하여 못 쓰게 만드다.

☞ 고치는 게 아니라 망가트리는 거야.

망금 : ‘방금’의 방언

☞ 니, 망금 뭐라 했어?

망둥이 : ① ‘망둑어’의 방언

② 망둑어과의 속한 바닷물고기.

☞ 송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뜬대.

망우리 : ‘망월 놀이’의 방언

☞ 정월 대보름에 망우리를 돌랬어.

망칙하다 : ‘망측하다’의 방언

☞ 하는 짓이 정말 괴상 망칙하다.

망태(網太) : 그물로 잡은 명태를 이르는 말.

☞ 망태 중에 망태가 알이 더 많아.

맞짱 뜨다 : 일대일로 맞서 싸우다.

☞ 그 칭구가 맞짱 뜨자구 해서.

맞창내다 : 맞구멍을 내다.

☞ 그 벙 아래 맞창내야 관을 넣을 수 있어.

매가리 : ‘맥’을 낮잡아 이르는 말.

☞ 하두 심들어서 매가리가 하나두 없다.

매굽다 : ① ‘맵다’의 방언

② (연기가) 눈이나 코를 아리게 하는 상태에 있다.

☞ 보강지 냉구리 증말 매굽다.

매끼다 : ‘말기다’의 방언

☞ 긴 말하지 않구 그냥 매쨌다.

매냥 : ‘마냥’의 방언

☞ 그 사람은 성격이 매냥 좋기만 하다.

매닥질 : ① ‘매대기질’의 방언

② 정신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몸짓.

☞ 가는 일이 심들어서 매닥질치구 있었다.

매달레 : ‘매달려’의 방언

☞ 아이들은 철봉에 매달레 놀았다.

매래치 : ‘멀치’의 방언

☞ 된장을 필일 때는 매래치가 있어야 돼.

매랜도 없다(매랜두 없다) : ‘헤아려서 갖추지 못함’을 낮추어 이르는 말.

☞ 상가두 정리안 돼서 집안이 매랜두 없어.

매랜없다 : ‘형편없다’의 방언

☞ 니는 원래부터 매랜없었어.

매렵다 : ‘마렵다’의 방언

☞ 가는 동이 매롭다구 찢찢맸다.

매롭다(매롭다) : ① ‘마렵다’의 방언
② 대소변을 누고 싶은 느낌이 있다.
☞ 아이는 오줌이 매롭다구 보챘다.

매시꼭다 : ‘매스겁다’의 방언
☞ 자동차 매연 때문에 매시꼭다.

매우하다 : 약간 ‘맵다’의 방언
☞ 그 개자나물 무침이 약간 매우하다.

매음 : ‘매미’의 방언
☞ 여름에는 매음 땀에 시끄럽다.

맥이나다 : 힘이 빠지거나 의욕이 떨어지다.
☞ 하두 반복되니 이젠 맥이 난다.

맥히다 : ‘막히다’의 방언
☞ 하수구가 맥헤 물이 안 내레 가.

맨드래미 : ‘맨드라미’의 방언
☞ 맨드래미 꽃을 먹을 수 있어?

맨들다 : ‘만들다’의 방언
☞ 고추장을 맨들어 팔아두 돼.

맨몸동아리 : ‘맨몸’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가는 이제 맨몸동아리만 있어.

맨송맨송 : ① ‘맨송맨송’의 방언
② 술을 마시고도 취하지 아니하여 정신이 말짱한 모양.
☞ 술을 조금 마셨더니 맨송맨송 해.

맨지다 : ‘만지다’의 방언
☞ 자꾸 맨지니까 축 늘어졌어.

맨채 : ① ‘고명’의 방언
②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해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국시에는 맨채를 놓아야 간이 맞아.

맬강다 : ‘말강다’의 방언
☞ 쌀을 자꾸 씻었더니 맬강다.

맬 : ‘매미’의 방언
☞ 여름 냇그에서 맬의 노래가 요란스러워.

맬글다(맬길다) : ‘만들다’의 방언
☞ 새집을 맬글어 숲에 달았어.

맬태포 : ‘복어포’의 방언
☞ 맬태포는 지사 때 마니 쓴다.

맬패 : ‘명패’의 방언
☞ 새루 보직 받으은 맬패를 새루 맨들어.

맬함 : ‘명함’의 방언
☞ 서루 인사할 때 맬함을 주구 받지.

맬기다 : ‘말기다’의 방언
☞ 그가 은행에 맬긴 돈을 찾았다.

머구리 : ‘잠수부’의 방언, 일본어모구리(潜り)에서 유래.
☞ 머구리는 깊은 물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늘 위험해.

머글려고 : ‘먹으려고’의 방언
☞ 지금 막 저녁을 머글려구 했어.

머기 : ① ‘먹이’의 방언
②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 먹어야 할 거리. 또는 가축에게 주는 먹물거리.
☞ 겨울에는 야생동물 머기 주기 활동을 해.

머리깡이 : ‘머리카락’의 방언
☞ 나이드니까 머리깡이가 부서지거나 뽏해.

머리칼 : ‘머리카락’의 방언
☞ 머리칼 관리를 잘해야 빠지지 않지.

머슴아 : ‘사내아이’의 방언
☞ 그 머슴아는 우리 동네 머슴아가 양야.

머야(머냐) : ‘무엇이냐’의 방언

☞ 머야? 우리 보구 나가라구.

머이 : ‘무엇이’의 방언

☞ 머이? 사람을 어떻게 보구.

머저리 : ‘멍청이(바보)’의 방언

☞ 니를 머저리라구 송 보구 있다.

먹태(흑태) : 건조하는 과정에서 날씨가
로 인해표피가 검게 변한 명태(복어)를
이르는 말.

☞ 먹태두 조리를 잘 하른 맛있다.

먼처 : ‘먼저’의 방언

☞ 가가 제일 먼처 우릴 불렀지.

머구 : ① ‘머루’의 방언

② 포도와와 낙엽 덩굴나무. 왕머루,
까마귀머루, 새머루, 개머루, 털개머루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머구 농새가 괜찮을 거라구 했지.

머기 : ‘파도’의 방언

☞ 머기가 심한 날에는 배가 못 나가.

멋장이 : ‘멋쟁이’의 방언

☞ 동네에서는 가를 멋장이라구 했어.

멍거래기 : ‘소입막이’의 방언

☞ 소를 끌고 일할 때는 멍거래기를 했어.

멍색 : ① ‘멍석’의 방언

② 짙으로 새끼 날을 만들어 네모지게
결어 만든 큰 깔개.

☞ 마당에 멍색을 깔구 꼬추를 널었다.

멍우 : ‘머위’의 방언

☞ 봄에는 멍우에 싹싹름한 맛이 입맛을 돌
게 한대.

멍우리 : ‘멍울’의 방언

☞ 심을 찔더니 팔에 멍우리가 생겼네.

멍지 : ① ‘멍에’의 방언

②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마소의 목에

있는 구부러진 막대.

☞ 씨레질 할 때 먼저 멍지를 얹었지.

멍챙이 : ‘멍청이(바보)’의 방언

☞ 동네에선 그 놈을 멍챙이라구 송 봤다.

메 : ‘무엇’의 방언

☞ 방금 메라구 그랬어?

메가지 : ① ‘모가지’의 방언

② ‘목’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놈 메가지를 틀어 놓을 거야.

메기다 : ‘먹이다’의 방언

☞ 애들 데레다 밥을 메게라.

메깃 : ‘미끼’의 방언

☞ 낚시 메깃은 굴치가 좋다.

메꾸다 : ① ‘메우다’의 방언

②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을 막거나
채우다. ‘메다’의 사동사.

☞ 집터를 맨든다구 아래 논을 흙으루 메
꿘다.

메누리 : ‘며느리’의 방언

☞ 그 메누리가 시할머이를 잘 모셨지.

메들다 : ‘모여들다’의 방언

☞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구 메들었다.

메떼기 : ① ‘자치기’의 방언

② 아이들 놀이의 하나. 정해진 순서
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짚막한 나무토
막을 긴 막대기로 쳐서 날아간 거리를
재어 승부를 정한다.

☞ 공터에서 애들은 윈종일 메떼기를 했다.

메뛰기 : ‘메뚜기’의 방언

☞ 메뛰기두 오뉴월이 한철이다.

메띠기(메뚜기) : ① ‘자치기’의 방언

② 아이들 놀이의 하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짚막한 나무토막을
긴 막대기로 쳐서 날아간 거리를 재어

승부를 정한다.

☞ 겨우 내내 논에서 메뚜기하메 놀았다.

메물 : ① ‘메밀’의 방언

②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의 열매. 전분이 많아 가루를 내어 국수나 묵 따위를 만들어 먹는다.

☞ 동치미 국물에 메물국수는 벨미다.

메식거리다 : ‘메숙거리다’의 방언

☞ 매연 때문에 메식거렸다.

메조히 : ① ‘메조’의 방언

② 찰기가 없는 조. 알이 굵고 빛이 노르며 끈기가 적다.

☞ 찰기 없는 메조히루 조밥을 했어.

메치 : ① ‘멸치’의 방언

② 멸치과의 바닷물고기.

☞ 굵은 메치는 상싱할 때만 회루 먹었다.

메칠 : ‘며칠’의 방언

☞ 그 사람이 메칠 있다가 온다구 했지?

메타라 : ‘무엇하려고’의 방언

☞ 메타라 그래.

멕개 : ‘몇 개’의 방언

☞ 남은 게란이 멕개야?

멕살 : ‘먹살’의 방언

☞ 멕살을 잡구 해보자 했어.

멘도 : ‘면도’의 방언

☞ 멘도는 매일 해야 돼.

멘박 : ‘면박’의 방언

☞ 그렇게 멘박을 줘두 되나?

멘사무소 : ‘면사무소’의 방언

☞ 멘사무소에서 발급 준다구 했다.

멘사포 : ‘면사포’의 방언

☞ 결혼할 때 신부가 멘사포를 쓴다.

멘상 : ‘면상’의 방언

☞ 할머니는 놈 멘상은 보기도 싫다.

멘서기 : ‘면서기’의 방언

☞ 엔날 멘서기가 인기 있었다.

멘장 : ‘면장(面長)’의 방언

☞ 그 분은 예전에 멘장이셨다.

멜종 : ‘멸종’의 방언

☞ 웅고지두 이젠 멜종 위기야.

멜치 : ① ‘멸치’의 방언

② 멸치과의 바닷물고기.

☞ 된장국에는 멜치가 들어가야 구수하다.

멧토끼 : ‘산토끼’의 방언

☞ 멧토끼 보기 어루와.

멧당 : ‘명당’의 방언

☞ 그 산자리가 멧당이다.

멧복 : ‘명복’의 방언

☞ 돌아가신 분의 멧복을 빈다.

멧산 : ① ‘명산(名山)’의 방언

② 이름 난 산.

☞ 우리 동네 멧산은 금강산이다.

멧절 : ‘명절’의 방언

☞ 멧절에는 가족들이 마이 와서 북적대.

멧지 : ① ‘명주’의 방언

②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

☞ 멧지로 만든 천이 비단이다.

멧찰 : ‘명찰’의 방언

☞ 군대 가문 멧찰을 꼭 달아야 돼.

멧태(명태) : ① ‘명태’의 방언

② 대구과의 바닷물고기. 한류성 어류로 한국 동해안, 오후츠크해, 베링해, 아메리카 서해안, 일본 북부 연해 등지에 분포한다.

☞ 멧태 한 마리 놓구 판전 본다.

며치 : ① ‘멸치’의 방언

② 멸치과의 바닷물고기.

☞ 술꾼들은 며치 몇 마리 놓고 술 마신다.

명란(맹란) : 명태의 알을 이르는 말. 명란젓을 담근다.

☞ 명태 알루 담근 젓갈을 명란이라구 하지.

명지 : ① ‘명주’의 방언

②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짤 피륙

☞ 명지루 맨든 넥타이가 비싸다.

명태바리(맹태바리) : ① ‘명태 조업’의 방언

②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어업.

☞ 저울에는 맹태바리루 먹구 살았지.

모가지 : ‘목’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잘못된 모가지가 날아갔어.

모구 : ‘모기’의 방언

☞ 모구한테 갈 빼기래.

모구장 : ‘모기장’의 방언

☞ 모구장이 없으면 한데서 못자.

모강 : ‘목욕’의 방언

☞ 여름에는 냇가에서 모강을 했지.

모꼽(모곶) : ① ‘못’의 방언

② 목재 따위의 접합이나 고정에 쓰는 물건.

☞ 모곶한테 찔리운 상처가 오래가.

모곶(모곶) : ‘못’의 방언

☞ 모곶이 많이 박했다.

모냥새 : ‘모양새’의 방언

☞ 그 모냥새가 별루 좋지 않다.

모두다 : ‘모으다’의 방언

☞ 동네 콩을 몽땅 모두었다는 데 많지 않다.

모래무치 : ① ‘모래무지’의 방언

② 잉엇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5cm정도, 은백색이다.

☞ 모래무치는 일급수에 산다.

모래볼 : ‘모래밭’ ‘백사장’의 방언

☞ 모래볼은 운동장 같은 애들 놀이터였다.

모른대두 : ‘모른다고 해도’의 방언

☞ 그 사람을 모른대두 대구 말하라고 하대.

모밀 : ‘메밀’의 방언

☞ 한겨울에는 메밀 국시가 별미야.

모살이 : ① ‘사름’의 방언

② 모를 옮겨 심은 지 4~5일쯤 지나서 모가 완전히 뿌리를 내려 파랗게 생기를 띠는 일.

☞ 모살이가 되문 절반 농새다.

모소리 : ‘모서리’의 방언

☞ 모소리를 조심해야 된대.

모심기 : ‘모내기’의 방언

☞ 촌에서는 모심기가 한창이다.

모에(서) : ‘모여(서)’의 방언

☞ 사람들이 모에서 쑥떡거렸다.

모자르다(모잘르다) : ‘모자라다’의 방언

☞ 그 물량으루는 턱도 없이 모잘르다.

모자리(모자리터) : ① ‘못자리’의 방언

② 벼씨를 뿌려 모를 기르는 곳.

☞ 모자리터를 잘 맨들어야 벼씨 뿌리기 좋대.

모자리판 : ① ‘못자리’의 방언

② 벼씨를 뿌려 모를 기르는 곳.

☞ 모자리판에 모상자를 가지런히 깔았다.

모재 : ‘모자’의 방언

☞ 그 가게에는 이쁜 모재가 많다.

모카 : ① ‘목화’의 방언

② (식물) 아욱과 목화속의 한해살이 풀이나 여러해살이풀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솜이불을 모카루 맨들었다.

모케(모테) : 일정 구역 또는 장소, 부근 따위를 이르는 방언

☞ 니는 어느 모케 사니?

모태 : ① ‘석쇠’의 방언

② 고기나 굵은 떡 조각 따위를 굽은 기구. 네모지거나 둥근 쇠 테두리에 철 사나 구리 선 따위로 잘게 그물처럼 엮어 만든다.

☞ 고기 구울 때는 모태에 구웠다.

모텡이 : ‘모통이’의 방언

☞ 그 친구 집은 시장 모텡이에 있었다.

목구녕(목구영) : ‘목구멍’의 방언

☞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구 했다.

목강(목강) : ‘목욕’의 방언

여자들은 밤에 냇가에서 목강을 했다.

목매다 :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다.

☞ 그 여자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목을 땀다.

몬지구텡이 :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몬지구텡이에서 오래 그렇게 살았다.

몰개(몰기) : ‘모래’의 방언

☞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몰개를 털어내야 해.

몰르문 : ‘모르면’의 방언

☞ 예으를 몰르문 개망나니 아니여?

몸뎡이(몸뎡아리) : ‘몸’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몸뎡이가 내 전 재산이라서.

몸씨리 : ① ‘몸서리’의 방언

② 몹시 싫거나 무서워서 몸이 떨리는 일.

☞ 그놈 얘기만 들어두 몸씨리가 나.

못빼기 : ① ‘못뽑이’의 방언

② 못을 뽑는 연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못을 뽑으려든 못빼기가 있어야 해.

못종 : 모내기할 때 모를 나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

☞ 모내기할 때 못종이 제일 바쁘다.

몽낫 : ① ‘조선낫’의 방언

② 습베가 비교적 길고 날이 두꺼운 낫. 왜낫에 대해 예부터 내려오던 낫을 이르는 말.

☞ 큰 낭그를 치을 땐 몽낫이 필요해.

몽당엔필 : ‘몽당연필’의 방언

☞ 어렸을 적 몽당엔필에 대한 추억이 있어.

몽댕이(몽댕이) : ① ‘몽둥이’의 방언

② 조금 굵고 기름한 막대기. 주로 사람이나 가축을 때리는 데 쓴다.

☞ 미친 놈 한테는 몽댕이가 약이지.

몽조리 : ① ‘모조리’의 방언

②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 여기 있는 거 몽조리 담아 가.

몽치기(몽치미) : ① ‘목침’의 방언

②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

☞ 할아버지는 늘 몽치기를 끼구 살았다.

몽치매기 : ① ‘목침’의 방언

②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

☞ 방바닥에 누울 때 몽치매기가 있어야 해.

뭇 : ‘모아’의 줄인 말

☞ 가는 돌아다니며 일할 애들을 뭇 왔다.

와서 : ‘모아서’의 줄인 말

☞ 맹태 해를 와서 간유공장에 팔았다.

외꾸덩이 : ‘묘(墓)’를 낮잡아 이르는 말.

☞ 집 나간 개가 외꾸덩이 앞에 앉아 있었다.

외들다 : ‘모여들다’의 방언

☞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외들기 시작했어.

외뽕기 : ‘메뚜기’의 방언

☞ 논바닥에서 온정일 외뽕기 찾으러 다녔다.

외어 : ‘모여’의 방언

☞ 동네 사람들이 외어 쏙떡거렸다.

외이 : ① ‘모이’의 방언

② 닭이나 날짐승의 먹이.

닭 외이를 챙기는 것두 일이야.

무구와 : ‘무거워’의 방언

☞ 쌀잘기가 무구와서 제와 들었어.

무굽다 : ‘무겁다’의 방언

☞ 잘기에 뭐가 들었는지 증말 무굽다.

무꾸 : ① ‘무’의 방언

② 십자화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 무꾸밭을 지나가다가 무꾸를 흠채 먹었다.

무꾸미 : ‘뭍음’의 방언으로 계량 단위

☞ 오이 한 무꾸미에 얼마예요?

무뎡보 : ‘무철포(無鐵砲)’의 일본식 표현

☞ 가들은 무뎡보로 달게 들어 넘어뜨렸다.

무데기(무디기) : ① ‘뭇’의 방언

② 짚. 땔나무, 채소 따위의 작은 뭍음을 세는 단위.

☞ 고구마 두 무데기 싸 주세요.

무등 : ① ‘목말’의 방언

②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 애들은 무등 태워 주문 좋아해.

무릅대기 : ‘무릎’의 방언

☞ 애기들은 무릅대기에 올라 주문 좋아해.

무수 : ① ‘무’의 방언

② 십자화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 무수는 인삼만큼 좋다는 속설이 있다.

무순 : ① ‘무청’의 방언

② 무의 잎과 줄기

☞ 무순 말린 걸 한겨울에 볶아 먹으면 증말 맛있어.

무썸다 : ‘무섭다’의 방언

☞ 그 얘기를 들으니 증말 무썸다.

무신 : ‘무슨’의 방언

☞ 가는 무신 애길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

무심절에 : ‘무심결에’의 방언

☞ 무심절에 그에게 아픈 말을 하구 말았다.

무심쿠 : ‘무심코’의 방언

☞ 무심쿠 던진 말에 가는 충격을 받았다.

무우 : ① ‘무’의 방언

② 십자화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 짐장 때 쓸 무우를 한 소쿠리 가져왔다.

무우말랭이 : ‘무말랭이’의 방언

☞ 무우말랭이를 무채 먹으면 증말 맛있다.

무입싸구 : ① ‘무청’의 방언

② 무의 잎과 줄기

☞ 무입싸구를 말리문 씨래기라구 한다.

무자숙 : ‘무자식’의 방언

☞ 무자속 상팔자라고 했어.

무쩍지 : ‘김치’에 박아 넣은 무.

☞ 짐장에 박아 넣은 무쩍지가 맛이 들었다.

무체먹다 : ‘무쳐 먹다’의 방언

☞ 싱싱한 미나리를 무체먹으면 싱그러운 맛이 난다.

무케 : ‘묵혀’의 방언

☞ 장은 오래 무케야 더 맛있다.

문구녕 : ‘문구멍’의 방언

☞ 문구녕으로 디다보다 혼났다.

문구사 : ① ‘문방구점’의 방언

② 학용품과 사무용품 따위를 파는 곳.

☞ 학용품을 사러 학교 앞 문구사에 갔다.

문꼬리(문꼐기) : ‘문고리(돌쩌귀)’의 방언

☞ 소갱이 문꼬리 잡은 격이야.

문꾸녕 : ‘문구멍’의 방언

☞ 문꾸녕을 창호지루 다시 발랐다.

문대다 : ‘문지르다’의 방언

☞ 손바닥을 문대니까 열이 났다.

문대기 : ‘먼지’의 방언

☞ 자리를 털자 문대기가 날렸다.

문댕이(문둥이) : ‘나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 문댕이 떼 쓰듯 한다.

문디다 : ‘문지르다’의 방언

☞ 구두를 형긔으루 싹싹 문냈다.

문새 : ‘문서’의 방언

☞ 똑똑한 머리보다 얼떨떨한 문새가 났다.

문어바리 : ① ‘문어조업’의 방언

② 바다에서 문어를 잡는 어업.

☞ 문어바리를 문어지거리바리라구두 해.

문어지거리 : ‘문어 낚시’의 방언

☞ 문에는 문어지거리루 잡는 데 수입이 쏴쏴해.

문에 : ① ‘문어’의 방언

② 문어과의 연체동물.

☞ 문에는 명절 지사상에 꼭 놔야 한대.

문조우 : ① ‘문종이’의 방언

② 주로 문을 바르는 데 쓰는 얇은 종이.

☞ 문조우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다.

문지 : ‘먼지’의 방언

☞ 문지도 모이문 큰 산이 된다.

문지둥 : ‘문기둥’의 방언

☞ 문지둥에 기대서 손을 흔들었다.

문지비 : ① ‘가랑비’의 방언

②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보다 좀 굵다.

☞ 문지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문찌방 : ① ‘문지방’의 방언

② 출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댄 나무.

☞ 계집은 상을 들고 문찌방을 넘으며 열 두 가지 생각을 한다.

물때 : ‘물이끼’의 방언

☞ 물때가 있는 바위를 잘못 디더 미끄러졌다.

물가재미(물까재미) : ‘가자미’의 방언으로 가자미과의 바닷물고기 중 물가자미

☞ 신선한 물가재미를 조리하면 알은맛이 있어.

물강아지(물강아지) : ① ‘물방개’의 방언

② 물방개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3.5~4.0cm이며, 검은 갈색에 녹색 광택이 나고 딱지날개의 가에는 노란 띠가 둘러 있다.

☞ 마실 **왓** 또랑에는 물강아지가 많다.

물구베 : ① ‘물굽이’의 방언

② 강물이나 바닷물이 굽이지어 흐르는 곳.

☞ 물구베가 있어 물이 천천히 흘렀다.

물끄레미 : ‘물끄러미’의 방언

☞ 떠나는 배를 물끄레미 바라봤다.

물네방아 : ① ‘물레방아’의 방언

②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찧거나 뺑는 기구.

☞ 부지런한 물네방아는 얼 새두 없다.

물니끼 : ① ‘물이끼’의 방언

② 물이끼과의 이끼류. 길이는 6~15cm, 색은 흰색이나 옅은 녹색이고 줄기는 곧게 서며 어린 가지가 돌려난다.

☞ 바우에는 물니끼가 덕지덕지 끼어 있다.

물닭 : ① ‘뜸부기’의 방언

② 뜸부깃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조선의 물닭은 다 네 물닭이냐?

물레방간 : ‘물레방앗간’의 방언

☞ 가는 남물레 물레방간에서 순례와 운우의 정을 나누었다.

물레주다 : ‘물려주다’의 방언

☞ 하던 일을 뒷사람에게 물레주었다.

물먹다 :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직위에 서 떨어지다.

☞ 가는 그 일로 완전 물 먹었다.

물방간 : ① ‘물레방앗간’의 방언

②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찧거나 뺑는 집.

☞ 동네마다 물방간이 있었다.

물방아 : ① ‘물레방아’의 방언

②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찧거나 뺑는 기구.

☞ 물방아 물두 서든 언다.

물벼락 : ‘물벼락’의 방언

☞ 지나가다 물벼락 맞구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물새 : ① ‘뜸부기’의 방언

② 뜸부깃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물새 고기는 먹을 게 없다.

물아구(물아구리) : ① ‘물꼬’의 방언

② 논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해 만든 좁은 통로 ③ 어떤 일의 시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하지를 지나른 발을 물아구에 담그구 잔다.

물알 : 명태 알이 산란으로 알집의 부피가 늘어난 상태의 알.

☞ 맹태 물알은 명란으로 맞지 않다.

물외 : ‘참외’에 대해 ‘오이’를 구별하여 이르는 말.

☞ 오이를 물외라구 말한다.

물뿌리 : ‘물뿌리개(물조리개)’의 방언

☞ 물뿌리루 꽃밭에 물을 주었다.

몽생이 : ① ‘버무리떡’의 방언

② 쌀가루에 콩이나 팥 따위를 한데 버무려 찢 떡

☞ 동네에서 몽생이를 돌랬대.

몽테기(몽티기) : ① ‘몽텅이’의 방언

② 한데 몽치어 이룬 큰 덩이.

☞ 구호품을 몽테기루 보냈어.

뭇이 : ‘무엇이’의 방언

☞ 뭇이? 그런 헛소리를 해.

뭇하려구 : ‘무엇하려고’의 방언

☞ 지금 뭇하려구 이런 일을 벌였지?

미깻 : ‘미끼’의 방언

☞ 낚시 미깻을 구해 와.

미꾸라지 : ① ‘미꾸라지’의 방언

② 미꾸라지와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0~20cm이고 등은 푸른 빛을 띤 검은 색이며, 배는 흰색이고 검은 점이 많다.

☞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

미꾸리 : ① ‘미꾸라지’의 방언

② 미꾸라지와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0~20cm이고 등은 푸른빛을 띤 검은 색이며, 배는 흰색이고 검은 점이 많다.

☞ 미꾸리에 소금 한 줌 던져 넣어.

미다지 : ‘미단이’의 방언

☞ 미다지 문은 바람 구멍이 많아.

미시리 : ‘바보’의 방언

☞ 사람이 좋으니까 미시리 같다구 해.

미식거리다 : ① ‘메식거리다’의 방언

② 먹은 것이 되넘어 올 것같이 속이 자꾸 심하게 울렁거리다.

☞ 배를 오래 탔더니 속이 미식개린다.

미숫가루 : ‘미숫가루’의 방언

☞ 출출할 땐 미숫가루 타서 먹어도 좋아.

미역바리 : ① ‘미역채취 작업’의 방언

②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작업.

☞ 한창 미역바리 때는 일손이 모자라.

미영 : ① ‘면화’의 방언

② (식물) 아욱과 목화속의 한해살이풀이나 여러해살이풀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솜이불에는 미영의 솜털을 모아 넣었다.

미쟁이 : ① ‘미장이’의 방언

②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집 마감은 미쟁이 기술에 달렸다.

미주아리 : ① ‘미주알’의 방언

②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

☞ 가는 날 미주아리고주아리 찾구 있었지.

미치갱이 : ‘미치광이’의 방언

☞ 가는 하는 짓이 미치갱이야.

미테 : ‘밑’ 또는 ‘아래’의 방언

☞ 상 미테 떨어진 걸 집어 올래.

민경 : ‘거울’의 방언

☞ 민경이 있어야 내 얼굴을 볼 수 있다.

민구스럽다 :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는 뜻의 방언

☞ 민구스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밀갈기 : ‘밀가루’의 방언

☞ 밀갈기가 있으면 빵두, 수제비두, 부침개두 맨들어 먹을 수 있는데.

밀까리 : ‘밀가루’의 방언

☞ 옛날에는 밀까리 배급두 있었어.

밀찌울(밀지울) : ‘밀기울’의 방언

☞ 난리 중에는 밀찌울을 먹었다.

밍게다 : ‘몽개다’의 방언

☞ 가는 그 일을 여지껏 밍게구 있어.

밀똥아리 : ‘아랫부분.’의 방언

☞ 낭구 밀똥아리를 파내야 깔끔해.

바각지 : ‘바가지’의 방언

☞ 바각지가 있어야 물을 떠 먹지.

바구미 : ① ‘바구니’의 방언

② 대나 싸리 따위를 쪼개어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 바구미에 캔 냉이를 몽땅 담아.

바기미 : ① ‘바구미’의 방언

② 바구밋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쌀독 속에 바기미가 버글버글하다.

바꼬지 : ① ‘박’의 방언

②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의 열매. 원통 또는 둥근 호박이나 배 모양의 커다란 액(液果)로 긴 타원형의 씨가 있는데, 삶거나 말려서 바가지를 만들고 속은 먹는다.

☞ 지붕에 바꼬지가 주렁주렁 달렸다.

바꾸 : ‘바퀴’의 방언

☞ 굴레바꾸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

바늘 : ‘바늘’의 방언

☞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매어 못 쓴다.

바때기(밑바탕) : ① ‘어레미’의 방언

② 바닥의 구멍이 굵은 체.

☞ 삶은 민물고기를 바때기루 걸러야 된다.

바람썩 : ‘바람벽’의 방언

☞ 바람썩에 흙이 묻어났다.

바람절에 : ‘바람결에’의 방언

☞ 바람절에 날려 왔나 떼구름에 싸여 왔다.

바리¹ : ① 단위 ‘필’의 방언

② 일정한 길이로 말아 놓은 피륙을 세는 단위

③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단위.

☞ 앞버덩에 그 집 논이 세 바리나 있어.

바리² : 물고기를 세는 단위. 100두름 단위.

☞ 맹태를 말리려구 두 바리 샀다.

바우 : ① ‘바위’의 방언

② 부피가 매우 큰 돌.

☞ 강원도 사람을 낮잡아 감재바우라 했다.

바우웃 : ① ‘이끼’의 방언

② 선태식물에 속하는 은화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그늘진 곳에는 푸른 바우웃이 있다.

바웃돌 : ① ‘바위’의 방언

② 부피가 매우 큰 돌.

☞ 동네 어귀에는 큰 바웃돌이 있다.

바쿠 : ‘바퀴’의 방언

☞ 니야까 바쿠가 두 개다.

박고지(박꼬지) : ① ‘박’의 방언

②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의 열매.

☞ 울타리 박고지 넝쿨이 보기 좋다.

박바가지 : ‘바가지’의 방언

☞ 박바가지가 귀한 물건이 되었다.

박상 : ‘튀긴 쌀 과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아이들 주렁구 시장에서 박상을 사오셨다.

반공일 :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쉬는 날이라는 뜻으로, ‘토요일’을 이르던 말.

☞ 요즘 반공일이란 의미두 없어졌다.

반도 : ‘반두’의 방언

☞ 동네 앞개울에 반도 들구 나와.

반땅지기 : ① ‘반진고리’의 방언

② 바늘·실·골무·형걸 같은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

☞ 옷 꼬매려운 반땅지기 찾아와.

반지그릇 : ① ‘반진고리’의 방언

② 바늘·실·골무·형겔 같은 바느질 도구를 담은 그릇.

☞ 반지그릇이 실경에 있다.

반지르름하다 : ① ‘반지르르하다’의 방언

② 거죽에 기름이나 물기 따위가 묻어서 윤이 나고 매끄럽다.

☞ 그 놈 낯뺨데기가 반지르름하다네.

반탱이 : ① ‘이남박’의 방언

② 안쪽에 여러 줄로 고랑이 지게 돌려 파서 만든 함지박.

☞ 반탱이에 쌀을 가득 담아 이구 간다.

발고락 : ‘발가락’의 방언

☞ 발고락이 콩콩 얼었다.

발고린내 : ‘발쿠린내’의 방언

☞ 발고린내에 코를 들 수 없다.

발 방공이 : ① ‘발 방앗공이’의 방언

② 발방아확 속에 든 물건을 찰는 데 쓰도록 만든 길쭉한 몽둥이.

☞ 발 방공이가 있어야 방아를 찰 수 있다.

발 방팽이 : ① ‘발 방앗공이’의 방언

② 발방아확 속에 든 물건을 찰는 데 쓰도록 만든 길쭉한 몽둥이.

☞ 발 방팽이는 제 산 밑에서 팔아먹으랬다.

발방아(방애) : ① ‘디딜방아’의 방언

②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찰거나 빵게 된 방아.

☞ 아낙들은 발방아를 내리밟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발방터 : ① ‘디딜방앗간’의 방언

② 디딜방아로 곡식을 찰거나 빵는 곳.

☞ 동네에 발방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발짜국(발짜구) : ‘발자국’의 방언

☞ 도동늪이 지 발짜국에 놀란다.

발쿠다 : ① ‘바루다’의 방언

② 비뚤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바르게 하다.

☞ 강설로 비뚤어진 활대를 다시 발켰다.

밥보재기 : ① ‘밥보자기’의 방언

② 밥을 담은 그릇이나 차려 놓은 밥상을 덮어 두거나 싸는, 베나 형겔으로 만든 보자기.

☞ 론지 안 들어가게 밥보재기를 덮어 놔.

밥쟁이 : ① ‘부엌데기’의 방언

② 부엌일을 맡아서 하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 밥쟁이가 있어야 밥을 얻어 먹지.

밥종지노릇 : ‘소곱질(소곱장난)’의 방언

☞ 애들은 밥종지노릇에 폭 빠졌다.

밥주걱 : ‘주걱’의 방언

☞ 밥주걱으로 밥을 담기 시작했다.

밥주발 : ‘주발’의 방언

☞ 밥주발 한가득 밥을 담았다.

밥죽 : ‘주걱’의 방언

☞ 부엌에서 밥죽을 찾았다.

밥튀정 : ① ‘밥투정’의 방언

② 밥이 먹기 싫어서 또는 밥을 더 달라며 짜증을 부리는 일.

☞ 가는 날 밥튀정을 해서 욕을 들었다.

밥티 : ‘밥알’의 방언

☞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티는 무겁다.

방공일 : ‘토요일’의 방언

☞ 토요일을 방공일이라구 했다.

방구 : ‘방귀’의 방언

☞ 개가 지방구에 놀란다.

방구쟁이 : ‘방귀쟁이’의 방언

☞ 그 친구를 방구쟁이라고 숭 봤다.

방기: ① ‘방개’의 방언

② 물방갓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3.5~4.0cm이며, 검은 갈색에 녹색 광택이 나고 딱지날개의 가에는 노란 띠가 돌려 있다.

☞ 보도랑에 방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방간: ① ‘방앗간’의 방언

② 방아로 곡식을 찧거나 빵을 굽.

☞ 참새가 방간을 그려 지나라.

방댕이: ① ‘그루터기’의 방언

② 풀이나 나무 따위의 아랫동아리 또는 그것들을 베고 남은 아랫동아리.

☞ 방댕이는 펄갸우루 쓰이는 경우가 많다.

방맹이: ① ‘방망이’의 방언

② 무엇을 치거나 두드리거나 다듬는데 쓰기 위해 둥그스름하고 길게 깎아 만든 도구.

☞ 가는 방맹이, 오는 흥두개.

방아다리: ① ‘방아깨비’의 방언

② 메뚜기과의 곤충.

☞ 그 애는 큰 방아다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방아메뛰기: ① ‘방아깨비’의 방언

② 메뚜기과의 곤충.

☞ 방아메뛰기만 보곤 잡아서 모았지.

방아찍개: ① ‘방아깨비’의 방언

② 메뚜기과의 곤충.

☞ 방아메뛰기 뒷다리를 잡으론 방아를 찧는 것처럼 보인다.

방애공이: ‘방앗공이’의 방언

☞ 산 밑에 집에 방애공이가 논다.

방애확: 방앗공이로 찧을 수 있게 돌절구 모양으로 우묵하게 판 돌.

☞ 방애확이 지저분하니깐 좀 씨쳐라.

방축: ① ‘방죽’의 방언

② 파거나, 독으로 둘러막은 못.

☞ 방축을 파야 개구리가 뛰어들지.

발곡(발곡석): ‘발곡식’의 방언

☞ 여름내 가뭄이 들어 발곡석이 타들어 갔다.

발떼기: ‘발뺨기’의 방언

☞ 발떼기를 팔아 읍내 집을 샀다.

배개: ① ‘베개’의 방언

② 잠을 자거나 누울 때 머리를 괴는 물건.

☞ 높은 배개는 사람에게 별로 좋지 않다.

배겨내다(배게내다): ‘지탱하다’의 방언

☞ 가는 심들었지만 잘 견뎌내고 배게냈다.

배깁양반: ‘바깥양반(남편)’의 방언

☞ 배깁양반은 늘 밖으로만 돌았다.

배끼지다: ‘벗겨지다’의 방언

☞ 허릿바가 끊어지면서 바지가 배끼졌다.

배끼다: ‘벗기다’의 방언

☞ 젖은 윗도리를 몽땅 배꼈다.

배날개: ① ‘지느러미’의 방언

② 물고기 또는 물에 사는 포유류가 몸이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 생선의 손질할 때 배날개를 잘랐다.

배대미(배드미, 배디미): ① ‘감성돔’의 방언 ② 감성돔과의 바닷물고기.

☞ 가을철 배대미 낚시가 한창이다.

배떼기(배뺨기): ‘배(腹部)’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가는 배떼기에 큰 송터가 있다.

배덜미: ‘뱃덜미’의 방언

☞ 그 여자는 배덜미루 늘어졌다.

배미 : ‘뱀’의 방언

☞ 실 배미 한 마리가 온 바닷물을 흐린다.

배차 : ‘배추’의 방언

☞ 배차가 흥작이라 배차김치가 금치란다.

배차꼬갱이 : ① ‘배추꼬갱이’의 방언

② 배추 속의 한가운데에서 올라오는 심과 잎. 빛깔이 노릇하고 맛이 달콤하고 고소하다.

☞ 배차꼬갱이가 증말 꼬시다.

배트다 : ‘뱃다’의 방언

☞ 입에 있는 뭇땅 배터냈다.

백노지 : 지금의 ‘하얀 갯지’의 방언

☞ 백노지에 그림을 그렸다.

백묵 : ‘백묵’ ‘분필’의 방언

☞ 선생님들은 백묵을 먹고 산다고 말했다.

백여우 : ① ‘여우’의 방언

② 갯과의 포유류. 매우 교활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그 여자 하는 짓이 백여우 같애.

백태(白太) : 지나치게 강한 추위로 표피가 하얗게 마른 명태(북어)를 이르는 말.

☞ 백태지만 껍질을 벗기운 명태 살이 달아.

백히다 : ‘박히다’의 방언

☞ 6.25 전쟁 때 총알이 다리에 백했다.

뵤뵤하다 : ‘반반하다’의 방언

☞ 그녀 얼굴이 뵤뵤해서 남자들이 많다.

뵤소 : ① ‘변소’의 방언

②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 뵤소와 사둔집은 멀어야 좋다구 했다.

뵤소간 : ① ‘변소’의 방언

②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 뵤소에는 찬바람이 들어오구 뵤이 보았다.

뵤지름하다 : ① ‘반지르르하다’의 방언

② 거죽에 기름기나 물기 따위가 묻어서 윤이 나고 매끄럽다.

☞ 기생오래비처럼 뵤지름하다.

뵤이 꼬이다 : 비위에 거슬려 마음이 뒤틀리다.

☞ 심사가 수틀러서 뵤이 꼬였다.

뵤창지머리 : ‘창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뵤창지머리도 없는 놈이라구 일갈했다.

뵤장우 : ① ‘뱀장어’의 방언

② 뱀장어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60cm정도이고 가늘며, 누런색 또는 검은색이고 배는 은백색이다.

☞ 뵤장우 맛이 느끼고 지름끼가 많다.

뵤대기 : ① ‘배떼기’의 방언

② ‘배(바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고기 뵤대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라.

뵤뵤도리 : ‘(눅쇠)국그릇’의 방언

☞ 뵤뵤도리에 탕국을 퍼 담아 줘.

뵤다 : ‘(짚을) 엮다’의 방언

☞ 지붕을 올릴레구 이엉을 뵤었다.

뵤 : ① ‘별’의 방언

② 해가 내리쬐는 기운.

☞ 여름 한낮 뵤이 따갑다.

버덩 : ① ‘들’의 방언

②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

☞ 동쪽 버덩으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갔다.

버드낭구 : ① ‘버드나무’의 방언

② 버드나뭇과의 버드나무속의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버드낭구는 여름철 가로수루 인기가 있었다.

버드리 : ① ‘버들’의 방언

② 버드나뭇과의 버드나무속의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버드리는 잎이 잘지만 그늘이 좋다.

버들각지 : ① ‘버들치’의 방언

② 잉엇과의 민물고기. 몸길이는 8~15cm이고 방추 모양이며, 등 쪽이 어두운 갈색, 배는 흰색에 가깝고 옆구리에는 연한 푸른색의 넓적한 무늬가 가로 둘러 있다.

☞ 어렸을 적 냇가에서 버들각지를 잡았다.

버들기 : ① ‘버들치’의 방언

② 잉엇과의 민물고기. 몸길이는 8~15cm이고 방추 모양이며, 등 쪽이 어두운 갈색, 배는 흰색에 가깝고 옆구리에는 연한 푸른색의 넓적한 무늬가 가로 둘러 있다.

☞ 버들기를 잡아 고무 신발에 넣었다.

버래이 : ① ‘자배기’의 방언

② 둥글 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 그 칭구는 밥을 버래이로 먹었다.

버리 : ‘보리’의 방언

☞ 이른 봄 버릿고개가 심했다.

버리² : ① ‘벌’의 방언

② 벌목의 곤충 가운데 개미류를 제외한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버리가 꽃 필 때 마니 날아댄다.

버버리 : ① ‘병어리’의 방언

②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웃집에는 버버리가 살았다.

버버리장갑 : ① ‘병어리장갑’의 방언

② 엄지손가락만 따로 가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함께 끼게 되어 있는 장갑.

☞ 저울엔 버버리장갑이 뜨시다.

버섯(버섯) : ① ‘보습’의 방언

② 쟁기, 극쟁이, 가래 따위 농기구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쇠조각.

☞ 버섯이 지나간 논바닥 자리마다 흙이 솟아올랐다가 한쪽으로 착착 쏠려졌다.

버양지 : ① ‘아궁이’의 방언

② 방이나 솔 따위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든 구멍, 아궁.

☞ 버양지가 쌀밥을 먹는데.

버즘 : ‘버짐’의 방언

☞ 봄 땀은 버즘에두 약이라 했다.

버지미 : ① ‘버짐’의 방언

② 백선균에 의해 일어나는 피부병.

☞ 가 얼굴에는 버지미가 피었다.

버푸래기(보푸래기) : ① ‘보풀’ ‘보푸라기’의 방언

② 종이나 헝겊 따위의 거축에 부풀어 일어나는 몹시 가는 털.

☞ 낡은 옷의 버푸래기를 한올한올 떼냈다.

벌거지(벌격지) : ‘벌레’의 방언

☞ 벌거지 먹은 준저리콩 갈애.

벌기 : ‘벌레’의 방언

☞ 벌기도 밝은 꿈틀한다.

벌찍개 : ① ‘밀싹개’의 방언

② 두 발을 디디거나 앉을 수 있게 그 넷줄의 맨 아래에 걸쳐 있는 물건.

☞ 줄 맨 아래 벌찍개를 걸쳐 놓구 올라서서 몸을 앞뒤로 움직여 그네를 탄다.

병거지 : ① ‘모자’의 방언

② (복식) 조선 시대 무관이 쓰던 모자의 하나.

☞ 병거지를 짚숙이 눌러섰다.

병치 : ① ‘병어리’의 방언

②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병치 속은 그 애미도 모른다.

벽 : ‘부억’의 방언

☞ 밥상을 차리러 벽에 들었다.

베 : ① ‘벼’의 방언

② 벼과의 한해살이풀의 열매

☞ 베 이삭은 잘 찢수록 고개를 숙인다.

베꺼메 : ① ‘벼훑이’의 방언

② 두 개의 나뭇가지나 수숫대 또는 뗏가지를 한끝을 동여매어 집게처럼 만들고 그 틈에 벼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농기구.

☞ 연말에 베를 베꺼메루 훑었지.

베꼬갱이 : ① ‘벼 새팹기’의 방언

② 짚 따위의 껍질을 벗긴 줄기.

☞ 베꼬갱이에 손을 뻗다.

베라벨 : ① ‘별의별’의 방언

② 보통과 다른 갖가지의.

☞ 베라벨 소문이 다 나돌았다.

베라벨사람 : ‘별의별 사람’의 방언

☞ 사람들 와 노는 베라벨사람이 많아.

베락 : ‘벼락’의 방언

☞ 자다가 베락 맞을 일이야.

베락감투 : ① ‘벼락감투’의 방언

②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갑작스레 얻은 벼슬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얼마 전 청년단장이라는 베락감투를 쓰구 기세가 등등했었다.

베락공부 : ① ‘벼락공부’의 방언

② 평소에 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 때가 닥쳐서야 갑자기 서둘러 하는 공부.

☞ 그 높은 시험 때마다 베락공부 했었지.

베락부자 : ① ‘벼락부자’의 방언

② 갑자기 된 부자

☞ 복권에 당첨되는 바람에 베락부자가 됐다.

베락출세 : ① ‘벼락출세’의 방언

② 미미하고 보잘 것 없던 사람이 갑자기 출세함. 또는 그런 출세.

☞ 그는 난리 통에 베락출세 한 줄부다.

베락치기 : ① ‘벼락치기’의 방언

② 임박하여 급히 서둘러 일을 하는 방식.

☞ 시험 때가 되서야 밤을 새며 베락치기 루 공부했다.

베람팍(베름팍) : ‘바람벽’의 방언

☞ 베람팍에도 귀가 있다.

베랑 : ‘벼랑’의 방언

☞ 그는 베랑에 내몰렸다.

베래기(베룩, 베루기) : ‘벼룩’의 방언

☞ 베래기두 낫짝이 있다.

베르다 : ① ‘벼르다’의 방언

② 어떤 일을 이루려고 마음 속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엿보다.

☞ 베르던 제사 몰두 못 떠 놓는다.

베름팍 : ‘바람벽’의 방언

☞ 베름팍에 등을 기댄 채 희미한 등잔불을 바라봤다.

베리다 : ① ‘벼리다’의 방언

② 무디어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듦다.

☞ 대장간에서 낫과 호미를 베렸다.

베림질하다 : ① ‘벼리다’의 방언

② 무디어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듦다.

☞ 닳아빠진 곡괭이 날을 다시 베림질했다.

베림질간: ① ‘대장간’의 방언

② 풀무를 차려 놓고 쇠를 달군 후 두드려서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 요즘 베림질간을 귀경하기 쉽지 않아.

베미: ① 단위 ‘마지기’의 방언

② 논밭 넓이의 단위. 한 마지기는 벼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150~300평, 밭은 약100평 정도이다.

☞ 그 집 논 베미는 여기부터 저기까지다.

베보재기: ① ‘삼베보자기’의 방언

② 삼실로 짠 보자기.

☞ 베보재기로 싸서 놀러 펜육을 맨든다.

베슬¹: ‘벼슬’의 방언

☞ 베슬은 높이고 뜻은 낮추어라.

베슬(베실)²: ① ‘벚’의 방언

② 닭이나 새 따위의 이미 위에 세로로 붙은 살 조각. 빗갈이 붙고 시울이 톱니처럼 생겼다.

☞ 닭베슬이 될망정 쇠꼬리는 되지 마라.

베씨: ‘벚씨’의 방언

☞ 추수가 끝나온 베씨를 향아리에 잘 보관했었다.

베알: ① ‘벼’의 방언

② 벚과의 한해살이풀의 열매

☞ 베알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베잡다: ‘비좁다’의 방언

☞ 다섯 식구 살기에는 베잡다.

베지게: ① ‘벼훅이’의 방언

② 두 개의 나뭇가지나 수숫대 또는 뗏가지의 한끝을 동여매어 집게처럼 만들고 그 틈에 벼 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농기구.

☞ 벼 이삭을 베지게에 놓고 잡아당기면

날알이 떨어진다.

벙: ‘벽’의 방언

☞ 옛날 집은 흙벙이기 때문에 해마동 매질해야 해.

벙걸이: ‘벽걸이’의 방언

☞ 요즘 벙걸이 텔레비전이 많아.

벙시계: ‘벽시계’의 방언

☞ 벙시계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벙장: ① ‘벽장’의 방언

② 벽을 뚫어 작은 문을 내고 그 안에 물건을 넣어두게 만든 장(櫥).

☞ 철 지난 옷을 벙장에 넣어 두었다.

벙지: ‘벽지’의 방언

☞ 이 벙지는 무늬가 참 독특하다.

벙창우: ① ‘벽창호’의 방언

② 고집이 세며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아니하는 무뚝뚝한 사람.

☞ 그를 눈치코치두 없는 벙창우라고 한대.

벙촌: ① ‘벽촌’의 방언

② 외따로 떨어져 있는 궁박한 마을.

☞ 가는 벙촌에서 자랐다.

벙덕꾸래기: ‘변덕꾸래기’의 방언

☞ 가는 시상이 다 아는 벙덕꾸래기였어.

벙두리: ‘변두리’의 방언

☞ 오랫동안 삶의 벙두리를 서성거렸다.

벙또(벙또): ‘도시락’의 일본어식 표현

☞ 소풍 갈 때 벙또두 못 싸 왔다.

벙명: ‘변명’의 방언

☞ 구차스런 벙명으로 일관했다.

벙방: ① ‘변방’의 방언

②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 지역.

☞ 우리 동네는 예부터 벙방이었다.

벚툼 : ‘빈툼’의 방언

☞ 그는 하는 일만큼 벚툼이 없었다.

벨¹ : ‘벨(창자)’의 방언

☞ 닌, 벨두 없니?

벨² : ① ‘별(星)’의 방언

② 빛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가운데 성운처럼 퍼지는 모양을 가진 천체를 제외한 모든 천체.

☞ 밤하늘에 벨이 마니 떠 있다.

벨꼬락서니 : ① ‘별꼴’의 방언

② 별나게 이상하거나 아니꼬워 눈에 거슬리는 꼬락서니.

☞ 살다보니 벨꼬락서닐 다 보겠다.

벨나게 : ① ‘별나게’의 방언

② 보통과는 다르게 특별하거나 이상하다.

☞ 오늘은 벨나게 더운 날이다.

벨로(벨루) : ① ‘별로’의 방언

② 이렇게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

☞ 벨루 추운 줄 모르겠는데.

벨말씀 : ① ‘별말씀’의 방언

② ‘별말’의 높임말.

☞ 벨말씀을 다 해 사람 난처하게 한다.

벨명 : ‘별명’의 방언

☞ 가는 진빵이라는 벨명이 있다.

벨사람 : ① ‘별사람’의 방언

② 생김새나 하는 짓, 말 따위가 보통 사람과 다른 이상스러운 사람.

☞ 어중이떠중이 벨사람이 다 모했다.

벨생각 : ① ‘별생각’의 방언

② 별의별 생각

☞ 나흘 굶으니 벨생각이 다 났다.

벨안간 : ‘별안간’의 방언

☞ 하늘에서 벨안간 소낙비가 쏟아졌다.

벨종 : ① ‘별종’의 방언

② 예사의 것과 달리 이상한 행동 따위를 보이는 별다른 종류.

☞ 그는 벨종의 인간이다.

벳 : ① ‘벗’의 방언

② 닭이나 새 따위의 이미 위에 세로로 붙은 살 조각. 빛깔이 붉고 시울이 톱니처럼 생겼다.

☞ 장닭이 벳을 세우며 달아났다.

벳기다 : ‘벗기다’의 방언

☞ 나는 그의 옷을 벳겼다.

벳단 : ‘벗단’의 방언

☞ 논 옆에 벳단을 차곡차곡 쌓았다.

벳잘구 동가매다 : ‘벗자루 묶다’의 방언

☞ 시킨대루 벳잘구를 동가매서 쌓았다.

벳짚 : ‘벗짚’의 방언

☞ 벳짚을 헛간에 쌓아 두었다.

벵 : ‘병(瓶)’의 방언

☞ 물을 벵에 담아 냉장고에 두었다.

벵따까리 : ‘병뚜껑’의 방언

☞ 벵에 벵따까리를 막아야 지대루 보관된다.

벵신 : ① ‘병신’의 방언

②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치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또는 그런 사람.

☞ 그런 것두 못하운 벵신이다.

벵아리 : ‘병아리’의 방언

☞ 벵아리를 사다 닭장에 넣었다.

벵원 : ‘병원’의 방언

☞ 벵원에는 가급적 안 가문 좋아.

벵치레 : ① ‘병치레’의 방언

② 병을 앓아 치러 내는 일.

☞ 잦은 병치레루 가족들이 걱정이 많다.

병풍 : ‘병풍(屏風)’의 방언

☞ 창가에 병풍을 둘러쳤다.

별게 : ① ‘별거’의 방언

② ‘별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 그 집엔 별게별게 다 있었어.

별상 : ① ‘천연두’의 방언

② 천연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의 법정 전염병.

☞ 별상에 걸려서 얼굴이 살짝 얼었다.

보강지 : ① ‘아궁이’의 방언

② 방이나 솥 따위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든 구멍, 아궁.

☞ 염불 못하는 종이 보강지에 불 땀다.

보구레 : 논밭을 가는 농기구, 연장이라고도 부른다.

☞ 사람들은 보구레를 이용해 밭을 갈았다.

보구미(보귀미) : ① ‘바구미’의 방언

② 바구미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쌀통에 보구미가 보이는 갈해.

보글데기 : ① ‘불거리’의 방언

② ‘유행성 이하선염’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 애가 보글데기 해서 병원에 가는 길이다.

보리등게 : ① ‘보리등겨’의 방언

② 보리를 찢을 때 나오는 껍질.

☞ 연날에는 보리등게두 없어 못 먹었다.

보선 : ‘버선’의 방언

☞ 보선이든 뒤집어라도 보이지.

보섭(보썩) : ① ‘보습’의 방언

② 쟁기, 극쟁이, 가래 따위 농기구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쇠조각.

☞ 보섭이 있어야 밭을 갈 수 있다.

보재기 : ① ‘보자기’의 방언

② 물건을 써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네 모지게 만든 작은 천.

☞ 연날엔 책두 보재기 싸서 학교 다녔다.

보쟁기 : ① ‘쟁기’의 방언

② 보습을 낀 쟁기.

☞ 밭을 보쟁기루 갈았다.

보째기 : ① ‘쟁기’의 방언

② 보습을 낀 쟁기.

☞ 이젠 보째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침 : ① ‘뺨기’의 방언

② 씨아의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목화씨를 뺄 때는 보침이 있어야 돼.

보케 : ‘부엌’의 방언

☞ 보케 내구리가 심하다.

복대림 : ① ‘복달임’의 방언

② 복날에 그해의 더위를 물리치는 뜻으로 고기로 국물 끓여 먹음.

☞ 한여름에는 보양식으로 복대림을 한다.

복상 : ① ‘복숭아’의 방언

② 복사나무의 열매. 품종에 따라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시고 단 맛이 있으며 담홍색으로 익는다.

☞ 복상으로 잼두 맨들구 효소두 맨든다.

복세 : 하천 하류에 쌓이는 흙 또는 모래를 이르는 말.

☞ 보도랑에 복세가 차서 퍼내야 한다.

복실복실 : ‘복슬복슬’의 비표준어

☞ 애들은 하나같이 복실복실 귀엽게 생겼다.

복장터지다 : 몹시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다.

☞ 기가 막혀 복장터질 일이다.

복지개 : 주발의 뚜껑을 이르는 방언

☞ 어른 밥은 복지개를 덮어야 한다.

본대 : ① ‘본디’의 방언

② 사물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

☞ 가는 본대부터 의협심이 강했다.

본둥만둥 : ① ‘본척만척’의 방언

② 보고도 아니 본 듯이.

☞ 가는 목소리 듣구두 본둥만둥 고개를 돌렸다.

본토백이(본토배기) : ‘본토박이’의 방언

☞ 본토백이들이 떠난 자리에 뜨내기들이 꾸역꾸역 몰래 들었다.

볼라고(볼라구) : ‘보려고’의 방언

☞ 누구 복장 터져서 죽는 꼴 볼라구 이러나?

볼쌍사납다 : ① ‘볼썽사납다’의 방언

②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 보기
에 역겹다.

☞ 그가 하는 짓이 볼쌍사납다.

볼짱 : ① ‘볼장’의 방언

② 해야 할 일. 또는 하고자 하는 일.

☞ 이제 볼짱 다 봤다.

볼태기 : ① ‘볼때기’의 방언

② ‘볼’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열 받아서 볼태기라두 한 대 패주구 싶었다.

봏또랑 : ① ‘봏도랑’의 방언

② 봏물을 대거나 빼게 만든 도랑.

☞ 가뭄이 심해서 봏또랑에 물이 하나두 없다.

봉다리 : ① ‘봉지(封紙)’의 방언

② 종이나 비닐 따위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만든 주머니.

☞ 아버지 손에는 검은 봉다리 두 개가 들레 있었다.

봉담배 : ① ‘봉초’의 방언

② 담뱃대에 넣어서 피울 수 있도록 잘게 썰어 봉지로 포장한 담배.

☞ 할아버지는 봉담배를 눌러 담으셨다.

봉두 : ① ‘고봉’의 방언

② 곡식을 되질하거나 그릇에 밥 등을 담을 때, 그릇의 전 위로 수북하게 담는 방법. ‘가득히’를 이르는 말.

☞ 아저씨는 쌀을 봉두루 담아 주었다.

봉벤 : ① ‘봉변’의 방언

② 뜻밖의 변이나 망신스러운 일을 당함. 또는 그 변.

☞ 퇴근길에 불량배들에게 봉벤을 당했다.

봉숭아 : ① ‘봉선화’의 방언

② 봉선화의 한해살이풀.

☞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드렸다.

봉양 : ① ‘복령’의 방언

② 구멍장이버섯과의 버섯. 공 모양 또는 타원형의 덩어리로 땅속에서 소나무 따위의 뿌리에 기생한다.

☞ 봉양을 알밤만 하게 꺾아 엿지름과 함께 섞는다.

뵈기 싫다 : ‘보기 싫다’의 방언

☞ 그 꼴두 뵈기 싫다.

뵈잡다 : ‘비좁다’의 방언

☞ 여러 사람들이 다니기에 길이 뵈잡다.

부깍대기 : ① ‘고무래’의 방언

②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丁’자 모양의 기구.

☞ 부깍대기는 불 넣구 담을 때 사용한다.

부동케안다 : ① ‘부동켜안다’의 방언

② 두 팔로 힘써 안거나 두 손으로 힘껏 붙잡다.

☞ 엄마는 뒤통나가 아들을 부동케 안았다.

부디끼다 : ① ‘부대끼다’의 방언

② 사람이나 일에 시달려 크게 괴로움을 겪다.

☞ 사람은 사람들과 부디끼며 산다.

부랄칭구 : ① ‘불알친구’의 방언

② 남자 사이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면서 가까이 지낸 벗을 이르는 말.

☞ 가는 부랄칭구인 나를 한눈에 알아봤다.

부러¹ : ‘팬스레’의 방언

☞ 가는 부러 지체해서 오해를 받았다.

부러² : ‘부러워’의 방언

☞ 공부 잘 하는 그 칭구가 부러.

부러³ : ① ‘일부러’의 방언

② 알면서도 마음을 숨기고.

☞ 어머니는 알고두 부러 모르는 체 넘어갔다.

부레 먹다 : ① ‘부려 먹다’의 방언

②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마구 부리거나 이용하다.

☞ 가를 짐승처럼 부레 먹었다.

부베 : ① ‘부벼’의 방언

② ‘부비다’ ‘비비다’의 활용형

☞ 뺨에다 수염투성이 얼굴을 부베 댔다.

부새(부새) : ① ‘부셔’의 방언

② ‘부수다’의 활용형

☞ 아무거나 닦치는 대로 때려 부새.

부새우 : ① ‘곤쟁이’의 방언

② 곤쟁잇과의 털곤쟁이, 까막곤쟁이, 민곤쟁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아저씨는 부새우를 몽땅 샀다.

부쇠 : ① ‘부시’의 방언

② 부싷돌을 쳐서 불이 일어나게 하는 쇠조각.

☞ 부싷돌을 부시루 내리쳐서 불을 붙인다.

부수 : ① ‘부시’의 방언

② 부싷돌을 쳐서 불이 일어나게 하는 쇠조각.

☞ 부싷돌을 부수 에 잘 놓아두어라.

부슬비 : ① ‘이슬비’의 방언

②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눈개보다 굵고 가랑비보다는 가늘다.

☞ 아침부터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부시다 : ‘부수다’의 방언

☞ 그들은 철거하는 벙을 부시기 시작했다.

부시럭거리다 : ‘부스럭거리다’의 방언

☞ 벨안간 어디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부시레기 : ① ‘부스러기’의 방언

② 잘게 부스러진 물건.

☞ 과자 부시레기를 잔뜩 흘려 놓았다.

부시레미 : ① ‘부스럼’의 방언

② 피부에 나는 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온몸에 부시레미가 났다.

부실부실 : ① ‘부슬부슬’의 방언

② 눈이나 비가 조용히 성기게 내리는 모양.

☞ 창밖으로 부실부실 겨울비가 내리구 있었다.

부애 : ① ‘부아’의 방언

② 노엽거나 분한 마음.

☞ 부애가 나는 걸 꼭 참았다.

부애 나다 : ‘화나다’의 방언

☞ 일을 건성으로 하는 그를 보자 부애가

났다.

부적갈 : ① ‘부젓가락’의 방언

② 화로에 꽃아 두고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 부적갈루 불씨를 집어 담뱃불을 붙였다.

부절까지 : ① ‘부젓가락’의 방언

② 화로에 꽃아 두고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 부절까지가 서루 부딪쳐 달그락 소리가 났다.

부주 : ① ‘부조’의 방언

②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줌. 또는 돈이나 물건.

☞ 부주는 하지 않더라두 지사상이나 치지 말라.

부지깨 : ① ‘부지깽이’의 방언

② 아궁이 따위에 불을 땔 때, 불을 헤치거나 끌어내거나 거두어 넣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느스름한 막대기.

☞ 불에 놀란 놈은 부지깨만 봐두 놀란다.

부지랭이 : ‘부지런히’의 방언

☞ 부지랭이 걸어야 어둡기 전에 도착하겠다.

부질구다 : ‘부러뜨리다’의 방언

☞ 줄가지를 일일이 부질귀 보강지에 넣었다.

부채기 : ① ‘꽃게’의 방언

② 꽃게과의 하나. 몸은 검은 자주색에 푸른 무늬가 있으며 등딱지는 마름모꼴이다.

☞ 어른들은 부채기 무침을 좋아한다.

부챌다 : ‘부챌다’의 방언

☞ 어제 감채를 택배루 부챌다.

부치미(부치기) : ‘부침개’의 방언

☞ 집치를 넣어서 부치미를 부챌다.

부친개(부친기·부침기) : ‘부침개’의 방언

☞ 부친개 세 장을 부체 먹었다.

복대기 : ① ‘복대기’의 방언

② 짚이나 풀 따위가 함부로 뒤섞여서 엉클어진 몽텅이.

☞ 마구에 복대기를 깔아 주었다.

복데미 : ① ‘복대기’의 방언

② 짚이나 풀 따위가 함부로 뒤섞여서 엉클어진 몽텅이.

☞ 복데미를 헛간에 쌓아 두었다.

복새 : ‘복풍’의 방언

☞ 낭구썩이 복새를 막아 주었다.

분벨없다 : ① ‘분별없다’의 방언

② 세상 물정에 대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다.

☞ 그가 하는 일을 보문 분벨없는 거 같애.

분추 : ‘부추’의 방언

☞ 건강 정보를 보문 분추가 몸에 좋대.

불가래 : ① ‘부삽’의 방언

②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데 쓰는 조그마한 삽.

☞ 불가래루 불씨를 퍼내 화로에 담았다.

불곰배(불곰배) : ① ‘고무래’의 방언

②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丁’자 모양의 기구.

☞ 불곰배를 보강지 에 놔둬라.

불기 : ① ‘상추’의 방언

②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 고기 먹을 때 불기에 싸 먹으론 맛있어

불까 : ‘모래밭’의 방언

👉 불가에 도루메기알이 밀려 나왔다.

불깍대기 : ① ‘고무래’의 방언

②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丁’자 모양의 기구.

👉 보강지 앞으로 불깍대기 가주구 와라.

불땅 : ① ‘모래사장’ ‘백사장’의 방언

②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넓고 큰 모래벌판.

👉 불땅에다 가마니 깔고 미역을 널어 말랬다.

불래(물래) : ‘물러앉아’의 방언

👉 불래, 앞이 안 보애.

불르다 : ‘부르다’의 방언

👉 아께 이름을 불렀는데 다시 불렀다.

불벌 : ‘불벌’의 방언

👉 불 더위에도 화덕에서 메치를 삶았다.

불비딩이 : ① ‘부삽’의 방언

②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데 쓰는 조그마한 삽.

👉 불비딩이루 불을 화로에 담아 방으로 가주구 갔다.

불알시계 : ‘추시계’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집집마다 불알시계가 있었다.

불어재기다 : ① ‘불어제치다’의 방언

② 바람이 세차게 불다.

👉 봄마다 바람이 불어재기운 끔찍두 못해.

불여우 : ① ‘여우’의 방언

② 갯과의 포유류. 매우 교활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그 여시를 불여우라구 했어.

불이나게(부리나게) : ① ‘부리나케’의 방언

②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

👉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나게 달려갔다.

불저까리 : ① ‘부젓가락’의 방언

② 화로에 꽃아 두고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 불저까리가 있어야 화로에 불을 담는다.

불집게 : ① ‘부젓가락’의 방언

② 화로에 꽃아 두고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 불집게루 불가래에 불씨를 주어 담았다.

붓뚜껍 : ① ‘붓두껍’의 방언

② 붓촉에 끼워 두는 뚜껍. 붓대보다 조금 굵은 대나 얇은 쇠붙이로 만든다.

👉 서재에 가서 붓뚜껍을 찾아봐라.

붓자루 : ① ‘붓대’의 방언

② 붓촉을 박은 가는 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손으로 잡는 부분이다.

👉 붓자루를 힘있게 잡구 한 획씩 그어나갔다.

뽕강지 : ① ‘아궁이’의 방언

② 방이나 솥 따위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든 구멍, 아궁.

👉 물을 끓이레운 뽕강지에 불을 넣어라.

비개 : ① ‘베개’의 방언

② 잠을 자거나 누울 때 머리를 괴는 물건.

👉 할머니는 비개를 받치구 누웠다.

비구송 : ① ‘구유’의 방언

②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흔히 큰 나무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다.

👉 외양간 비구송에 소 여물을 주었다.

비네 : ① ‘비녀’의 방언

② 여자의 쪽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장신구.

👉 쪽진 머리가 풀어지면서 비네가 떨어졌다.

비눌 : ① ‘비듬’의 방언

② 살가죽에 생기는 회백색의 잔비늘, 특히 머리에 있는 것.

☞ 자주 씻지 않아서 머리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비다 : ‘베다’의 방언

☞ 가는 날마동 들에 나가 꼴을 비어 왔다.

비댕이 : ① ‘부삽’의 방언

②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데 쓰는 조그만 삽.

☞ 비댕이가 있어야 불을 담구 재를 담는다.

비들기 : ‘비둘기’의 방언

☞ 비들기는 콩밭에만 마음이 있다.

비빼리다 : ‘베어버리다’의 방언

☞ 집으로 넘어지려는 나무를 비빼렸다.

비양기 : ‘비행기’의 방언

☞ 비양기가 하늘 높이 날았다.

비우 : ① ‘비위’의 방언

② 어떤 음식물을 먹고 싶은 마음.

☞ 비우가 약해서 나는 그걸 못 먹어.

비웃살 : ① ‘낙살’의 방언

②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비위 좋게 구는 짓이나 성미.

☞ 비웃살이 없어서 그 말을 못하구 말았다.

비잡다 : ‘비좁다’의 방언

☞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길이 비잡다.

비젓하다 : ‘비슷하다’의 방언

☞ 동네에서는 비젓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비지깡이 : ① ‘부지깡이’의 방언

② 아궁이 따위에 불을 땔 때, 불을 헤치거나 끌어내거나 거두어 넣거나 하는데 쓰는 가느스름한 막대기.

☞ 바벨 때는 비지깡이두 같이 툰다구 했다.

비지다 : ① ‘빚다’의 방언

② 흙 따위의 재료를 이겨서 어떤 형태를 만든다.

☞ 가가 손수 옹구를 비지졌다.

비지장 : ① ‘비지찌개’의 방언

② 비지에 김치 우거지나 나물을 섞고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넣어 새우젓국을 쳐서 바특하게 끓인 찌개.

☞ 오늘 밥상에는 비지장을 올렸다.

비짜리(비짜루) : ‘빚자루’의 방언

☞ 가을에는 짜리 비짜리를 손수 맨들었다.

비케 : ‘비켜’의 방언

☞ 서둘러 가야 하니까 얼렁 길을 비케.

비키다 : ‘보이다’의 방언

☞ 언뜻언뜻 그의 모습이 비키지만 잡을 수 없는 게 안타깝다.

빌레주다 : ‘빌려주다’의 방언

☞ 이자도 안 받고 돈을 빌레주었다.

빗짚기 : ‘빚자루’의 방언

☞ 마당을 빗짚기루 깨끗이 쓸었다.

빙구(빙고) : ‘얼음썰매’의 방언

☞ 아이들은 한겨울 빙판에서 빙구를 타구 놀았다.

빙신 : ‘병신’의 방언

☞ 사람들은 ‘빙신 육갑하네’라구 속떡거렸다.

빠니 : ‘뻘히’의 방언

☞ 그 사람을 빠니 체다보았다.

빠리빠리하다 : ① ‘빠릿빠릿하다’의 방언

② 푹푹하고 행동이 날래다.

☞ 그 젊은 사람은 보기보다 빠리빠리했다.

빠빰이 : ‘빰빰하게’의 방언

☞ 가는 바지와 남방을 빠빰이 대렸다.

빠수다 : ① ‘바수다’의 방언

②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잘게 깨뜨리다.

☞ 흙덩이를 잘게 빠수어 밭에 버렸다.

빠세다 : 하는 일이 힘들고 고되다.

☞ 지금까지 쉬지 았구 빠세게 일했다.

빠쥐 : ① ‘박쥐’의 방언

② 박쥐목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한여름 날이 저물자 빠쥐가 날아들었다.

반대기(쌍판대기) :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뽀뽀스럽게 낮반대기를 들구 나타났다.

반쓰 : ‘팬티’의 일본어식 표현.

☞ 애들은 반쓰두 입지 았구 물에 뛰어 들었다.

반지름하다 : ‘반듯하다’의 방언

☞ 그가 하는 일은 늘 반지름하다.

빨간무 : ① ‘당근’의 방언

② 산형과의 두해살이풀.

☞ 감자와 빨간무를 볶아 반찬을 만들었다.

빨곤하다 : ① ‘발곤하다’의 방언

② 사소한 일에 걸핏하면 왈각 성을 낸다.

☞ 그 말을 듣자 빨곤하구 덤배 들었다.

빨딱고개 : 매우 가파른 고개를 이르는 말.

☞ 산을 오르다가 빨딱고개에 접어들었다.

빨래망치 : ① ‘빨랫방망이’의 방언

② 빨랫감을 두드려서 빠는데 쓰는

방망이. 넓적하고 기름한 나무.

☞ 냇가에서 아낙들이 빨래망치로 빨래를 두드렸다.

빨래장대 : ① ‘바지랑대’의 방언

②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 고추잠자리가 빨래장대에 앉았다.

빨랫돌 : ① ‘다듬잇돌’의 방언

②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는 돌.

☞ 푸새한 옷감을 빨랫돌 위에 놓고 방망이를 두드렸다.

빨르게 : ‘빠르게’의 방언

☞ 가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서둘러서 여기 떠났다.

빵꾸 : ‘펑크’의 일본어식 표현

☞ 니야까에 짐을 마이 실었더니 바꾸가 빵꾸 났다.

빠 : ‘빠’의 방언

☞ 그 사람 말에는 항상 빠가 있다.

빠강생이 : ① ‘말라깽이’의 방언

② 몸이 몹시 야윈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가는 늘 환자처럼 빠강생이 그대루었다.

빠다지 : ① ‘서랍’의 방언

② 책상, 장롱, 화장대, 문갑 따위에 끼웠다 빼었다 하게 만든 뚜껑이 없는 상자.

☞ 책상 빠다지 속을 깨끗이 정리했다.

빠대 : ‘빠대’의 방언

☞ 가는 빠대가 통빠라구 했다.

빠돌가지 : ① ‘뽀두라지’의 방언

② 뽀족하게 부어오른 작은 부스럼.

☞ 모가지에 난 빠돌가지가 아프다.

빠따구 : ① ‘뽀(빠다귀)’의 방언

② 뽀의 날개

☞ 우리 개는 빼따구를 정말 좋아해.

빼랍 : ‘서랍’의 방언

☞ 중요한 문서는 빼랍에 넣어 두었다.

빼박다 : ① ‘빼쏘다’의 방언

② 성격이나 모습이 꼭 닮다.

☞ 그 늙은 지애비를 쏙 빼박았다.

빼빠지게 : ① ‘뼈빠지게’의 방언

② 오래도록 고통을 참으며 있는 힘을 다하다.

☞ 젊었을 때 빼빠지게 고생해서 지금은 잘 살구 있다.

빼족하다 : ‘뽕족하다’의 방언

☞ 그 막대기는 끝이 빼족하다.

빼장우 : ① ‘질경이’의 방언

② 질경잇과의 여러해살리풀. 높이는 90cm 정도,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긴 타원형이다.

☞ 빼장우는 약으루두, 반찬으루두 먹는다.

뺨따구 : ① ‘뺨(뺨다귀)’의 방언

② 뺨의 날개

☞ 날이 꺾으니까 뺨따구가 쑤신다.

뺨장구(뺨장우) : ① ‘질경이’의 방언

② 질경잇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90cm 정도이며,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긴 타원형이다.

☞ 뺨장구는 약효두 있구, 맛두 있다.

뺨기다 : ‘벗기다’의 방언

☞ 그 여자는 남편의 젖은 옷을 뺨겼다.

뺨아리 : ‘병아리’의 방언

☞ 애들은 뺨아리 파는 아저씨를 둘러쌌다.

뺨이 : ① ‘팽이’의 방언

② 둥글고 짧은 나무의 한쪽 끝을 뽕족하게 깎아서 쇠구슬 따위의 심을 박아

만든 아이들의 장난감.

☞ 어릴 적 얼음판에서 뺨이를 돌리며 놀았다.

뺨데기 : ① ‘번데기’의 방언

② 누에가 고치를 틀고 변하여 된 몸.

☞ 옛날엔 뺨데기를 영양 간식이라고 했다.

뺨갱이 : ① ‘볼락’의 방언

② 양볼락과의 바닷물고기.

☞ 우럭보다 뺨갱이가 살이 싼하대구 한다.

뺨 : ‘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뺨 따구 있네(거짓말 하고 있네).

뺨트콩 : ① ‘베트콩’의 방언

② 베트남 공산주의자라는 뜻으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그 애 뺨맹은 뺨트콩이었어.

뺨다구(뺨다귀) : ① ‘뺨(뺨다귀)’의 방언

② 뺨의 날개

☞ 그 한테 까불다가 뺨다구두 못 추레.

뺨창 : 가파른 ‘절벽’의 방언

☞ 그쪽으로 가운 뺨창이래.

뽕개다 : ① ‘빠개다’의 비표준어

② 작고 단단한 물건을 두 쪽으로 가른다.

☞ 통나무를 뽕개야 장작으루 쓴다.

뽕드락지 : ① ‘뽕두라지’의 방언

② 뽕족하게 부어오른 작은 종기.

☞ 뽕드락지는 고약을 발라야 낫는다.

뽕라지 : ‘볼’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까부는 늙은 뽕라지를 오래 부체.

뽕아치다 : ① ‘뽕아치다’의 방언

② 몹시 급하게 몰아치다.

☞ 일에 진척이 없다구 훌레 뽕아쳤다.

볶은밥 : ① ‘볶음밥’의 방언

② 쌀밥에 당근, 쇠고기, 감자 따위를 잘게 썰어 넣고 기름에 볶아 만든 음식.

☞ 가끔씩 먹는 볶은밥이 맛있다.

복쟁이(복쟁이) : ① ‘복어’의 방언

② 참복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복쟁이는 독이 있어 전문가 손질이 필요해.

복작장 : 뒹직하게 끓인 된장을 이르는 말.

☞ 복작장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본 보다 : ‘본 받다’의 방언

☞ 가는 아버지 뽀보구 행동하는 거 같애.

본때 : ① ‘본때’의 방언

② 본보기가 되거나 내세울 만한 것.

☞ 네가 웃을 입으니까 뽀때가 난다.

뽀 : ① ‘뽀’의 방언

②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완전히 펴서 벌렸을 때 두 끝 사이의 거리.

☞ 니 뽀이 작아서 서너 뽀이 되겠다.

뽀? : ① ‘뽀기’의 방언

② 띠의 어린 꽃이삭.

☞ 뽀에는 찔레순이나 뽀를 간식으로 먹었어.

뽀오두 : ① ‘오디’의 방언

② 뽀나무의 열매

☞ 뽀오두를 따 먹으면 입가가 시켜명다.

부덕하다 : ① 북한어 ‘꾸덕하다’의 방언

② 물기 있는 물건이 짧은 시간 마르거나 얼어서 굳은 듯하다.

☞ 부덕한 생선을 조리문 증말 맛있다.

부러지다 : ‘부러지다’의 방언

☞ 높은 가지가 부러지길 쉽다.

부러지 : ‘뿌리’의 방언

☞ 꼬춥대 뿌러지가 제법 크다.

뿌레기 : ‘뿌리’의 방언

☞ 그 낭구 뿌레기가 장난 아니다.

부수다(부시다) : ‘부수다’의 방언

☞ 그들은 낡은 집을 부시기 시작했다.

복대기 : ① ‘복대기’의 방언

② 짚이나 풀 따위가 함부로 뒤섞여서 엉클어진 몽텅이.

☞ 소 외양간에 복대기를 깔아 주었다.

뽀곤하다 : ‘불곤하다’의 방언

☞ 승질 나서 주먹을 뽀곤 쥐구 휘둘렀다.

뽀다 : ① ‘뽀다’의 방언

②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 시간이 흘러 국시가 점점 뽀었다.

뽀따구 : ① ‘성’의 방언

② 노엽거나 언짢게 여겨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

☞ 뽀따구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뽀쿠다 : ① ‘불리다’의 방언

② 물에 젖게 해서 부피를 커지게 하다. ‘뽀다’의 사동사.

☞ 마른 고사리는 물에 뽀꿔야 한대.

뽀가번쩍하다 : ‘번쩍번쩍하다’의 방언

☞ 그의 구두는 닳아서 뽀가번쩍했다.

뽀개대다 : ① ‘뽀개대다’의 방언

② 비스듬히 기대다.

☞ 그 작은 틈바구니에서 오랫동안 뽀개 났다.

뽀까뽀까 : ‘비슷비슷’의 방언

☞ 그 둘은 늘 뽀까뽀까 했다.

뽀뽀다 : ① ‘비뽀다’의 방언

② 바르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기울어 지거나 쏠린 상태에 있다.

☞ 뽀에 걸린 액자가 뽀뽀어졌다.

뽀아리 : ‘병아리’의 방언

☞ 뽀아리가 비실비실하다.

삐지다 : ‘토라지다’의 방언

☞ 누이동생은 벨거 아닌데두 삐졌다.

뽕구 : ‘얼음썰매’의 방언

☞ 저을 뽕구 타는 일이 지다레진다.



사괴 : ‘사과’의 방언

☞ 사괴는 익을수록 맛있다.

사그러지다 : ① ‘사위다’의 방언

② 불이 사그러져서 재가 되다.

☞ 불 타올랐던 불길이 점차 사그러졌다.

사까래 : ‘삽’의 방언

☞ 보포랑을 작업은 사까래가 있어야 된다.

사나울 : ‘사나흘’ ‘삼사일(3~4일)’의 방언

☞ 부모님은 사나울에 한 번꼐루 들르신다.

사내자숙 : ① ‘사내아이’의 방언

② ‘남자아이’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

☞ 사내자숙이 비겁하게 도망갔다.

사닥다리 : ‘사다리’의 방언

☞ 지붕에 올라가래운 사닥다리가 필요해.

사둔 : ① ‘사돈’의 방언

②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 또는 그 집안의 같은 항렬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이르는 말.

☞ 사둔 남 말하네.

사들 : ① ‘반두’의 방언

② 양쪽에 가늘고 긴 막대로 손잡이를

만든 그물. 주로 얇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몰아 잡는다.

☞ 물고기잡으러 가기 위해 사들을 찾았다.

사루마다(사리마다) : ‘팬티’의 일본어식 표현

☞ 훈련병들을 사리마다 바람에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사리 : ① ‘사레’의 방언

② 음식을 잘못 삼켜 기관(氣管)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기침처럼 뽀여져 나오는 기운.

☞ 사리가 들렸는지 대구 지침을 하고 있다.

사마구 : ① ‘버마재비’의 방언

② ‘사마귀’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사마구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관찰하고 있다.

사마구² : ① ‘사마귀’의 방언

② 피부 위에 낱알만 하게 도도룩하고 납작하게 돋은 반질반질한 군살.

☞ 손등에 팔알만 한 사마구가 있었다.

사발문애 : 사발 크기의 ‘문어’를 이르는 말.

☞ 문애는 사발문애가 맛있다.

사부작사부작 : ‘조심스럽게(서서히)’의 방언

☞ 원래 그 일은 사부작사부작할 일이다.

사생겔단 : ① ‘사생결단’의 방언

②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함.

☞ 그는 사생겔단을 작성하구 덤베 들었다.

사심 : ① ‘사슴’의 방언

② 사슴과에 속하는 포유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동물원에 사심이 보구 싶다.

사알 : ‘사흘’의 방언

☞ 그 일은 대략 사알 걸린다구 했다.

사우¹: ‘사위’의 방언

☞ 남의 사우 오거나 말거나.

사우²: ① ‘사당(祠堂)’의 방언

②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

☞ 사람들은 사우에 가서 절하며 조상 은 덕에 감사했다.

사작사작: ‘조심스럽게(서서히)’의 방언

☞ 그는 사작사작 담을 쌓기 시작했다.

사작밥(사젯밥): ① ‘사작밥’의 방언

② 초상난 집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부를 때 저승사자에게 대접하는 밥.

☞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재빨리 사작밥을 지을 준비를 했다.

사창궁이: ① ‘사타구니’의 방언

② ‘살’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사창궁이에 두 손을 찌르구 새우처럼 꼬부리구 있었다.

사춘성님: 사춘 형님을 이름.

☞ 사춘성님이 조카들 데리구 떠났다.

사춘행수(사춘행수): ‘사춘형수’의 방언

☞ 사춘행수는 사춘성님을 따라 갔다.

사쿠다: ‘사귀다’의 방언

☞ 여자 사쿠는 게 습지 않아.

사팔때기: ① ‘사팔뜨기’의 방언

② 사팔눈을 가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심한 사팔때기 때문에 애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사할: ‘사흘’의 방언

☞ 장맛비는 사할 동안 계속되었다.

삭다리: ① ‘삭정이’의 방언

②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 삭다리를 주워 와서 모닥불을 지폈다.

삭월세: ① ‘사글세’의 방언

② 집이나 방을 다달이 빌려 쓰는 일. 또는 그 돈.

☞ 그 친구는 돈이 모라자 삭월세루 들어갔다.

산꼬댁이: ① ‘산꼭대기’의 방언

② 산의 맨 위.

☞ 산꼬댁이까지 올라갈레면 천천히 올라야 해.

산데미: ① ‘산더미’의 방언

② 물건이 많이 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할 일이 산데미처럼 쌓여 있다.

산뽕우리(산뽕오리): ① ‘뽕우리’의 방언

② 산에서 뽕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

☞ 산뽕우리가 뽕족하게 생겼다.

산뼉알: 가파른 ‘산비탈’의 방언

☞ 산뼉알에서 큰 돌이 내려굴렀다.

산삼꾼: ① ‘심마니’의 방언

② 산삼을 캐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산삼꾼들은 꿈을 중요하게 여긴다.

산자리: ① ‘뿔자리’의 방언

② 뿔을 쓸 자리, 또는 쓴 자리.

☞ 산자리는 남향이구 양지바른 곳이어야 한다.

산죽: ① ‘조릿대’의 방언

② 벼과의 여러해살이 식물. 높이는 1~2m이며, 잎은 긴 타원형의 피침 모양이다.

☞ 뒷산에 산죽을 비다가 복조리를 맨다.

산쥐: ① ‘다람쥐’의 방언

② 쥐목의 다람쥐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산쥐는 도토리를 먹구 산다.

산지숙 : ① ‘산기슭’의 방언

② 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

☞ 산지숙에서 시작하는 길이 가파르다.

산질 : ‘산길’의 방언

☞ 산질이너무 험해서 조심해 올라야 한대.

산짐승 : ① ‘산짐승’의 방언

② 사람이 기르지 아니하는. 산에서 사는 짐승.

☞ 가끔씩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렸다.

산태깨비 : ‘벼랑’의 방언

☞ 발을 헛디더 산태깨비 아래루 떨어진 뻘했다.

산태미 : ① ‘삼태기’의 방언

②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데 쓰는 기구.

☞ 산태미에 흙을 퍼 날랐다.

살 : ① ‘용수’의 방언

② 짜리니 대오리로 만든 둥글고 긴 통. 술이나 장을 거르는 데 쓴다.

☞ 독에 살을 받치구 술을 걸렀다.

살갱이 : ① ‘삶’의 방언

② 고양이과의 포유류, 고양이와 비슷한데 몸의 길이는 55~90cm이고, 갈색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다.

☞ 살갱이는 닭장을 습격했다.

살곰살곰 : ‘살금살금’의 방언

☞ 고냉이는 소리를 내지 앓구 살곰살곰 기어갔다.

살기 : ① ‘삶’의 방언

② 고양이과의 포유류. 고양이와 비슷한데 몸길이는 55~90cm이며. 갈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다.

☞ 살기는 고양이과 동물인데 행동이 민첩하다.

살기계 : ① ‘벼훤이’의 방언

② 두 개의 나뭇가지나 수숫대 또는 땃가지의 한끝을 동여매어 집게처럼 만들고 그 틈에 벼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농기구.

☞ 살기계는 베만 훑은 게 아니라 보리두 훑는다.

살땡이 : ‘살덩이’의 방언

☞ 그 말에 놀라 살땡이가 떨렸다.

살모새 : ‘살모사’의 방언

☞ 맹독을 가진 살모새가 무섭다.

살무사 : ① ‘살모사’의 방언

② 살무삿과의 뱀. 흔히 쇠살무사, 까치살무사와 함께 살무삿과를 통틀어 이르기도 한다.

☞ 살무사는 출혈 독을 지니구 있다.

살짜기 : ‘살짝’의 방언

☞ 그 일을 내게만 살짜기 알레 주었다.

살짝곰보 : ① ‘살짝곰보’의 방언

② 약간 엷은 얼굴. 또는 그 얼굴을 가진 사람.

☞ 살짝곰보가 송이 될 수는 없다.

살치 : ① ‘송사리’의 방언

② 송사릿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5cm 정도이며, 잿빛을 띤 엷은 갈색이다.

☞ 어릴 때 냇가에서 살치두 잡구 물놀이 두 했다.

살키 : ① ‘삶’의 방언

② 고양이과의 포유류. 고양이와 비슷한데 몸길이는 55~90cm이며. 갈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다.

☞ 닭이 살키에게 물레 죽었다.

살피 : ① ‘설피’의 방언

② 산간 지대에서, 눈에 빠지지 않도록 신 바닥에 대는 넓적한 덧신, 찰, 노, 새끼 따위로 엮어서 만든다.

☞ 눈이 마니 왔을 때는 살피를 신어야 잘 걸을 수 있다.

삼마이그물 : ① ‘삼중자망’의 방언, 일본어 합성

② 세 겹으로 짜여진 물고기 그물.

☞ 어부들에겐 삼마이그물이 고기 잡는 무기였다.

삼바리 : ① ‘다리쇠’의 방언

② 주전자나 냄비 따위를 화로 위에 올려놓을 때 걸치는 기구.

☞ 화덕에 삼바리를 걸치구 독배기를 올려놓았다.

삼수기(삼시기) : ① ‘삼세기’의 방언

② 삼세깃과의 바닷물고기. 쭈기미와 비슷한데 몸은 우둘투둘하며, 짙은 녹색 또는 녹색이고 옆구리에 검은 갈색의 가로띠가 있다.

☞ 삼수기는 매운탕감으로 최고다.

삼신할머니(삼신할미) : ① ‘삼신할머니’의 방언

② 삼신이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다는 데서, ‘삼신’을 달리 이르는 말.

☞ 애들은 삼신할머니가 보살펴 주는 것으로 믿었다.

삼오제 : ① ‘삼우제’의 방언

②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

☞ 가족들은 할아버지 삼오제 지내구 탈상했다.

삼촌 : ‘삼촌’의 비표준어

☞ 삼촌이 우리 집에 다니러 오겠다.

삼태미(삼탱이) : ① ‘삼태기’의 방언

②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데 쓰는 기구.

☞ 자갈을 삼태미에 담아 옹겔다.

삼가래 : ‘삽’의 방언

☞ 흙을 서너 삽가래 퍼서 자루에 담아라.

삼짱가리 : ‘삽’의 방언

☞ 땅이 얼어서 삼짱가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삼초삭(삼추삭) : ① ‘삼추’의 방언

②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50cm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의 타원형이다.

☞ 삼초삭을 넉 낱을 뜨신 물에 담가 하룻밤을 재워라.

상가 : ① ‘아직’의 방언

②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 밥이 상가 덜 됐다.

상가두 : ‘아직도’의 방언

☞ 가들은 놀러나갔다가 상가두 아이 왔어.

상각 : ① ‘상객’의 방언

② 혼인 때 가족 중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

☞ 조캐 잔치 때 웃말 아재가 상각으로 갔었지.

상구머리 : ① ‘상고머리’의 방언

② 머리 모양의 하나. 앞머리만 약간 길게 놓아두고 옆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치켜 올려 깎고 정수부분은 편평하게 다듬는다.

☞ 그때는 남자애들은 거의 상구머리였어.

상두계 : ① ‘상포계’의 방언

② 초상 때 드는 비용을 서로 도와 마련하기 위해 모은 게.

☞ 동네 초상 때는 상두계에서 주관했어.

상두꾼(상애꾼) : ① ‘상여꾼’의 방언

② 상여를 메는 사람.

☞ 들메꾼을 걸머 맨 상두꾼들이 상엿소리의 후렴을 불렀다.

상두재비 : ① ‘상쇠재비’의 방언

② 두레패나 농악대 따위에서, 팽과리를 치면서 전제를 지휘하는 사람.

☞ 두레패에서는 상두재비가 제일 높아.

상머슴 : ① ‘상머슴’의 방언

② 일을 잘하는 장정 머슴.

☞ 소 메기구 끝 비구 하다보른 중머슴, 상머슴도 될 거야.

상바리 : 바닷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사용하는 말.

☞ 오늘은 만성호가 상바리 했다.

상애 : ① ‘상여’ ‘행상(行喪)’의 방언

② 사람의 시체를 실어서 묘까지 나르는 도구. 10여 명이 메며 길이가 길고 꼭지 있는 가마와 비슷하게 생겼다.

☞ 상장을 짊구 홀로 상애 뒤를 따라갔다.

상치 : ① ‘상추’의 방언

②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 가을 상치는 문 걸어 잠그구 먹는다.

삼키다 : ‘삼키다’의 방언

☞ 속상했지만 눈물을 삼켰다.

새각씨 : “새각시” ‘새색시’의 방언

☞ 새각씨가 이쁘다구 이구동성이어.

새간 : ‘사이’의 방언

☞ 문 새간에 옷이 끼었다.

새경꾼(세경꾼) : ‘머슴’의 방언

☞ 그 집은 한때 수십 명의 새경꾼을 두구 살았다.

새경살이 : ‘머슴살이’의 방언

☞ 남의 새경살이 하다가 벼락부자가 됐다.

새기다(새키다) : ① ‘삭히다’의 방언

② 김치나 젓갈 따위의 음식을 발효시켜 맛이 들게 하다. ‘삭다’의 사동사.

☞ 밥을 새게 킨 걸 감주라구 한다.

새꼬레기(새꼬래기) : ① ‘새끼’의 방언

② 짚으로 꼬아서 줄처럼 만든 것.

☞ 농새일이 없는 겨울이문 주로 농부들은 새꼬레기를 꼬았다.

새꾸락지 : ① ‘새끼’의 방언

② 짚으로 꼬아서 줄처럼 만든 것.

☞ 둘둘 감은 새꾸락지를 타래라구 한다.

새끼줄 : ① ‘새끼’의 방언

② 짚으로 꼬아서 줄처럼 만든 것.

☞ 썩은 새끼줄두 잡아당겨야 끊어진다.

새다리 : ‘사다리’의 방언

☞ 높은 곳을 올라갈라문 새다리가 있어야 돼.

새댁 : ‘새댁’의 방언

☞ 새루 시집 온 새댁은 손이 부지런하대.

새루 : ‘새로’의 방언

☞ 그 집은 이번에 새루 이새 온 집이야.

새박(새벽, 새벽) : ‘새벽’의 방언

☞ 아버지는 새벽 같이 집을 나섰다.

새비새끼 : ① ‘새우’의 방언

② 절지동물 십각목 장미아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청구들과 철판에 새비새끼를 구워 먹었다.

새빨간 거짓말 : 뻔히 드러날 만큼 터무니없는 거짓말.

☞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통났다.

새색씨 : ‘새색시’의 방언

☞ 새색씨는 이른 아침에 정자에 들어섰다.

새아부지 : ‘의붓아버지’의 방언

☞ 아부지를 여의구 새아부지 밑에서 컸다.

새안날물 : 서남(西南)에서 북동(北東)으로 흐르는 조류(潮流)

☞ 새안날물 때는 조류가 빠르다.

새안들물 : 동남(東南)에서 서북(西北)으로 흐르는 조류(潮流)

☞ 새안들물 때는 물안개가 많다.

새암 : ① ‘샘’의 방언

② 남의 처지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적수를 미워함.

☞ 새 장난감을 보구는 새암이 나서 토라졌다.

새어머이 : ‘계모’ ‘의붓어머니’의 방언

☞ 가는 상가두 새어머이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다.

새이새이 : ‘사이사이’의 방언

☞ 밤하늘 구름 새이새이 별들이 총총하다.

새치 : ① ‘임연수어’의 방언

② 쥐노래미과의 바닷물고기.

☞ 싱싱한 새치를 조리거나 구워 먹으면 맛있다.

새침때기 : ① ‘새침대기’의 방언

② 새침한 성격을 지닌 사람.

☞ 예쁜 팔래미는 새침때기였다.

새키다 : ‘삼키다’의 방언

☞ 쓴 물약을 꿀짝 새켰다.

색씨 : ‘색시’ ‘처녀’의 방언

☞ 갓 시집 온 색씨를 보려고 모에 들었다.

셋갓 : ‘삿갓’의 방언

☞ 감나무 밑에 누워도 셋갓 미사리를 대어라.

셋바람 : 뱃사람들의 은어로, ‘북풍’을 이르는 말.

☞ 억센 셋바람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셋재(새재) : ① ‘왕겨’의 방언

② 벼의 겉겨.

☞ 셋재는 닭 모이루 쓴다.

생거 : ‘날것’의 방언

☞ 생거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난다.

생게란 : ① ‘날계란’의 방언

② 익히지 아니한 달걀.

☞ 목청을 위해 생게란을 먹었다.

생짐치 : ① ‘생김치’의 방언

② 아직 익지 아니한 김치.

☞ 생짐치가 삼삼하니 증말 맛있다.

생체기 : ① ‘상처’의 방언

② 몸을 다쳐서 부상을 입은 자리.

☞ 생체기가 굵지 않도록 약을 발랐다.

생추 : ① ‘상추’의 방언

②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 텃밭에 생추를 숨겨 먹으면 좋다.

생키다 : ‘삼키다’의 방언

☞ 아이는 쓴 약을 꿀짝 생켰다.

생태(生太) : 갓잡아 신선도가 좋은 명태를 이르는 말.

☞ 갓 잡은 맹태를 생태라고 한다.

서거리(씨거리) : ① ‘아가미’의 방언

②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기관.

☞ 맹태 서거리루 텃갈 담그문 증말 맛있다.

서루 : ‘서로’의 방언

☞ 서루 힘을 합하문 두려울 게 없다.

서방 : ‘남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서방이바람을 피워서 맘 고상이심했다.

서이 : 숫자 ‘셋’의 방언

☞ 하나 둘이 서이 너이

서포살이 : ‘셋방살이’의 방언

☞ 어렵게 집을 마련해서 서포살이를 끝냈다.

서황당 : ① ‘서낭당’의 방언

② 서낭신을 모신 집

☞ 마을마다 서황당이 있다.

서히 : 숫자 ‘셋’의 방언

☞ 하나 둘이 서히 너이

석가래 : ① ‘서까래’의 방언

②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 그 위에 산자를 얹는다.

☞ 집 지을 때 석가래를 올리구 그 위에 산자를 깔았다.

석수쟁이 : ① ‘석수장이’의 방언

② ‘석수’를 낮잡아 이르는 말.

☞ 석수쟁이가 있어야 비석을 맨든다.

선몽 : ① ‘현몽’의 방언

② 죽은 사람이나 신령 등이 꿈에 나타남. 또는 그 꿈.

☞ 그의 꿈에 조상님들이 나타나 선몽을 했다.

선상님 : ‘선생님’의 방언

☞ 선상님께 진학 문제 상담을 신청했다.

설라문애 : ‘그렇게 해 가지고’의 방언

☞ 하나요, 설라문애 돌이요.

설물 : 남(南)에서 북(北)으로 흐르는

조류(潮流)

☞ 설물애두 조류가 빠르게 흐른다.

설새하다 : ‘설사하다’의 방언

☞ 상한 음식을 먹어서 설새를 했다.

설흔 : 숫자 ‘서른’의 방언

☞ 내년이문 내 나이두 설흔이다.

설흔여들비 : 숫자 ‘서른여덟’의 방언

☞ 설흔여들비 이전에 장가를 가야지.

섭죽 : ‘홍합죽’의 방언

☞ 여름이문 섭죽이 먹구 싶다.

성(성님) : ‘형(형님)’의 방언

☞ 성님이 나서문 나두 나설게요.

성가시롭다(성가시롭다) : ① ‘성가시다’의 방언

② 자꾸 들볶거나 번거롭게 굴어 괴롭고 귀찮다.

☞ 니가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증말 성가시롭다.

성군 : ① ‘쟁기꾼’의 방언

② 모내기할 때 쟁기를 부려 논바닥을 먼저 갈거나 고르는 사람.

☞ 모내기할 때 제일 바쁜 사람이 성군이다.

성기다 : ‘섬기다’의 방언

☞ 아버이를 극진히 성겼다.

성냥개피 : ‘성냥개비’의 방언

☞ 성냥개피루 장난감 집을 만들었다.

성복 : ① ‘성복(盛服)’의 방언

②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음.

☞ 입관 뒤 사일성복을 하여 성복제를 지냈다.

성황당(城隍堂) : ① ‘서낭당’의 원말

② 서낭신을 모신 집

☞ 동네마다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섭(섭) : ① ‘홍합’의 방언

② 홍합과의 조개.

☞ 장마철에 섭을 따서 먹은 설새한데.

세(세) : ‘혀’의 방언

☞ 일이 너무 심들어 세가 빠졌다.

세살바기 : ‘세 살배기’의 방언

☞ 세 살바기가 게우 걷기 시작했다.

세규(석유) : ‘석유’의 방언

☞ 세규는 귀한 기름이다.

세아리다 : ‘헤아리다’의 방언

☞ 판장에서 맹태를 세아리기 시작했다.

세태(洗太) : 할복해 내장을 제거하고
턱을 떼어 묶은 후 덕장에 널기 직전 명
태 씻는 작업.

☞ 울지약 춤다니까 얼렁 세태해서 덕장
에 걸어야 한다.

셋바닥 : ‘헛바닥’의 방언

☞ 너무 피곤한 지 셋바닥에 가시가 났어.

소갈머리 : 마음이나 속생각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놈은 소갈머리가 없는 놈이야.

소고도리 : 중간 크기의 고등어 또는 고
등어 새끼.

☞ 싱싱한 소고도리 구운 증말 맛있다.

소고리 : ① ‘소쿠리’의 방언

②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 정지에 있는 소고리 들구 따라 와.

소곰 : ‘소금’의 방언

☞ 삶은 계란을 소곰에 찍어 먹어야 해.

소까지 : ‘솔가지’의 방언

☞ 불쏘시개는 소까지가 좋다.

소갱이 : ① ‘관솔’의 방언

② 송진이 많이 영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

☞ 송진이 많은 소갱이는 불이 잘 붙는다.

소꿈놀이 : ‘소꿉놀이’의 방언

☞ 소꿈놀이 친구들이 다 모였다.

소꿈놀이 : ‘소꿉질(소꿉장난)’의 방언

☞ 소꿈놀이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소내기(쏘나기) : ‘소나기’ ‘소낙비’의
방언

☞ 갑자기 소내기가 쏟아져 옷이 다 젖었
다.

소두뱅이(소두배이) : ① ‘소댕’의 방언

② 솔을 덮는 쇠뚜껑. 가운데가 볼록
하게 솟고 복판에 손잡이가 붙어 있다.

☞ 소두뱅이를 함부루 열지 마라.

소디끼 : ‘누룽지’의 방언

☞ 솔에 붙은 소디끼를 박박 긁었다.

소롯길 : ① ‘소로(小路)’의 방언으로 비
표준어.

☞ 사람들이 적은 소롯길이 더 운치 있다.

소방울(쇠방울) : ① ‘워낭’의 방언

② 마소의 귀에서 턱 밑으로 늘어 단
방울. 또는 마소의 턱 아래에 늘어뜨린
쇠고리.

☞ 잠시 잠이 들었다가 쇠방울 소리에 깼
다.

소벤 : ‘소변’의 방언

☞ 소벤이 너무 마롭다.

소시랑 : ① ‘쇠스랑’의 방언

②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 풀 무
덤 따위를 쳐내는 데 쓰는 갈퀴 모양의
농기구.

☞ 밭에서 소시랑으로 흙을 고르구 있었
다.

소적 : ① ‘묵’의 방언

② 도토리, 메밀, 녹두 따위의 양금을 되게 썬어 굳힌 음식.

☞ 차가운 소적이 몽클 만져졌다.

소지: ① ‘소제’의 방언

②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

☞ 방이 너무 더러워 얼렁 소지해라.

소쟁이(마른 것): ‘누룽지’의 방언

☞ 소쟁이는 고소하고 맛있다.

소치: ‘솔’의 방언

☞ 강가에서 돌을 세우구 소치를 올렸다.

소태(小太): 크기로 분류 할 때 가장 작은 명태.

☞ 맹태 작은 걸 소태라구 한다.

속곳: ① ‘속곳(단의單衣)’의 방언

② 속속곳과 단속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그 여자는 넘어지민서 속곳이 보였다.

속다(속았수): ① ‘수고하다’의 방언

② 일을 하느라고 힘들이고 애쓰다.

☞ 먼 길 오느라 속았다.

속백이: ① ‘소박이’의 방언

② 소를 넣어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집치 속백이 양념을 마이 버무래.

속알머리: ① ‘마음보’의 방언

② 마음이나 속생각을 낫잡아 이르는 말.

☞ 그 고약한 속알머리 좀 고쳐라.

속중우: ① ‘속곳(단의單衣)’의 방언

② 속속곳과 단속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속옷을 입었다지만 속중우가 너덜거렸다.

속치매: ‘속치마’의 방언

☞ 치매가 너무 얇아서 비칠까 봐 속치매

를입었다.

손골미: ① ‘골무’의 방언

② 바느질할 때 바늘귀를 밀기 위하여 손가락에 끼는 도구

☞ 손골미 없이 바느질 하다가 손을 찔렀다.

손꼬락(손꾸락): ‘손가락’의 방언

☞ 같은 손꼬락에도 길구 짧은 게 있다.

손꼬텡이: ‘손끝’의 방언

☞ 전기 합선인지 손꼬텡이가 찔렀했다.

손님: ‘천연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엔날 할매들은 천연두를 손님이라구 했다.

손모가지: ‘손목’의 방언

☞ 손모가지를 잡아채 조용한 곳으로 끌구 갔다.

손살이풀리다: ‘손에 힘이 빠지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그 일 이후 손살이풀레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손아구: ‘손아귀’의 방언

☞ 손아구 힘이 너무 세서 아팠다.

손재비: ‘손잡이’의 방언

☞ 손재비를 돌려 문을 열었다.

손지: ① ‘손주’의 방언

②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방언

☞ 손지 귀엽다하든 할아버 뺨을 친대.

솔개미: ① ‘솔개’의 방언

② 수릿과의 새.

☞ 솔개미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빙빙 돌았다.

솔검불: ① ‘솔가리’의 방언

② 말라서 땅에 떨어진 솔잎.

☞ 갈퀴로 솔검불을 긁어모았다.

솔깨비: ① ‘솔가리’의 방언

② 말라서 땅에 떨어진 솔잎. 소나무

가지를 땀감으로 쓰려고 묶어놓은 것.

☞ 인제 솔깨비 굶으러 가유.

솔방구리(솔뽕구리) : ① ‘솔방울’의 방언

② 소나무 열매의 송이

☞ 솔방구리를 주서와서 난로에 넣었다.

솔방우리(솔뽕우리) : ① ‘솔방울’의 방언

② 소나무 열매의 송이

☞ 솔방우리와 마른 덩불을 주워서 불을 지다.

솔비 : ① ‘귀얄’의 방언

② 풀이나 옷을 칠할 때에 쓰는 솔의 하나.

☞ 부드러운 솔비루 한 방향으로 칠해야 한다.

송방맹이 : ‘송방망이’의 방언

☞ 세귀를 뿌린 송방맹이에 불을 땡겼다.

송고송고 : ① ‘곤지곤지’의 방언

② 젓먹이에게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땀다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 애기들은 송고송고하든 좋아했다.

송구 : ① ‘송기(松肌)’의 방언

② 소나무의 속껍질. 찰가루와 함께 섞어서 떡이나 죽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 산에서 베게 온 송구로 떡을 해서 팔았다.

송구떡 : ‘송기떡’의 방언

☞ 송구를 두드려서 송구떡을 만들었다.

송깍지 : ① ‘깍질’의 방언

②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

☞ 송깍지를 뱉게야 먹을 수 있다.

송아리 : ① ‘솔가지’의 방언

② 꺾어서 말린 소나무의 가지. 주로 땀감으로 쓰인다.

☞ 송아리를 있는 대루 펴어 보강지에 넣었다.

송판때기 : ‘송판’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송판때기를 가지런히 깔았다.

솔꿀기(물기 있는 것) : ‘누룽지’의 방언

☞ 솔꿀기를 박박 굶었다.

쇠 : ‘소’의 방언

☞ 쇠 잃구 외양간 고친다.

쇠경 : ① ‘소경’의 방언

②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쇠경에게도 눈 멀었다 하든 싫어한다.

쇠고집패기 : ① ‘황소고집’의 방언

② 몹시 센 고집. 또는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쇠고집패기를 꺾을 수 없었다.

쇠기다 : ‘속이다’의 방언

☞ 온갖 교설루 남을 쇠겼다.

쇠기지름 : ‘석유기름’의 방언

☞ 쇠기지름은 비싼 난방용 지름이다.

쇠경 : ‘거울’의 방언

☞ 쇠경에 비친 자신을 보구 놀랐다.

쇠꼬시 : ① ‘세꼬시’의 방언

② 살아 있는 생선을 뼈째 잘게 찢어 놓은 회.

☞ 뼈 뿌러진 환자에게 쇠꼬시를 먹으라 구 권했다.

쇠꼬치 : ‘쇠’의 방언

☞ 고물장사는 쇠꼬치를 찾았다.

쇠곰(소곰, 쇠곰) : ‘쇠’의 방언

☞ 쇠곰을 녹여 연장을 만들었다.

쇠곰솔 : ‘무쇠솔’의 방언

☞ 쇠곰솔에 물을 끓이구 있다.

쇠꽃방아(쇠꽃방애) : ① ‘쇠 절구’의 방언

② 쇠로 만든 절구

☞ 쇠뿔방하는 집에서 많이 쓴다.

쇠뿔 : ‘소뿔’의 방언

☞ 쇠뿔에 미끄러져 개뿔에 코방아 찧는다.

쇠띠기 : ① ‘쇠뜨기’의 방언

② 속새과의 여러해살이풀. 땅속줄기가 길게 가로 뻗으며, 마디에서 해다마 땅위줄기가 곧게 난다.

☞ 쇠띠기는 잘 죽지 않는다.

쇠미역(세미역) : ① ‘쇠미역사촌’의 전 용어

② 다시맛과의 갈조류. 길이가 1~2m, 폭은 5~30cm로 누런 갈색 또는 어두운 갈색이다.

☞ 쇠미역은 말려서 자반미역이 되었다.

쇠숫대 : ① ‘세숫대야’의 방언

② 세숫물을 담은 둥글넓적한 그릇.

☞ 쇠숫대에 물을 받아 두었다.

쇠시랑 : ① ‘쇠스랑’의 방언

②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 풀 무덤 따위를 쳐내는 데 쓰는 갈퀴 모양의 농기구.

☞ 쇠시랑으로 밭 흙을 고르기 시작했다.

쇠심줄(쇠떡심) : ‘소의 힘줄’의 뜻으로 고집 세고 질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가는 쇠심줄처럼 질겼다.

쇠통 : ① ‘자물쇠(자물통)’의 방언

② 여닫게 된 물건을 채워서 열지 못하게 잠그는 쇠.

☞ 그 문에는 큰 쇠통이 걸레 있었다.

쇠풀 : ① ‘꼴’의 방언

②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풀.

☞ 학교 마치고 돌아가면 쇠풀을 비었다.

쇠때 : ① ‘자물쇠(자물통)’의 방언

② 여닫게 된 물건을 채워서 열지 못하게 잠그는 쇠.

☞ 쇠때가 없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쇠편 : ‘송편’의 방언

☞ 추석 때에 집집마다 쇠편을 만들었다.

쇠뚜껑 : ‘솔뚜껑’의 방언

☞ 자라 보구 놀란 가슴 뚜껑 보구 놀란다.

수구러지다 : ① ‘수그러지다’의 방언

② 안으로 굽어 들거나 기울어지다.

☞ 기세가 한풀 펴여 고개가 푹 수구러졌다.

수구레 : ‘숙여’의 방언

☞ 야, 머리 다친다. 얼른 고개 수구레.

수팔 : ‘순가락’의 방언

☞ 수팔을 가져와야 밥을 먹지.

수팔저팔 : ① ‘수저’의 방언

② 순가락과 젓가락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수팔과 저팔을 나란히 놓아야 한다.

수력 : ① ‘수령’의 방언

② 곤죽이 된 진흙과 개흙이 물과 섞여 많이 끈 웅덩이. 또는 그런 땅.

☞ 발을 잘못 디더 수력에 빠졌다.

수리 : ① ‘솔개’의 방언

② 수릿과의 새.

☞ 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쭉 폈다.

수리매 : ① ‘솔개’의 방언

② 수릿과의 새.

☞ 한겨울에 수리매가 허공을 빙빙 돌았다.

수물 : ‘스물’의 방언

☞ 갓 수물 나이에 군대에 갔다.

수물다섯 : 숫자 ‘스물다섯’의 방언

☞ 수물다섯이 되자 이성을 찾기 시작했다.

숫소 : 소의 수컷을 이르는 말.

☞ 저 숫소는 보기보다 심이 세다.

수술 : ① ‘벗’의 방언

② 닭이나 새 따위의 이미 위에 세로로 붙은 살 조각. 빗갈이 붙고 시율이 톱니처럼 생겼다.

☞ 장닭 한 마리가 수술을 세우며 달아났다.

순댕이 : ‘순둥이’의 방언

☞ 우리 집 개는 순댕이다.

순억지 : ① ‘생억지’의 방언

② 특별한 까닭도 없이 무리하게 쓰는 억지.

☞ 그 여자는 갑작스레 순억지를 쓰기 시작했다.

술뱅 : ‘술병’의 방언

☞ 그 집 문턱에는 술뱅이 가득 했다.

술종지 : ‘술잔’의 방언

☞ 술을 마실레운 술종지가 필요해.

술찌개미 : ① ‘술지개미’의 방언

② 재강에 물을 타서 모주를 짜내고 남은 찌꺼기.

☞ 술찌개미를 몰래 먹었다가 취해서 혼난 적이 있다.

숨그다(숨구다) : ① ‘심다’의 방언

② 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흙 속에 묻다.

☞ 밭에다 도라지를 숨구다 다 못숨겼다.

숨다 : ① ‘심다’의 방언

② 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흙 속에 묻다.

☞ 봄에 밭에 고추를 마니 숨었다.

숨겨 : ‘심어’의 방언

☞ 텃밭에 푸성귀 모종을 숨겨 놓았다.

숨기다 : ‘숨기다’의 방언

☞ 헛간에 몸을 숨겼다.

숨게 : ‘쉽게’의 방언

☞ 너무 숨게 생각하는 바람에 들켰다.

숫거망 : ‘숫’의 방언

☞ 눈썹을 숫거망으루 그린 것처럼 질구 선명하다.

숫갈 : ‘숫가락’의 방언

☞ 살강 밑에서 숫갈 얻었다.

숫괌댕이 : ‘숫’의 방언

☞ 숫괌댕이가 괌점 낭구란다.

송 : ① ‘흥’의 방언

②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

☞ 남의 송 한 가지든 지 송 열 가지.

송내 : ‘흥내’의 방언

☞ 남 송내 내는 사람은 어른답지 못하다.

송보다 : ‘흥보다’의 방언

☞ 사람들이 뵈이든 남 송보는 게 일이다.

송잡히다 : ‘흥잡히다’의 방언

☞ 가급적 송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

송터 : ‘흥터’의 방언

☞ 전쟁 때 총 맞은 송터가 상가 남아있다.

송허물 : ① ‘흥허물’의 방언

② 흥이나 허물이 될 만한 일.

☞ 우리는 서루 송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다.

숫댕이 : ‘숫덩이’의 방언

☞ 화롯불 숫댕이가 정겹다.

쉬쉬떡 : ‘수수떡’의 방언

☞ 팔고물 묻힌 쉬쉬떡이 그림다.

쉬시 : ① ‘수수’의 방언

② 벼과의 한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2m정도이며, 잎은 어긋맞게 넓은 선 모양이다.

☞ 옛날에는 쌀이 모자라서 쉬시를 섞어

밥을 지었다.

쉬엄 : ‘수엄’의 방언

☞ 쉬엄이 석자라두 먹어야 산다.

쉬파람 : ‘휘파람’의 방언

☞ 주인 쉬파람 소리에 개들이 몰려왔다.

쉬파리 : ‘쇠파리’의 방언

☞ 콩콩한 냄새 때문에 쉬파리들이 몰려왔다.

쉽(쑤) : ‘수염’의 방언

☞ 노인은 쉽을 쓰다듬으며 위엄을 보였다.

스물스물 : ① ‘스멀스멀’의 방언

② 살갗에 벌레가 자꾸 기어가는 것처럼 근질근질한 느낌.

☞ 몸에서 이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거 같애.

스줍살이 : ① ‘시집살이’의 방언

② 결혼한 여자가 시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하는 일.

☞ 그 여자는 스줍살이로 스트레스를 받구 있다.

속달 : ‘척 달’의 방언

☞ 가는 속 달에 한 번 집에 왔다.

스무당 : ① ‘선무당’의 방언

② 서투르고 미숙하여 곳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당.

☞ 스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슴달(숫달) : ① ‘선달’의 방언

② 음력으로 한 해의 맨 끝 달.

☞ 슴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한다.

슬(술날) : ① ‘설(설날)’의 방언

②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정월 초하룻날이다.

☞ 게으른 선비 술날에 다락에 올라가서 글을 읽는다.

승강이 : ① ‘승강이’ ‘실랑이’의 방언

②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여 옥신

각신하는 일.

☞ 하루 종일 승강이 하느라 진이 빠다.

승냥간 : ① ‘대장간’의 방언

② 풀무를 차려 놓고 쇠를 달군 후 두드려서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 승냥간에서 호미, 칼, 도끼, 농기구를 베렸다.

승냥통 : ‘성냥갑’의 방언

☞ 요즘 승냥통을 보기 힘들어.

승질머리 : ① ‘성질’의 방언

② ‘성질’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 그 승질머리 하구는, 꺾을 사람이 없어.

시겍떨다 : ① ‘호들갑 떨다’의 방언

② 경망스럽고 야단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부리는 일.

☞ 금방 난리날 것처럼 시겍을 떨었다.

시골띠기 : ‘시골뜨기’의 방언

☞ 누가 시골띠기 아니라 할까봐.

시구럽다(시구롭다) : ① ‘시다’의 방언

② 맛이 식초나 설익은 살구와 같다.

☞ 덜 익은 사과는 시구럽다.

시금털터름하다 : ① ‘시금털털하다’의 방언

② 맛이나 냄새 따위가 조금 시면서도 뽀다. ‘시금떨떨하다’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 과일이 덜 익어 시금털터름하다.

시굼다 : ① ‘시다’의 방언

② 맛이 식초나 설익은 살구와 같다.

☞ 자두가 덜 익어 시굼다.

시긔둥하다 : ① ‘시큰둥하다’의 방언

② 말이나 행동이 주제넘고 건방진다.

☞ 그 대답이 탐탁하지 않은 듯 시긔둥하다.

시금추: ① ‘시금치’의 방언

② 명아쭈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 너무 오래 살아 시금추가 물러졌다.

시나미: ‘시나브로’의 방언, 천천히 또는 조금씩 조금씩의 뜻.

☞ 시나미 하구 드루와.

시누: ‘시누이’의 방언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밍다.

시다: ‘헤아리다’의 방언

☞ 그는 동전을 시기 시작했다.

시동상: ‘시동생’의 방언

☞ 시동상은 어렸을 때 발목을 다다.

시렁: ‘선반’의 방언

☞ 그 공책을 시렁에 올려 놔라.

시루뽀: ‘시룻뽀’의 방언

☞ 쌀가루로 시루뽀를 개었다.

시루허리: ‘시룻뽀’의 방언

☞ 빵 돌아가며 시루허리를 붙였다.

시물다섯: 숫자 ‘스물다섯’의 방언

☞ 그의 나이는 시물다섯이구 아직 미혼이다.

시방: ‘지금’의 방언

☞ 시방 운동하구 있는데 한 시간 후 보자.

시상에: ‘세상에’의 방언

☞ 시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시숫대: ① ‘세숫대야’의 방언

② 세숫물을 담은 둥글넓적한 그릇.

☞ 천정에 물이 새자 시숫대를 받쳐 놓았다.

시아리다: ‘헤아리다’의 방언

☞ 판장에서 맹태를 시아리기 시작했어유.

시아부지: ‘시아버지’의 방언

☞ 시아부지는 아무 말두 하지 않았다.

시아재비: ① ‘도련님’의 방언

②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높여 이르기나 부르는 말.

☞ 시아재비는 일찍 집을 나갔다.

시아주버니(시아주버이): ① ‘시숙’의 방언

② 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 시아주버니는 증말 어루운 분이세.

시어머이: ‘시어머니’의 방언

☞ 시어머이는 참 펜한 분이신데.

시엄: ‘헤엄’의 방언

☞ 니, 시엄을 잘 치나?

시엄마: ‘시어머니’의 방언

☞ 시엄마는 우리 친엄마 같애.

시지부지: ‘흐지부지’의 방언

☞ 그 사건은 그 후 시지부지 됐어.

시쪽빚쪽: 잘 빠지는 상태를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여자는 늘 시쪽빚쪽이 일어었어.

시컷: ‘실컷’의 방언

☞ 이번에 시컷 하라구 해.

시쿠등하다: ① ‘시큰둥하다’의 방언

② 말이나 행동이 주제넘고 건방지다.

☞ 남자는 그 말은 듣구 시쿠등했다.

시할머이: ‘시할머니’의 방언

☞ 시할머이는 손주들을 아주 좋아했다.

시할무이: ‘시할머니’의 방언

☞ 시할무이는 뒷방 늙은이루 오래 사했다.

시할아버이: ‘시할아버지’의 방언

☞ 시할아버이는 원래부터 말이 없으셨다.

식전: 이른 아침을 이르는 말.

☞ 식전부터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

했다.

신경통 : ① ‘신경통’의 방언

② 말초 신경이 자극을 받아 일어나는 통증.

☞ 신경통에는 우선 진통제가 직방이야.

신다리 : ‘넓적다리’의 방언

☞ 의자에 부디체 신다리에 멍이 들었다.

신장노 : ① ‘신작로’의 방언

②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새로 낸 길을 이르는 말.

☞ 밤길 올 때는 골목길보다 신장노루 와.

신짱 : ① ‘신장’ ‘신발장’의 방언

② 신발을 넣어 두는 장.

☞ 신짱에 신발을 채곡채곡 넣어 두었다.

신기다 : ① ‘신기다’의 방언

② 신, 버선, 양말 따위를 발에 꿰게 하다. ‘신다’의 사동사.

☞ 손주에게 신발을 신켰다.

실경 : ‘선반’의 방언

☞ 실경에 할머니 드시는 약을 두었다.

실그머니 : ‘슬그머니’의 방언

☞ 얘기를 듣구 보니 실그머니 화가 났다.

실금실금 : ‘슬금슬금’의 방언

☞ 가는 눈치를 보더니 실금실금 뒷걸음쳤다.

실기 : ① ‘시루’의 방언

② 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 데 쓰는 둥근 질그릇.

☞ 실기에 보재기를 팔구 떡을 안치했다.

실기떡 : ‘시루떡’의 방언

☞ 붉은팔으루 고물을 얹힌 실기떡이 맛있다.

실눈까리 : ‘실눈’을 낚잡아 이르는 말.

☞ 실눈까리를 뜨구 짜레봤다.

실루 : ① ‘시루’의 방언

② 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 데 쓰는 둥근 질그릇.

☞ 고방에 가서 실루를 찾아와라.

실쩍 : ‘슬쩍’의 방언

☞ 삼춘은 그런 말을 실쩍 흘렸다.

실쩍실쩍 : ① ‘슬쩍슬쩍’의 방언

② 물건이 서로 맞닿아 자꾸 비벼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그 음식을 실쩍실쩍 집어 먹었다.

실큰 : ‘실컷’의 방언

☞ 이왕 먹는 김에 실큰 먹어라.

심 : ‘힘’의 방언

☞ 예부터 심을 써야 심이 생긴다고 했어.

심구다 : ① ‘심다’의 방언

② 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흙 속에 묻다.

☞ 이른 봄에 감재를 일찍 심겼다.

심부름 : ‘심부름’의 방언

☞ 심부름 가는 길에 그 여자를 우연히 만났다.

심보 : ① ‘심보’의 방언

② 마음을 쓰는 속 바탕.

☞ 그따위 심보부터 고치라구 멘박을 주었다.

심술꾸레기 : ‘심술꾸러기’의 방언

☞ 가를 심술꾸레기라구 놀렸다.

심심초 : ‘담배’를 낚잡아 이르는 말.

☞ 남자들한테는 심심초가 있어야 위로가 됐다.

심줄 : ‘힘줄’의 방언

☞ 그 친구는 팔뚝 심줄이 툭툭 볼거졌다.

심쌍 : ① ‘십상’의 방언

② 일이나 물건 따위가 어디에 꼭 맞는 것.

☞ 그 일이 그렇게 이어지곤 걸리기 심쌍이지.

싱겁다 : ‘싱겁다’의 방언

☞ 그 키 큰 아저씨는 싱구운 사람이야.

싸가지 : ① ‘소갈머리’의 방언

② 마음이나 속생각을 낫잡아 이르는 말.

☞ 그 칭구 하는 짓마다 싸가지가 없어.

싸구리 : ① ‘싸구려’의 방언

② 값이 싸거나 질이 낮은 물건.

☞ 그 가게 있는 거 거진 다 싸구리야.

싸그리 : ① ‘깡그리’의 방언

② 하나도 남김없이.

☞ 거기 있는 거 싸그리 거둬 와.

싸대기 : ① ‘귀싸대기’의 방언

② 귀와 뺨의 어름을 낫잡아 이르는 말.

☞ 하는 꼴이 어디 가서 싸대기 맞을 것 이야.

싸래기 : ① ‘싸라기’의 방언

② 쌀의 부스러기.

☞ 엇그제 방아를 찼었는데 싸래기가 많아.

싸래기눈 : ① ‘싸라기눈’의 방언

② 빗방울이 갑자기 찬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

☞ 간밤에 싸래기눈이 내려서 소복히 쌓였다.

싸리(싸레) : ① ‘사레’의 방언

② 음식을 잘못 삼켜 기관(氣管)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기침처럼 뱉어져 나오는 기운.

☞ 그 손님이 급히 먹더니 싸리가 들렸나 봐.

싸리문 : ‘사립문’의 방언

☞ 싸리문을 밀치구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싸리버섯 : ‘싸리버섯’의 방언

☞ 싸리버섯은 물에 옮귀야 독이 빠져.

싸우(싸위) : ‘사위’의 방언

☞ 싸우는 백년 손이요 며느리는 종신 식구라.

싸지르다 : ‘싸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너는 어딜 그리 싸지르구 다니니?

씩다리 : ① ‘삭정이’의 방언

②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 썩다리를 모아 다 불을 지폈다.

쌀가매 : ‘쌀가마’의 방언

☞ 쌀가매를 창고에 채곡채곡 쌓았다.

쌀광밥 : 쌀 튀밥을 이르는 방언

☞ 쌀광밥은 간식으로 먹기 좋다.

쌀깜박 : 쌀 튀밥을 이르는 방언

☞ 쌀깜박은 입에 대문 계속 먹게 돼.

쌀남박 : ① ‘이남박’의 방언

② 안쪽에 여러 줄로 고랑이 지게 돌려 파서 만든 함지박. 쌀 따위를 씻어 일 때에 돌과 모래를 가라앉게 한다.

☞ 어머니는 쌀남박에 쌀을 일었다.

쌀뒹구미 : ① ‘떡뒹구미’의 방언

② 짚으로 둥글고 울이 깊게 결어 만든 그릇. 주로 쌀,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담는데 쓰인다.

☞ 말린 쌀은 쌀뒹구미에 보관했다.

쌀똥물 : ① ‘쌀뜨물’의 방언

② 쌀을 씻고 난 뿌연 물.

☞ 간고등어에 쌀똥물을 넣어 올렸다.

쌀리다 : ① ‘내달리다’의 방언

② 힘차게 달리다.

☞ 눈 덮인 산비탈에서 비료포대 타구 쌀렸다.

쌀벌거지 : ① ‘쌀벌레’의 방언

② 쌀을 갈아 먹는 벌레.

☞ 쌀통에 쌀벌거지가 보이는 거 같애.

쌀알 : ① ‘쌀’의 방언

② 쌀의 하나하나의 알.

☞ 쌀알 한 알에 농부의 여든여덟 번 손길.

쌈다 : ① ‘끓다’의 방언

② 물에 넣고 끓이다.

☞ 예전에는 표백제 대신 빨래를 쌈맷다.

쌈박질 : ‘싸움박질’의 줄인 말.

☞ 그들은 서루 쌈박질해서 모임이 깨졌다.

쌈지방아 : ① ‘물레방아’의 방언

②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찧거나 뿜는 기구.

☞ 동네사람들은 쌈지방아에 곡식을 찧었다.

쌈싸름하다 : 조금 쓴 맛이 있는 듯하다.

☞ 봄나물 맛은 쌈싸름해.

쌍년 : ① ‘상년’의 센말

② 본데없고 막된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상대어 ‘쌍놈’>

☞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쌍년이라구 욕했다.

쌍놈 : ① ‘상놈’의 센말

② 본데없고 버릇없는 남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상대어 ‘쌍년’>

☞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쌍놈이라구 했다.

쌍바라지문 : ‘미달이’의 방언

☞ 요즘은 쌍바라지문이 많다.

쌍욕 : ① ‘상욕’의 센말

② 상스러운 욕설.

☞ 열 받은 남자는 다시 쌍욕을 해댔다.

쌍판대기 : ① ‘상판대기’의 방언

②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쌍판대기 보기두 싫다구 악을 썼다.

쌔우다 : ① ‘우기다’의 방언

② 억지를 부리어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다.

☞ 그 남자는 아득바득 쌔우기 시작했다.

쌔감 : ① ‘날감’의 방언

② 익지 아니하였거나 우리지 아니한 감.

☞ 쌔감은 펴버서 먹지 못한다.

쌔똥 : ① ‘산똥’의 방언

② 배탈이 나서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나오는 똥.

☞ 미처 소화되지 않아 쌔똥으로 나왔다.

쌔똥싸다 : 몹시 힘들어하는 상태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증말 쌔똥 싸다.

쌔쥐 : ① ‘생쥐’의 방언

② 쥐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6~10cm, 꼬리의 길이는 5~10cm이다. 야생종은 몸 윗면이 잿빛을 띤 갈색이다.

☞ 쌔쥐가 백 이곳저곳에 구멍을 냈다.

써개 : ① ‘서개’의 방언

② ‘이’의 알

☞ 애들 머리를 뒤적이며 써개를 잡았다.

씩 : ‘가까이’의 방언

☞ 야, 니 썩 들어앉아.

씩세빠졌다 : ‘억척스럽다’의 방언

☞ 그 집 딸년들은 몽땅 썩세빠졌다.

씩세다 : ‘억척스럽다’의 방언

☞ 예전부터 나룻가 년들은 썩세다.

세가 빠졌다 : 아주 ‘힘들었다’의 방언

☞ 그 짐을 옮기느라 세가 빠졌다.

세게 : ① ‘되게’의 방언

② 아주 몹시.

☞ 급하게 오가다가 세게 부딪혔다.

세싸리가 빠지다 : ① ‘죽다’의 방언, ‘세싸리’는 헛바닥의 뜻

☞ 그 일을 마무리 하느라 세싸리가 빠졌다.

세우치다 : ① ‘밀어붙이다’의 방언

②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계속 몰아붙이다.

☞ 막판에 그 일 완수를 위해 뺄세게 세우쳤다.

쌌다 : ‘많다’ ‘흔하다’는 의미의 방언

☞ 그 가게에는 먹을게 쌌다.

쓰개울치 : 살이 가늘고 촘촘해 서개를 훑어 내는 데 쓰는 참빗.

☞ 쓰개울치로 곱게 빗어 쪽을 지쌌다.

쌌기 : ① ‘씨아’의 방언

②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

☞ 쌌기를 돌려 씨를 빼라.

쌌들 : ① ‘씨아’의 방언

②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 토막나무에 두 개의 기둥을 박고 그 사이에 둥근 나무 두 개를 끼워 손잡이를 돌리면 톱니처럼 마주 돌아가면서 목화의 씨가 빠진다.

☞ 쌌들을 이용해 씨를 빼라.

쑤들쑤들 : ① ‘수들수들’의 방언

② 풀이나 뿌리, 열매 따위가 시들고 말라서 생기가 없는 모양.

☞ 내내 가물어서 이파리가 모두 쑤들쑤들하네.

쑤떡거리다 : ① ‘수근거리다’의 방언

②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다.

☞ 동네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에서 쑤떡거렸다.

췌미 : ‘수염’의 방언

☞ 췌미가 열 자라두 먹어야 양반이다.

쓰겁다 : ① ‘쓰다(苦)’의 방언

②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소태, 씬바귀의 맛과 같다.

☞ 봄나물은 기본적으로 쓰겁다.

쓰래 : ① ‘쓰레’의 방언

② 갈아 놓은 논외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 논바닥 고를 때 쓰래가 있어야 돼.

쓰레박 : ① ‘쓰레받기’의 방언

② 바로 쓴 쓰레기를 받아 내는 기구.

☞ 여기 쓸게비를 쓰레박에 담아 버려.

쓰잘데기없다 : ① ‘쓸데없다’의 방언

② 아무런 쓸모가 득이 될 것이 없다.

☞ 그건 아무리 잘해두 쓰잘데기없는 짓이다.

쓸게비 : ‘쓰레기’의 방언

☞ 여기 쓸게비가 너무 많아 지저분해.

쌔 : ① ‘성’의 방언

② 노엽거나 언짢게 여겨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

☞ 똥 쌔 놔미 쌔낸다.

쌔깁 : ① ‘성깁’의 방언

② 거친 성질을 부리는 버릇이나 태도. 또는 그 성질.

☞ 그놈 더러운 쌔깁 가지구 있네.

씨가리 : ① ‘씨알머리’의 방언

② 남의 혈통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그놈에 집구석은 워낙 씨가리가 많아.

씨갈머리 : ① ‘씨알머리’의 방언

② 남의 혈통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같은 씨갈머리라고 지네 펜만 들어.

씨굼다(씨구와) : ‘쓰다(苦)’의 방언

☞ 밭에서 캔 씬바구가 씨굽다.

씨글벅적하다 : ① ‘시글벅적하다’의 방언

②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며 떠들어 시끄럽다.

☞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 씨글벅적했다.

씨겁하다 : ① ‘식겁하다’의 방언

② 뜻밖에 놀라 겁을 먹다.

☞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씨겁했는지 몰라.

씨래기 : ‘시래기’의 방언

☞ 씨래기는 영양가 높은 식자재루 소문났어.

씨러지다 : ‘쓰러지다’의 방언

☞ 그 얘기를 듣구 아버지는 씨러지구 말았다.

씨레박기 : ‘쓰레받기’의 방언

☞ 밖에 씨레박기에 담아서 씨레기통에 버려.

씨리다 : ‘시리다’의 방언

☞ 장갑을 끼지 않았더니 손이 씨리다.

씨벌이(씨버리) : 몹시 수다스러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여자는 동네에서 씨벌이라구 소문났다.

씨애미 : ‘시어머니’를 낮잡아 부르는 말.

☞ 씨애미는 메뉴리를 못살게 굴었다.

씨언하다 : ‘시원하다’의 방언

☞ 간간이 부는 바람이 씨언하다.

씨에 : ① ‘씨야’의 방언

②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

☞ 씨에를 돌려서 씨를 빼라.

씩다 : ① ‘식다’의 방언

② 더운 기가 없어지다.

☞ 따뜻한 찐빵이 금방 썩었다.

쓸게비통(쓸게비통) : ‘쓰레기통’의 방언

☞ 쓸게비를 씨레박기에 담아 쓸게비통에 넣어.

쓸데없이 : ‘쓸데없이’의 방언

☞ 똥싸게는 쓸데없이 군소리를 하구 갔다.

씻뚜기 : 잘 빠지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잘 빠지는 사람을 씻뚜기라구 불렀다.

씻쳐라 : ① ‘씻어라’의 방언, ‘씻다’의 명령어

② 물이나 휴지 따위로 때나 더러운 것을 없게 하다.

☞ 문지구덩이 갔다왔으니 얼렁 씻쳐라.

쌍치 : ① ‘도치’의 방언

② 도치과의 바닷물고기.

☞ 쌍치는 데체서 회루두 먹는다.

쌍통이 : ① ‘도치’의 방언

② 도치과의 바닷물고기.

☞ 쌍통이는 얼큰한 두루치기두 좋다.

쌍튀 : ① ‘도치’의 방언

② 도치과의 바닷물고기.

☞ 저울에 먹는 쌍튀는 생선답지 않게 담백한 맛이 있어.

.....「ㅇ」.....

아 : ‘아이’의 방언

☞ 빵은 아, 어른 할 거 없이 다 좋아해.

아갈바우 : ① ‘올보’의 방언

② 걸핏하면 우는 아이.

☞ 걸핏하문 울어 대서 벨명이 아갈바우다.

아갈질 : ① ‘말질’의 방언

② 이러니저러니 하고 말로 다투거나 쓸데없이 말을 옮기는 일을 낫잡아 이르는 말.

☞ 그 소문에 대해 더 이상 아갈질하지 않았다.

아구다툼 : ① ‘아귀다툼’의 방언

② 각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헐뜯고 기를 쓰며 다투는 일.

☞ 택시를 잡기 위해 아구다툼이 벌어졌다.

아구통 :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압압한 놈 아구통을 날레 뿌레.

아금지 : ① ‘아가미’의 방언

②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기관.

☞ 아금지루 젓갈을 담그문 증말 맛있다.

아까모치 : ① ‘볼락’의 방언, 일본식 표기

② 양볼락과의 바닷물고기.

☞ 아까모치는 가시가 많아 먹기 불편해.

아카이 : ‘성계’의 방언으로 붉은 성계를 이르는 말. 일본식 표기

☞ 아카이를 알팡구라구두 해.

아께 : ‘아까’의 방언

☞ 아께 내가 준 책 다시 돌려줘.

아께² : ① ‘아껴’의 방언

② 물건이나 돈, 시간 따위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다.

☞ 뭇든지 아께야 부자가 된다.

아꿈치(아금지) : ① ‘아가미’의 방언

②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기관.

☞ 물고기 아꿈치 손질이 쉽지 않다.

아꿈다 : ‘아깝다’의 방언

☞ 그대루 버리문 증말 아꿈다.

아다마다 : ‘알고말고’의 방언

☞ 그 사람을 아다마다.

아달맹이 : ① ‘알맹이’의 방언

② 물건의 껍데기나 껍질을 벗기고 남은 속 부분.

☞ 그 문제에 있어서 그가 아달맹이라구 해두 과언이 아니다.

아덜놈 : ① ‘아들놈’의 방언

② ‘아들’을 낫잡아 이르는 말.

☞ 아덜놈들은 부모 생각을 많이 안 해.

아덜래미 : ① ‘아들내미’의 방언

② ‘아들’을 귀엽게 이르는 말.

☞ 아덜래미가 가끔 용돈을 보낸다.

아등바등 : ① ‘아등바등’의 방언

②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우려대는 모양.

☞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등바등하며 살지?

아들래미 : ‘아들’의 방언

☞ 아들래미에겐 꿈이 있구 그 꿈을 위해 살지.

아라먹다 : ‘알아듣다’의 방언

☞ 가는 얼른 아라먹구 다시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다.

아랫간 : ‘아랫방’의 방언

☞ 아랫간에는 다른 손님들이 들었어.

아랫목 : ① ‘아랫목’의 방언

② 온돌방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방바닥.

☞ 아랫목은 늘 어른들 차지였다.

아레 : ‘아흐레’의 방언

☞ 그 사람은 아레 있다가 온다구 했다.

아르쇠 : ① ‘다리쇠’의 방언

② 주전자나 냄비 따위를 화로 위에 올려놓을 때 걸치는 기구.

☞ 화루에 아르쇠를 걸치구 주전자를 올레.

아리까리 : ① ‘알쏭달쏭’의 방언

②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얼른 분간이 안 되는 모양.

☞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아리까리 해.

아매 : ‘아마’의 방언

☞ 아매 지금쯤 어른들을 만났을 거야.

아무래문 : ‘아무려면’의 방언

☞ 아무래문 가가 거짓말 할레구.

아무치두 : ‘아무렇지도’의 방언

☞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무치두 않아.

아무케나 : ‘아무렇게나’의 방언

☞ 아무케나 전해줘두 알아서 할 거야.

아물구다 : ① ‘아물게 하다’의 방언

② 부스럼이나 상처가 낫도록 하다.

☞ 상처는 쪼지만 잘 아물켰을 거야.

아버이 : ‘아버지’의 방언

☞ 아버이는 아무 말씀두 않으셨다.

아범 : ‘아버지’의 방언

☞ 아범이 거길 갔다온다구 그랬지?

아부지 : ‘아버지’의 방언

☞ 아부지는 늘 속으루 우셨다.

아사무사하다 : ① ‘어사무사하다’의 방언

②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다.

☞ 가를 만난 기억이 아사무사하다.

아삼육 : 둘도 없이 친한 사이를 가리키는 말. 친구 사이가 많으나 선후배 사이도 많다.

☞ 그 둘은 언제나 아삼육이었어.

아시우 : ‘아세요?’의 방언

☞ 그 선생님을 아시우?

아쌀하다 : ‘깨끗하다’ ‘솔직하다’는 뜻으로 그럴 바에는 오히려.

☞ 그런 멘에서 그는 아쌀한 사람이야.

아어머이 : ‘아이 엄마’의 방언

☞ 아어머이는 그 아 때문에 증말 고상했다.

아이구 : ① ‘아이고’의 방언

②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

③ 반갑거나 좋을 때 내는 소리

④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 아이구, 배야.

아이구, 이게 얼마 만이니?

아이구,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구나.

아이다 : ‘아니다’의 방언

☞ 그건 그제 아이다.

아이래유 : ‘아니래요’의 방언

☞ 그 물건은 가께 아이래유.

아이씨 : ‘아저씨’의 방언

☞ 아이씨, 일루 비케유.

아이야 : ‘아니다’의 방언

☞ 거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곳이 아이야.

아이잠 : ① ‘첫잠’의 방언

② 막 곤하게 든 잠.

☞ 가는 막 아이잠이 들었다.

아이짐 : ① ‘애벌 김매기’의 방언

② 모 이앙 후 맨 처음 대강 김매기.

☞ 아이짐은 농사의 시작이야.

아자씨 : ‘아저씨’의 방언

☞ 아자씨는 증말 친절하구 멋쟁이래유.

아재 : ‘아주버니’와 ‘아주비’를 이르는 방언

☞ 아재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기구 갔다.

아재비 : ① ‘도련님’의 방언

②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아재비는 어려운 일을 맡아 고상한대.

아주머이(아줌마) : ① ‘아주머니’의 방언

② 부모와 같은 항렬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그 아주머이는 떠버리래유.

아주버니(아주베이) : ① ‘서방님’의 방언

② 결혼한 시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아주버니는 집안에 어른이었다.

아지랭이(아즈랭이) : ① ‘아지랑이’의 방언

② 주로 봄날 햇빛이 강하게 쬔 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

☞ 봄에는 들에 아지랭이가 연기처럼 피었다.

아차구 : ① ‘가지’의 방언

② 가짓과의 한해살이풀.

☞ 아차구는 찌서 무채 먹는 게 좋다.

아침 : ‘아침’의 방언

☞ 아침 나절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아칙 : ‘아침’의 방언

☞ 아칙에 구장을 집에 들렸다.

아편 : ‘아편’의 방언

☞ 아편을 맞으면 붙잡혀 간다.

아푸다 : ‘아프다’의 방언

☞ 간밤 심하게 앓더니 상가두 아프다.

아흐레 : ‘아홉 날’의 방언

☞ 아매도 아흐레쯤 올 거라고 했지.

악다구리 : ① ‘악다구니’의 방언

② 기를 써서 다투며 욕설을 함. 또는 그런 사람이나 행동.

☞ 밀린 방세 땀에 악다구리가 나올 법두 한데.

악짜가치 : ‘악착같이’의 방언

☞ 그는 악짜가치 뒤쫓아 왔다.

안기래 : ‘안 그래’의 방언

☞ 주운 거는 반납해야지. 안 기래?

안보케 : ‘안 보여’의 방언

☞ 글씨가 안보케서 돋배기를 써야 돼.

안개오름 : ① ‘눈개’의 방언

②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 가는 비.

☞ 산골짜기에서 안개오름이 시작됐어.

안경재비 : ① ‘안경쟁이’의 비표준어

② 안경을 쓴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 그 학급에는 안경재비가 몇 명이니?

안안팍 : ① ‘안팍’의 방언

② 사물이나 영역의 안과 밖.

☞ 그 일 이후 안안팍으로 곤궁에 처했지.

안죽 : ① ‘아직’의 방언

②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 가는 안죽 거기 살구 있어.

안존호박 : ① ‘얹은호박’의 방언

② (북한어 식물) 올호박의 하나.

☞ 여름에 안존호박이 장에 나와

안줄뱅이(안질뱅이) : ① ‘얹은뱅이’의 방언

② 하반신 장애인 중에서 앉기는 하여도 서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막걸리는 한줄뱅이 술이지.

안질뱅이저울 : ① ‘얕은뱅이저울’의 방언

② 바닥에 놓은 채 받침판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위쪽에 있는 저울대에서 저울 추로 무게를 다는 저울.

☞ 안질뱅이저울은 디지털저울에 졌다.

안추다 : ‘얕히다’의 방언

☞ 이번 일루 가를 그 자리에 안쳤다.

알구다(알기다) : ‘알리다’의 방언

☞ 그 집 잔치를 일일이 알구기 시작했다.

알땅구 : ‘성계’의 방언으로 붉은성계를 이르는 말.

☞ 알땅구를 껌떼기가 붉다구 아까이라 구두 한다.

알랑미 : ① ‘안남미’의 방언

② 인도차이나반도의 안남 지방에서 생산하는 쌀.

☞ 알랑미는 밥알이 날아갈 거 같애.

알랑방구 : ① ‘알랑방귀’의 방언

② 교묘한 말과 그럴듯한 행종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가는 그에게 잘 보이레구 알랑방구를 꺾었다.

알레주다(알케주다) : ‘알려주다’의 방언

☞ 그는 시험 장소를 자세히 알레 주었다.

알레지다 : ‘알려지다’의 방언

☞ 그런 일 이후 그곳은 전국으로 알레졌다.

알루 : ‘아래로’의 방언

☞ 그 가방을 알루 던져.

알태 : 알을 가진 암컷 명태를 이르는 말.

☞ 명태 중에 알태는 별도로 뺐어.

암사나 : ① ‘암사내’의 방언

② 여자처럼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내.

☞ 그 사내는 암사나라구 소문났어.

앗싸리 : ① ‘차라리’의 방언

②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할 때, 저리하는 것보다 이리하는 것이 나음을 이르는 말.

☞ 그렇게 말하러든 앗싸리 없던 걸루 해.

앙그렇다 : ‘안 그렇다’의 방언

☞ 사람들이 앙 그렇다구 말해.

양간힘 : ① ‘안간힘’의 방언

②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힘.

☞ 그 남자는 양간힘을 써서 문을 열었다.

앞가람 : ① ‘앞가림’의 방언

② 제 앞에 닥친 일을 제힘으로 해냄.

☞ 지 앞가람두 못하는 놈이 참깨질은?

앞세가다 : ‘앞서가다’의 방언

☞ 선두가 바뀌어 한국선수가 앞세 갔다.

앞재비(압재비) : ① ‘앞잡이’의 방언

②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 그 사람은 일본놈 앞재비였어.

앞초매 : ‘앞치마’의 방언

☞ 부엌에서 일하러온 앞초매를 해야 해.

애 : 물고기 내장에 있는 ‘간(肝)’의 옛말. 간유의 원료로 사용된다.

☞ 맹태 애를 와서 간유공장에 팔았다.

애가 빠지다 : 몹시 안타깝고 초조하여 속을 태우거나 마음을 졸이다.

☞ 부모는 가를 학교에 보내려구 애가 빠졌다.

애기씨 : ① ‘아기씨’의 방언

② 손아래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애기씨가 어머니님 모시구 먼저 가세요.

애끼다 : ‘아끼다’의 방언

☞ 니가 쓰는 물건을 좀 더 애끼라.

애달구다 : ① ‘애타우다’의 방언

② 몹시 답답하게 하거나 안타깝도록 속을 끓이다. ‘애타다’의 사동사.

☞ 가를 애달구문 냉중에 후환이 있다.

애리다 : ① ‘아리다’의 방언

② 허끝을 찌를 듯이 알알한 느낌이 있다.

☞ 살을 살짝 베었는데 살갓이 애리다.

애말라죽겠다 : ① ‘애타다’의 방언

②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끓는 듯하다.

☞ 집안이 말썽을 일으케 애말라죽겠다.

애물단지 : ① ‘애물단지’의 방언

②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구는 물건이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집안 애물단지 땀에 아버지가 골을 흔든다.

애미 : ‘어머니’의 방언

☞ 니 애미는 어데 갔어?

애비 : ‘아버지’의 방언

☞ 애미애비두 없는 놈이 잘 난 척은

애송이 : ① ‘애송이’의 방언

② 어린 티가 남아 있는 사람이나 물건.

☞ 젓비린내 나는 애송이 땀에 상대 안 해.

애시당초 : ① ‘애당초’의 방언

② 일이 맨 처음이라는 뜻으로, ‘당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애시당초 가를 믿지도 않았다.

액맥이 : ① ‘액막이’의 방언

②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

☞ 액맥이를 해야 한다구 무당을 불렀다.

앳따다 : ① ‘앳되다’의 방언

② 앳기가 있어 어려 보인다.

☞ 그 청년은 아직 앳때 보였다.

앵가이(앵가니) : ‘어지간히’의 방언

☞ 그 추측은 앵가이 들어맞았다.

앵경 : ‘안경’의 방언

☞ 계집의 얼굴은 제 눈의 앵경.

앵구리 : ① ‘연기’의 방언

② 무엇이 불에 탈 때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 그 굴뚝에서 앵구리가 엄청나게 나왔다.

앵기 : ① ‘연기’의 방언

② 무엇이 불에 탈 때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 저녁 무렵 집집마다 앵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앵기다 : ‘안기다’의 방언

☞ 결국 그 아이는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앵겼다.

야 :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는 말

☞ 야, 이제 고마해라.

야단치다 : 소리를 높여 호되게 꾸짖다.

☞ 선상님을 아이들을 야단치기 시작했다.

야들 : ‘아이들’의 방언

☞ 야들은 모두 웃집 사는 애들이야.

야마리 : ‘암치’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놈은 원래 야마리 까진 놈이야.

야매 : ‘뒷거래’의 비표준어.

☞ 판장에 가른 야매루 고기를 팔았어.

야무락저 : ① ‘야무져’의 방언

②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 생김새 따위가

빈틈이 없이 꽤 단단하고 굳세다.

☞ 가는 원래 아무락저 흠잡을 데가 없다.

야바구 : ① ‘야바위’의 방언

② 협잡의 수단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

☞ 야바위꾼들이 가끔 모에서 야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야밤도주 : ① ‘야반도주’의 방언

②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함.

☞ 뒷집 내우는 돈을 갚지 았구 야밤도주했다.

야지 : ① ‘야유’의 방언

② 남을 빈정거리 놀림. 또는 그런 말이나 몸짓.

☞ 행인들 틈에서 야지가 터져 나왔다.

야트다 : ‘얄다’의 방언

☞ 바닷물이 야타서 물놀이 하기 좋다.

약숫물 : ① ‘약수’의 방언

② 먹거나 몸을 담그거나 하면 약효가 있는 샘물.

☞ 약숫물을 떠다가 밥을 하문 좋다.

얄미롭다 : ① ‘얄밋다’의 방언

② 말이나 행동이 약빠르고 밋다.

☞ 잘난 체 하는 꼴이 얄미롭다.

암체머리 : ① ‘암통머리’의 방언

② ‘암치’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가는 남의 공을 가로챈 암체머리다.

양놈 : ① ‘양놈’의 방언

② 서양 사람을 얄잡아 이르는 말.

☞ 양놈들은 대체로 키가 크다.

양동우 : ① ‘양동이’의 방언

② 한 손으로 들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단 들통. 함석, 구리, 주석, 알루미늄 따위로 만든다.

☞ 엔날에는 양동우루 물을 질었다.

양발 : ‘양말’이 방언

☞ 양발을 빨아서 집안에 널었다.

양색시 : ① ‘양갈보’의 방언

② 서양 사람에게 몸을 파는 여자.

☞ 골목에 가문 양색시들이 있었다.

양손재비 : ① ‘양손잡이’의 방언

② 양쪽 손을 똑같이 자유롭게 써서 일할 수 있는 사람.

☞ 양손재비는 재주가 좋다는 속설이 있다.

양수겸장 : ① ‘양수겸장’의 방언

② 양쪽에서 동시에 하나를 노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결국 이번 일은 양수겸장인 셈이다.

양심보따리 : ① ‘양심’의 방언

②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 나쁜 놈들은 양심보따리를 내려놓구 살지.

양양대다 : 트집을 잡으며 자꾸 대들다.

☞ 그 에펜네는 날이 갈수록 양양됐다.

양지달굴 : ① ‘양지받이’의 방언

② 추울 때 양지바른 곳에서 나와 햇볕을 쬐는 일.

☞ 노인네는 시간만 나른 양지달굴을 했다.

양짹 : ‘양쪽’의 방언

☞ 그 얘기는 양짹 다 들어봐야 알아.

양키 : ‘서양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양키는 키가 크구 멍청하다.

얄추다 : ① ‘낮추다’의 방언

②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를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다. ‘낮다’의 사동사.

☞ 허리를 앞치서 그 꼬마의 말을 들어봐야 해.

어거지 : ① ‘억지’의 방언

② 이치나 조건에 맞지 아니하게 강제하는 일.

☞ 되지 않는 일을 어거지루 해달라구 졸랐다.

어굴차다 : ① ‘겁다’의 방언

② 정도나 양이 지나쳐 참거나 견뎌내기 어렵다.

☞ 그 여자는 어굴차다구 하소연을 했다.

어그적거리다 : ① ‘어기적거리다’의 방언

② 팔다리를 부자연스럽고 크게 움직이며 천천히 걷다.

☞ 다리가 불편해서 어그적거리며 걸었다.

어긔장 : ① ‘어긔장’의 방언

② 짐짓 어기대는 행동.

☞ 마음에 안들었는지 괜히 어긔장 놓았다.

어깨말 : ① ‘목말’의 방언

②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 애들은 어깨말을 타구 싶어 했다.

어느덧 : ‘어느덧’의 방언

☞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어데 : ‘어디에’의 방언

☞ 그들은 어데루 갔나요?

어댕이 : ① ‘발채’의 방언

② 짐을 싣기 위해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

☞ 어댕이가 있어야 지게에 올릴 수 있어.

어드메(어디메) : ‘어디에’의 방언

☞ 송이밭은 어디메 있니?

어디루 : ‘어디로’의 방언

☞ 가 친척들은 어디루 갔니?

어따 : ‘어디에다’의 방언

☞ 나는 어따 대구 반말이니?

어뜩하구 : ‘어떡하고’의 방언

☞ 아들은 어뜩하구 밤중에 왔니?

어뜩해(어뜩케) : ‘어떻게’의 방언

☞ 어뜩하긴 뭘 어뜩해.

어래이 : ‘어련히’의 방언

☞ 그 일은 어래이 알아서 했으려구.

어루와 : ‘어려워’의 방언

☞ 그게 어루와서 다시 해 달라구 했다.

어르개 : ① ‘얼레빗’의 방언

② 빗살이 굵고 성긴 큰 빗.

☞ 머리 손질하게 어르개를 찾아와.

어르맹이 : ① ‘그리마’의 방언

② 절지동물 그리맷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어르맹이가 갑작기 많아졌네.

어리배기 : ① ‘어리보기’의 방언

② 말이나 행동이 다부지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사람들은 가를 어리배기라구 숭 봤다.

어대이 : ‘어머니’의 방언

☞ 어대이는 하루 종일 밭에서 앞드레 일했다.

어무이 : ‘어머니’의 방언

☞ 어무이는 몰래 눈물을 흘렸다.

어물쟁 : ① ‘어물쩍’의 방언

② 말이나 행동을 일부러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짝 넘기는 모양.

☞ 그 일에 대해 어물쟁 넘기레구 했다.

어상당하다 : ① ‘어중간하다’의 방언

②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두루뭇술하다.

☞ 그쯤이론 어상당하다고 봐.

어서 : ‘어디서’의 준말

☞ 가는 **어서** 왔다구 그러디?

어영비영 : ① ‘어영부영’의 방언

② 뚜렷하거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대로 행동하는 모양.

☞ 그는 하루 원종일 **어영비영** 하구 있었다.

어지가이 : ‘어지간히’의 방언

☞ 이 일이 **어지가이** 되면 고만둬.

어지롭다 : ‘어지럽다’의 방언

☞ 땀을 너무 흘렸더니 **어지롭다**.

어질구다 : ‘어지르다’의 방언

☞ 애들은 방한을 **어질궤다**.

어쭈구리 : ① ‘아주’의 비표준어

② 남의 잘난 체하는 말이나 행동을 비웃을 때 내는 말.

☞ **어쭈구리**,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두 돼?

어찌라구? : ‘어떻게 하라구?’의 방언

☞ 뭘 **어찌라구?** 이제 볼썽 다 봤다구?

억시다 : ‘억세다’의 방언

☞ 미역이 쇠서 이제부터는 **억시다**.

억지루 : ‘억지로’의 방언

☞ **억지루** 먹으라구 하지마, 탈나.

억지춘양 : ① ‘억지춘향’의 방언

② 원치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함을 이르는 말.

☞ 부모님 성화에 **억지춘양**으로 맞선을 나갔다.

언가니(언가이) : ‘어지간히’의 방언

☞ 그 정도론 **언가니** 맞다.

언나 : ① ‘갓난아이’의 방언

②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아이.

☞ 가급적 **언나**는 데리구 오지 마라.

언덕빼기 : ① ‘언덕’의 방언

②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 게네 집은 **언덕빼기**에 있다.

언데기 : ① ‘언덕’의 방언

②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 하루에두 **언데기**를 수십 번 오르락거렸다.

언드박 : ① ‘언덕’의 방언

②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 니야까가 **언드박**을 올라갈 때 뒤에서 떠밀었다.

언장다 : ‘언짢다’의 방언

☞ 그 소식을 들었지만 **언장다**는 뜻을 내색하지 않았다.

언제던지 : ‘언제든지’의 방언

☞ **언제던지** 찾아오면 만나겠다.

언지다 : ‘없다’의 방언

☞ 그것은 그가 **공짜루** 숯팔을 언진 셈이다.

언치다 : ① ‘체하다’의 방언

②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고 배 속에 답답하게 처져 있다.

☞ 내키지 않은 저녁을 먹었더니 **언쳤다**.

얼개(얼게)¹ : ① ‘어레미’의 방언

② 바닥의 구멍이 굽은 체.

☞ **얼개**는 체보다 구멍이 굽다.

얼개² : ① ‘얼레빗’의 방언

② 빗살이 굽고 성긴 큰 빗.

☞ **얼개루** 아이들 머리 빗었다.

얼게미 : ① ‘어레미’의 방언

② 바닥의 구멍이 굽은 체.

☞ **얼게미루** 체서 모래만 내린다.

얼구다 : ① ‘얼리다’의 방언

② 액체나 물기가 있는 물체를 찬 기운에 의해 고체 상태로 굳어지게 하다.

‘얼다’의 사동사.

☞ 냉동실에서 얼음을 얼렸다.

얼그매다 : ‘(짚을) 엮다’의 방언

☞ 짚으루 가마니를 얼그맸다.

얼금뱅이 : ① ‘곰보’의 방언

② 얼굴이 얇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요즘 얼금뱅이는 거의 없다.

얼끼미 : ① ‘어레미’의 방언

② 바닥의 구멍이 굽은 체.

☞ 팔을 얼끼미에 놓고 주걱으루 눌렀다.

얼다 : ① ‘두려워하다(겁내다)’의 방언

②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을 나타내다.

☞ 그 소리를 튼튼 겁이 나서 얼었다.

얼떨절에 : ‘얼떨결에’의 방언

☞ 얼떨절에 그만 그 얘기하구 말았다.

얼뜨기 : ① ‘얼뜨기’의 방언

② 겁이 많고 어리석으며 다부지지 못하여 어수룩하고 얼빠져 보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가가 어리버리하다구 얼뜨기라구 했다.

얼라 : ① ‘갓난아이’의 방언

②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아이.

☞ 그 얼라는 아파서 젖을 먹지 못했다.

얼릉 비케 : ‘얼른 비켜’의 방언

☞ 내가 바쁘니까 얼릉 비케.

얼찐하문 : ① ‘걸핏하면’ ‘툭하면’의 방언

② ‘자주’라는 뜻.

☞ 거기 얼찐하문 돈을 달라고 해.

얼핏하문 : ① ‘걸핏하면’의 방언

② 조금이라도 일이 있기만 하면 곧.

☞ 얼핏하문 찾아와 해보자구 대들었다.

엄니(엄마) : ‘어머니’의 방언

☞ 가 엄니는 허구한날 아이를 찾아 나섰다.

엄살쟁이 : ‘엄살꾸러기’의 방언

☞ 하두 아프다구 해서 간호선생님들이 엄살쟁이라구 별명을 붙였다.

업드레 : ‘엮드려’의 방언

☞ 총소리가 나자 소대장은 ‘업드레’라구 고함을 질렀다.

없애빠래 : ‘없애버려’의 방언

☞ 그게 문제라문 아예 없애 빠래.

영계덩게 : ① ‘엄병덩병’의 방언

② 주관 없이 되는대로 행동하는 모양.

☞ 사람들이 많아서 영계덩게 넘어갔다.

영구락 : ① ‘엄살’의 방언

② 아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보다 보태어서 나타냄. 또는 그런 태도나 말.

☞ 영구락을 피우지 말구 바른대루 말해.

영탱이 : ‘엄덩이’의 방언

☞ 영탱이에 뽕 냈다.

에따가 : ① ‘이따가’의 방언

② 조금 지난 뒤에

☞ 에따가 별도로 만나서 얘기해.

에리 : ‘웃긔’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선상님 에리가 구게졌다.

에지간하다 : ‘어지간하다’의 방언

☞ 그의 심술도 에지간하다.

에펜네 : ‘여편네’의 방언

☞ 에펜네가 버르장머리가 없어.

에펜사나 : 내외(부부)를 낮잡아 이르는 말.

☞ 에펜사나가 하는 짓이 똑 같애.

엔날(엔날) : ‘옛날’의 방언

☞ 엔날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

앵그므로 : ‘외워서’의 방언

☞ 그 정도는 앵그므로 계산했어.

여가리 : ‘가장자리’의 방언

☞ 마당 여가리에 짜투리가 많아.

여깁사리 : ① ‘가(가장자리)’의 방언

②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

☞ 짚 여깁사리가 위험하다.

여나무 : ① ‘여남은’의 방언

② 열이 조금 넘는 수.

☞ 거기에는 여나무 명 정도 있었다.

여덜 : 숫자 ‘여덟’의 방언

☞ 다서 여서 일곱 여덜 아홉

여드레미 : ① ‘여드름’의 방언

② 주로 사춘기 청소년 얼굴에 생기는
얼굴 종기.

☞ 여드레미가 덕지덕지 났어.

여들비 : 숫자 ‘여덟’의 방언

☞ 다서 여서 일곱 여들비 아홉

여물 : ① ‘쇠죽’의 방언

② 소에게 먹이려고 콩, 짚, 풀 따위를
섞어 끓인 죽.

☞ 아침저녁 여물 끓이는 게 일어있어.

여물구박 : ① ‘쇠죽바가지’ ‘여물바가지’
의 방언

② 쇠죽(여물죽)을 푸는 바가지. 소나
무를 손잡이 달린 바가지 모양으로 파
서 만든다.

☞ 여물을 줄 때는 여물구박이 있어야 돼.

여물까리 : ① ‘여물광’의 방언

② 마소를 먹이기 위해 말려서 썬 짚이
나 마른 풀을 보관하는 곳.

☞ 여물까리에서 여물을 갖다가 솥에 넣
구 끓여야 돼.

여물통 : ① ‘구유’의 방언

②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흔히 큰 나무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다.

☞ 여물은 여물구박으로 여물통에 넣어 줘.

여서 : 숫자 ‘여섯’의 방언

☞ 다서 여서 일곱 여들비

여적지 : ① ‘여태’의 방언

②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

☞ 여적지 그런 상황을 몰랐어.

역구리 : ‘옆구리’의 방언

☞ 역구리 찢러 절 받기

역부러 : ① ‘일부러’의 방언

② 알면서도 마음을 숨기고.

☞ 알면서도 역부러 모르는 척 했다.

연목 : ① ‘서까래’의 방언

②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
른 나무. 그 위에 산자를 얹는다.

☞ 연목을 팔구 그 위에 산자를 놓구 기
와를 올렸다.

연자방아 : ① ‘연자방아’의 방언

② 연자매를 쓰는 방아.

☞ 연자방아에 동그란 돌을 끼워라.

연자새 : ① ‘열레’의 방언

② 연줄, 낚싯줄 따위를 감는 데 쓰는
기구.

☞ 연자새를 풀어 연을 높이 날려라.

연재방아 : ① ‘연자방아’의 방언

② 연자매를 쓰는 방아.

☞ 연재방아에 곡식을 찧었다.

연짜새(연짜개) : ① ‘열레’의 방언

② 연줄, 낚싯줄 따위를 감는 데 쓰는
기구.

☞ 연을 날릴레운 연짜새를 준비해야 한다.

연짱 : ① ‘연방’의 방언

② 연속해서 자꾸.

☞ 빗쟁이들은 그 집을 연짱 찾아왔다.

연짱게 : ① ‘얼레’의 방언

② 연줄, 낚싯줄 따위를 감는 데 쓰는 기구.

☞ 연을 띄울레운 연짱게가 있어야 돼.

열갱이 : ① ‘불락’의 방언

② 양볼락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20~30cm이고 방추 모양이며 잿빛을 띤 갈색이 가장 많고 잿빛을 띤 적색도 있는데 몸의 색깔은 바다 환경과 물의 깊이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 열갱이를 뽕뽕하게 말래서 찌서 지사 상에 올랬다.

열구꽃 : ① ‘해당화(海棠花)’의 방언

②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1~1.5m이며, 잎은 어긋나고 우상 복엽인데 잔잎은 긴 타원형이고 입 뒤에 선 점과 잔털이 있다.

☞ 해당화를 열구꽃이라구두 한다.

열기 : ① ‘불락’의 방언

② 양볼락과의 바닷물고기.

☞ 열기를 뽕뽕할 때 찌서 먹으론 맛있다.

열나게 : ‘몸에서 열이 생길 만큼 열심히’를 이르는 말.

☞ 가는 아침부터 열나게 뛰어다녔다.

열다서 : 숫자 ‘열다섯’의 방언

☞ 열서이 열너이 열다서 열여서

열때 : ① ‘열쇠’의 방언

② 자물쇠를 돌려 잠그거나 열 수 있게 하는 도구.

☞ 쇠때루 잠근 문은 열때가 있어야 열지.

열밤중 : ① ‘오밤중’의 방언

② 깊은 밤.

☞ 급할 땐 열밤중이라두 찾아왔다.

염쇠 : ① ‘염소’의 방언

② 솥과의 동물.

☞ 염쇠는 보양식을 인기가 높다

염체 : ① ‘염치’의 방언

②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 그 놈은 늘 염체 없는 짓을 했다.

염때기 : ‘옆구리’의 방언

☞ 마누라가 없으니 염때기가 시리다.

염차기(옆차기) : ‘호주머니’의 방언

☞ 염차기에 돈 몇 푼 넣어두었다.

옛장사(옛장수) : ① ‘소금쟁이’의 방언

② 소금쟁잇과의 곤충. 애소금쟁이, 좀등빨간소금쟁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옛장사는 물 위를 가볍게 떠 뱅긴다.

영감 : ① ‘남편’의 방언

② 나이 든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그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영감은 손주 재롱 보는 재미루 산다.

영감태기 : ① ‘남편’의 방언

② 영감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저 영감태기가 나만 보른 혼넨단 말이야.

영마람 : ① ‘용마루’의 방언

② 지붕의 마루

☞ 비바람으루 영마람 기와가 부서졌다.

영말기 : ① ‘영마루’의 방언

② 고개의 맨 꼭대기.

☞ 영말기에는 바람만 기다리구 있었지.

영세 : ‘영서(嶺西)’의 방언

☞ 영세사람들과 영동사람들이 달르다야.

영우 : ① ‘여우’의 방언

② 갯과의 포유류. 매우 교활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람들은 그 여자를 영우라고 했다.

영작업 : 황태를 만들기 위해 한겨울 진 부령 등 고랭지에 명태를 옮겨 말리려고 준비하는 작업

☞ 한겨울엔 영작업으로 바쁘다야.

열은 맛 : ‘얇은 맛’의 방언

☞ 그 음식은 열은 맛이 있어.

예뻤다 : ‘아위었다’의 방언

☞ 그 사람은 안 본새 마니 예뻤다.

옌장(연장) : ① ‘쟁기’의 방언

② 논밭을 가는 농기구. 술, 성에, 한마루를 삼각으로 맞춘 것으로, 술 끝에 보습을 끼우고, 그 위에 한마루 몸에 의지해 벼를 덧대고, 성에 앞 끝에 줄을 매어 소에 멍에를 건다. 거리와 호리 두 가지가 있다.

☞ 논 농사일할 때는 옌장이 있어야 한다.

옌아흙 : 숫자 ‘열아흙’의 방언

☞ 옌일곱 옌여덟 옌아홉 수물

옌일곱 : 숫자 ‘열일곱’의 방언

☞ 옌일곱 옌여덟 옌아홉 수물

옌뱅 : ‘염병’의 방언

☞ 남의 옌뱅은 내 고뿔만 못하대.

옌미리 : ① ‘양미리’의 방언

② 양미릿과의 바닷물고기.

☞ 한창 때는 옌미리가 벨미했지.

옌갈단지 : ① ‘단지’의 한 유형

②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

☞ 옌갈단지에 장을 담갔다.

옌거던(오거덩) : ‘오거든’의 방언

☞ 가가 여기 옌거던 나 얘기 하지 마.

옌골차다 : ① ‘옹골차다’의 방언

② 허술한 데가 없이 알차다.

☞ 그의 계획이 나름대로 옌골차다.

옌날날 : ‘오늘’의 방언

☞ 옌날날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

옌날 : ‘오늘’의 방언

☞ 옌날은 가 생일이다.

옌도바이 : ① ‘오토바이’의 방언

② 앞뒤로 두 바퀴에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탈 것.

☞ 옌도바이를 타운 사고가 잦다.

옌도방정 : ① ‘오두방정’의 방언

② 몹시 방정맞은 행동.

☞ 그 사람은 늘 옌도방정이라고 숭 뵘다.

옌라버이 : ① ‘오라버니’의 방언

② ‘오빠’의 높임말.

☞ 옌라버이는 생일선물을 가져왔다.

옌라번님 : ① ‘오라버니’의 방언

② ‘오빠’의 높임말.

☞ 옌라번님 생신이 오늘이래.

옌랍뜰 : ① ‘오래뜰’의 방언

② 대문이나 중문 안에 있는 뜰.

☞ 옌랍뜰에 불이 환하게 켜어.

옌래비 : ① ‘오라버니’의 방언

② ‘오빠’의 높임말.

☞ 니 옌래비는 어디 갔니?

옌르랑내리랑 : ① ‘오르락내리락’의 방언

②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모양.

☞ 그는 온종일 옌르랑내리랑 하민서 그 여자를 지달렸다.

옌리궁뎡이 : ① ‘오리궁둥이’의 방언

② 유난히 통통하고 되로 볼록 튀어나온 엉덩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엉뎡이가 큰 사람을 옌리궁뎡이라고 했다.

오막집 : ‘오두막집’의 방언

☞ 예전에는 오막집에서 두 재밌게 살았다.

오무라지다 : ① ‘오므라지다’의 방언

② 물건의 가장자리 끝이 한곳으로 줄어들어 모이다.

☞ 저녁이든 꽃봉우리가 오무라진다.

오무래 : ‘오므려’의 방언

☞ 가랑이를 벌리지 말고 오무래.

오른 : ‘오면’의 방언

☞ 다시 오른 가지 말라구 해라.

오번에 : ‘요번에’의 방언

☞ 오번에는 못 간다구 해.

오부지다 : ① ‘오지다’의 방언

② 허술한 데가 없이 매우 야무지고 실속이 있다.

☞ 한 사람 뒤통지는 오부지구나.

오손도손 : ① ‘오순도순’의 방언

② 정답게 이야기하거나 의 좋게 지내는 모양.

☞ 가난했지만 형제들은 오손도손 살았다.

오양간 : ‘외양간’의 방언

☞ 소 잃구 오양간 고친다.

오이소백이 : ‘오이소박이’의 방언

☞ 오이소백이는 시원한 맛이 일품이야.

오짐 : ‘오줌’의 방언

☞ 너무 급해서 오짐을 조금 재웠다.

오징어바리 : ① ‘오징어조업’의 방언

②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는 어업.

☞ 여름에는 왕초보도 오징어바리에 나섰다.

오징어-일 : 오징어 내장을 이르는 말.

☞ 찌개에 오징어일을 넣으론 구수해.

오티 : ‘웃’의 방언

☞ 저을 오티가 입을 게 없어.

오함마 : ① 큰 ‘해머’의 방언

② 단단한 물건을 두드리기 위해 사용되는 비교적 큰 망치.

☞ 그걸 깨레운 오함마가 있어야 돼.

옥세기(옥쌔기) : ‘옥수수’의 방언

☞ 여름에는 옥세기가 제일 맛있다.

옥שי기(옥시기) : ‘옥수수’의 방언

☞ 옥שי기 국물이 구수하구 시원해.

온공일 : 하루 온종일 쉬는 날이라는 뜻으로, ‘일요일’을 이르는 말.

☞ 온공일이라 하루 종일 쉰다.

온제 : ‘언제’의 방언

☞ 아들이 온제 온다고 했니?

올개 : ① ‘올케’의 방언

② 오빠나 남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올개는 온제 시장 갈 거야?

올랑말랑 : ‘올 듯 말 듯’의 방언

☞ 그 친구는 올랑말랑 한데.

올래 : ‘올려’의 방언

☞ 지붕 위루 기와를 올래.

올래² : ‘올 거야?’의 방언

☞ 아재는 온제 올래?

올래다 보다 : ‘올려다 보다’의 방언

☞ 파란 가을 하늘을 올래다 봐.

올러가다 : ‘올라가다’의 방언

☞ 한참 꼬맹이를 올러가구 있었다.

올르막 : ‘오르막’의 방언

☞ 가는 길에 올르막이 있으론 심들어.

올리다 : ① ‘이다’의 방언

② 기와나 이엉 따위로 지붕 위를 덮다.

☞ 초가집은 해마다 이엉을 해 올린다.

올바루 : ‘올바로’의 방언

☞ 그 얘기를 올바루 전해야 하는데.

올방개(올방지) : ① ‘가부좌’의 방언

② 부처의 좌법(坐法)으로 좌선할 때 앉는 방법의 하나.

☞ 건방지게, 어린 놈이 올방지 틀구 앉아서.

올저녁 : ‘오늘 저녁’의 줄인 말.

☞ 올저녁까지 사람을 보낼게.

올지약 : ‘오늘 저녁’의 방언

☞ 올지약 때 저녁 먹으러 같이 와.

올창문 : ‘미닫이’의 방언

☞ 올창문은 바람이 송송 들어와.

올개 : ① ‘올케’의 방언

② 오빠나 남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올개는 나중에 천천히 와.

웃꼬름 : ‘웃고름’의 방언

☞ 웃꼬름을 잘 매야 하는데.

웃시래 : ① ‘벽장(壁藏)’의 방언

② 벽을 뚫어 작은 문을 내고 그 안에 물건을 넣어 두게 만든 장(藏).

☞ 한복을 웃시래에 넣어 두었다.

웃짱 : ① ‘웃장’의 방언

② 옷을 넣어 두는 장(藏).

☞ 웃짱에 옷을 잘 정리해 두었다.

웅게 : ‘웁겨’의 방언

☞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웁게 왔다.

웅고지(웅곡지) : ① ‘쌀미꾸리’의 방언

② 잉어목 기름종개과의 민물고기로 작은 부작조류 및 절지동물을 섭식한다. 산란기는 4~6월경으로 추정되며, 한국이나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예전에는 웁고지를 찜바리 미끼으로 썼다.

웅구 : ① ‘웅기’의 방언

②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그 노인은 웁구를 직접 빚었다.

웅노 : ① ‘올가미(올무)’의 방언

② 새끼나 노 따위로 웁아서 고를 내어 짐승을 잡는 장치.

☞ 웁노를 놔야 산돼지를 잡을 수 있다.

웅니배기 : ① ‘옥니’의 방언

② 안으로 옥게 난 이를 가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웁니배기는 고집두 세다.

웅심이(웅생이) : ‘새알심’의 방언.

☞ 오늘 먹은 집 감재웅심이가 넘 마신네.

웅큼 : ① ‘웁큼’의 방언

② 손으로 한 줌 웁켜질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 시장 할머니가 주신 웁 한 웁큼이 많네.

와가주구 : ‘와서’의 방언, ‘오다’의 활용형

☞ 친구가 와가주구 너무 고마왔어.

왕고모 : 큰 고모를 지칭함.

☞ 왕고모는 언제 다시 와?

왕대까치 : ① ‘왕대’의 방언

② 벚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20m 정도로 대나무 가운데 가장 굵으며, 잎은 긴 타원형의 피침 모양이고 작은 가지 끝에 3~5개씩 달린다.

☞ 활대를 맨들레은 왕대까치가 필요해.

왜귀리 : ① ‘호밀’의 방언

② 벚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높이는 1~2m이며, 잎은 밀보다 작고 짙은 녹색이다.

☞ 요즘 왜귀리는 약용으로 더 많이 찾아.

왜타라 그래? : ‘왜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의 방언

☞ 나는 왜타라 그래?

외 : ‘오이’의 방언

☞ 산에 갈 때 외를 가지구 가문 좋아.

외논까리(외논깁) : ‘외눈’ ‘애꾸눈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사람들은 외논까리라고 알잡아 봤다.

외따루 : ① ‘외따로’의 방언

② 홀로 따로.

☞ 우리 집은 외따루 떨어져 있다.

외레 : ‘오히려’의 방언

☞ 집에서는 잘못했다구 구박했지만 사람들은 외레 칭찬했다.

외삼촌 : ‘외삼촌’의 비표준어

☞ 외삼촌이 가끔 집에 들렀다.

외택 : ① ‘외탁’의 방언

② 생김새나 체질, 성질 따위가 외가 쪽을 닮음.

☞ 사람들은 아들을 외택했다구 했다.

외톨배기 : ① ‘외톨박이’의 방언

② 매인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홀몸.

☞ 나는 언제부턴가 외톨배기가 되어 있었다.

원금으루 : ‘외워서’의 방언

☞ 가는 날 하던 것처럼 원금으루 계산했다.

원손재비 : ① ‘원손잡이’의 방언

② 한 손으로 일을 할 때, 주로 왼손을 쓰는 사람. 또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 원손재비는 심이 더 세다.

원종일 : ‘온종일’의 방언

☞ 원종일 땅을 파서 밭을 맨들었다.

원짜 : ‘왼쪽’의 방언

☞ 원짜 신발이 더 작아 보인다.

윙기다 : ‘윙기다’의 방언

☞ 이삿짐을 새집으로 윙겼다.

요결루 : ‘이것으로’의 방언

☞ 요결루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

요기 : ‘여기’의 방언

☞ 지금 요기루 와주세요.

요새 : ‘요즈음’의 방언

☞ 요새는 자주 나가지 못해.

요즘 : ‘요즈음’의 준말

☞ 요즘 하는 일이 바빠서 못해.

요 짹(요쪽) : ‘이쪽’의 방언

☞ 요 짹으루 가른 길이 나와.

요참에 : ‘이번 기회에’의 방언

☞ 요참에 지대루 하겠다구 말해.

욕심꾸레기 : ‘욕심꾸러기’의 방언

☞ 사람들은 그를 욕심꾸레기라고 숭 봐.

욕 퍼데기 : ‘욕 퍼붓기’의 방언

☞ 가를 나쁜 놈이라고 욕 퍼데기를 했다.

올루줄루 : ① ‘요리조리’의 방언

② 일정한 방향이 없이 요쪽 조쪽으로.

☞ 가는 그 일에 대해 올루줄루 잘 피했다.

용고지 : ① ‘쌀미꾸리’의 방언

② 잉어목 기름종개과의 민물고기로 작은 부착조류 및 절지동물을 섭식한다. 산란기는 4~6월경으로 추정되며, 한국이나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용고지를 잡아 주어탕을 끓였다.

용말기 : ① ‘용마루’의 방언

② 지붕의 마루.

☞ 용말기가 비바람에 틀어졌다.

용우 : ① ‘여우’의 방언

② 갯과의 포유류. 매우 교활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기집이 늙은 용우가 된다.

용코없다 : ‘영락없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가는 그 목소리를 듣구 용코없다구 말했다.

우게 넣다 : ‘우겨 넣다’의 방언

☞ 가는 입아구가 터질 만큼 밥을 우게 넣었다.

우구리다 : ① ‘우그리다’의 방언

② 물체를 안쪽으로 우묵하게 휘어지게 하다.

☞ 발루 차서 양철문을 우구렸다.

우끼 : ‘낙시찌’의 방언

☞ 낙시할 때 우끼를 잘 봐야 한다.

우내비 : ① ‘능개’의 방언

②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 가는 비.

☞ 하루 종일 우내비가 내렸다.

우두꺼이 : ‘우두커니’의 방언

☞ 하루 종일 우두꺼이 지키구 있었지.

우라지게 : 오라를 지는 것처럼 잘못되거나 나쁘게 된다는 뜻으로, 몹시 마음에 맞지 아니함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오라지다’가 변한 말이다.

☞ 오늘은 우라지게 재수 없는 날이다.

우리기(우레기) : ① ‘우력’의 방언

② 양볼락과의 바닷물고기.

☞ 우리기 미역국이 정말 맛있다.

우명하다 : ① ‘정갈하다’의 방언

② 깨끗하고 깔끔하다.

☞ 우명한 솜씨루 지샳상을 차렸다.

우박비 : ① ‘우박’의 방언

② 큰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갑자기 찬 기운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얼음덩어리.

☞ 우박비가 쏟아져 사람들은 혼비백산했다.

우삭다리 : ‘울타리’의 방언

☞ 우삭다리가 튼튼해서 넘어가지 않았다.

우습다 : ‘우습다’의 방언

☞ 니가 하는 짓이 우습다.

우에(うえ) : ‘위에’의 방언

☞ 비행기 좌석 우에 짐을 올려라.

우와기 : ‘겔 윗도리’의 일본어식 표현

☞ 더우니까 우와기를 벗어라.

우정 : ① ‘일부러’ ‘굳이’의 방언

② 알면서도 마음을 숨기고.

☞ 우정 그럴 필요 없다.

우티 : ‘옷’의 방언

☞ 갑싸기 소내기가 쏟아져 우티가 다 젖었다.

옥박지르다 : ‘옥박지르다’의 방언

☞ 말 안 듣는다구 옥박질렀다.

운제 : ‘언제’의 방언

☞ 손님이 운제 온다구 그랬나?

울구다 : ① ‘우리다’의 방언

② 어떤 물건을 액체에 담가 맛이나 빛깔 따위의 성질이 액체 속으로 빠져나오게 하다.

☞ 야생버섯은 물에 울귀야 한다.

울뱅이 : ① ‘울보’의 방언

② 걸핏하면 우는 아이.

☞ 대구 운다구 울뱅이라구 송 뵘다.

울쌉다리 : ‘울타리’의 방언

☞ 울쌉다리는 튼튼하게 맨들었다.

울음보 : ‘울음보’의 방언

☞ 참았던 울음보를 터트렸다.

움굴(움물) : ① ‘우물’의 방언

② 물을 길기 위해 땅을 파서 지하수를
과게 한 시설.

☞ 다시 길지 않겠다구 움굴에 똥 놓까.

움물고누 : ① ‘고누’의 방언

② 땅이나 종이 위에 말밭을 그려 놓고
두 편으로 나누어 말을 많이 따거나 말
길을 막는 것을 다투는 놀이.

☞ 친구들과 움물고누하며 놀았다.

움추리다 : ‘움츠리다’의 방언

☞ 아무래도 추우니까 움추릴 수밖에 없
었다.

웃게 : ‘웃겨’의 방언

☞ 증말 웃게 죽겠다.

웃니 : ‘웃니’의 방언

☞ 웃니가 아파서 치과에 갔다.

웃도리 : ‘웃도리(상의)’의 방언

☞ 목욕갔다가 웃도리를 이려빠렸다.

웃말 : ‘웃마을’의 방언

☞ 웃말에서는 다시 전갈이 오지 않았다.

웃목 : ‘웃목’의 방언

☞ 웃목에는 찬바람이 돌았다.

웃방 : ‘웃방’의 방언

☞ 웃방은 추워서 두꺼운 이불을 덮었다.

웅굴 : ① ‘우물’의 방언

② 물을 길기 위해 땅을 파서 지하수를
과게 한 시설.

☞ 한밤에도 웅굴에 가서 물을 길었다.

웅덩이 : ① ‘웅덩이’의 방언

② 움푹 파여 물이 괴어 있는 곳.

☞ 가뭇철 웅덩이에 올챙이 신세

웅케잡다 : ‘움켜잡다’의 방언

☞ 돈이 든 가방을 꼭 웅케잡았다.

워쨌지 : ‘어쨌지’의 방언

☞ 워쨌지 사람들이 조용하다구 생각했지.

원양태(遠洋太)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넓고 큰 바다에서 잡히는 명태를 이르
는 말.

☞ 원양태 맹태가 진부령 영말기에서 말레
서 식탁에 오른다.

월동추 : ‘유채꽃’을 이르는 말.

☞ 한겨울 월동추는 단맛이 난다.

웨상 : ① ‘외상’의 방언

② 값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 웨상은 쇠도 잡는다고 했지.

웬수 : ① ‘원수의 방언

②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 웬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대.

웬수 갯다 : ‘신세 갯다’ ‘진 빚을 갯다’는
뜻을 역설적으로 이르는 말.

☞ 오늘 먹은 걸루 지난번 얻어 먹은 거 웬
수 갯았다.

윳간 : ‘윳방’의 방언

☞ 구들에 불이 들어가지 않아 윳간은 쫄
쫄다.

유만부득 : ① ‘유만부동’의 방언

② 정도에 넘침. 또는 분수에 맞지 아
니함.

☞ 배은망덕두 유만부득이지, 참 어이가
없다.

육갑 떨다 : 남이 하는 언동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 빙신들이 육갑 떨구 있군.

율구꽃 : ① ‘해당화(海棠花)’의 방언

②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1~1.5m이며, 잎은 어긋나고 우상 복엽
인데 잔잎은 긴 타원형이고 입 뒤에 선
점과 잔털이 있다.

『올구꽃은 장미처럼 붉은 색이다.』

으게 : ① ‘장롱’의 방언

② 옷 따위를 넣어 두게 만든 작은 장(櫥).

『작은 옷들은 으게에 넣어 두었다.』

으깡사리 : ① ‘가(가장자리)’의 방언

②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

『논 으깡사리에 콩을 숨었다.』

으냉이 : ① ‘진드기’의 방언

② 진드기과의 절지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으냉이가 많아서 약을 뿌렸다.』

으똥자숙 : ‘의똥자식’의 방언

『으똥자숙이라서 설움을 마이 받았다.』

으시대다 : ① ‘으스대다’의 방언

② 어울리지 아니하게 우쭐거리며 뽐낸다.

『그 친구는 상을 받았다구 으시댔어.』

으시시 : ‘으스스’의 방언

『깜깜한 밤길이라서 으시시 했어.』

으실으실 : ‘으슬으슬’의 방언

『찬바람이 돌아 갑자기 으실으실 추워졌다.』

으심이 : ① ‘이무기’의 방언

② 전설상의 동물로 뿔이 없는 용. 매우 큰 뱀을 이르는 말.

『촌에서는 가끔 으심이 나타나곤 했다.』

으용군(이용군) : ‘의용군’의 방언

『으용군들이 집을 찾아왔다.』

으젓해지다 : ‘의젓해지다’의 방언

『청년은 군대 갔다 오더니 의젓해졌다.』

으지가지없다 : ‘의지가지없다’의 방언

『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으지가지없게 됐다.』

읍샌다 : ‘엷앤다’의 방언

『그일 땀에 그 자리를 읍샌다구 한다.』

응뎡이 : ‘엷뎡이’의 방언

『한 된 놈 응뎡이 뿔난다구 했다.』

이결루 : ‘이것으로’의 방언

『이결루 다시 하문 안 될까?』

이까 : ‘오징어’의 일본식 외래어

『이까 잡으러 마이 땡겨.』

이까바리 : ① ‘오징어 조업’의 방언

②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는 어업.

『여름에는 이까바리에 전부 매달렸다.』

이나저나 : ‘이러나 저러나’의 방언

『이나저나 지다리는 사람들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느마 : ‘이눔아’의 방언

『이느마, 그걸 말이라구 하니?』

이따가 : ‘조금(잠시) 지난 후에’의 방언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하자.』

이따구 : ‘이런 것’의 방언

『이따구를 나한테 주는 거야?』

이래가주구 : ‘이렇게 해 가지고’의 방언

『이래가주구 누가 니를 대표라구 하겠니?』

이래나저래나 : ‘이러나저러나’의 방언

『이래나저래나, 이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래두 : ‘이래도’의 방언

『니는 이래두 그걸 하겠다는 거야?』

이롱 : ① ‘장롱’의 방언

② 옷 따위를 넣어 두는 장과 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롱은 엄마가 시집을 때 가주온 거야.』

이름테문 : ‘이름테면’의 방언

☞ 그분은 이름테문 내게 부모 같은 존재야.

이망 : ① ‘이마’의 방언

② 사람의 이마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사주팔자에 없는 관을 쓰른 이망이 벗게진다.

이면수 : ① ‘임연수어’의 방언

② 쥐노래미트과의 바닷물고기.

☞ 여기서는 임연수어를 이면수라구 해.

이문(이른) : ‘이면’의 방언

☞ 십년이른 강산도 변한다.

이밥(이팍) : ‘쌀밥’의 방언

☞ 오늘 생일이래서 이팍에 고깃국 먹었다.

이보게 : ‘여보게’의 방언

☞ 이보게 여기 다시는 오지 말게.

이쁘다(이뿌다) : ‘예쁘다’의 방언

☞ 그녀는 이쁘다는 소릴 달구 살았다.

이새 : ‘이사’의 방언

☞ 옆집은 언제 이새 왔니?

이스래기 : ① ‘이삭’의 방언

② 곡식이나 과일, 나물 따위를 거둘 때 흘렸거나 빠뜨린 낱알이나 과일, 나물을 이르는 말.

☞ 이스래기가 고개 숙이는 가을이 왔다.

이시락 : ① ‘이삭’의 방언

② 곡식이나 과일, 나물 따위를 거둘 때 흘렸거나 빠뜨린 낱알이나 과일, 나물을 이르는 말.

☞ 이시락이 패기 시작했다.

이영 : ① ‘이영’의 방언

②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해 짚이나 새 따위로 엮은 것.

☞ 이영을 이어 초가집 지붕에 올랐다.

이우제 : ‘이웃에’의 방언

☞ 이우제 그런 사람이 있어 골치 아파.

이저먹었다 : ‘잊어먹었다’의 방언

☞ 오늘 가져온다구 했는데 이저먹었다.

이저빠랬다 : ‘잃어버렸다’의 방언

☞ 잊저녁 한 얘기를 이저빠랬다.

이적지 : ‘이제껏’의 방언

☞ 야, 니는 이적지 뭐하구 지냈니?

이제사 : ‘이제야’의 방언

☞ 이제사 하는 얘이지만 순골통들이야.

이짚니 : ‘있잖아’의 방언

☞ 이짚니,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가버렸다.

인나다 : ‘일어나다’의 방언

☞ 빨리 인나, 사람들이니 찾아 왔어.

인나쿠다 : ‘일으키다’의 방언

☞ 날이 새자마자 인나꿔야 한다.

인네(인조) : ‘이리 줘’의 방언

☞ 그 책 인네.

인테 : ‘한테’ ‘에게’의 방언

☞ 가가 개인테 물렸다.

일굼 : 숫자 ‘일곱’의 방언

☞ 일굼 여들 아홉

일꾼 : ① ‘농’의 방언

② 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을 하는 품팔이 일꾼. 또는 그 일꾼을 부리는 일.

☞ 내일 니네 마당이에 일꾼들이 얼마 필요해?

일나 : ‘일어나’의 방언

☞ 얼릉 일나, 밤에 똘지랄 했는데 여태 자니?

일나다 : ‘일어나다’의 방언

☞ 가는 어제 약속처럼 여섯 시 전에 일났다.

일루 : ‘이리로’의 방언

☞ 판데루 가지말구 일루 와.

일루절루 : ‘이리저리’의 방언

☞ 가는 일루절루 돌아다니다가 다시 거기루 왔다.

일찌가니 : ① ‘일찌거니’의 방언

② 조금 이르다고 할 정도로 얼른.

☞ 저녁 먹구 일찌가니 불을 켜어.

일찌간치 : ① ‘일찌감치’의 방언

② 조금 이르다고 할 정도로 얼른.

☞ 가는 일찌간치 버스터미널에 가 있었다.

일커 세우다 : ‘일으켜 세우다’의 방언

☞ 자빠진 깻단을 몽땅 일커 세웠다.

일평상 : ‘일평생’의 방언

☞ 일평상 니는 내게 좋게 말한 적이 없어.

임내 : ① ‘흥내’의 방언

②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 짓.

☞ 그 놈은 남에 임내 내는 게 일이야.

임물값 : ① ‘인물값’의 방언

② 생김새와 어울리는 행동을 낫잡아 이르는 말.

☞ 그 집 팔년들은 임물값 한다구 맨날 욕 먹어.

입닥다 : ① ‘시치미떼다’의 방언

② 자기가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알면서 모르는 체하다.

☞ 가는 알면서두 입닥구 있었어.

입때곤 : ‘여태껏’의 방언

☞ 입때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떼를 쓰네.

입술기 : ‘입술’의 방언

☞ 입술기에 침이나 바르구 말해라.

잇다 : ① ‘이다’의 방언

② 기와나 이엉 따위로 지붕 위를 덮다.

☞ 짚으루 이형을 잇었다.

잇짚나 : ‘있잖아’의 방언

☞ 잇짚나, 그 칭구 상가두 장개 안 갔어.

잉금 : ‘임금’의 방언

☞ 잉금이 너무 비싸서 걱정돼.

앞사구 : ‘앞사귀’의 방언

☞ 앞사구가 많이 떨어졌다.

자구 : ① ‘자귀’의 방언

② 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의 하나.

☞ 낭구 팍을 때 자구를 쓴다.

자기 : ① 그 사람 자신

② 부부나 친한 사이에서 상대방을 지칭하거나 부를 때 하는 말.

☞ 자기, 여기서 이거 먹어.

자꾸 : ① ‘지퍼’의 방언

② 서로 이가 맞물리도록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조각을 형겅 테이프에 나란히 박아서, 그 두 줄을 고리로 밀고 당겨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든 것.

☞ 그 옷이 자꾸가 망가져서 고쳤어.

자방 : ① ‘재봉틀’의 방언

② 피륙·종이·가죽 따위를 바느질하는 기계.

☞ 옷을 맨들래문 자방이 있어야 돼.

자방침 : ① ‘재봉틀’의 방언

② 피륙·종이·가죽 따위를 바느질하는 기계.

☞ 자방침이 자동식으로 바뀌어.

자부동 : ‘방석’의 일본어식 표기

☞ 의자나 방에 깔구 앉는 자부동을 바꿔.

자부럽다 : ‘졸리다’의 방언

☞ 잠을 설쳐 자꾸 자부럽다.

자부름 : ‘졸음’의 방언

☞ 가만히 있는데도 자부름이 밀려들었다.

자불다 : ‘졸다’의 방언

☞ 잠을 설는지 계속 자불구 있구나.

자빠지다 : ‘자빠지다’의 방언

☞ 가는 빙판으로 걸어가다 홀렁 자빠졌어.

자세 : ‘자श्य’의 방언, ‘먹다’의 청유형 높임말, ‘들다’보다 존대의 정도가 높다.

☞ 할머니, 얼렁 밥 자세.

자숙 : ‘자식’의 방언

☞ 가난한 집에 자숙들이 많다.

자오름(자우름) : ‘졸음’의 방언

☞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자오름이 쏟아졌다.

작기장(책기장) : ① ‘공책’의 방언

② 글씨는 쓰거나 그림을 그리도록 백지로 매어 놓은 책.

☞ 가는 작기장에 그림을 그리구 글씨를 썼다.

작띠기 : ‘작대기’의 방언

☞ 작띠기를 들구 껌련한 짚을 나셨다.

작숙이 : ① ‘지게작대기’의 방언

② 지게를 세우는 나무 막대기.

☞ 지게는 작숙이가 있어야 세울 수 있지.

작세미(작세미) : ① ‘지게작대기’의 방언

② 지게를 세울 때 받침대로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

☞ 작세미가 갑짜기 몽둥이로 변한 경우 두 허다하게 있었어.

작은 아번님 : ① ‘중부(仲父)’의 방언

② 결혼을 한, 아버지의 형제 가운데 둘째 되는 이.

☞ 작은 아번님은 멋지게 생겼다.

작은 아버지 : ① ‘중부(仲父)’의 방언

② 결혼을 한, 아버지의 형제 가운데 둘째 되는 이.

☞ 작은 아버지는 조카들을 차루 태워 주셨어.

잔내비 : ① ‘잔나비’의 방언

② 원숭이를 이르는 말.

☞ 잔내비는 잔재주가 많은 동물이다.

잔뎡이 : ‘허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짧은 잔뎡이에 아플 일이 있니?

잔치 : ① ‘결혼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경사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

☞ 실속 없는 잔치가 소문만 멀리 간다.

잘게(쩍게) : ‘작게’의 방언

☞ 큰 돌맹이를 잘게 부셨다.

잘기 : ‘자루’의 방언

☞ 도꾸 잘기 썩는 줄 모른다고 했지.

잘라구 : ‘자려고’의 방언

☞ 이제 막 잘라구 잠자리에 들었어.

잠꾸레기 : ‘잠꾸러기’의 방언

☞ 미인은 잠꾸레기라고 한다.

잠뱅이 : ① ‘잠방이’의 방언

②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훌바지.

☞ 요즘은 잠뱅이가 귀하다.

잠자쿠 : ‘잠자코’의 방언

☞ 가는 잠자쿠 그 여자를 따라갔다.

잠패롱하다 : ‘잠을 설치다’를 이르는 말.

☞ 간난애기가 지루했는지 잠패롱했다.

잡도리하다 :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우다.

☞ 가 출세를 위해 단디 잡도리했지.

장개 : ① ‘장가’의 방언

② 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

☞ 얼렁 장개 들어야 할 텐데.

장갱이(장굉이) : ① ‘뱀장어’의 방언

② 뱀장어과의 바닷물고기.

☞ 장굉이는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아.

장간 : ‘잠깐’의 방언

☞ 장간 볼려구 하니 허락해 달라구 했다.

장개이보 : ‘가위바위보’의 방언

☞ 그들의 선택은 장개이보로 결판났다.

장판지 : ① ‘종아리’의 방언

② 무릎과 발목 사이의 뒤쪽 근육 부분.

☞ 장판지 알통이 딱딱해.

장판지 : ① ‘장독’의 방언

②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아 두거나 담그는 독.

☞ 그 집에 가른 장판지가 개락이야.

장독(장독) : ① ‘장독’의 방언

②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아 두거나 담그는 독.

☞ 장독대에는 장독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장독대 : ① ‘장독대’의 방언

② 장독을 놓아두는 높직한 곳.

☞ 장독대는 햇볕이 잘 드는 양지쪽에 있다.

장똥뱅이 : ‘장돌림’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장똥뱅이는 장마당을 찾아 다녔다.

장뚜가리 : ① ‘독배기’의 방언

②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 장뚜가리에 국을 담아 먹으론 맛에 운치가 있지.

장뚜거리 : ① ‘장독대’의 방언

② 장독을 놓아두는 높직한 곳.

☞ 장뚜거리는 바람과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있다.

장배기 : ① ‘정수리’의 방언

② 머리 위의 솟구멍이 있는 자리.

☞ 장배기는 머리 급소 중 급소야.

장작피(장작개비) : ① ‘장작개비’의 방언

② 쪼갠 장작의 날개.

☞ 장작개비를 창고에 채곡채곡 쌓아 두었어.

장석 : ① ‘경첩’의 방언

② 여닫이문을 달 때 한쪽은 문틀에, 다른 한쪽은 문짝에 고정하여 문짝이나 창문을 다는 데 쓰는 철물.

☞ 문을 열구 닫을 때 장석이 중요하다.

장옥수쉬 : ① ‘수수’의 방언

② 벼과의 한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2m정도이며, 잎은 어긋맞게 넓은 선 모양이다.

☞ 요즘 장옥수쉬가 귀한 펜이다.

장자(長者) :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

☞ 동네마다 거부장자들이 있었다.

장작데미 : ① ‘장작가리’의 방언

② 장작을 쌓아 올린 무더기.

☞ 불을 때는 집은 장작데미를 산처럼 쌓아 두었다.

장재기 : ‘장작개비’의 방언

☞ 장재기를 아침마다 보강지 옆으로 옮겼다.

장죽(長竹) : 긴 담뱃대.

☞ 할아버지는 장죽을 늘 절에 두셨다.

장지뽕 : ‘가위바위보’의 방언

☞ 그 선택은 장지뽕으로 결정했다.

장탁 : ‘수탉’ 또는 ‘장닭’의 방언

☞ 사우가 오문 장탁을 잡았다.

재간치다 : ① ‘저지레하다’의 방언

② 일이나 물건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그르치다.

☞ 가는 온갖 재간을 치구 돌아다녔다.

재갈 : ① ‘자갈’의 방언

② 강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오랫동안 갈리고 물에 씻겨 반질반질하게 된 잔돌.

☞ 질 웅덩이에 재갈을 잔뜩 가져다 메웠다.

재롬하다 : ‘자잘하다’의 방언

☞ 수조에 재롬한 물고기로 채워 넣었다.

재수떼가리 : ① ‘재수’의 방언

②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를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놈은 재수떼가리가 없는 놈이야.

재집 : ‘기와집’의 방언

☞ 게네 집은 옛날부터 재집이었다.

재치기 : ① ‘재채기’의 방언

② 코 안의 신경이 자극을 받아 갑자기 코로 숨을 내뿜는 일.

☞ 강기가 들렸는지 대구 재치기를 해댔다.

재털이 : ‘재떨이’의 방언

☞ 그 방에는 재털이가 없었다.

재패먹다 : ‘잡혀먹다’의 방언

☞ 가는 돈이 떨어지자 시계를 재패먹었다.

잭패질 : ‘장난질’의 방언

☞ 손주들이 잭패질이 심한 펜이다.

잔돈 : ‘잔돈’의 방언

☞ 잔돈은 그냥 뒹두 돼.

잔소리 : ‘잔소리’의 방언

☞ 이제 잔소리 좀 그만 해.

잔전 : ‘잔돈’의 방언

☞ 잔전은 동전으로 주세요.

잔챙이 : ① ‘잔챙이’의 방언

② 여럿 가운데 가장 작고 품이 낮은 것.

☞ 잔챙이를 와서 한개번에 몰아 쥐 봐.

젤다 : ‘잘다’의 방언

☞ 그건 너무 젤아서 팔지도 못해.

젹했다 : ‘잡혔다’의 방언

☞ 고기 안 잡혔다구 속상해 했어.

쟁끼 : ① ‘장끼(뽕)’의 방언

② 뽕과의 수컷 새. 닭과 비슷한 크기인데, 알락달락한 검은 점이 많고 꼬리가 길다.

☞ 콩 숫놈을 쟁끼라구 해. 깃털이 멋있잖아.

쟁쟁거리다 : 조금 언짢거나 못마땅하여 계속해서 자꾸 보채거나 짜증을 낸다.

☞ 일이 지대루 풀리지 못하자 쟁쟁거렸다.

저걸루 : ‘저걸로’의 방언

☞ 저걸루 삼자루를 만들든 좋겠다.

저까지 : ‘젓가락’의 방언

☞ 기집 바뀐 건 모르구 저까지 짝 바뀐 건 안다는 속담이 있다.

저드랑이(저드랭이) : ‘겨드랑(겨드랑이)’의 방언

☞ 저드랑이에 맘이 증말 마이 났다.

저따구 : ‘저따위’의 방언

☞ 저따구가 뭘 안다구 꺾꺾 대는지.

저맨치 : ‘저만치’의 방언

☞ 그들은 저맨치 떠나자 사람들이 쑥떡 개렸다.

저울(저울) : ‘겨울’의 방언

☞ 저울을 지내보아야 봄 그리운 줄 안다.

저폐 : ① ‘벼훤이’의 방언

② 두 개의 나뭇가지나 수숫대 또는 뗏가지의 한끝을 동여매어 집게처럼 만들고 그 틈에 벼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농기구.

☞ 벧단을 풀어 이삭을 저폐에 넣구 훑었다.

적 : ‘부침개’의 방언

☞ 정지 화덕에서 적을 부다.

적팔 : ‘젓가락’의 방언

☞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팔질을 잘 한대.

적쇠 : ① ‘다리쇠’의 방언

② 주전자나 냄비 따위를 화로 위에 올려놓을 때 걸치는 기구.

☞ 화로에 적쇠를 올레놓구 떡을 구었다.

전다지 : ‘전부’의 방언

☞ 그날은 전다지 쏘박 손님이었다.

전데내다 : ‘견뎌내다’의 방언

☞ 그 심튼 일을 전데내구 어렵게 돌아왔다.

전디다 : ‘견디다’의 방언

☞ 가는 심튼 상황을 우여곡절 끝에 잘 견뎠다.

전봇대 : ‘전봇대’의 방언

☞ 옛날 전봇대는 전수 낭그었는데.

전폐 : ① ‘전표’의 방언

② 은행, 회사, 회사, 상점 따위에서 금전의 출납이나 거래 내용 따위를 간단히 적은 쪽지.

☞ 고기 팔른 전폐를 꼭 행개와야 돼.

절구공이 : ‘절굿공이’의 방언

☞ 절구질할 때는 절구공이가 좋아야 한대.

절구다 : ① ‘절이다’의 방언

② 푸성귀나 생선 따위를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에 담가 간이 배어들게 하다. ‘절다’의 사동사.

☞ 짐장할 때 배차를 잘 절귀야 숨이 죽어.

절구통 : ‘절구’를 절굿공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돌과 쇠, 나무 따위로 만들었다.

☞ 개미가 절구통 물구 나간대.

절구확 : ① ‘방아확’의 방언

② 방앗공이로 찼을 수 있게 돌절구 모양으로 우묵하게 판 돌.

☞ 절구확은 상가두 그대루다.

절판나다 : ① ‘결단나다’의 방언

②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

☞ 그것이 밝혀지자 그 관계가 절판났다.

절뚝바리 : ① ‘절름발이’의 방언

②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가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가는 다리를 다쳐서 절뚝바리가 되었지.

절루 : ‘절로’ ‘스스로’의 방언

☞ 가를 보자 절루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점백이 : ‘점박이’의 방언

☞ 점백이는 그 동네에 소문난 깡패였다.

점빵 : ① ‘점방’의 방언

② 가게로 쓰는 방

☞ 그 가게는 동네에 유일한 점빵이었어.

점때 : ‘저번에’의 방언

☞ 점때 왔던 사람이 다시 찾아왔네.

젓갈 : ‘젓가락’의 방언

☞ 그걸 먹으려면 젓갈이 필요했다.

정갱이 : ① ‘정강이’의 방언

② 무릎 아래에서 앞 뼈가 있는 부분.

☞ 그 여자는 그 놈의 정갱이를 걷어찼다.

정깃줄 : ① ‘전깃줄’의 방언

②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도체(導體)로서 쓰는 선.

☞ 정깃줄에 참새들이 까맣게 앉았다.

정낭간 : ① ‘변소’의 방언

②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 정낭간과 사둔집은 멀수록 좋네.

정내미 : ① ‘정나미’의 방언

② 어떤 대상에 대하여 애착을 느끼는 마음.

☞ 날이 갈수록 그에게 정내미가 떨어졌다.

정내미 떨어지다 : ① ‘정나미 떨어지다’의 방언

② 애착심이 떨어져 싫은 생각이 생긴다.

☞ 가가 하는 말마다 증말 정내미 떨어진다.

정지 : ‘부억’의 방언

☞ 정지에 가서 뜨신 물을 떠다 줘.

정지막 : ‘부뚜막’의 방언

☞ 정지막의 소금두 집어넣어야 짜다.

정화수 : ① ‘정화수(井華水)’의 방언

② 이른 새벽에 길은 우물물. 조왕에게

가족들의 평안을 빌면서 정성을 들이거나 약을 달이는 데 쓴다.

☞ 밤마다 정화수 떠 놓고 기도했어.

정황 : ① ‘경황(景況)’의 방언

② 정신적·시간적인 여유나 형편

☞ 정황이 없어서 결례가 많았던 거 같애.

젓가슴패기 : ① ‘젓가슴’의 방언

② 젓이 있는 가슴 부위.

☞ 그 여자의 젓가슴패기가 그대로 보았다.

젓띠기 : ① ‘젓떼기’의 방언

② 아이의 젓을 떼는 방법.

☞ 그 집에는 젓띠기 해다가 있었다.

절 : ① ‘결’의 방언

②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심리적으로 가까운 데.

☞ 그 여자의 예는 늘 그 남편이 있었지.

제(재) : ① ‘겨’의 방언

② 벼, 보리, 조 따위의 곡식을 찢어 벗겨 낸 껍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숟본데.

제꺼제꺼 : ① ‘제꺼덕제꺼덕’의 방언

② 어떤 일을 잇따라 아주 시원스럽게 빨리 해치우는 모양.

☞ 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꺼제꺼 해결했다.

제간엔 : ‘자기 판에는’의 방언

☞ 제간엔 하느라 했지만 미움만 받았다.

제곰두 : ‘지금도’의 방언

☞ 제곰두 그에 대한 감정은 그대로였다.

제곰씩 : ‘제 각기’의 방언

☞ 이거 가주구 제곰씩 농가 가제.

제끼다 : ‘젓히다’의 방언

☞ 낭구때기를 잡아 뒤루 제꼈다.

제따먹기(지따먹기) : 각자의 능력이나

수완에 따라 수익을 취하는 것을 이르는 말.

☞ 이번 공사는 지파 먹기래.

제발루 : ‘제 발로’ ‘자기 스스로’의 방언

☞ 이제 제발루 걸어 들우와 손을 들었다.

제방둑 : ① ‘제방(堤防)’의 방언

② 물가에 흙이나 돌, 콘크리트 따위로 쌓은 둑. 홍수나 해일에 물이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물을 막아 고이게 한다.

☞ 제방둑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어.

제와 : ① ‘겨우’의 방언

② 어렵게 힘들여.

☞ 시간이 늦어서 시험장에 제와 들어갔어.

제우 : ① ‘겨우’의 방언

② 어렵게 힘들여.

☞ 문을 제우 열구 들어갔어.

제절루 : ‘저절로’의 방언

☞ 그 이후 그 일은 제절루 마무리됐다.

제치다 : ‘젓히다’의 방언

☞ 의자를 뒤루 제쳤다.

젠노리(젯노리) : ① ‘겉두리(새참)’의 방언

②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끼니 외에 참치가 먹는 음식.

☞ 일하다가 젠노리 먹는 맛이 있다.

젠누리 : ① ‘겉두리(새참)’의 방언

②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끼니 외에 참치가 먹는 음식.

☞ 젠누리는 일꾼들의 즐거움이였다.

젯간 : ① ‘변소’의 방언

②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 그집 젯간에 다네오른 냄새가 코를 잡는다.

전디다 : ‘견디다’의 방언

☞ 가는 거기서 끝까지 전됐다.

조가지(조가비) : ① ‘조개’의 방언

② 판새류의 연체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조가비를 낚인 국물이 정말 시원하다.

조개바리 : 바다에서 조개를 채취하는 어업.

☞ 가에서 조개바리루 생계를 이어 갔다.

조고리 : ‘저고리’의 방언

☞ 조고리를 벗어 놓고 바깥으로 나갔다.

조곤조곤 : ‘조곤조곤’의 방언

☞ 그 둘은 조곤조곤 얘기를 나눴다.

조맹이질 : ① ‘주둥이질’의 방언

② 쓸데없이 말함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여자의 조맹이질은 동네가 다 아는 일이야.

조따구(고따구) : ‘저 따위’의 방언

☞ 고따구루 떨들은 가만 안 있어.

조련찮다 : 만만할 정도로 험하거나 쉽지 아니하다.

☞ 그 일을 끝까지 해낸다는 거는 조련찮는 일이지.

조롬 : ‘졸음’의 방언

☞ 조롬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조루 : ① ‘조리’의 방언

② 쌀을 이는 데 쓰는 기구. 가는 대오리나 찌리 따위로 엮어서 조그만 삼태기 모양으로 만든다.

☞ 쌀을 씻어 밥을 때는 조루가 있어야 돼.

조막댕이 : 주먹만한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조막댕이만한 놈이 팍추구 있어.

조맞다(꼬맞다) : 사람에게 맞다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가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조맷았다.

조먹다(쪼먹다) : ‘주워 먹다’의 방언

☞ 그들은 꾀박을 막 조먹었다.

조박다(쪼박다) : 사람들에게 두들겨 치거나 틀어서 꼴히게 하다.

☞ 말쑥꾸레기들을 한주먹씩 조박았다.

조삼키다 : ‘주워 삼키다’의 방언

☞ 남의 재산을 송두리째 조삼켰다.

조상채레 : ① ‘조상치레’의 방언

② 조상에 대한 치다꺼리.

☞ 조상채레를 하면서 평생을 보내냈다.

조이(조히) : ① ‘조’의 방언

② 벼과의 한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1~1.5m이며, 잎은 어긋나고 좁고 길다.

☞ 멍쌀에 조이를 섞으면 밥이 맛있다.

조자리나다 : ① ‘결판나다’의 방언

②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져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다.

☞ 그 바람에 그쪽은 조자리가 났다.

조쪽 : ‘저쪽’의 방언

☞ 이쪽과 조쪽은 다른 마을이다.

조채(조치) : ① ‘고명’의 방언

②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해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국시에 조채를 올려야 맛있다.

조치우다 : ‘주워 치우다’의 방언

☞ 그분이 세상 떠나자 그의 물건들을 조치웠다.

조캐(조케) : ‘조카’의 방언

☞ 조캐들은 큰 아버지를 따라 갔다.

조터지다 : 들켜 맞거나 얻어맞다.

☞ 말 안 듣다가 대장에게 조터다.

줄개 : 남의 부하 노릇을 하면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줄개들은 대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

줄구다(쫄구다) : ① ‘줄이다’의 방언

②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을 증발시켜 분량을 적어지게 하다. ‘줄다’의 사동사.

☞ 한약을 때리레는 물을 바짝 쫄구야 한다.

쫄체루 : ‘쫄처럼’의 방언

☞ 그일 이후 사람들은 쫄체루 바غه 안 나오려구 해.

쫄발 : 쫄발보다는 작고, 쫄지보다는 조금 넓고 평평한 그릇.

☞ 장독에서 간장 한 쫄발 떠와.

쫄발문애 : 쫄발 크기의 ‘문어’를 이르는 말.

☞ 문애 먹기에는 쫄발문애가 그저 그만 이야.

쫄우 : ‘종이’의 방언

☞ 올 때 쫄우에 전화번호를 적어 와라.

쫄우째기(쫄우째비, 쫄우 짹) : ‘종이 조각’의 방언

☞ 문새라구 해도 쫄우째기 밖에 안 돼.

쫄재기 : ① ‘쫄지’의 방언

② 간장, 고추장 따위를 담아서 상에 놓은, 쫄발보다 작은 그릇.

☞ 정지에 가서 쫄재기 한 개 가주구 와라.

쫄지꿈 : ‘무릎’의 방언

☞ 쫄지꿈이 너무 아파서 걸음을 못 걸어.

쫄끼(쫄끼) : ‘조끼’의 방언

☞ 단체 쫄끼를 입어야 누가 누군지 알지.

죄리 : ① ‘조리’의 방언

② 쌀을 이는 데 쓰는 기구. 가는 대오리나 싸리 따위로 엮어서 조그만 삼태기 모양으로 만든다.

☞ 죄리를 맨든다구 조릿대를 잔뜩 꺾어 왔어.

징일 : ‘종일’의 방언

☞ 징일 그 일만 했으니 피곤하겠네.

주댕이(주댕이, 조댕이) : ① ‘주둥이’의 방언

②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그놈의 주댕이를 꼬매야 입을 닫지.

주둥아리 : ① ‘입(입술)’의 방언

②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주둥아리를 함부루 놀리지 마라.

주레 : ① ‘호드기’의 방언

② 봄철 물오른 버드나무의 가지를 비틀어 뽑은 껍질이나 밀짚 토막으로 만든 피리.

☞ 주레에서 나오는 자연의 소리에 연신 감탄했다.

주름 : ‘주름’의 방언

☞ 나이들수록 주름만 늘어간다야.

주메이 : ‘호주머니’의 방언

☞ 주메이에 단돈 일푼도 없어.

주먹구구 : ① ‘주먹구구’의 방언

② 손가락으로 꼽아서 하는 셈.

☞ 뭘 하든지 주먹구구라서 걱정이네.

죽쑤다 : 계획한 일을 그르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그는 이번 일에 죽을 쑤고 말았어.

줄땡기기 : ‘줄다리기’의 방언

☞ 사람들이 봐들어 줄땡기기 시작했다.

줄레 : ① ‘호드기’의 방언

② 봄철 물오른 버드나무의 가지를 비틀어 뽑은 껍질이나 밀짚 토막으로 만든 피리.

☞ 아버지는 내게 줄레를 만들어 붙여 주셨다.

중말 : ‘중간 마을(가운데 마을)’의 방언

☞ 중말 사람들이 건너말루 건너왔네.

중사리 : ① ‘피라미’의 방언

② 잉엇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0~16cm이고 길고 납작하며 등 쪽은 푸른 갈색, 배 쪽은 은빛 흰색이고 옆구리에는 어두운 파란색의 가로 띠가 있다.

☞ 중사리두 고기 맛이 난다.

중적삼 : ① ‘잠방이’의 방언

②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홑바지.

☞ 아저씨는 늘 중적삼을 입구 있었다.

중중거리다 : 몹시 원망하듯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군소리로 자꾸 중얼거리다.

☞ 가는 그 일에 불만이 있는 듯 중중거렸다.

중태(中太) : 크기로 분류할 때 중간 크기의 명태.

☞ 맹태 중 대태나 소태보다 중태가 가장 많다.

중테기 : ‘중간 부분’의 방언

☞ 커튼의 여밈을 고정하기 위해 중테기에 끈을 달았다.

젼젼 : ‘죄암죄암’의 방언

☞ 젼젼에 아기가 방긋 웃었다.

쥐고기 : 바닷물고기 ‘쥐치’를 달리 이르는 말.

☞ 쥐고기는 말리든 달짝지근한 포가 된다.

쥐구멍 : ‘쥐구멍’의 방언

☞ 쥐구멍에도 뽕(별) 들 날이 있다.

쥐박다 : ‘쥐어박다’의 방언

☞ 엉뚱한 그에게 그걸 말이라구 하민서 쥐박았다.

쥐정 : ① ‘주정’의 방언

② 술에 취하여 정신없이 말하거나 행동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 그 아이씨는 밤새도록 쥐정해서 피곤했다.

쥐정뱅이 : ‘주정쟁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 쥐정뱅이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쥐게 주다 : ‘쥐여 주다’의 방언

☞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손에 쥐게 주었다.

쥘땃(쥘땃) : ‘주인땃’의 방언

☞ 쥘땃은 딱한 사정을 듣구 그를 도와줬다.

쥘다났다 : ① ‘쥐락펴락’의 방언

② 남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부리는 모양.

☞ 돈의 힘으로 그들을 쥘다났다 했다.

즌나무 : ① ‘전나무’의 방언

② 소나무과의 상록 교목. 높이는 20~40m이며, 잎은 선 모양이다.

☞ 즌나무는 늘 푸른 상록수다.

즘슴(즘슴) : ‘점심’의 방언

☞ 즘슴을 간단히 먹는 게 좋다.

즘말 : ‘정말’의 방언

☞ 이건 즘말이야, 농담 아이야.

즘슴나절 : ① ‘점심나절’의 방언

② 점심때를 앞뒤로 한 반나절.

☞ 즘슴나절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지가끔 : ① ‘제각기’의 방언

② 저마다 각기.

☞ 지가끔 지름을 가제오기루 했다.

지거리 : 문어잡이와 해초를 뜯는 데 쓰는 갈고리(낚시).

☞ 지가리를 아는 사람이 벨루 없다.

지게작대기 : ① ‘지게작대기’의 방언

② 지게를 세울 때 받침대로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

☞ 아버지가 지게작대기를 들은 도망갔다.

지까짓께 : ① ‘제까짓 것이’의 방언

② 낮잡아 ‘겨우 저따위 정도의’.

☞ 지까짓께 따붙어 봤자 소용없어.

지깐 놔 : ‘제까짓 놔’의 방언

☞ 지깐 놔미 뭘 얼마나 한다구.

지꺼 : ‘자기 것’의 방언

☞ 가방이 지꺼라구 가주구 갔다.

지날짜 : ‘제 날짜’의 방언

☞ 가는 지날짜에 돌아왔다.

지내댕기다 : ‘지나다니다’의 방언

☞ 학교 앞을 지내댕기다 얻어 걸렀다.

지느래미 : ‘지느러미’의 방언

☞ 지느래미는 물고기에게는 방향키야.

지다랗다 : ‘기다랗다’의 방언

☞ 그 건물이 지다랗다.

지다리다 : ‘기다리다’의 방언

☞ 지금까지 지다리다 방금 떠났다.

지대다 : ‘기대다’의 방언

☞ 백에 지대다가 넘어졌다.

지대루 : ‘제대로’의 방언

☞ 이번만큼은 지대루 각구 와.

지데미 : ① ‘지느러미’의 방언

② 물고기 또는 물에 사는 포유류가 몸이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 고기 지데미를 찢아 내는 게 좋다.

지둥: ‘기둥’의 방언

☞ 지둥에다 그 사무실 간판을 내다걸었다.

지둥석: ① ‘주춧돌’의 방언

②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

☞ 지둥석은 자연석 그대로다.

지따구가: ‘제 따위가’의 방언

☞ 지따구가 뭘 안다구 까부야.

지때: ‘제때’의 방언

☞ 지때 조사해야지 늦은 의미가 없어.

지랄금: ① ‘질알금’의 방언

②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음식.

☞ 지랄금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구 부탁했다.

지랄배기: ① ‘지랄쟁이’의 방언

② 지랄버릇이 있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높은 동네에서 소문난 지랄배기야.

지랄뱅이(지랄맹이): ① ‘지랄쟁이’의 방언

② 지랄병이 있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지랄뱅이는 아예 신경 쓰지두 말아.

지래: ‘미리’의 방언

☞ 지래 겁먹구 오두가두 못해.

지러기: ① ‘기러기’의 방언

② 오리과의 딸린 철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지러기두 때가 되면 먼길을 떠난다.

지렁: ‘간장’의 방언

☞ 국은 지렁으루 간을 맞춰야 한대.

지렁이(지래이): ① ‘지렁이’의 방언

② 빈모강의 환형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지렁이두 밟으면 꿈틀한다.

지르다: ‘기르다’의 방언

☞ 머리를 지르문 관리가 불펜하다.

지름: ‘기름’의 방언

☞ 물 위에 지름

지름종아리: ① ‘기름종개’의 방언

② 미꾸리과의 민물고기. 미꾸리와 비슷하나, 몸은 얇은 누런 갈색에 어두운 갈색의 세로띠 혹은 무늬가 있다.

☞ 지름종아리는 희귀생물이다.

지름지다: ‘기름지다’의 방언

☞ 사람들은 그 국물이 지름지다구 말했다.

지멋대로: ‘제멋대로’의 방언

☞ 그 친구는 버릇없이 지멋대로 지껄었다.

지미: ① ‘기미’의 방언

② 얼굴에 끼는 거뭇한 얼룩점.

☞ 얼굴에 지미가 마나 티가 난다.

지발: ‘제발’의 방언

☞ 지발 다시 돌아오지 마라.

지발루: ① ‘제 발로’의 방언

② 자신의 의지로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이르는 말.

☞ 지발루 돌아오면 그걸루 끝장이다.

지사: ① ‘제사’의 방언

②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 가난한 집 지사 돌아오듯 한다.

지삿상: ① ‘제상(祭床)’의 방언

②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벌여 놓은 상.

☞ 지샷상에 못 올리는 음식이 있다.

지숙: ① ‘시숙’의 방언

② 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 지숙은 조캐들에게 곳곳하게 살라구 당부했다.

지숙: ① ‘기슭’의 방언

② 산이나 처마 따위에서 비탈진 곳의 아랫부분.

☞ 산지숙에는 꽃두 피구 하지랭이두 피었다.

지시랑물: ‘낙숫물’의 방언

☞ 지시랑물이 댕돌을 뚫는다.

지실: ① ‘기슭’의 방언

② 산이나 처마 따위에서 비탈진 곳의 아랫부분.

☞ 건봉산 지실에는 저울에 눈이 마이 내린다.

지아무리: ① ‘제아무리’의 방언

② 제 판에는 세상없이. 남을 낮잡아 보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 지아무리 좋아두 날이 새운 떠나야 한다.

지악(지악): ‘저녁’의 방언

☞ 지악에는 사람들이다시 회관에 뭘 거야.

지울다: ‘기울다’의 방언

☞ 상다리가 짧아 상이 지울었다.

지위: ① ‘지방(紙榜)’의 방언

② 종잇조각에 지방문을 써서 만든 신주(神主).

☞ 지사 때마다 어머니는 나에게 지위를 준비하라고 하셨다.

지자리: ‘제자리’의 방언

☞ 그 책을 지자리에 갖다 놔라 말씀하셨다.

지자하다: ① ‘왁자하다’의 방언

② 정신이 어지러울 만큼 떠들다.

☞ 회관 바깥에 사람들이 뒹어 지자했다.

지저구(지저귀): ‘기저귀’의 방언

☞ 아기 지저구가 떨어제 옆집에서 얻어왔다.

지정떡: ‘증편’의 방언

☞ 지정떡을 찌서 큰 집에 보냈다.

지지개: ‘기지개’의 방언

☞ 일어나자마자 지지개를 크게 했다.

지지매(지지미): ‘부침개’의 방언

☞ 한가한 날에는 지지미를 부쳐 먹었다.

지지바: ① ‘계집아이’의 방언

② ‘여자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 그 지지바는 다신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지지하다: 어떤 일이 오래 끌기만 하고 보잘 것 없다.

☞ 그 일 지지하게 끝나고 말았다.

지질거리다: ① ‘중얼거리다’의 방언

②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자꾸하다.

☞ 그 일에 불만이 있어 지질거렸다.

지질くだ: ‘눌러놓다’를 이르는 말.

☞ 두부틀에다 돌을 지질꿔 놔야 돼.

지집년: ‘계집년’의 방언

☞ 그 지집년은 거길 금방 떠났어.

지집질: ① ‘계집질’의 방언

②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와 정을 통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그놈은 지집질하다가 집에서 쫓겨났어.

지 짹: ① ‘제 짹’의 방언

② 한상이나 별을 이루는 그 짹.

☞ 짹신두 지 짹이 있다구 그래.

지척지척: 힘없이 다리를 끌면서 억지로 걷는 모양.

☞ 그는 다리를 지척지척 끌고 문을 나섰다.

지청 : ① ‘제청’의 방언

② 장사(葬事)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무덤 옆에 마련한 곳.

☞ 집집마다 지청이 있었다.

지축지축 : ① ‘아장아장’의 방언

② 키가 작은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찬찬히 걷는 모양.

☞ 그 아기는 지축지축 걸음을 웅겼다.

지치미(지침) : ‘기침’의 방언

☞ 가는 밤새도록 지치미를 해 댔다.

지팡이 : ‘지팡이’의 방언

☞ 그 노인을 지팡이 휘둘렀다.

지푸락지 : ① ‘지푸라기’의 방언

② 낱알의 짚, 또는 부서진 짚의 부스러기.

☞ 물에 빠지른 지푸락지도 잡는다.

지풀집 : ‘초가집’의 방언

☞ 연날에는 지풀집이 많았다.

직싸게 : ① ‘직사게’의 방언

② ‘보통 이상으로 아주 심하게’ 혹은 ‘싫을 때까지 아주 심하게’의 뜻으로 이르는 말.

☞ 그 친구는 직싸게 두들겨 맞았다.

직빵으로 : ‘곧바로’의 방언

☞ 지게작세미를 휘두르자 직빵으로 맞아 떨어졌다.

진개비 : ① ‘진눈깨비’의 방언

② 비가 섞여 내리는 눈.

☞ 어제부터 진개비가 내렸다.

진눈 : ① ‘진눈깨비’의 방언

② 비가 섞여 내리는 눈.

☞ 하루 종일 내린 눈은 밤에 진눈으로 변했다.

진땡이(진떼이) : ‘진짜’의 방언

☞ 막걸리는 진땡이는 증말 독하다.

진생이 : 모자라는 사람을 이르는 말.

☞ 가는 하는 짓마다 진생이다.

진소매 : ‘긴소매’의 방언

☞ 추울 때는 진소매를 입어야 한다.

진진밤 : ① ‘긴긴밤’의 방언

② 길고 긴 밤.

☞ 한겨울에는 진진밤을 보내야 했다.

질 : ‘길(道路)’의 방언

☞ 질에서는 차조심 해야 한다.

질? : ① ‘두레’의 방언

②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여 위해 마을 또는 구역단위로 만든 조직.

☞ 모내기할 때는 질꾼들이 뒀어 질을 정한다.

질거지 : ① ‘행동거지’의 방언

② 몸을 움직여 하는 모든 짓.

☞ 그 못된 질거지를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

질구다 : ‘적시다’의 방언

☞ 애들은 비오는 날 돌아다니며 질구는 게 일이다.

질금 : ‘옛기름’의 방언

☞ 식혜를 맨들레문 질금을 넣어야 한다.

질기다 : ‘즐기다’의 방언

☞ 다른 사람 승보는 걸루 질기구 있다.

질깁(길깁) : ‘길(道路)’의 방언

☞ 질깁에 함부루 나서문 위험하다.

질깁ㄴ으가리 : ‘길옆’ 또는 ‘갓길’의 방언

☞ 질깁ㄴ으가리에는 수로가 있다.

질깁여랑사리 : ‘길옆’ 또는 ‘갯길’의 방언

☞ 질깁여랑사리에는 갯질 대신 가로수가 있다.

질다 : ‘길다’의 방언

☞ 말이 없었지만 그의 뒤끝은 질었다.

질동무 : ‘길동무’의 방언

☞ 밤길에 질동무가 되어 주른 좋다.

질두가리 : ① ‘뚝배기’의 방언

②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 주어탕은 질두가리에 먹어야 제맛이야.

질들이다 : ‘길들이다’의 방언

☞ 개친 가를 질들이는 일에 공을 들였다.

질래 : ‘끝내’의 방언

☞ 질래 그 일을 마치지 못했다.

질레버리다 : ‘질려버리다’의 방언

☞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질레버렸다.

질목 : ‘길목’의 방언

☞ 동네로 들어가는 질목에는 장승이 있다.

질빵끈(겉빵) : ① ‘질빵’의 방언

② 짐을 걸어서 메는 데 쓰는 줄.

☞ 과나리봇짐은 질빵끈이 튼튼해야 했다.

질쌈 : ① ‘길쌈’의 방언

②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예전에 질쌈이 중요한 농촌의 일상이었다.

짐 : ‘김’의 방언

☞ 짐은 반찬으로 영양가두, 맛두 있다.

짐매기(짐매다) : ‘김매기(김매다)’의 방언

☞ 짐매기는 제일 중요한 농작업이다.

짐빠지다 : ① ‘김새다’의 방언

② 흥이 개지거나 맥이 빠져 싱겁게 되다.

☞ 그 일 이후 그는 짐이 빠졌다.

짐장 : ‘김장’의 방언

☞ 짐장 짐치는 집집마다 맛이 달라.

짐치 : ‘김치’의 방언

☞ 시원한 짐치 국물에 국시 말아 먹구 싶다.

집께 : ‘집 부근에’의 방언

☞ 가는 잡았던 고라니를 집께 풀어줬다.

집난이 : ‘시집 간 딸’을 이르는 말.

☞ 집난이는 집에 보탬이 안 된다.

집다 : ① ‘(모를) 갑다’의 방언

② 모를 심고 난 후 모가 빠진 논에 보충하여 모를 심는 일

③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는 일.

☞ 모내기 뒤 끝에 모 집는 일이 심들다.

집문세 : ‘집문서’의 방언

☞ 그 늬이 집문세를 가지구 달아났다.

집신 : ‘짚신’의 방언

☞ 집신두 지 짝이 있다.

짓구땡 : ① ‘짓고땡’의 방언

② 하투 노름의 하나. 다섯 장의 패 가운데 석 장으로 열 또는 스물을 만들고, 남은 두 장으로 땡 잡기를 하거나 꽃수를 맞추어 많은 쪽이 이긴다.

☞ 놀이문화가 벨루 없어 시간만 나른 삼삼오오 모에서 짓구땡을 했다.

짓다 : ① 모를 ‘갑다’의 방언

② 모를 심고 난 후 모가 빠진 논에 보충하여 모를 심는 일

③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는 일.

☞ 빵꾸 모 짓는 걸 땀방 한다고 했다.

짓상 : ① ‘제상(祭床)’의 방언

②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벌여 놓은 상.

☞ 짓상에는 못 올리는 제수품이 있다.

짓조다 : ‘함부로 마구 쪼다’를 이르는 말.

☞ 봉숭아를 짓조아서 손톱에 동에맸다.

짚가래(짚가리) : ① ‘벧가리’의 방언

② 벧대를 베어서 가려 놓거나 벧단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

☞ 언날에는 짚가리를 논에다 쌓았다.

짚다(지푸다) : ‘깊다’의 방언

☞ 우물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짚다.

짚북데미 : ‘짚북대기’의 방언

☞ 짚북데미를 헛간으로 옮겨.

짚세기(집세기) : ‘짚신’의 방언

☞ 짚세기를 신으은 시언하다.

짚쑤기 : ‘깊숙이’의 방언

☞ 그 물건은 농 짚쑤기 넣어두어라.

짜굽다 : ‘짜다’의 방언

☞ 소금을 마니 넣서 짜굽다.

짜르다 : ‘자르다’의 방언

☞ 머리카락을 지저분해서 짤랐다.

짜리몽땅하다 : ① ‘작달막하다’의 방언

② 키가 몸피에 비해 꽤 작다.

☞ 가는 원래 체형이 짜리몽땅했다.

짜부러지다 : ① ‘짜부라지다’의 방언

② 물체가 눌리거나 부딪혀서 오그라지다.

☞ 그 상자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구 짜부러졌다.

짜집기 : ① ‘짜깁기’의 방언

② 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울을 살려 본디대로 흠집 없이 짜서 깎는 일.

☞ 찢게진 옷은 짜깁기루 고친다.

짜게 : ① ‘딛’의 방언

② 짐승을 꼬여 잡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짜게루 산짐승을 잡는다.

짜짜기 : ① ‘짜짜이’의 방언

② 서로 짝이 아닌 것끼리 합하여 이루어진 한 벌.

☞ 신발 짜짜기 신구 다녔어.

짚지 : ‘김치’의 방언

☞ 저울 반찬은 짚지가 최고의 식품이다.

짚라내다 : ‘잘라내다’의 방언

☞ 배추고랑이를 짚라냈다.

짚바리 : 우럭, 볼락, 놀래기 따위의 작은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이르는 말(틈새 조업).

☞ 짚바리에서 잡는 물고기는 잡어(雜魚)였다.

짚자름하다 : ① ‘짹자름하다’의 방언

② 좀 짹맛이나 냄새가 풍기다.

☞ 그 취나물 절임은 짹자름하다.

짹대 : ‘장대’의 방언

☞ 긴 짹대를 가주구 가야 높은 데 짹을 판다.

짹들 : ① ‘돌’의 방언

② 흙 따위가 굳어서 된 광물질의 단단한 덩어리.

☞ 짹들을 집어던져 단지가 깨졌다.

짹아찌 : ‘장아찌’의 방언

☞ 고추짹아치는 맵구 달짝지근하다.

짹치기 : ① ‘자치기’의 방언

② 아이들 놀이의 하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짹막한 나무토막을 긴 막대기로 쳐서 날아간 거리를 재어 승부를 정한다.

☞ 애들과 하루 종일 짹치기하구 놀았다.

짱카: ① ‘잘라’의 방언

② ‘자르다’의 활용형

☞ 생선을 먹으러는 절반으로 짱카.

째기다: ① ‘째다’의 방언

② 물건을 찢거나 베어 가르다.

☞ 생선 배를 째게서 내장을 꺼내.

째깨들: ① ‘덜’의 방언

② 짐승을 꼬여 잡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멧돼지를 잡으러는 째깨들을 낚야 한다.

째단하다: ‘자잘하다’의 방언

☞ 그가 보낸 건 죄다 째단한 거다.

째레 보다: ① ‘째려 보다’의 방언

② 못마땅하여 매서운 눈초리로 흘겨보다.

☞ 뭔가 불만이 있는지 서서 째레 봤다.

째지다: ‘찢어지다’의 방언

☞ 그는 포장이 서툴러서 아래쪽이 째다.

쩔다: ① ‘잘다’의 방언

② 알곡이나 과일, 모래 따위의 둥근 물건이나 글씨 따위의 크기가 작다.

☞ 그가 보낸 복숭아는 맛은 있지만 찹다.

쩌매다: ‘잡아매다’의 방언

☞ 포장지 터진 곳을 임시로 찹매다.

쩌페: ① ‘벼훅이’의 방언

② 두 개의 나뭇가지나 수숫대 또는 덩가지의 한끝을 동여매어 집게처럼 만들고 그 틈에 벼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농기구.

☞ 옛날에는 찹페루 곡식을 털었다.

쩔다: ① ‘겉다’의 방언

② 기름 따위가 흠뻑 배다. 또는 그렇게 하다.

☞ 그 옷은 기름에 찹어서 새까맣게 벤했다.

쩔쩔 기다: ‘쩔쩔 매다’의 방언

☞ 가는 선상님을 만나자 찹찹 기었다.

쩌입다: ① ‘껴입다’의 방언

② 옷을 입은 위에 겹쳐서 또 입다.

☞ 옷을 잔뜩 찹입어 몸이 둔해졌다.

쩌가리: ‘조각’의 방언

☞ 찹가리, 찹가리를 와서 합쳤다.

쩌기다: ‘쩌개다’의 방언

☞ 그 빵을 여러 조각으로 찹겼다.

쩌곰: ‘조금’의 방언

☞ 그의 뒤통은 아주 찹곰뿐이었다.

쩌넣다: ‘주워 넣다’의 방언

☞ 바닥에 널린 밤을 자루에 찹넣었다.

쩌달리다: ‘쩌들리다’의 방언

② 어떤 일이나 사람에 시달리거나 부대기어 괴롭게 지나다.

☞ 장사가 부진하자 그는 빚에 찹달렸다.

쩌담다: ‘주워 담다’의 방언

☞ 바구니에 떨어진 자두를 찹담았다.

쩌들다: ‘주워들다’의 방언

☞ 그는 동네를 기웃거리며 그 소문을 찹들었다.

쩌막손: ① ‘조막손’의 방언

②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서 펴지 못하는 손.

☞ 찹막손이 잘 산다는 속설이 있다.

쩌무래기: ① ‘조무래기’의 방언

② 어린아이들을 낚잡아 이르는 말.

☞ 찹무래기들을 와서 방가 후 수업을 시작했다.

쩌패: ① ‘벼훅이’의 방언

② 두 개의 나뭇가지나 수숫대 또는 덩가지의 한끝을 동여매어 집게처럼 만들고 그 틈에 벼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농기구.

☞ 쪼패는 탈곡하는 데 쓰는 도구다.

쪽대 : ① ‘족대’의 방언

②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 작은 반두와 비슷하나 그물의 가운데가 쳐져 있다.

☞ 물고기를 잡으려면 쪽대가 있어야 돼.

쪽도랑 : ① ‘붓도랑’의 방언

② 붓물을 대거나 빼게 만든 도랑.

☞ 해마동 쪽도랑은 몽리자들이 모에 억부하지.

쪽도리 : ① ‘족두리’의 방언

② 부녀자들이 전통 예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관(冠).

☞ 그는 신부의 쪽도리를 풀며 말을 꺼냈다.

쪽발이 : 일본 사람을 얕잡아서 이르는 말.

☞ 왜놈을 쪽발이라 하고 압삽하다구 말해.

쪽집게 : ① ‘족집게’의 방언

②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내거나 잘 알아맞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 그 점쟁이는 쪽집게라구 소문이 났다.

쪽짱알(쪽짱알) : 바닷물고기 산란 후 남은 알과 알집, 또는 배태되기 시작한 알을 이르는 말.

☞ 쪽짱알을 찌제 먹으면 맛있다.

쪽다 : ① ‘두려워하다(겁내다)’의 방언

②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을 나타내다.

☞ 그 일이 터지자 가는 빠짝 쪽았다.

쪽따구 : ① ‘졸따구’의 방언

② 지위가 변변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크지 못하여 자질구레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거기서 쪽따구는 말두 못 부체.

졸라매다 : ‘졸라매다’의 방언

☞ 바지가 흘러내릴까 싶어 빠짝 졸라맸다.

졸르다 : ① ‘조르다’의 방언

② 다른 사람에게 차지고 끈덕지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다.

☞ 소녀는 여행 허락을 받기 위해 엄마에게 빠짝 졸르구 있었다.

졸리다 : ① ‘졸다’의 방언

② 위협적인 대상 앞에서 기를 펴지 못하거나 겁을 먹다. ‘졸다’의 사동사.

☞ 보호자가 없어지자 가는 심리적으로 졸렸다.

졸이다 : ① ‘졸이다’의 방언

②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을 증발시켜 분량을 적어지게 하다. ‘졸다’의 사동사.

☞ 한약은 탕기에서 빠짝 졸여야 한다.

졸장부 : ① ‘졸장부’의 방언

② 도량이 좁고 졸렬한 사내.

☞ 사람들은 박약한 그를 졸장부라구 했다.

죸 : ‘죸’ ‘조금’의 방언

☞ 솔직히 말하든 그는 죸 그런 펜이다.

죸생이 : ① ‘죸생이’의 방언

② 죸스러운 사람. 또는 자질구레한 물건.

☞ 사람들은 그를 죸생이라구 숭 뵈다.

죸게나다 : ‘죸겨나다’의 방언

☞ 결국 가는 그 집에서 죸게났다.

죸기 : ① ‘죸’의 방언

② 짐승을 죸어 잡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죸기를 목에다 설치해 뵈다.

죸고맴다 : ‘조그맣다’의 방언

☞ 그 고기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 죸고맴다.

죸곰씩 : ‘조곰씩’의 방언

☞ 아주 죸곰씩 농가 먹는 게 좋겠다.

찌끼다: ‘쫓기다’의 방언

☞ 그들은 찌끼어서 산으로 내뺐다.

찌찌하다: ① ‘찌찌하다’의 방언

② 너무 적거나 하찮아서 시시하고 신통치 않다.

☞ 그는 하는 짓이 너무 찌찌하다.

꾸구랭이: ① ‘쫓정어’의 방언

② 겹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지 아니한 곡식이나 과일 따위의 열매.

☞ 꾸구랭이는 농사에 증말 도움이 안돼.

쫓데기: ① ‘쫓데기’의 방언

② 통나무의 표면에서 잘라 낸 널조각. 주로 뿔감으로 쓴다.

☞ 쫓데기를 와서 보강지에 갔다 넣었다.

쫓저구: ① ‘쫓저기’의 방언

② 쫓깃과의 민물고기. 쫓지와 비슷한데 다소 작으며, 갈색 바탕에 붉은 가로줄이 있다.

☞ 쫓저구는 소문난 매운탕 개리다.

쫓지: ‘어쫓죽지’의 방언

☞ 쫓지가 아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쫓들이다: ‘주워 들이다’의 방언

☞ 비가 갑자기 쏟아지자 밖에 널었던 무말랭이를 급히 쫓들었다.

쫓먹다: ‘주워 먹다’의 방언

☞ 낭고 밑에 떨어진 낙과를 쫓먹었다.

찌개미: ① ‘지개미’의 방언

② 재강에 물을 타서 모주를 짜내고 남은 찌꺼기.

☞ 찌개미를 몰래 흙채 먹구 술에 취해 혼났다.

찌구똥: ‘기우똥’의 방언

☞ 바닥이 고르지 않아 귀찮이 찌구똥했다.

찌그랭이: ① ‘찌그렁이’의 방언

② 남에게 무턱대고 억지로 떼를 쓰는 짓. 또는 그런 사람.

☞ 가는 아무에게나 찌그랭이 붙어 몸태질했다.

찌렁이: ① ‘지렁이’의 방언

② 빈모강의 환형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찌렁이는 우리에게 유익한 친한 갱동물이다.

찌린내: ‘지린내’의 방언

☞ 화장실 에는 찌린내가 진동한다.

찌부둥하다: ① ‘찌뿌둥하다’의 방언

② 마음에 맞가지 않아 몹시 찌뿌드드하다. 또는 몸이 고달프고 무겁다.

☞ 잠을 잘못 자서 온몸이 찌부둥하다.

찌웃거리다: ‘끼웃거리다’의 방언

☞ 미련이 남아 거길 떠나지 못하구 찌웃거렸다.

찌지다: ① ‘지지다’의 방언

② 국물을 조금 붓고 끓여서 익히다.

③ 불에 달군 판에 기름을 바르고 전 따위를 부쳐 익히다.

☞ 생선을 찌지른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찌찌구뽕다: ① ‘지지고 볶다’의 방언

② 사람을 들볶아서 몹시 부대끼게 하다.

☞ 그동안 살면서 찌찌구뽕구 살았다.

찍개: ① ‘밀싹개’의 방언

② 두 발을 디디거나 앉을 수 있게 그 넷줄의 맨 아래에 걸쳐 있는 물건.

☞ 그네 찍개는 해마동 갈아야 돼.

찍게: ‘집게’의 방언

☞ 맹태를 고를 때는 찍게루 했었다.

찍어매다: ‘깎다’의 방언

☞ 찢어진 바지를 임시로 찍어맸다.

찐구다: ‘끼우다’의 방언

☞ 헤벌어진 윗도리 단추를 찐귀야 단정하다.

찐기다: ‘끼이다’의 방언

☞ 사람들에게 찐게서 죽을 뻔 했다.

찐덕찐덕: ‘찐득찐득’의 방언

☞ 호박엿을 먹구나 손이 찐덕찐덕하다.

찐데미: ① ‘진딧물’의 방언

② 진딧물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시금치에 찐데미가 잔뜩 있어 약을 쳐야 돼.

찐드기: ① ‘진딧물’의 방언

② 진딧물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모종하구 메칠 있다가 찐드기 약을 쳐야 한다.

찐기다: ‘질기다’의 방언

☞ 그는 쇠심줄만큼 찐기다.

찐끔: 아주 ‘조금씩’의 방언

☞ 그는 찐끔, 찐끔 빗을 꺾었다.

찐르다: ‘찌르다’의 방언

☞ 두릅나그를 잡으론 가시가 찐른다.

찐적거리다: ‘집적거리다’의 방언

☞ 객쩍게 찐적거리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

찐콩: ‘정통’의 방언

☞ 그의 말이 찐콩으로 맞았다.

차갈이: ① ‘차조’의 방언

② 찰기가 있는 조. 열매가 잘고 빛깔이 노랑고 약간 파르스름하다.

☞ 차갈이를 밥에 곁들이는 맛있다.

차겁다: ‘차다(冷)’의 방언

☞ 밖에 있는 쇠붙이를 맨지른 차겁다.

차구다니다: ‘차고 다니다’의 방언

☞ 할베이는 담뱃대를 차구 다니셨다.

차굼다: ‘차다(冷)’의 방언

☞ 가 손은 바깥에서 얼어 차굼다.

차단쓰: ① ‘장롱’의 방언

② 옷 따위를 넣어 두게 만든 작은 장(櫥).

☞ 차단쓰에 옷을 채곡채곡 넣어 두었다.

차돌백이(차돌배기): ‘차돌박이’의 방언

☞ 차돌백이된장찌개는 정말 맛있다.

차띠기: ① ‘차떼기’의 방언

② 화물차 한 대분의 상품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일.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한 흥정.

☞ 펄 낭구는 차띠기루 사는 게 더 싸다.

차바쿠: ‘차바퀴’의 방언

☞ 차바쿠가 너무 커서 들 수가 없다.

차조히: ① ‘차조’의 방언

② 찰기가 있는 조. 열매가 잘고 빛깔이 노랑고 약간 파르스름하다.

☞ 옛날에는 차조히루 엿두 만들었다.

차춤: ‘차춤’의 방언

☞ 그 후 그러한 일들이 차춤 줄어들었다.

착잡하다: ‘착잡하다’의 방언

☞ 막상 탁치구 보니 마음이 착잡하다.

찬장: ① ‘장롱’의 방언

② 옷 따위를 넣어 두게 만든 작은 장(櫥).

☞ 찬장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다.



찬차이 : ① ‘찬찬히’의 방언

②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않고 느릿하게.

☞ 그 일은 찬차이 알아보구 해결 방안을 찾아.

찰남생이 : ① ‘천남성’의 방언

② 천남성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30~60cm, 잎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새발 모양이다.

☞ 찰남생이는 독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찰조히(찰조이) : ① ‘차조’의 방언

② 찰기가 있는 조. 열매가 잘고 빛깔이 노랗고 약간 파르스름하다.

☞ 찰조히는 메조히보담 찰기가 많다.

찰지다 : ① ‘차지다’의 방언

② 반죽이나 밥, 떡 따위가 끈기가 많다.

☞ 올해 쌀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찰지다.

참가재미 : ‘가자미’의 방언으로 가자미과의 바닷물고기 중 참가자미

☞ 참가재미는 가재미 맛의 진수를 보여 주는 생선이다.

참굴밤 : ① ‘상수리’의 방언

② 상수리나무의 열매.

☞ 상수리낭그의 열매가 참굴밤이다.

참꽃(참꽃) : 먹는 꽃이라는 뜻으로, ‘진달래’를 개꽃에 상대해 이르는 말.

☞ 산기슭에 참꽃의 자태가 수줍구 부끄러운 모양이다.

참낭구(참낭그) : ① ‘떡갈나무’의 방언

② 참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 낭구 중에 낭구는 참낭구다.

참두릅 : ‘두릅’의 방언

☞ 이른 봄 참두릅에서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참알 : 명태의 알 중에서 완전히 다 성장

한 알.

☞ 명태 참알은 명란의 최고 품질을 맨든다.

창경바리 : ① ‘창경조업’의 방언

② 바다에서 창경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업.

☞ 창경바리는 물속을 창경으로 보민서 작업하는 어로의 방법이다.

창구녕 : ‘창구멍’의 방언

☞ 창구녕을 막아야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창깨 : ‘참깨’의 방언

☞ 창깨 냄새는 들깨보담 고시다.

창난 : ① ‘뺨(창자)’의 방언

② 명태 뺨을 손질해서 창난젓을 담근다.

☞ 창난 젓갈은 쫄깃해서 씹는 맛이 있다.

창애틀(창애틸) : ① ‘뺨’의 방언

② 짐승을 꺾어 잡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멧돼지를 잡기 위해 창애틀을 썼다.

창지 : ‘창자’의 방언

☞ 기집 둘 가진 늙의 창지는 호랭이두 안 먹는다.

창지름 : ‘참기름’의 방언

☞ 창지름 냄새에 군침이 돌았다.

채곡채곡 : ‘차곡차곡’의 방언

☞ 옷을 채곡채곡 정리해 옷장에 넣었다.

채래놓다 : ‘차려놓다’의 방언

☞ 마누라는 밥상을 채래놓구 나갔다.

채레채레 : ‘차레차레’의 방언

☞ 맨 앞에 선 사람부터 채레채레 순서대로 들루와.

채리다 : ‘차리다’의 방언

☞ 손님을 위해 진수성찬을 채렷다.

채림새 : ‘차림새’의 방언

☞ 그 채림새가 마치 기생오라비 같애.

채마 :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 주로 그
잎이나 줄기, 열매 따위를 식용한다.

☞ 비만인 사람은 채마를 마이 먹어야 돼.

채수 : ‘채소’의 방언

☞ 채수는 싱싱할수록 상큼한 맛이 난다.

채양 : ① ‘차양’의 방언

② 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들이치는 것
을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 햇살 뜨거우니 채양을 설치해라.

채쪽 : ‘팽이채’의 방언

☞ 팽이를 돌리기 위해 채쪽이 있어야 돼.

책보재기 : ① ‘책보자기’의 방언

② 책을 싸는 보자기.

☞ 책가방이 없어 책보재기에 싸서 학교
다녔다.

책상시계 : ‘탁상시계’의 방언

☞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시계를 책상시계
라구 했다.

책책 : ① ‘착착’ ‘차곡차곡’의 방언

② 차례를 따라서 순서 있게.

☞ 집안에 짐들을 바구니에 책책 담았다.

참견(참견) : ‘참견’의 방언

☞ 그는 늘 남 참견에 이끌리 났다.

참빔 : ① ‘참빛’의 방언

② 빔살이 아주 가늘고 촘촘한 빔.

☞ 참빔는 씨개를 잡는 데 아주 유용한 빔
이다.

창피 : ‘창피’의 방언

☞ 그런 일이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창피스럽다 : ‘창피스럽다’의 방언

☞ 몰래 새치기 하다가 썰레서 창피스럽다.

쳐내곤제두다 : ‘내버려두다’의 방언

☞ 말해두 안 들어서 그냥 쳐내곤제두었다.

쳐름 : ‘처럼’의 방언

☞ 빠르기가 제비쳐름 빨라.

척세 : ① ‘다리쇠’의 방언

② 주전자나 냄비 따위를 화로 위에 올
려놓을 때 걸치는 기구.

☞ 화루에 척세를 걸체 농구 떡을 구워 먹어.

척하문 : ‘척하면’의 방언

☞ 그 사람은 척하문 삼천리였다.

천덕꾸레기 : ① ‘천덕꾸러기’의 방언

② 남에게 천대를 받는 사람이나 물건.

☞ 가는 눈 밖에 난 천덕꾸레기였다.

천생이 : ① ‘여우’의 방언

② 갯과의 포유류. 매우 교활한 사람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그 여자는 알미운 천생이었다.

천정 : ‘천장’의 방언

☞ 천정에는 쥐들이 지도를 그레 놓았다.

천처리 : ‘천천히’의 방언

☞ 서두르지 말구 천처이 하구 와라.

철떼기 : ① ‘철따구니’의 방언

② ‘철’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가는 철떼기 없는 짓을 해서 욕먹었다.

철멤피 : ‘철면피’의 방언

☞ 그러구보은 그는 완전 철멤피 같애.

철씩 : ‘털썩’ 방언

☞ 그 말을 듣구 놀라 철씩 주저앉았다.

철엽 : ① ‘천렵’의 방언

② 냇물에서 고기잡이하는 일.

☞ 여름마다 냇가에 가서 철엽하구 놀았다.

첫추우 : ‘첫 추위’의 방언

☞ 첫추우가 닥치자 미처 뽕지 못한 배차
가 다 얼었다.

청살모(청살무) : ① ‘청설모’의 방언

② 다람쥐과의 하나. 몸빛은 잿빛 갈색이며 다리와 귀의 긴 털은 검은색이다.

☞ 청살모는 자기가 숨킨 먹잇감을 이제 빼린다.

체다보다 : ‘쳐다보다’의 방언

☞ 가는 잣낭구 꼭대기 잣을 체다봤다.

체멘치레 : ① ‘체면치레’의 방언

② 체면이 서도록 일부러 어떤 행동을 함. 또는 그 행동.

☞ 체멘치레하다가 지대루 먹지도 못했다.

챗바쿠(잔 것) : ① ‘어레미’ ‘체’의 방언

② 바닥의 구멍이 조금 작은 체.

☞ 웅고지를 삶아서 챗바쿠에 놓구 바타야 돼.

초개집 : ‘초가집’의 방언

☞ 초개집은 해마동 지붕을 갈아야 돼.

초두부 : ① ‘순두부’의 방언

② 눌러서 굳히지 아니한 두부.

☞ 초두부는 부드럽구 유들유들해 먹기 좋아야.

초마(초매) : ‘쳐마’의 방언

☞ 초마에는 고드래미가 열렸다.

초매끝 : ‘쳐마 끝’의 방언

☞ 초매끝에서 지시랑물이 떨어졌다.

초지약 : ‘초저녁’의 방언

☞ 어른들은 초지약 잠이 많아.

촌떡 : ‘밀전병’의 방언

☞ 사람들은 간식으로 촌떡을 좋아했다.

총재비 : ‘총잡이’의 방언

☞ 그는 암전하지만 원래 총재비였다.

추렴 : ① ‘추렴’의 방언

②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

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둬.

☞ 한겨울에는 청년들이 모에 추렴을 했다.

추시르다 : ① ‘추스르다’의 방언

② 일이나 생각 따위를 수습하여 처리하다.

☞ 그 일 이후 가족들은 마음을 추실러 다시 준비했다.

추와 : ‘추워’의 방언

☞ 올겨울은 유난히 추와.

춘태(春太) : 봄에 잡은 명태를 이르는 말.

☞ 봄에 잡히는 명태를 춘태라구 하는 데 벨루 많이 잡히지 않아.

치 : ① ‘키’의 방언

② 곡식 따위를 까불러 쪽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 낱알을 치루 체서 티를 골랐다.

치다보다 : ‘쳐다보다’의 방언

☞ 날이 들자 하늘을 치다봤다.

치뛰다 : 아래에서 위를 향해 뛰다.

☞ 가는 집을 나서자마자 치뛰기 시작했다.

치루다 : ‘치르다’의 방언

☞ 그는 그 일 때문에 혹독한 댓가를 치뤘다.

치매 : ‘치마’의 방언

☞ 여자들은 늘 치매를 입는다.

치부책 : 돈이나 물건이 들고 나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책.

☞ 외상값은 늘 치부책에 기록했다.

치빼다 : 냅다 달아나다.

☞ 그는 그 여자와 헤지자 치빼다.

치질하다 : ‘키질하다’의 방언

☞ 낱알의 티를 고르기 위해 치질을 했다.

친정아버지 : ‘친정아버지’의 방언

☞ 친정아버지는 집난이에게 아무 말두
하지 않았다.

친정어머이 : ‘친정어머이’의 방언

☞ 친정어머이가 늘 집난이를 걱정했다.

친쟁엄마 : ‘친쟁엄마’의 방언

☞ 친쟁엄마는 하루두 발 뻘구 못 자.

칠멘조 : ‘칠면조’의 방언

☞ 칠멘조는 귀한 손님 오면 잡아.

칠십너이 : 숫자 ‘일흔넷’의 방언

☞ 칠십서이 칠십너이 칠십다서

칠십여들비 : 숫자 ‘일흔여덟’의 방언

☞ 칠십다서 칠십여들비 칠십아홉

칠쟁이(칠성고기) : ① ‘칠성장어’의 방
언

② 칠성장어과의 물고기. 성어의 몸길
이는 63cm 정도로 뱀장어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등 쪽은 연푸른 갈색에, 배는
흰색이고, 아가미구멍은 일곱 쌍이다.

☞ 북천 칠쟁이가 다 어디 갔는지 몰르겠어.

칭구 : ‘친구’의 방언

☞ 그 칭구는 오래 전에 고향을 떠났지.

칼도매 : ‘칼도마’의 방언

☞ 요리할 때는 칼도매가 있어야 돼.

칼재비 : ‘칼잡이’의 방언

☞ 칼재비는 솜씨가 있어야 돼.

칼치 : ① ‘갈치’의 방언

② 갈치과의 바닷물고기.

☞ 칼치가 칼치 꼬리 문다.

커리 : ① 단위 ‘결레’의 방언

② 신, 양말, 버선, 방망이 따위의 짝이
되는 두 개를 한 벌로 세는 단위.

☞ 신발 한 커리를 몰래 숨겨 두었다.

케다 : ‘켜다’의 방언

☞ 어두우니까 방에 불을 케라.

케조 : ‘켜주세요’의 방언

☞ 텔레비 좀 케조.

코강기 : ‘코감기’의 방언

☞ 환절기에는 코강기가 유행이야.

코고리 : ‘코골이’의 방언

☞ 코고리하른 집안 식구들의 괴루와.

코다리 : 반건조 시킨 명태.

☞ 코다리 인기는 날로 좋아지고 있다.

코뚜래미 : ① ‘코뚜레’의 방언

② 소의 코청을 꿰뚫어 끼는 나무 고
리.

☞ 코뚜래미를 하지않으른 소가 막 나댄다.

코망내이 : ‘코맹맹이’의 방언

☞ 코강기 때문에 코망내이 소리가 난다.

코빼기 : ‘코’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일이 끝날 때까지 가는 코빼기도 보이
지 않았다.

코쟁이 : ‘서양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양키를 코쟁이라구 했다.

코풀래기 : ‘코흘리개’의 방언

☞ 코를 질질 흘리구 다닌다구 해서 코풀
래기라구 별명을 지었다.

콧구녕 : ‘콧구멍’의 방언

☞ 그의콧구녕은비가 오른 고인따구 솟았다.

콧댕이 : ‘콧등’의 방언

☞ 그는 콧댕이가 높아 주변에 사람이 없다.

콧방구 : ‘콧방귀’의 방언

☞ 같잖다는 뜻이 콧방구를 뀌었다.

콩콩하다 : ① ‘콩콩하다’의 방언

② 곰삭은 생선이나 해산물 따위의 냄새와 같다.

☞ 콩콩한 냄새가 집안 가득하구나.

콩밥 : 죄수의 밥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가막소에 가른 콩밥 먹는다구 했다.

쾌쾌묵다 : ‘케케묵다’의 방언

☞ 가는 집에서 쾌쾌묵은 책을 꺼내 왔다.

팽새 : ‘팽과리’의 방언

☞ 팽수는 팽새를 들구 돌아다.

쿠령 : ① ‘구령’의 방언

② 움푹하게 파인 땅.

☞ 그 쿠령에 몽땅 파묻어.

kun내 : ‘쿠린내’의 방언

☞ 풍은 건드릴수록 kun내만 난다.

kun내난다(쿨래난다) : ‘구린내난다’의 방언

☞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kun내난다.

큰님 : ‘천연두’를 특별한 병으로 이르는 말.

☞ 큰님이 와서 조캐들이 고상했다.

큰물 : ① ‘홍수’의 방언

②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불은 물.

☞ 지난여름 큰물루 동네사람들이 고상했다.

큰아번님 : ① ‘백부’의 방언

②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을 이르는 말.

☞ 큰아번님은 일찍 돌아가셨지.

큰아부지 : ① ‘백부’의 방언

②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을 이르는 말.

☞ 큰아부지는 집안에 어른이야.

큼지막큼한 : ‘큼지막한’의 방언

☞ 큼지막큼한 글씨가 더 잘 보여.

타래미 : ① ‘두름’의 방언

② 물고기를 세는 단위로 20마리 단위.

☞ 앵미리를 타래미루 샀대.

타합 : ‘타협’의 방언

☞ 그 일은 서루 잘 타합해서 처리해.

탁 깨놓구 : ‘탁 까놓고’의 방언

☞ 탁 깨놓구 얘기하든 말이 안 돼.

탁배기 : ‘막걸리’의 비표준어

☞ 마른 안주에 탁배기 한 잔이든 족하다구 했어.

탕끼 : 탕 담는 그릇을 이르는 방언

☞ 얼렁 탕끼가 들우와야 돼.

태국기 : ‘태극기’의 비표준어

☞ 집집마당 태국기를 달아야 돼.

택 : ‘턱’의 방언

☞ 일만 잘 되든 그가 한 택 낸다구 했어.

택거리 : ① ‘불거리’의 방언

② ‘유행성 이하선염’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 사람마다 다르지만 멘액이 약한 사람은 택거리를 한대.

택두없다: ① ‘턱도 없다’의 방언

② 마땅히 그리하여야 할 까닭이나 이치가 아니다.

☞ 그에게 그런 일은 택두 없는 얘기야.

택수가리(택주가리): ① ‘턱주가리’의 방언

② ‘아래턱’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넘어지면서 택수가리에 상체기가 났대.

택택하다: 실속 있게 넉넉하다.

☞ 그는 보기보담 택택하게 살구 있대.

텃돌: ① ‘개상’의 방언

② 텃단을 메어쳐서 이삭을 떨어내는 데 쓰던 농기구.

☞ 엔날에는 텃돌에 곡식을 털었어.

털기: ① ‘털게’의 방언

② 털겉과의 절지동물.

☞ 털기는 살이 많구 맛두 있다.

토면(토멘): ‘메밀국수’의 방언

☞ 아버지는 한겨울 늦은 밤 토면을 시켰어.

토배기: ① ‘토박이’의 방언

②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

☞ 가는 여기서 나구 자란 토배기야.

통털어: ‘통틀어’의 방언

☞ 동네를 통털어 제일 나이 많은 분이야.

퇴끼: ‘토끼’의 방언

☞ 가는 퇴끼 잡으레다 잡은 퇴끼 놓친다야.

퇴침: ① ‘목침’의 방언

②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

☞ 노인네는 퇴침을 베구 낮잠을 주무셨어.

투데기: ① ‘누더기’의 방언

② 누덕누덕 기운 헌 옷.

☞ 그는 늘 투데기를 걸치구 다녔어.

통가리낭그: ① ‘청미래덩굴’의 방언

② 백합과의 낙엽 활엽 덩굴성 관목. 줄기는 마디마디 굽으면서 2~3m 자라고 가시가 있다.

☞ 예전에는 통가리낭그가 흔했었어.

통갈낭그: ① ‘청미래덩굴’의 방언

② 백합과의 낙엽 활엽 덩굴성 관목. 줄기는 마디마디 굽으면서 2~3m 자라고 가시가 있다.

☞ 통갈낭그는 들에 가른 흔히 보는 낭그야.

통거리: ① ‘뚝배기’의 방언

②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 짐치찌개를 통거리에 담아야 맛있어.

통쇠: ① ‘통소’의 방언

② 가는 대로 만든 목관 악기.

☞ 저물녘 통쇠 소리가 처량하다.

통수: ① ‘통소’의 방언

② 가는 대로 만든 목관 악기.

☞ 통수는 우리 전통목관악기야.

통자: ‘통’의 방언

☞ 그 가게에는 막거리 통자가 얼마나 있나?

팅기다: ‘튀기다’의 방언

☞ 닭 텅게서 맥주랑 함께 마시는 금상첨화지.

트름: ① ‘트림’의 방언

② 먹은 음식이 위에서 잘 소화되지 아니하여서 생긴 가스가 입으로 복받쳐 나옴. 또는 그 가스.

☞ 속이 더부룩할 때는 트름을 하든 좋대.

틀어 고치다: ‘뜯어 고치다’의 방언

☞ 맘에 들지 않는 모양은 몽땅 틀어 고여.

틀어 말리다: ‘뜯어 말리다’의 방언

☞ 덩불싸움을 일일이 틀어 말렸다.

틀리다: ① ‘다르다’의 방언

②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 그 집과 이 집은 서로 틀리대.

툼바구: ‘툼바귀’의 방언

☞ 사람과 사람 툼바구에 끼어 넣었어.

툼바구니: ‘툼’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사장과 부사장 툼바구니에서 고상했지.

티각태각: ① ‘티격태격’의 방언

②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이리저리니 시비를 따지며 가리는 모양.

☞ 그 형제는 늘 티각태각하매 지냈어.

티껌다: ‘아니꼽다’의 방언

☞ 그 여자는 그의 건방진 행동에 티껌다구 했지.

티미하다: ① ‘투미하다’의 방언

② ‘흐리멍텅하다’를 이르는 말.

☞ 그 친구는 늘 티미하다구 숭 봤어.

파멘: ‘파면(罷免)’의 방언

☞ 가는 결국 직장에서 파멘 됐대.

파토: ① ‘파투’의 방언

② 일이 잘못되어 흐지부지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그 일이 심들어서 파토를 놓구 말았어.

판대기: ‘넌빤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그 바닥에 판대기를 깔기루 했대.

팔재: ① ‘팔자’의 방언

② 사람이 한평생의 운수. 사주팔자에서 유래한 말.

☞ 그 사람 팔재는 박 팔재라구 했지.

팔춘: ① ‘팔촌’의 방언

☞ 그 놈은 사돈에 팔춘까지 팔았어.

팡개치다: ‘팡개치다’의 방언

☞ 곤란해지자 일을 팡개치구 내뻘어.

패다(폐다): ‘퍼다’의 방언

☞ 구부러진 철판을 다시 패어.

패리다(패랬다): ‘야위다’의 방언

☞ 아재비는 아픈지 너무 패랬다야.

패이다: ‘파이다’의 방언

☞ 비루 인해 질이 많이 패였어.

팬팡하다: ① ‘편팡하다’의 방언

② 넓고 평평하다.

☞ 그 바닥이 비교적 팬팡하대.

퍼대기: ① ‘포대기’의 방언

②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 덮고 깔거나 어린아이를 업을 때 쓴다.

☞ 애기를 업으레는 퍼대기가 있어야 돼.

퍼드레기: 갓이 너무 벌어져 팔기 어려운 버섯.

☞ 비싼 정품보다 퍼드레기가 더 먹기 좋대.

퍼떡: ① ‘퍼뜩’의 방언

② 어떤 생각이 갑자기 아주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모양.

☞ 그 일이 벌어지자 퍼떡 그 생각이 떠올랐지.

페다: ① ‘퍼다’의 방언

② 굽은 것을 곧게 하다. 또는 움츠리거나 구부리거나 오므라든 것을 벌린다.

☞ 그는 구부러진 철판을 망치루 살살 폈다.

페봐: ‘퍼봐’의 방언

☞ 손에 들고 있던 패를 보더니 상대펜에게 '페봐'라구 말했지.

펜가르다 : '편가르다'의 방언

☞ 같은 펜끼리 펜가르기 하는 거는 옳지 않아.

펜들다 : '편들다'의 방언

☞ 엄마는 아들래미를 펜들구 아버지는 딸 내미 펜을 들었지.

펜지 : '편지'의 방언

☞ 군대 있을 때 서루 펜지를 주구 받았어.

펜찮다 : '편찮다'의 방언

☞ 할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펜찮았다.

펜파적 : '편파적'의 방언

☞ 그런 일은 펜파적인 생각이야.

펜하다 : '편하다'의 방언

☞ 그대루 놔두는 것이 외레 펜하대.

펠쳐봐 : '펼쳐봐'의 방언

☞ 섰다판에서 먼저 '펠쳐봐'라구 소리쳤어.

평가 : '평가'의 방언

☞ 사람들은 그를 관찮은 인물이라구 평가했지.

평넌작 : ① '평년작'의 방언

② 풍작도 흉작도 아닌 보통 정도로 된 농사. 지난 5년 가운데 수확량이 가장 높았던 해와 가장 낮았던 해를 뺀, 나머지 3년간의 평균 수확량.

☞ 올해 작황은 완존 평넌작이야.

평상 : ① '평상'의 방언

② 나무로 만든 침상의 하나. 밖에다 내어 앉거나 드러누워 쉴 수 있도록 만든 것.

☞ 여름 마당에 평상을 깔구 누우른 시언 하지.

평생 : '평생'의 방언

☞ 밤낮없이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펑지 : '핑지'의 방언

☞ 펑지에는 그 구르마가 잘 달린다.

펑판 : ① '평판'의 방언

② 세상 사람들의 비평.

☞ 그는 근동에서는 펑판이 좋은 사람이야.

펑풍 : '병풍(屏風)'의 방언

☞ 산이 펑풍처럼 둘러져 있어.

포두 : '포도'의 방언

☞ 여긴 포두가 잘 안 되는 펜이야.

포락 : ① '홍수'의 방언

②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불은 물.

☞ 지난 장마 포락으로 개울이 떠내레갔어.

폭팔물 : '폭발물'의 방언

☞ 애들이 폭팔물을 잘못 건드레 사고났어.

표시 : '표시'의 방언

☞ 집에서 그 표시를 보구 돌아섰어.

표두락지(표돌가지) : ① '종기(부스럼)'의 방언

② 피부의 털구멍 따위로 화농성균이 들어가서 생기는염증.

☞ 목덜미 표두락지가 아프다.

푸르딩딩 : ① '푸르덴딩'의 방언

② 고르지 않게 푸르스름하다.

☞ 명자

푸성구 : ① '푸성귀'의 방언

② 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당뇨환자는 푸성구를 마이 먹어야 된대.

푸장 : ① '포장' '천막'의 방언

② 햇빛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 그 행사를 위해 질가에 푸장을 쳤어.

푼수대가리 : ① '푼수'의 방언

②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속되게 이르는 말.

☞ 그를 푼수대가리라고 숭 봤지.

풀라구: ‘풀려고’의 방언

☞ 그 문제는 그렇게 풀라구 말해.

풀매다: ‘김매다’의 방언

☞ 논밭을 오가다 간간이 풀을 맺어.

풀미: ① ‘풀무’의 방언

②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 불을 피울 때 풀미의 도움을 받으든 펜 하지.

풀미독: ① ‘풀무’의 방언

②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 갯바치에 풀미독은 있으나마나야.

풀미풀미: ① ‘부라부라’의 방언

② 어린아이에게 두 다리를 번갈아 오르내리도록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 우리 애기 풀미풀미, 잘두 한다.

풀비: ① ‘귀얄’의 방언

② 풀이나 옷을 칠할 때에 쓰는 솔의 하나.

☞ 되배할 때 풀비가 좋아야 풀칠하기 좋대.

풀썰: ‘풀숲’의 방언

☞ 풀썰에서 산새소리가 들레온다야.

풀솔: ① ‘귀얄’의 방언

② 풀이나 옷을 칠할 때에 쓰는 솔의 하나.

☞ 되배를 하자면 풀솔이 있어야 돼.

풀썩: ‘불썩’의 방언

☞ 그는 가만히 듣다가 풀썩 말을 던져.

풀종우(풀종이): ‘비닐봉지’ ‘비닐’의 방언

☞ 사괴 몇 개 담게 풀종우 한 개 쥐.

품곤: ① ‘눔’의 방언

② 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을 하는 품팔이 일꾼. 또는 그 일꾼을 부리는 일.

☞ 오늘 밭일 하자면 품꾼이 몇이든 돼.

품다: ‘뿔다’의 방언

☞ 풀 먹인 천이 너무 마르면 물을 품어야 된대.

품팔이꾼: ① ‘눔’의 방언

② 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을 하는 품팔이 일꾼. 또는 그 일꾼을 부리는 일.

☞ 농한기에는 품팔이꾼으로 팔레 다네.

풋배: ① ‘풋벼’의 방언

② 아직 여물지 아니한 벼.

☞ 풋배는 상가 여물지 않은 벼를 말한대.

풋사괴: ① ‘풋사과’의 방언

② 아직 여물지 아니한 사과.

☞ 풋사과는 시구롭다야.

풍구: ① ‘풀무’의 방언

②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 불을 지필 때는 풍구가 있으면 좋지.

풍덩하다: 옷 따위가 매우 넉넉하다.

☞ 그 옷이 풍덩해서 펜하구 좋구나.

풍수쟁이: ‘지관’을 속되게 이르는 말.

☞ 풍수쟁이는 집자리나 산자리를 본다.

풍신할머니: ① ‘영등할머니’의 방언

② 음력 2월 초하룻날인 영등날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할머니. 집집마다 다니면서 농촌의 실정을 조사하고 2월 스무날에 하늘로 올라가는데, 바람을 다스린다고 한다.

☞ 풍신할머니 덕분에 애들이 건강하게 자랐다.

풍지박산 : ① ‘풍비박산’의 방언

②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 그 사고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

피대기 : 반건조 오징어를 이르는 말.

☞ 오징어는 피대기 인기가 좋대.

피래미 : ① ‘피라미’의 방언

② 잉엇과의 민물고기

③ 하찮은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피라미는 고기 취급두 못 받았어.

피레침 : ① ‘피뢰침’의 방언

② 벼락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끝이 뾰족한 금속제의 막대기.

☞ 벼락을 피하레는 피레침을 꽂아야 돼.

피마주 : ① ‘피마자’의 방언

② 대극과의 한해살이풀과 열매. 높이는 2미터 정도, 잎은 어긋나고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진다.

☞ 배가 아플 때는 피마주 지름이 짝빵이 있어.

피박(피백) : ① ‘폐백(幣帛)’의 방언

②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뵈 때 큰 절하고 올리는 물건.

☞ 예식이 끝나른 시집식구들한테 피박을 하지.

피보다 : 크게 봉변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다.

☞ 그 놈들과 싸움이 붙어 완존 피봤다.

피투개비 : ① ‘피투성이’의 방언

② 피가 온 군데에 낭자하게 묻은 모양.

☞ 우리 개가 어디서 싸웠는지 피투개비 되서 들어왔어.

핀통아리주다 : ‘핀잔주다’의 방언

☞ 일을 그르친 그에게 핀통아리를 주었어.



하가라 : ‘하느라’의 방언

☞ 오늘 마당이 하가라 옥 봤수.

하구습다 : ‘하고 싶다’의 방언

☞ 멀리 외국으루 여행하구 습다.

하기사 : ① ‘하기야’의 방언

② ‘실상 적당히 말하자면’의 뜻으로, 이미 있었던 일을 긍정하며 아래에 어떤 조건을 붙일 때 쓰는 접속 부사.

☞ 하기사 그 일 때문에 고개를 들수 없을 게야.

하까 : ‘할까’의 방언

☞ 그럼에도 가가 그런 얘기하까?

하나두 : ‘하나도’의 방언

☞ 사람들과 함께여서 하나두 무섭지 않아.

하내 : 숫자 ‘하나’의 방언

☞ 하내 둘 서이 너이 다서

하눌 : ‘하늘’의 방언

☞ 하눌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녕이 있지.

하느바람 : ① ‘하늬바람’의 방언

② 서쪽에서 부는 바람. 주로 농촌이나 어촌에서 이르는 말이다.

☞ 하느바람에 베가 잘 마른대.

하두 : ① ‘하도’의 방언

② ‘하’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하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했다.

하두룩 : ‘하도룩’의 방언

☞ 그는 이렇게 하두룩 내버레 두었어.

하루아침 : ‘하루아침’의 방언

☞ 하루 아침에 집안이 망했대.

하마(하머) : ‘벌써’의 방언

☞ 계속 내다봤지만 가는 하마 여길 떠났다.

하마트른(하마트면) : ① ‘하마터면’의 방언

② 조금만 잘못하였더라면, 위험한 상황을 겨우 벗어났을 때 쓰는 말이다.

☞ 하마트른 가는 여기서 붙잡힐 뻔 했어.

하믄 : ‘하면’의 방언

☞ 그렇게 하믄 다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민서 : ‘하면서’의 방언

☞ 그렇게 열심히 하민서 옥을 먹었다.

하시우 : ‘하시오’ ‘하세요’의 방언

☞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우라구 말했어.

하잘 꺼 없다 : ‘하잘 것 없다’의 방언

☞ 그는 그 일이 하잘 꺼 없는 일이라구 생각했어.

한가우 : ① ‘한가위’의 방언

②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음력 팔월 보름날이다.

☞ 한가우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한게울(한저울) : ‘한겨울’의 방언

☞ 한게울에는 사랑방에 모에서 추렴을 모의하지.

한끈 : ‘한껏’의 방언

☞ 그래 봐야 한끈 닭서리였어.

한뎃날 : ‘바깥날’의 방언

☞ 한뎃날이 여간 추운 게 아니다.

한뎃바람 : ‘바깥바람’의 방언

☞ 한뎃바람이 너무 차서 강기 걸리겠다.

한뎃출입 : ‘바깥출입’의 방언

☞ 한뎃출입을 자제해 주길 원했다.

한대이 : ‘할머니’의 방언

☞ 한대이가 자꾸 보구 싶구 생각나.

한쓰봉 : ① ‘잠방이’의 방언

②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훌바지.

☞ 여름에는 한쓰봉을 입구 다네.

한아기아집 : ‘기와집’의 방언

☞ 그 집은 옛날부터 한아기아집이었어.

한으사 : ‘한의사’의 방언

☞ 그집 아주버이는 한으사였어.

한의원 : ‘한의원’의 방언

☞ 속이 불편하믄 한의원에 가서 침 맞아.

한편 : ‘한편’의 방언

☞ 그는 농사를 짓는 한편 양식장두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지.

할 요량으루 : ‘할 계획으로’의 방언

☞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울 요량으루 바닥정리를 시작했다.

할라구 : ‘하려고’의 방언

☞ 월셋집을 구할라구 일찍 방을 나섰지.

할맹이 : ‘할머니’의 방언

☞ 할맹이는 돌아오지 않는 할방구를 찾아 나섰대.

할대이 : ‘할머니’의 방언

☞ 할대이는 홀로 집을 지키구 있었지.

할멈 : ‘할머니’의 방언

☞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할멈을 찾았다.

할메(할미) : ‘할머니’의 방언

☞ 할메는 손주들이 올 때까지 대문을 쳐다보구 있었어.

할복장 : 물고기의 배를 따는 곳.

☞ 맹태 할복장에 아낙들이 밤을 지냈다.

할아버니(할아버이) : ‘할아버지’의 방언

☞ 할아버이는 손주들 보는 재미루 산대.

할아범 : ‘할아버지’의 방언

☞ 할아범과 할멈은 늘 같이 붙어 있었어.

할아병이 : ‘할아버지’의 방언

☞ 할아병이는 손주들 등상에 하루두 펜 할 날이 없었지.

함박꽃 : ① ‘철쭉꽃’의 방언

② 철쭉나무의 꽃.

☞ 오월이른 함박꽃이 활짝 핀다.

함아비(함애비) : ① ‘함(函)진아비’의 방언

②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함을 지고 가는 사람.

☞ 함아비는 신부집 앞에서 빠졌어.

함갑 : ① ‘환갑’의 방언

②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예순한 살을 이르는 말.

☞ 함갑은 멍함두 못 내민대.

항구 : ① ‘항고’의 방언

② ‘반합(飯盒)’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알루미늄 밥그릇.

☞ 항구에 밥을 싸서 먹는 것두 벨미야.

항꺼번에 : ‘한꺼번에’의 방언.

☞ 항꺼번에 밀레오른 감당하기 어렵다.

해가미 : ‘해가면서’의 방언

☞ 하나씩 해가미 그 일을 풀어가자.

해꼬지 : ① ‘해코지’의 방언

②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 결코 남을 해꼬지 하는 일을 하지마라.

해다 : ① ‘갓난아이’의 방언

②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아이.

☞ 해다는 동네에 꽃이구 희망이야.

해마둥 : ‘해마다’의 방언

☞ 해마둥 연초가 되든 증말 바쁘다.

해방놓다 : ‘훼방놓다’의 방언

☞ 자기두 못할 일을 따라다니며 해방 놓았다.

해인다 : ① ‘이다’의 방언

② 기와나 이엉 따위로 지붕 위를 덮다.

☞ 초개집 지붕을 해이는 것두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해자구리 : ① ‘해바라기’의 방언

②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2m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넓은 달걀 모양인데 가장자리에 굵은 톱니가 있다

☞ 해자구리는 꽃이 둥굴구 크다.

해자우리(해자오리) : ① ‘해바라기’의 방언

②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2m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넓은 달걀 모양인데 가장자리에 굵은 톱니가 있다.

☞ 해자우리는 화가들의 그림 소재루두 많이 채택되었지.

해장우리 : ① ‘해바라기’의 방언

②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2m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넓은 달걀 모양인데 가장자리에 굵은 톱니가 있다.

☞ 해장우리는 꽃두 이쁘지만 씨앗의 효능두 있네.

해지름 : ① ‘해거름’의 방언

②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 해지름에 저녁노을이 환상적이야.

해질물 : ① ‘해거름’의 방언

②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 해질물에 어스름이 서서히 밀레든다.

해태 : ① ‘물개’의 방언

② 물개과의 바다짐승.

☞ 바다에서 해태를 보든 고기들이 도망간다고 그래.

해피랄 : ‘하필’의 방언

☞ 해피랄 오늘 같이 더운 날 일을 할게 뭐람.

핵교 : ‘학교’의 방언

☞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바닷가루 갔어.

햇내기 : 경험이 없어서 일에 서투른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풋내기)

☞ 가는 그 사무실에서 햇내기라고 한대.

햇대 : ① ‘햇대’의 방언

② 옷을 걸 수 있게 만든 막대. 간짓대를 잘라 두 끝에 끈을 매어 벽에 달아매어 둔다.

☞ 햇대에 옷을 잔뜩 걸어두었어.

햇때기(햇때기) : ① ‘햇대’의 방언

② 독중갯과의 싹틔대, 알롱틔대, 빨간틔대, 동갈틔대, 눈통틔대 따위의 어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매운탕 캐리는 햇때기가 좋아.

햇바늘 : ‘햇바늘’의 방언

☞ 햇바늘이 돌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햇바닥 : ‘햇바닥’의 방언

☞ 햇바닥에 햇바늘이 돌아서 고통스럽다.

햇뱅아리 : ‘햇병아리’의 방언

☞ 가는 사무실에서 햇뱅아리였어.

햇거덩 : ‘햇거든’의 방언

☞ 그는 노름을 햇거덩, 그런데 돈을 다 털렸어.

행교 : ① ‘향교’의 방언

② 고려·조선 시대, 지방에 있던 문묘와 그에 속한 관립(官立) 학교.

☞ 행교는 상가두 제례를 지내구 있대.

행긋하다 : ‘향긋하다’의 방언

☞ 이른 봄에는 냉기 향기가 행긋하다.

행기 : ‘향기’의 방언

☞ 꽃 행기에 취해 한 시름을 덜었다.

행나무(행낭구) : ① ‘향나무’의 방언

② 측백나뭇과의 상록 침엽 교목.

높은 20m 정도이며, 잎은 마주하거나

둘러나고 비늘 조각 또는 바늘 모양이다.

☞ 행낭구는 진한 향이 있어.

행상꾼 : ① ‘상여꾼’의 방언

② 상여를 메는 사람.

☞ 요즘은 행상꾼을 볼 수 없지.

행상소리 : ① ‘상여소리’의 방언

②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구슬픈 소리.

☞ 구성진 행상소리 추억이 아련하다.

행상집 : ① ‘곳집’의 방언

② 상여와 그에 딸린 여러 도구를 넣어 두는 초막. 흔히 마을 옆이나 산 밑에 짓는다.

☞ 동네마다 행상집들이 거의 없어졌어.

행상틀 : ① ‘상여(喪輿)’ ‘행상(行喪)’의 방언

② 사람의 시체를 실어서 묘지까지 나르는 도구.

☞ 상가두 행상틀이 있는 동네가 더러 있어.

행우 : ① ‘우렁챙이’ ‘멍게’의 방언

② 우렁챙잇과에 속한 원삭동물. 크기는 보통 어른의 주먹만 하며 겉에 젖꼭지 같은 돌기가 많이 나 있다.

☞ 멍게를 행우라구 했는데 요즘 행우라는 말이 없어졌어.

허구 많다 : ‘하고 많다’의 방언

☞ 허구 많은 사람 중 하필 내가 그 일을 하게 됐을까.

허궁다리 : 허공에 내디딘 다리.

☞ 출렁다리를 허궁다리라고도 해.

허릿바 : ‘허리띠’의 방언

☞ 허릿바가 하두 낡아서 끊어졌다.

허부적거리다 : ‘허우적거리다’의 방언

☞ 바다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다가 물에 쓸려갔다.

허스름하다 : ‘허름하다’의 방언

☞ 그 아이씨 집은 오래돼서 허스름하다.

허예멀겅다 : ① ‘허여멀겅다’의 방언

② 살빛이 탐스럽게 희고 맑다.

☞ 가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얼굴이 허예멀겅다.

허재비 : ① ‘허수아비’의 방언

②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곡식을 해치는 새, 짐승 따위를 막기 위해 막대기와 쥔 따위로 만들어 논밭에 세우는 사람 모양의 물건.

☞ 그는 허재비루 일생을 살았다고 해.

허트러지다 : ① ‘흐트러지다’의 방언

② 옷차림이나 자세 따위가 단정하지 못한 상태가 되다.

☞ 취기가 어느 정도 오르자 그는 자세가 허트러졌어.

허풍쟁이(허풍선이) : 허풍을 잘 떠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뺑을 자주 치니까 사람들은 그를 허풍쟁이라구 했지.

혈었다 : ① ‘날았다’의 방언

② 물건 따위가 오래되어 헐고 너절하게 되다.

☞ 그 집은 관리를 하지 않아 많이 혈었어.

혈뽀하다 : ① ‘혈하다’의 방언

② 값이 싸다.

☞ 서울에서 온 사람이 촌집을 혈뽀하게 샀어.

혈하다 : (값이) ‘싸다’의 방언

☞ 그 값이든 어찌보든 혈하다구 생각한대.

힘잡다 : ‘흠잡다’의 방언

☞ 싸게 사례구 힘 잡았지만 별반 소용이 없었어.

헛판데 : 정한 데나 요긴한 데가 아닌

엉뚱한 데.

☞ 가는 헛판데 가서 알아보구 돌아왔어.

헛물키다 : ① ‘헛물켜다’의 방언

② 애쓴 보람 없이 헛일로 되다.

☞ 가는 일에 기대를 걸었지만 헛물키구 말았어.

헤엄치다 : ‘헤엄치다’의 방언

☞ 가는 물에 빠지만 헤엄쳐서 살아왔대.

헤지다 : ‘헤어지다’의 방언

☞ 그 남자와 여자는 결국 헤졌다.

헤챙이 : ① ‘언챙이’의 방언

② 윗입술이 선천적으로 세로로 갈라진 사람. 또는 그런 입술

☞ 요즘은 주벤에 헤챙이가 별로 없어.

헝가닥 갔다 : ‘잠시 정신을 잃어버렸다’를 낮추어 이르는 말.

☞ 그를 헝가닥간 사람이라구 평가했대.

헨미경(헨미경) : ‘현미경’의 방언

☞ 그걸 헨미경으로 자세히 볼 수 있어.

헛갈래 : ① ‘헛갈려’의 방언

②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다.

☞ 그는 헛갈래서 실수하구 말았어.

헛손질 : ‘헛손질’의 방언

☞ 가는 심이 빠져서 헛손질하기 시작했지.

헝수 : ‘형수’의 방언

☞ 그 집 헝수는 손이 크다구 소문이 났어.

헝펜 : ‘형편’의 방언

☞ 그는 세상 돌아가는 헝펜을 잘 알구 있지.

헝띠 : ① ‘헝대’의 방언

② 가죽으로 만든 띠.

☞ 그는 친구에게 헝띠를 선물루 줬어.

형아 : ‘형’의 방언

☞ 형아는 내 펜이 되어주라.

호녁: ① ‘홍역’의 방언

② 홍역 바이러스가 비말 감염에 의해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

☞ 조개는 어렸을 적에 호녁을 앓다가 숨어.

호닌질: ① ‘혼인길’의 방언

② 혼인할 기회나 자리.

☞ 그 소문이 나면 호닌질이 막힌다.

호래비: ‘홀아비’의 방언

☞ 호래비 사정은 과부가 알아준다.

호래이(호랭이): ‘호랑이’의 방언

☞ 개 호랭이가 물어간 것만큼 시원하대.

호로새끼: ① ‘호래자식’의 방언

② 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어른들은 가를 호로새끼라구 욕했지.

호루래기: ‘호루라기’의 방언

☞ 급할 땐 호루래기를 여러 번 불어라.

호맹이: ① ‘호미’의 방언

②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캐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 밭을 땄 때는 호맹이가 있어야 돼.

호무: ① ‘호미’의 방언

②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캐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 호무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대.

호무씻이: ① ‘호미씻이’의 방언

② 농가에서 농사일, 특히 논매기의 만물을 끝낸 음력 7월쯤 날을 받아 하루를 즐겨 노는 일.

☞ 농부들은 모처럼 날 받아 호무씻이했어.

호무짚구(호무짚기): ‘호미자루’의 방언

☞ 밭일을 마이 해서 호무짚구가 닳았어.

호미씨시미: ① ‘호미씻이’의 방언

② 농가에서 농사일, 특히 논매기의

만물을 끝낸 음력 7월쯤 날을 받아 하루를 즐겨 노는 일.

☞ 호미씨시미를 하는 날은 농부들이 모처럼 쉬는 날이야.

호박씨 까다: 안 그런 척 내숭을 떨다.

☞ 그는 돌아서서 호박씨 까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

호배기: ‘호박’의 방언

☞ 늙은 호배기는 약으로 먹었다.

호야: ‘등(燈)’의 방언

☞ 호야 소지를 해야 불이 밝아.

호역: ① ‘홍역’의 방언

② 홍역 바이러스가 비말 감염에 의해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

☞ 어릴 때 호역을 심하게 앓았어.

혼구녕: ① ‘혼쫄’의 방언

② ‘혼’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혼구녕에 증말 혼이 쏙 빠져.

혼구녕내다(혼구명내다): ‘혼쫄내다’의 방언

☞ 그 말썽꾸레기 놈 다시 그러지 못하게 혼구녕을 냈어.

혼마루: ① ‘혼(魂)’의 방언

② 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정신을 다스린다는 비물질적인 것.

☞ 집에 불이 나자 혼마루가 빠져 나갔다.

혼차(혼차서): ① ‘혼자(혼자서)’의 방언

☞ 가는 혼차서 그 일을 닮았다.

홀거매다: ① ‘홀쳐매다’의 방언

② 풀리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잡아매다.

☞ 괴빠가 풀어지지 않도록 홀거맸다.

홀기다: ① ‘홀치다’의 방언

② 풀리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동여매다.

☞ 끈은 묶을 때 홀게야 풀리지 않는다.

홀망하다: ① ‘혼몽하다’의 방언

② 정신이 흐릿하고 가물가물하다.
☞ 이쁜 여자가 지나가자 그는 홀망해졌다.

홍실 : ① ‘홍시’의 방언
② 물렁하게 잘 익은 감.
☞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실 떨어지길 기다린다.

홍재 : ‘횡재’의 방언
☞ 돼지꿈을 꾸면 홍재한다는 속설이 있다.

홍진 : ‘홍역’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 홍진에 걸리면 고역을 치룬대.

훅쩍대기 : ‘훅쩍대기’의 방언
☞ 훅쩍대기 이불이라두 덮으면 훨씬 낫다.

화 독구다 : ‘화 돋우다’의 방언
☞ 화 독구면 금방이라두 살인날 것 같애.

화루 : ① ‘화로’의 방언
②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
☞ 화루에 적시를 놓고 떡을 구운 맛있다.

화리 : ① ‘화로’의 방언
②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
☞ 화리에 주전자를 올려 따신 물을 먹었어.

화소 : ① ‘황소’의 방언
② 큰 수소.
☞ 그 화소는 등치가 쏙구 심두 췌다.

화토 : ‘화투’의 방언
☞ 노인네들은 화토루 무료한 시간을 보냈어.

화병 : ① ‘화병(火病)’의 방언
② 억울한 마음을 삭이지 못해서 생긴 병. 간의 기능에 장애가 와서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결국 그는 화병으로 죽었어.

황 : 어떤 일을 이루는데 부합되지 아니함.

☞ 일이 틀러지자 모든 게 황이 되구 말았어.

황덕불 : 노숙할 때 맹수를 물리치기 위해 피워 놓은 모닥불.
☞ 한게을 황덕불에 살 찐다구 했다.

황태(黃太) : 얼고 부풀어 더덕처럼 마른 북어. 빗갈이 누르고 살이 연하며 맛이 좋다.

☞ 황태는 누렁구 살이 푸석해야 맛이 달다.

횃대 : ① ‘햇대’의 방언
② 옷을 걸 수 있게 만든 막대. 간짓대를 잘라 두 끝에 끈을 매어 벽에 달아매어 둔다.
☞ 옷을 횃대에 잔뜩 치 걸었어.

후레치다 : ‘후려치다’의 방언
☞ 그는 물건 값을 후레쳤다.

후루레기 : ① ‘목이버섯’의 방언
② 목이과이 버섯. 갓은 지름 2~6cm, 모양이 사람의 귀와 비슷한데 무리를 지어 산다.
☞ 후루레기는 물에 불귀 볶으면 벨맛이야.

후루매기 : ① ‘두루마기’의 방언
② 외투처럼 생긴, 겹옷 위에 입는 우리나라 고유의 옷.
☞ 한복 정장은 후루매기를 겹쳐야 돼.

후줄그레하다 : ① ‘후줄근하다’의 방언
② 옷이나 종이 따위가 약간 젖거나 풀기가 빠져 아주 보기 흉하게 축 늘어져 있다.
☞ 그 물결이 증말 후줄그레하다.

후치 : ① ‘극쟁이’의 방언
② 땅을 가는데 쓰는 농기구. 쟁기와 비슷하나 쟁기솔이 곧게 내려가고 보습끝이 무디다.

☞ 요즘 농촌에도 후치보기 심들다.

홀레볶다 : 몹시 급하게 재촉하거나 몰아치다.

☞ 가는 일할 때마당 늘 홀레볶기만 해.

홀섞다 : ① ‘뒤섞다’의 방언

② 물건 따위를 한데 그러모아 마구 섞다.

☞ 고르게 할레른 통을 홀서개야 돼.

홀체보다 : ‘흠쳐보다’의 방언

☞ 그짓개리를 몰래 홀체보다가 딱 걸렸
다.

휘갈리다 : ① ‘휘갈기다’의 방언

② 붓 따위를 휘둘러 글씨를 함부로 마구 쓰다.

☞ 그는 붓을 들자마자 능숙하게 휘갈렸
다.

휘섞다 : ① ‘뒤섞다’의 방언

② 물건 따위를 한데 그러모아 마구 섞다.

☞ 복권을 추천할 때는 통 속을 휘섞었다.

흥칙스럽다 : ① ‘흥측스럽다’의 방언

② 몹시 흉악한 데가 있다.

☞ 화상 입은 가 얼굴은 흥칙스럽다.

흐리멍텅하다 : ① ‘흐리멍덩하다’의 방언

② 정신이 맑지 못하고 흐리다.

☞ 밤을 꼬박 지냈더니 정신이 흐리멍텅해
졌다.

흐트레뜨리다 : ① ‘흐트러뜨리다’의 방언

② 여러 가닥으로 흩어져 이리저리 얹히게 하다.

☞ 그 놈들은 방안을 엉망진창으로 흐트레뜨렸다.

흑손 : ① ‘흠손’의 방언

② 흠일을 할 때, 이긴 흠이나 시멘트 따위를 떠서 바르고 그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연장.

☞ 미장의 마지막 부분은 흑손이 마무리
한다.

흔디 : ① ‘부스럼’의 방언

② 피부에 나는 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상처가 오래 되든 흔디만 남는다.

흔디딱지 : 헨데나 상처에서 피, 고름, 진물 따위가 나와 말라붙어 생긴 껍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상처가 아물어 흔디딱지가 앉았다.

흠뜯다 : ① ‘혈뜯다’의 방언

② 남을 해치려고 혈거나 해쳐서 말하다.

☞ 그는 남을 이유 없이 흠뜯었어.

흠구멍이 : ‘흠구덩이’의 방언

☞ 흠구멍이 재갈을 넣어 매웠지.

흠데미 : ‘흠데미’의 방언

☞ 흠데미를 실어다가 밭에 옹갸다.

흠뽕테기 : ‘흠뽕터기’의 방언

☞ 흠뽕테기를 쇠시랑으두 부세 고르기 시작했다.

흠칼 : ① ‘흠손’의 방언

② 흠일을 할 때, 이긴 흠이나 시멘트 따위를 떠서 바르고 그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연장.

☞ 흠칼은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어.

흥겹 : ‘형겅’의 방언

☞ 고깔 뒤의 군 흥겹이라는 속담이 있다.

흥창망창 : ‘흥청망청’의 방언

☞ 가는 늘 씹이기가 흥창망창이야.

희안하다 : ① ‘희한하다’의 방언

②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

☞ 그게 그렇게 되는 게 희안하대.

히끔히끔 : ‘힐끔힐끔’의 방언

☞ 가는 떠나면서 히끔히끔 돌아봤어.

히딱 까무러치다 : ‘졸도’의 방언

☞ 그 얘기를 듣자마자 히딱 까무러다.

히떡(히딱) : ① ‘히뚝’의 방언

② 언뜻 휘돌아보는 모양.

☞ 그 말을 듣는 순간 히떡 돌아봤다.

히주구레하다 : ① ‘후줄근하다’의 방언

② 몹시 지치고 고단하여 몸이 축 늘어질 정도로 아주 힘이 없다.

☞ 그가 맨트 옷이 히주구레하다.

히프다 : ① ‘헤프다’의 방언

② 쓰는 물건이 쉽게 닳거나 빨리 없어지는 듯하다.

③ 물건이 돈 따위를 아끼지 아니하고 함부로 쓰는 버릇이 있다.

☞ 가매가 많으른 모든 게 히프다.

히히덕거리다 : ① ‘시시덕거리다’의 방언

② 실없이 웃으면서 조금 큰 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다.

☞ 그들은 지들끼리 히히덕거렸다.

힌다리 : ‘넓적다리’의 방언

☞ 그 여자의 종아리를 꺾어 올리자 힌다리가 보였다.

자료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전라북도 방언사전 전라북도청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낱말 편집부

주요어휘용례 국립국어원

순화어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 용례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 용례 국립국어원

국어생활백서 김홍석 | 역락

관련규범해설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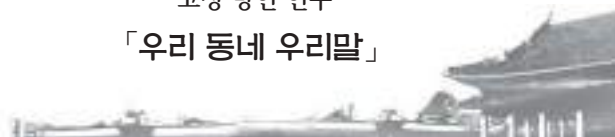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예술경영지원센터



참고문헌 및 자료

- 『고성군지(高城郡誌)』 p333~p365, 고성군(김무림 저), 2020
- 『강원도 영동지역의 방언』, 박성종 저, 2008, 제이앤씨
- 「토속적인 우리 말(사투리) 조사서」, 고성문화포럼, 2009
- 『강원의 사투리』 영동지역, 김옥영 저, 강원학연구센터, 2022
- 『조선언어지리학시고』, 김병제 저, 탑출판사, 1988
- 『국어음운체계(國語音韻體系)의 연구』, 김완진 저, 일조각, 1971
- 『국어음운사연구(國語音韻史研究)』, 이기문 저, 탑출판사, 1972
- 『생성음운론(生成音韻論)』, 전상범 저, 탑출판사, 1977
-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이병근 저, 탑출판사, 1979
- 『국어음운론(國語音韻論)』, 이기문·김진우·이상억 저, 학연사, 1984
- 『양양 방언사전』, 양양문화원, 2021

고성 방언 연구
「우리 동네 우리말」



초판인쇄 2024년 8월 13일
초판발행 2024년 8월 13일

저 자 이선국
발행인 윤영락 고성문화원장
발행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문화원 고성학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7)
033) 681-2922

펴낸곳 잇츠(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 15)

(비매품) 이 책자는 고성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